제주학연구 44

재일제주인 1세 구술 생애사 연구

김 보 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1900년대 초부터 제주 출신의 사람들도 일본 오사카(大阪)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진출하였습니다. 물론 일본 공장에서의 적극적인 직공 모집의 영향도 있었는데, 1911년 셋쓰(攝津) 방적 기즈가와(木津川), 1914년 도요(東洋) 방적 산켄카(三軒家)를 비롯한 오사카와 규슈(九州)의 여러 공장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해 직접 제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와 그 주변 농촌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지만 거의 이 시기부터 근대 공업 노동자로서 제주 사람들의 일본 도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후 제주도민의 일본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일본 땅으로 간 재일제주인 1세의 생활상 전반에 대해 살피기 위해, 제주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이쿠노쿠를 방문하여 심층면접 방법으로 제보자와 연구대상자를 찾아다니며 생애사와 관련한 이주 배경이나 이주 과정, 정착, 현지 적응과정, 생활문화, 노년생활 등을 조사했습니다.

현재는 해방을 전후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들의 일본국적 취득으로 제주식의 생활 문화 풍속은 많은 부분에서 현지화되고 재일제주인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전반적인 생활상이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생애사 자료는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일제주인 2세나 자신의 뿌리를 잊어가는 3세, 4세 등 이민 후세들에게 전할 '실체화된 기억'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재일제주인에 관한 문헌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이 시기의 시대상에 대한 자료공백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앞으로 중앙 위주의 현대사 연구에 가려졌던 제주의 근대사, 개인의 생활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차후 재일제주인 관련 후속연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 찾아가 제주인들의 이국땅에서 흘려야 했던 눈물과 땀방을에 동감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1. 서론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해방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사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을 통해 일본으로 이주한 배경과 과정, 일본 사회에 정착 과정을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재일제주인과 제주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재일제주인 사회의 언어와 생활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재일제주인 사회 공동체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또한 제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에 대한 재일제주인의 시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자료는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일제주인 2세, 자신의 뿌리를 잊어가는 3세, 4세 등 이민 후세에게 전할 '실체화된 기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자료는 해방 전후에 일본으로 이주했던 재일제주인에 관한 문헌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시기의 시대 상황에 대한 자료의 공백을 보완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 위주의 현대사 연구에 가려졌던 제주사, 제주 사람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술 생애사 자료 자체가 제주의 근현대사, 한국과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이다.

2. 연구 방법

○ 재일제주인의 1세의 생활 전반에 대해 살피기 위해 제보자를 선정하

여 심층 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재일제주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이쿠노쿠를 방문하여 연구 대상자를 찾아다니며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면접은 일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보자의 집과 근처의 찻집과 공원에서, 사전에 준비한 생애사 면접 조사 질문지에 따라 질문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면접 조사 내용은 전부 채록하였고 채록한 자료는 발화한 언어를 그대로 살려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사 자료의 일부는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표준어(또는 한국어)로 대역하고 '생애사 구술' 자료로 제시하였다.

3. 생애사 구술

1) 이주의 배경과 과정

○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많은 제주 사람들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제주로 돌아왔다. 그런데 해방이 곧 안정된 사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돌아왔지만 제주에는 할 일이 없었다. 이는 해방 후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다. 때문에 귀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려 했다. 1946년 이후 정식적으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려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밀항'은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방법이었다.

○ 일본은 한국 전쟁과 맞물려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면서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맞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같은 시기 한국도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일을 찾아 이농 현상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공장 등의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인구가 몰렸는데 이때, 제주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같은 마을 지인들에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나 가계 파탄으로 등을 이유로 일본을 피난처 삼아 밀항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2) 일본 사회에 정착 과정

○ 단속의 눈을 피해 어렵게 일본에 도착했다 해도 바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낯선 땅이었다. 친척이나 가족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일자리를 찾고 숙소를 마련하고 생활 도구를 마련하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

○ 오사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는 고무 제조, 플라스틱 제조, 봉제업, 신발 제조업, 금속 제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신발 제조업은 중소영세 공장에 의한 분업 체제로 이루어졌다. 신발을 만드는 일에서 마지막 단계는 재단된 재료를 신발 틀에 맞추어 풀로 붙이는 일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리꼬'라고 불렀다. 많은 재일제주인 여성들이 이 일에 종사하였다.

○ 밀항자 신분으로 정식적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재일제주인에게 '다노모시'는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다. 밀항자의 신분이 아니더라고 다노모시는 당시 재일제주인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3) 이민 사회에서의 생활 문화

○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제주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국땅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 이쿠노쿠 조선시장 주변에서는 제줏말로 소통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의 향토 음식이 있었고 제주의 전통 문화가 이어오고 있었다. 이주하여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주 사람들은 점차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간다. 일본어를 익혀 사용하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조선시장 주변은 제주의 문화와 일본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 재일제주인은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친척은 물론 같은 고향 사람들까지 모여 제주말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달래기도 했다. 일본이라는 이국땅에서 지내는 장례였지만 제주의 음식이 올라왔고 유교식 제사를 지냈다. 심방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였다.

○ 재일제주인은 일본이라는 이국의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지내기 위해 마을을 단위로 다양한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주기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4) 자녀의 성장과 노년 생활

○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야 했다. 자녀들의 경우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한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밀항자의 신분으로 생활에 제약이 있었던 이민 1세들의 바람은 자녀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재일제주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 실제 대부분의 1세들은 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 고향으로의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민족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자녀에게까지 이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받기보다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적을 선택하고 있다.

4. 구술을 통해 살펴본 재일제주인

1) 재일제주인의 언어와 생활 문화의 특성

○ 제주 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모여 살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국땅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 이쿠노쿠에는 제주의 향토 음식이 있었고 제주의 전통 문화가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제주 방언으로 소통이 가능했다.

○ 하지만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주 후 시간이 길어지고 세대가 변하면서 제주식의 생활 문화 풍속은 많은 부분에서 현지화되고 재일제주인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2) 재일제주인 공동체의 특성과 변화

○ 재일제주인은 '육지 사람'과 구별되는 '제주 사람들'만의 독특한 일체감으로 이민 사회에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였다. 이주 초기부터 혈연·지연을 중심으로 한 집단 거주로 일본 안에 작은 제주가 만들어졌고, 끊이지 않고 밀항으로 건너온 제주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재일제주인 사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제주 사람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재일제주인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혈연, 지연으로 맺어진 조직이 많다. 종친회, 마을 친목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 준다.

○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 변화는 이러한 '만남의 장'이 해체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모임의 주체였던 초기 이민 세대인 재일제주인 1세들이 고령화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교체와 함께 재일제주인의 공동체는 점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동체의 해체와 재일제주인 사회의 고령화와 정체성의 변화는 현재 재일제주인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이다.

3)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재일제주인 공동체의 해체에 기인한 것이다. 재일제주인 사회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 공동체를 통해 고향의 친척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며 재일제주인 사회가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었으며 고향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중심적 주체가 되었던 것은 이주 초기 1세들이다. 이민 사회의 세대가 교체하면서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고 공동체의 해체는 재일제주인 사회의 변화,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 가족과 친족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연결고리의 분리 또한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재일제주인에게 가족과 친족은 제주도와 일본을 잇는 제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이다. 그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는 고향의 가족이나 친족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 공동체의 해체와 세대 변화에 따른 재일제주인 사회의 고령화와 정체성의 변화는 현재 재일제주인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이다. 재일제주인 사회는 차세대의 정체성 약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의 저하 등으로 제주와 경제, 사회적 교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양측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관계 설정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 재일제주인 '역사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세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가운데 2세의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재일제주인의 자료 수집은, 구술을 통해 전해져야 할 경험과 기억이 빠르게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시급한 문제이다. 자료 수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연구 개요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2
3. 연구 내용 ····· 3
4. 연구의 기대 효과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 배경 ····· 5
2. 선행 연구 검토 ····· 9

Ⅲ. 연구 방법 ····· 12

1. 구술사 연구 ····· 13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14
3. 연구 대상 ····· 16

Ⅳ. 생애사 구술 ····· 20

1. 이주의 배경과 과정 ····· 20
2. 일본 사회에 정착 과정 ····· 41
3. 이민 사회에서의 생활 문화와 고향과의 교류 ····· 58
4. 자녀의 성장과 노년 생활 ····· 80

Ⅴ. 구술을 통해 살펴본 재일제주인 사회 ····· 88

1. 재일제주인의 언어와 생활 문화의 특성 ····· 88
2. 재일제주인 공동체의 특성과 변화 ····· 90
3.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 ····· 91

Ⅵ. 결론 ····· 93

참고문헌 ····· 95

ABSTRACT ····· 98

<부록> 구술 전사 자료 ····· 100
김영희 구술 ····· 100
임순애 구술 ····· 146
장수종 구술 ····· 194
조옥선 구술 ····· 240

<표 차례>

<표 1> 질문지 구성 ····· 15
<표 2> 제보자 정보 ····· 16

Ⅰ.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해방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사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을 통해 일본으로 이주한 배경과 과정, 일본 사회에 정착 과정을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재일제주인과 제주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재일제주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제주와 오사카 사이에서 이들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사건에 주목하게 되지만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재일제주인 1세의 생애사 연구로 생애 전반에 걸친 구술을 통해 이민 사회에서 1세들이 살아온 과정을 엿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재일제주인 사회의 언어와 생활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공동체적 특징과 변화 양상을 들여다보겠다. 또한 제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에 대한 재일제주인의 시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또한 이 연구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재일제주인 1세의 언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령기를 제주에서 보내고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는 제주방언 화자다. 표준어와의 접촉으로 변화하고 사라져 가는 제주방언을 해외 이민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들이 구사하는 제주방언은 변화하기 이전의 방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세의 구술을 통해 그들의 언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라져 가는 방언을 채록하여 기록하고 자료화하고자 한다.

○ 재일제주인 1세는 일본과 고향을 잇는 관계망을 형성하여 자식과 손자들에게 고향의 문화를 전수하는 문화적 중심체 역할을 하며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재일제주인 1세의 생애사로부터 재일제주인 사회의 단면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 생애사란 다양한 개개인의 인생을 있는 대로 나열해서 소개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살아온 개개인의 일상적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역동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궤적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일제주인은 일본 사회에서 지연, 혈연의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며,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다. 한때(1930년대 중반) 제주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제주도세요람)를 보더라도 '제주 사람들'에 관한 연구에서 재일제주인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사', 또는 '제주 사람들'에 관한 연구에서 재일제주인은 배제되어 왔다.

○ 현재 재일제주인의 이민의 역사는 100년을 넘어서고 있다. 역사의 격동기를 보냈던 1세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화하여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재일제주인 사회는 2세, 3세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고 4세, 5세까지 뒤를 잇고 있다. 이민 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후세로 갈수록 고향에 대한 애착과 유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자료는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일제주인 2세, 자신의 뿌리를 잊어가는 3세, 4세 등 이민 후세에게 전할 '실체화된 기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하는 기억이다.

○ 구술 생애사는 기록에서 배제된 개인과 집단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자료는 해방 전후에 일본으로 이주했던 재일제주인에 관한, 문헌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시기의 시대상황에 대한 자료의 공백을 보완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 위주의 현대사 연구에 가려졌던 제주사, 제주 사람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술 생애사 자료 자체가 제주의 근현대사, 한국과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이다.

○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자료는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에서뿐만 아니라, 사라져 가는 제주방언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어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재일제주인 1세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그들의 구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사람들의 이동의 이유와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본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해 왔는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 문화와 자녀 교육, 고향에 있는 가족과의 교류 활동 등을 구술로 확인할 것이다.

○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경을 건너가 살면서도 지켜온 제주의 문화 요소이다. 제주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사용해 온 언어를 비롯하여 제주식으로 치러 온 상례와 제례, 제주의 음식 등 이민 사회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제주적인 문화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 두 번째는 해외 이민 사회에서의 제주 사람들 공동체의 특성과 그 변화 모습이다. 제주 사람들의 일본으로 이동에는 혈연과 지연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제주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다. 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고향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경험자들의 구술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 세 번째는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며 기반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부모와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존재하지 않는 고향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이러한 변화를 1950~60년대 이주한 사람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4. 연구의 기대 효과

○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자료는 재일제주인의 삶의 과정을 물론 개개인의 기억을 통해 제주 사람들을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제주 사람들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주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재일제주인의 생애사 자료를 수집, 축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재일제주인 1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1950~60년대 건너간 1세들도 고령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한 많은 기억이 소멸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상과 고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이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타향에 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주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이 연구는 국경을 넘는 이동을 여러 관점에서 경험자들의 구술을 통해 실증적으로 해명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구체적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기록은, 현재 재일제주인 사회가 세대교체로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후세대들에게 한국인 혹은 제주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재일제주인 1세 중심으로 수집된 구술 자료는 한국사회의 근현대사의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 식민지 전후의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사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제주'라는 섬에 국한되지 않은 '제주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제주 사람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 배경[1)]

○ 일제강점기 제주와 오사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은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하여 대기업에 의한 설비 투자나 중소 영세 기업이 증가하였다. 당시 오사카는 신흥공업 도시로 화학・금속・기계・섬유 공업의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일본 내의 노동력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필요한 노동력을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항자로 보충하였다. 식민지 체제에서 살기 위한 방책으로 도항했던 많은 조선인은 중소 영세 기업, 오늘날 소위 '3D'로 불리는 업종에서 하층 노동자로 종사하였다.

○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주 사람들도 1900년대 초부터 오사카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진출하였다. 이에는 일본 공장에서의 적극적인 직공 모집의 영향도 있었는데, 1911년 셋쓰(攝津) 방적 기즈가와(木津川) 공장, 1914년 도요(東洋) 방적 산켄카(三軒家) 공장에서 직공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제주를 방문했다. 직공 모집이 섬 전역이 아니라 제주성내(현재의 제주시)와 그 주변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거의 이 시기부터 근대 공업 노동자로서 제주 사람들의 일본 도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 이후 오사카와 규슈(九州)의 여러 공장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였고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먼저 간 사람들의 권유로 제주도민의 일본 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 또한 1923년부터 오사카와 제주 사이에 정기항로가 신설되면서 제주도민의 도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의 일본 진출은 늘어나 일본 내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공급과

1) 김보향(2015),「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1~35의 내용을 수정, 보충하였다.
2) 杉原達(1998),『越境する民』, 新幹社, 1998, p.80.

잉이 문제시되어 도항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도일(渡日)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해방 전 제주도를 답사하여 연구했던 지리학자 마스다이치지(桝田一二)는, '제주도 사람들은 본디가 근면, 검소, 성실한 데다가 노동쟁의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출가지에서 대단히 신용하였다'[3]고 소개하고 있다.

○ 제주도민의 도일 과정에는 행정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 1927년 5월 제주공제회(濟州共濟會)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는데[4] 이는 제주읍에 본부를 오사카에 지부를 두어 오사카부에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도항 안내・직업 소개・인사 상담・구제사업・교화사업 등을 행하였다. 이러한 일본 기업의 수요와 제주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제주도민의 도일은 늘어갔다.

○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5]. 제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등지로 나가 있던 제주 사람 약 6만 명이 귀환했다[6]. 그러나 해방이 곧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왕래는 이미 끊겨 있었기에 그들의 도일은 불법적인 '밀항'이라는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 정식 입국이 가능했지만 까다로운 수속 때문에 1980년대까지 밀항이 끊이지 않았다. 그 예로 1975년도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료를 살펴보면 1970~1974년까지 한국인 불법 입국

---

3) 枡田一二(1986), 「済州島の地理学的研究」, 『地域社会の発展とまちづくり』, シード・プランニング, p.46.

4) 제주도청(1937), 『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p.44.

5) 해방 후 1946년 3월 일본 정부 후생성이 행한 등록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날로부터 겨우 6개월간에 약 140만 명이 사태처럼 귀국하였고 귀국하지 못한 64만 6,943명 가운데 그 79%에 해당하는 51만 4,035명이 귀국을 희망하였다. 1946년 4월부터 귀국희망자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계획 수송이 시작되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귀국자는 8만 2900명이었던 것이 47년에는 8,392명, 48년에는 2,882명, 49년에는 3,482명,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는 2,294명, 결국 1947년 이래 귀국자가 격감하고 있다.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68.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귀환 인구에 대해 『東亞日報』 1946년 12월 21일자에는 '5만~6만 명', 『濟州新報』 1947년 2월 10일자에는 '8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수가 740명인데 그 중 82.2%에 해당하는 608명이 제주도 출신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 밀항이 불법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주 사람들이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이주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주 사람들이 혈연・지연에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밀항자에 대한 단속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경비망을 피해 밀항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도 인정하는 점이다[8]. 하지만 성공적으로 일본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으로 생활이 자유로울 리 없었기에 그들의 생활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단속의 눈을 피해 혈연・지연에 의지하여 지낼 수 있는 이 지역으로 제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 1920년대 일본에 조선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본인 사회와는 다른 재일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어 갔다. 이주 초창기에 건너간 사람들의 일본 체류가 장기화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조선인들은 고향의 친족과 지인들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거꾸로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 중에도 생활이 궁핍하여 돈을 벌기위해 도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주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혈연과 지연에 의한 도일은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같은 지역 출신자들 중심으로 모여살면서 제주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 192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이카이노(猪飼野)[9]에 작은 제주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10]. 이후 제주도민의 도일은 점점 증가하여 1934년

7) 후지나가다케시(2010),「재일 제주인과 '밀항':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4.3과 역사』10, p.163. 재인용.
8) 玄武岩(2007),「密航・大村収容所・済州島: 大阪と済州島をむす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現代思想』2007年 6月号, p.170.
9) 이카이노(猪飼野)는 오사카시 이쿠노쿠 이카이노쵸(猪飼野町)의 옛 지명이다. 고대 아스카(飛鳥) 시대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지명인데 1973년 행정구획 변경으로 쓰루하시(鶴橋)・모모다니(桃谷)・나카가와(中川)・다시마(田島)로 분할되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정희선・김인덕・신유원 역(2012),『재일코리안 사전』, 도서출판 선인, p.304.
10) 杉原達(1998), 앞의 책, p.98.

당시 제주도 인구가 약 18.8만 명이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전체 제주도 인구의 21%가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중 약 3만 8천 명이 오사카에 거주하였는데[11],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 전체 인구의 16%에 이르는 수치로, 오사카 지역에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 간에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시기에도 제주 사람들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밀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오사카의 재일제주인은 해방 후에 오히려 증가했다. 1974년에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은 63,972명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전체 재일한국인 178,720명의 35.8%를 차지할 정도였다[12].

○ 당시 제주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된 요인은 초창기 제주 사람들의 일본 이주가 오사카 지역 공장들의 모집과 제주도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정책적인 면도 있었지만 도일의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보다도 혈연・지연에 의한 권유와 지원이었음을[13]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같은 지역 출신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의 집단 거주는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이는 이주 초기부터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친목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해 취업의 기회가 적었던 제주 사람들에게 지역 내 동포가 경영하는 소규모 영세공장에 취업이 용이했다는 점도 집단 거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해방 이후에 건너간 밀항자에게는 더욱 중요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일본에서의 생활에 제한이 있었던 제주 사람들은 그나마 노출이 적어 일본 정부의 단속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제주 사람들의 밀집 지역에서 선배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갔다.

---

11) 위의 책, p.55, 84.
12)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2),『안주의 땅을 찾아서: 재일제주인 생활사 1』, 도서출판 선인, p.11.
13) 杉原達(1998), 앞의 책, p.80.

○ 뿐만 아니라 '조선시장(朝鮮市場)'에서는 한국의 식재료, 의복, 제사 도구 등의 구입이 용이하였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사카 이쿠노쿠에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 이에 이쿠노쿠에 '작은 제주'가 만들어져 제주 문화권이 형성될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와 있었지만 주위에는 고향에서 마주하던 이웃과 친척이 있었고 고향의 음식이 있었다. 또한 고향에서 쓰던 말이 통용되었다.

2. 선행 연구 검토

○ 재일제주인 1세를 대상으로 한 구술 생애사 연구에는 다음의 선행 연구가 있다.

- 고선휘(1996),『在日済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ー関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고성중 역(2006)『재일 제주도 사람의 타향살이: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북제주문화원.
- 김보향(2015),「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정(2008),「오사카 재일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탐라문화』32.
- 유철인(1998),「재일 제주인과 제주도」,『동아시아연구논총』 9,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2),『안주의 땅을 찾아서: 재일제주인 생활사 1』, 도서출판 선인.
-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5),『고향의 가족, 북의 가족: 재일제주인 생활사 2』, 도서출판 선인.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3),『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신우기획.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재일제주인 1세 구술 채록」, 제주특별자치도(미출판).
- 조경희(2015),「불완전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사회와 역사』106.

○ 위 선행 연구는 크게 구술 채록과 심층 면접 자료를 근거로 한 연구 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2, 2015),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는 재일제주인의 구술 채록이고 나머지는 구술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이다.

○ 고선휘(1996)은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면접을 통한 심층 조사를 병행하였다.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재일제주인의 삶, 활동의 역사, 제주 사회와의 관계를 설문 조사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면접 조사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2, 2015)은 4·3사건을 경험한 밀항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활사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거기에서는 4·3사건 시기에 제주도민이 놓인 상황의 파악을 통하여 그들의 왜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어떠한 삶을 경험하였는가를 경험자의 구술로 밝혔다.

○ 한편, 유철인(1998)은 면접 조사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밀항과 고향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안미정(2008)은 해녀 출신 재일제주인 1세 여성의 면접 조사를 통해 그들의 생애와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이주와 정착, 귀향에 얽혀 있는 사회문화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3)은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실태 분석과 함께 기업가 10명의 면접 구술을 통해 기업을 일구는 생애 과정을 들여다보았다. 조경희(2015)는 재일제주인 2명과 밀항으로 제주와 일본을 오고간 경험이 있는 제주 사람 7명의 구술을 자료로 하여 제주 사람들의 밀항을 했던 시기별 밀항 성격과 의미를 살피고 있다. 김보향(2015)는 제주방언 화자인 재일제주인 1세의 생애사에 대한 구술 자료를 토대를 이민 사회에서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에 대해 논하였다.

○ 이 외에도 연구 자료 조사를 위한 면접 조사는 이외도 인류학, 사회학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구술 생애사 조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 또한 구술 생애사 연구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의 문제, 즉 구술자의 언어 선택은 구술자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을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재일제주인 구술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Ⅲ. 연구 방법

1. 구술사 연구

○ 구술사 연구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채우고 '역사'를 다시 인식하고 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앙에서의 역사가 아닌,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 쓰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라는 거시적인 주체에서는 드러날 수 없었던 개인적 경험과 기억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의 구멍을 메울 귀중한 자료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역사 기록에서 배제되었던 대중을, 역사의 중심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에서 개인의 생활사가에 대한 연구가 학술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의 기억을 토대로 숨겨진 역사를 현재화하는 작업으로 아래로부터 역사를 서술하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에서 각 개인사는 살아있는 역사로, '미시적 사료'로써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 그동안 구술사를 통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가깝게는 제주 4·3사건이 경험자들의 구술에 의해 기록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종군위안부에 관한 기록도 구술사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연구는, 기록이 부재하여 구술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술사 연구를 촉발시키고 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까지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구술사 연구는 자료가 주는 역사적 사건의 사실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 그리고 그 개인을 둘러싼 생활세계와 그들의 세계관에 더 관심이 있다[1]. 구술사는 개인이 역사적 사건이나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한 개인에게 역사적 사건과 상황이 무

1) 윤택림(2006),『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질적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p.37.

슨 의미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개인을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술사에서 생애사 연구는 필수적이다.

○ 구술사는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기록으로 사료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술사는 역사 연구를 위한 한 가지 방법론이자 역사적 기록 그 자체이기도 하다. 구술사는 생존한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하므로 주로 가까운 과거와 문자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구술 자료는 기억의 환기에 의해 발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보편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지만, 구술성과 주관성, 개인성, 서술성 등의 고유성으로 인해 문헌 자료를 통해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 자체의 특수한 신뢰성도 갖는다[2].

○ 구술 생애사 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인간의 사회 속에서의 삶과 적응은 시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사회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삶을 구성해 나가는 한 개인의 삶의 범주들을 개념화함으로써 삶의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 주제를 나누어 분석하고, 개인의 삶의 전환점에서 한 개인의 적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

○ 재일제주인의 역사는 제주의 근현대사를 함축하고 있다. 초기 이주 세대가 대부분 생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기억들을 모을 수 없다. 재일제주인의 규모와 이주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볼 때 그에 대한 연구나 기록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도 대부분 특별한 생애 경험 중심이어서 개인의 삶, 일생에 걸친 생활문화를 비롯한 생애사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아쉬움이 크다.

○ 재일제주인의 구술 생애사는 이주 역사와 정착 과정을 비롯하여 의식주, 직업, 가족과 친족 관계, 의례와 신앙생활, 언어생활 등 생활문

2) 위의 책, pp.99~101.

화의 변화양상을 포함한다. 구술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세밀하게 포착해낼 수 있으므로 재일제주인의 역사와 삶을 들여다보기 위한 연구에 유용한 방법론에 해당한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이 연구는 재일제주인 1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구술 생애사 연구이다. 재일제주인의 1세의 생활 전반에 대해 살피기 위해 제보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접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면접 조사를 통하여 재일제주인의 이주 배경과 일본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을 알아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 구술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신뢰 관계(rapport) 형성은 연구의 주요 관건이 된다. 일회적인 만남에서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 놓기는 어렵다. 때문에 일회적인 면접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 다행히 연구자는 재일제주인 관련 자료 수집과 생활사 조사를 위해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일본 오사카 지역을 방문하면서 재일제주인을 찾아 면담해 왔다. 체류 기간 동안 재일제주인이 많이 모이는 찻집, 공원, 친목 식사 모임, 노인 개호(介護) 시설[3] 등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과 안면을 익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참여 관찰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신뢰 관계(rapport)가 형성되어 면접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7년 5월 23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였다. 제보자의 집과 집 근처의 찻집과 공원에서, 사전에 준비한 생애사 면접 조사 질문지에 따라 질문하였다. 구체적 조사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일본에서 노인의 대상으로 하여 병간호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들 개호 시설 중 오사카 이쿠노쿠(生野区)에 위치한 '고향의 집(故郷の家)', '사랑방(サランバン)', '삼보람(サンボラム)'은 이용자 대부분이 재일한국인인데, 특히 '사랑방'에는 제주 사람들이 많다.

<표 1> 질문지 구성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	성장 과정	출생지 정보, 가족 관계, 학업, 성장 과정
2	이주 배경과 과정	도항 이유, 밀항 과정(동행인, 경로, 비용, 어려움)
3	일본 사회 정착 과정	정착지 정보, 정착 초기 의식주 생활, 경제 활동, 사회 활동(총련, 민단, 친목회 활동 등)
4	가족의 형성과 생활 문화	결혼과 출산, 자녀 고육, 언어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 관혼상제
5	노년의 생활	고향의 친족과의 교류, 현재의 생활

○ 재일제주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일본어, 한국어, 제주어)로 표현하느냐의 문제, 즉 구술자의 언어 선택은 구술자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을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 이 연구는 학령기를 제주에서 보내고 1950~60년대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화자다. 연구 대상자들과는 사전 면담에서 제주방언으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면접 조사에서의 구술 내용은 모두 채록하였다. 채록된 발화 자료는 구술자가 발화한 언어 그대로 정밀 전사하였다. 제주방언을 기본으로 한 발화에서 일본어 발화뿐만 아니라 구술 중간에 사용한 의성어, 일본어 감탄사 등까지도 구술 자료에 살려 전사하였다.

○ 전사할 때, 제주방언은 형태 음소로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여 '제주어 표기법'[4]에 따라 표기하였다. 일본어 발화는 히라가나 표기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일본어를 표기하였다[5]. 인

4)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현평효 외, 2009)에 실린 <부록-제주어표기법>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일부 단어의 경우 발음을 살려 표기하였다. (예, '허다')

명과 지명, 외래어 널리 쓰이는 일본어는 한글로만 표기했다. 한재일 제주인의 일본어 발화는 유·무성음과 장·단음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발음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의 히라가나는 바른 일본어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과 괄호 안에 히라가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 이렇게 전사한 1차 자료의 일부를 조사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표준어(또는 한국어)로 대역하여 제4장의 '생애사 구술'에 제시하고 구술 내용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덧붙였다.

3. 연구 대상

○ 이 연구는 재일제주인이 많이 모여 사는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근처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 중에서 75세 이상의 1세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표 2> 제보자 정보

	성명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	학력	이주 시기와 특징
1	김영희(가명)	여	1930	함덕	국민학교 졸업	1967년 밀항, 재봉일, 신발 제조업, 베어링 가내 수공업 운영
2	임순애	여	1941	하예	국민학교 졸업	1958년 밀항, 대마도에서 3년 지냄, 신발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3	장수종	남	1943	삼양	고등학교 중퇴	사할린(화태)에서 출생, 해방 전 귀향, 1961년 밀항,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4	조옥선	여	1929	조천	무학	1959년 11살 아들과 함께 밀항, 재봉일, 신발 제조업

5) 부록의 '구술 전사 자료'에서 일본어 발화가 많은 조옥선의 경우는 일본어 발화의 한글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

○ 김영희는 함덕 출신으로 1930년 3남 3녀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4·3 사건 때 작은 오빠를 비롯한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일본으로 밀항을 세 번이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후 조천 출신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2남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에 실패한다. 이혼 후 다른 지역으로 나가 얼마간 공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했다. 그 사이에 할머니 손에 자라던 큰아들이 홍역에 걸려 죽게 된다. 그 후 제주에 들어와 작은 아들을 키우며 지내다가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낳는다. 혼자 양장점 등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말썽을 피우자 아이들을 친정 언니에게 맡기고 1967년에 일본으로 건너간다[6]. 일본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계속 살아온 오빠가 있었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몇 년간은 신발 만드는 일, 재봉 일을 하다가 오빠가 운영하는 고무 패킹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 이후 자수하여 등록을 얻고 독립해서 베어링을 만드는 가내 공장을 차려 운영한다. 등록은 밀항하여 일본에 간 지 8년 만에 받았는데, 일본에 간 후 얼마 없어 고향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어린이를 돌보는 기관에 매달 만 엔씩 2년 동안 기부했던 기록이 있어서 빨리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고향에 있던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 딸을 일본으로 불렀다. 한국에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딸은 일본에 와서 다시 대학을 졸업하여 병원에 근무한다. 의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일본에 살고 있다. 아들은 제주에 살고 있다. 김영희는 지금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 임순애는 1941년 서귀포시 하예리에서 2남 3녀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임순애의 아버지는 4·3사건에 사망했다. 어머니 혼자 다섯 형제를 키웠지만 가정 형편이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임순애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중문까지 먼 길을 다녀야 했기에 본인이 학교 진학을 거부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 다

6) 이 글에서의 연도는 제보자들이 구술한 생애 시점의 나이에서 계산한 것으로, 제보자들은 나이를 말할 때 만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리에 흉터를 있었는데, 일본에 가면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열일곱 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는 4·3사건 이후에 건너간 오빠가 오사카에 살고 있었고, 언니는 결혼해서 대마도에 살고 있었다. 임순애는 부산에서 밀항 배를 타고 대마도로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단속에 걸려 잡혔다. 대마도에 언니가 살고 있어서 보석으로 나와 3년간 대마도에서 지냈다. 보석 기간이 끝날 즈음 입국관리국에 근무하던 일본인의 도움으로 오사카로 나와 단속을 피해 지낸다. 스물세 살에 서귀포시 대포 출신의 남편과 결혼하고 그 해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밀항자 단속에 걸려 자비 출국으로 고향에 돌아갔다가 일 년 후 다시 밀항한다. 남편은 1976년경에 또 단속에 걸려 한국으로 돌아가게 송환되는데, 임순애는 가족이 같이 송환되지 않기 위해 남편이 오무라수용소에 있을 때 이혼을 했다. 남편은 한국으로 송환되었다가 몇 년 후 다시 밀항으로 일본에 왔다. 임순애와 신발 붙이는 가내 공업을 하던 남편은 90년대 초에 플라스틱 공장을 차려 운영한다. 남편은 1999년도에 사망했다. 지금은 큰아들이 히가시오사카시에서 아버지가 시작한 플라스틱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고베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임순애는 지금도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내 공장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로 신발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

○ 장수종은 삼양 출신으로 1943년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장수종의 아버지는 사할린에서 노무자 합숙소를 운영하는 형을 도와 노동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장수종의 어머니는 장수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아버지도 고향에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고향에서 얼마 지내지 않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후 아버지와는 연락이 소원해졌고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소식을 모르는 상태이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장수종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나 졸업시험을 앞두고 학비를 내지 못하게 되자 가출을 하여 서울로 간다. 서울에서 몇 달 동안 담배 장사 등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196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 년 후에 어머니도 밀항으로

건너가게 된다. 플라스틱 공장, 고무 공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80년대 초에 신발 만드는 재료를 재봉하는 가내 공장을 차려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였다. 27세에 결혼하여 아들 세 명과 딸 한 명을 두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일본 국적으로 변경하였다. 지금은 직접 노모를 돌보며 지내고 있다.

○ 조옥선 1929년생으로 조천 출신이다. 외동딸로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자랐다. 18살에 결혼하여 다음 해에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그 아들이 돌을 넘기자마자 남편이 4·3사건으로 죽게 된다. 남편의 사망 후 시어머니, 시누이와 살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시누이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는 시아주버니와 동서, 손위 시누이가 살고 있었다. 혼자 농사일 등으로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던 조옥선은 서른 살에 열한 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밀항한다. 일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동서나 시누이의 가게 일을 도왔다. 그리고 비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으로 재봉, 신발 만드는 일 등을 했다. 가족이 모두 북한으로 간 남자를 만나 같이 지내다가 1964년 둘째 아들을 낳는다. 1980년 경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나서 남동생 결혼식에 다녀오고 그 후 몇 번 고향을 방문하였지만, 마지막으로 고향에 다녀간 것이 25년 전이다. 지금은 이복동생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70세 초까지도 가내 공장에 다니며 신발 만드는 일을 하였다. 지금은 일본 정부 생활 보조금(민생)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Ⅳ. 생애사 구술

1. 이주의 배경과 과정

4·3의 혼란을 피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약 6만 명의 재일제주인이 제주로 돌아왔다[1]. 그런데 해방이 곧 안정된 사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돌아왔지만 제주에는 할 일이 없었다. 이는 해방 후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다. 때문에 귀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1945년 12월에 사전에 민군정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귀환한 한국인의 재도일을 허가하지 않도록 일본의 연합국 최고사령부(GHQ)[2]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3월 16일자로 일본 정부에 내린 지령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이 아닌 자들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길이 막혔다. 이듬해인 4월부터 연합국 사령부와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불법 입국'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전쟁 후 제주의 치안은 불안한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46년 전염병이 만연했다. 그리고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의 시위 사건으로 도화선이 된 4·3사건으로 제주 사회는 더욱 더 혼란에 빠진다.

"우리 오빠가 스물아홉에 돌아갓어. 여기서 공부허고 여기서 헷는데, 우리 언니가이 웨정 때 막 울고불고 허니까 언니를 데려가지고 가서 뒷날 해방이 뒈분 거야. 공장장 허다가.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 허니까 산에 올라오라고 헤서. 그디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68.

2) 연합군 최고사령부(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군의 최고위 사령부를 말한다.

안 가시민, 이디 잇어시민 죽진 안 헐 거주. 산에 올라오라고 헤 가지고게 무조건.”[김영희]

(우리 오빠가 스물아홉에 돌아갔어.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했는데, 우리 언니가 왜정 때 아주 울고불고 하니까 언니를 데려가지고 가서 뒷날 해방이 돼버린 거야. 공장장 하다가.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 하니까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 안 갔으면, 여기 있었으면 죽진 않을 거지.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 안 갔으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을 거지.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무조건.)

“근디 나가 우리 오빠 죽어가지고, 그때 우리 언니가 조천면에 살앗어. 조천에서 새벽에 왕 보난 딴 집이 사람이 하나도 엇어. 내일 오십선거니까 다 올라오라고 헤불언. 보니까 영장 헐라 헤도 사람도 없어. 오십선거, 구일 날, 십일 날은 이승만 대통령 선거야. 구일 날 오빠를 죽여 불엇어.”[김영희]

(그런데 내가 우리 오빠가 죽어서, 그때 우리 언니가 조천면에 살았어. 조천에서 새벽에 와서 보니까 다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일 오십 선거니까 다 올라오라고 했어. 보니까 영장을 하려고 해도 사람도 없어. 오십 선거, 구일, 십일은 이승만 대통령 선거야. 구일에 오빠를 죽여 버렸어.)

김영희는 4·3사건에 오빠를 잃었다. 김영희의 오빠는 일본에서 학교를 마치고 일을 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 혼란기에 일본에서 같이 지내던 여동생(김영희의 언니)을 부모님이 있는 고향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주에 들어왔다. 얼마 후 해방이 되어 일본으로 가는 정식 항로가 끊기자 김영희의 오빠는 제주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후 제주에 지내다가 4·3사건에 휘말리고, 1948년 5월 10일 총선 전날에 살해당했다.

“게니까 우리 큰오빠도, 이제 돌아갔지만은 오빠가 여기 살고. 거니까 나가 처녀 때, 시집가기 전 멧 번을 왔댔어. 일본을 밀항으로. 그 사람 죽이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헤서 멧 번을 왔댔어. 오다가 못 오고, 오다가 못 오고, 한 번 걸려서 또시 돌아가고.”[김영희]

(그러니까 우리 큰오빠도, 이제 돌아갔지만 오빠가 여기 살고. 그러니까 내가 처녀 때, 시집가기 전에 몇 번을 왔었어. 일본을 밀항으로. 그 사람 죽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을 왔어. 오다가 못 오고, 오다가 못 오고, 한 번 걸려서 다시 돌아가고.)

"건디이 밤이 타는디이 막 물집이 터졋덴 허는 거라, 나는 막 수질허는디. 아이고, 물은 푸면서라도 가야지, 제주도 가서 그 꼴은 못 보겠다. 위험허고, 우리도 위험허고 허면서 사람 죽이는 꼴을 안, 못 보겠다고. 게서 내중에는 내리라 헌 거 보니까 또 올라난 디서 또시.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물집 터지니까 그냥 돌아온 거지. 그때는 밀항으로이, 저 반동자로 취급헌 사름은 다 오는 거야. 그적 사름덜은."[김영희]

(그런데 밤에 (배를) 탔는데 배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아주 수질하는데. 아이고, 물은 푸면서라도 가야지, 제주도 가서 그 꼴은 못 보겠다.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꼴을 안, 못 보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려라 하는 거 보니까 또 (배에) 올랐던 데에서 또.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배에 구멍 나니까 그냥 돌아온 거지. 그때는 밀항으로, 저 반동자로 취급한 사람은 다 오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김영희는 4·3 사건을 경험하고 몇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두 번은 일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갔고 세 번째는 일본에는 도착했으나 일본 경찰에 잡혀 바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졌다. 김영희의 구술처럼 당시 4·3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 밀항배에 몸을 실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일본으로

1946년 이후 정식적으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려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밀항'은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방법이었다. 4·3 당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제주 지식인들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4·3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대략 오천 명에서 만 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전쟁과 맞물려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면서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맞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같은 시기 한국도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일을 찾아 이농현상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공장 등의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인구가 몰렸는데 이때, 제주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같은 마을 지인들

에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나 가계 파탄으로 등을 이유로 일본을 피난처 삼아 밀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오죽헤야 마지막으로 애길 떼 놓고 오나. 살다가, 살다가 버치니까."[김영희]
(오죽해야 마지막으로 아기를 떼 놓고 오겠어. 살다가, 살다가 힘에 부치니까.)

"밀항헤서 오다가, 아기들 때문에 오다가, 걸리면은 약이라도 먹을라고 사가지고 왓어. 못 사니까. 고향 가도 엇고, 남편이 다 팔아먹어버리고. 거니까 그냥 죽을라고 온 것이 잘 온 거야."[김영희]
(밀항해서 오다가, 아기들 때문에 오다가, 걸리면 약이라도 먹으려고 사가지고 왔어. 못 사니까. 고향 가도 (재산도) 없고, 남편이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죽으려고 온 것이 잘 온 거야.)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던 김영희는 두 아이를 친정 언니에게 맡기고 서른일곱 살이었던 1967년에 일본에 건너갔다. 일본에는 일제강점기에 건너간 오빠가 살고 있었다. 김영희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는데 생활 형편도 어려웠고 아들이 말을 안 들어 힘들었다. 궁리 끝에 아이들을 키울 돈을 벌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시누이가 허는 말이 집은 싯고 사름이 *이루까라(いるから)* 아실 보내렌. 어멍도 엇고 그디 내불민 *구로수루까라(苦勞するから)* 아실 보내렌. 게난 가이가 열 멧 설에 나난 나가 보냇주. 이디 사는 것보담 그디 가는 것이 *마시(まし)* 헐 거여. 성신디 강 사는 것이 *신빠이(しんぱい)* 엇엉 *마시(まし)* 헐 거엔 허난. 가쿠덴 헨 보내엇주게. 겐 이딘 오난 성네 집이 강 톡허게 사난 *쵸도(ちょうど)* 그디서 *미세(みせ)* 허난 *미세(みせ)* 보난 성은 *다스까루양까(助かるやんか).* 게난 강 살멍, 이제 오라방 각신 아기 하나 돌앙 그거 이제 이디 저디 놈의 집 *나니(なに)* 헹 빌엉 뎅기멍 사난, 이디 불르민 그거 하나 놩 *벵꾜(勉强)* 시키곡 이디 못 삽니겐. 겐 성덜ᄀᆞ라 골은 거 아니. 경허난 이제 성이, 가이네 성이, 나 우에 성이, 시누이가 애기 돌앙 와지건 오렌."[조옥선]
(시누이가 하는 말이 집은 있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우를 보내라고. 어머니도 없고 거기 내버리면 고생하니까 아우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열 몇

살이 되니까 내가 보냈어. 여기 사는 것보다는 거기 가는 것이 나을 거야. 언니에게 가서 사는 것이 걱정 없이 나을 거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해서 보냈지. 그래서 여기 오니까 언니네 집에 가서 사니까, 마침 거기서 가게 하니까 가게를 보니까 언니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가서 살면서, 이제 오라버니 아내는 아기 하나 데리고 그거 이제 여기 저기 남의 집 빌려서 사니까, 여기 부르면 그거 하나 공부 시키고 여기 못 살겠는가. 그래서 언니들에게 말한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그 아이네 언니가, 내 위에 언니가, 시누이가, 아기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오라고.)

1929년생인 조옥선은 열여덟 살에 결혼하여 다음 해에 아들을 출산했다. 그 아이가 갓 돌을 넘겼을 때 남편이 4·3사건에 사망하였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살던 조옥선은 시어머니도 죽게 되자 일본에 있는 시누이들이 제주에 남아 있는 여동생을 일본으로 불러들였다. 그 후 작은 시누이가 아버지 없이 어렵게 지내는 조카를 가엽게 여겨 조카와 올케를 일본으로 불렀다. 남편 없이 남의 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던 조옥선은 1959년 열한 살 된 아들을 데리고 시누이에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게니까 나가 일본 와가지고 나가 오 년 만에 저 삼양 그 밧을 삿거든.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어가지고 *다노모실(たのもし)* 내려 가지고 돈을 보내거든. 게난 우리 동네에 삼양이동 사람이, 그때 나가 일본 와가지고 삼양에서 그때 일등 가는 밧이 천사백 평 *시까구(しかく)*야. 지금은 막 짤라지고 뭐 헷지만은. 평당에 육백구십 원 줘. 그거 헤가지고 허니까 청년들이 하이고 일본 가면 돈 번다고. 일본 그때 한 번에 한 이십 멧 명 와가지고.

-삼춘 경 돈 버는 거 봉?

난 그때 외상으로 돈을 꿩 밧 산디. 그때 소문에 그레 낫어. 삼양이동에 사람 죽으민 영장헐 사름 엇다고 그런 소문까지 낫어. 겐 그런 사람덜도 왓단 막 돈은 벌엇지게. 돈 벌어가지고 문딱 고향에 다 들어간.[장수종]

(그러니까 내가 일본 와서 오 년 만에 저 삼양 그 밭을 샀거든. 계 들어서 곗돈을 받아서 돈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삼양이동 사람이, 그때 내가 일본 와서 삼양에서 일등 가는, 밭이 천사백 평 사각이야. 지금은 잘리고 뭐 했지만. 평당 육백구십 원 줬어. 그거 하니까 청년들이 아이고, 일본 가면 돈 번다고. 일본 그때 한 번에 한 이십 몇 명이 왔어.

-삼촌 그렇게 돈 버는 거 보고?

난 그때 외상으로 돈을 꿔서 밭을 샀는데 그때 소문이 그렇게 났어. 삼양이동 사람이 죽으면 영장할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돈 많이 벌었지. 돈 벌고 모두 고향에 들어갔어.)

제주 사람들에게 일본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주변 사람들이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생겨났다.

장수종은 삼양 출신으로 1943년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해방 전 어머니와 고향으로 들어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비를 내지 못해 가출한다. 이후 얼마간 방황하다 일본으로 건너갔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며 일본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으로 들어 두었던 곗돈을 받은 후 고향에 보내 고향에 땅을 구입했다. 이러한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적 성공'을 꿈꾸게 하며 일본행을 부추겼다.

다리의 흉터를 치료하려고

"나는 돈 벌 거 뭐, 이 다리 이추룩 헌 거 이거 허젠 아무 생각도 안 헹 대마도 오난에 형부가 한국만 가렌 허는 거라. 그 시절에. 형부 허는 말은 일본서 고생헌덴, 한국 가야 좋은 디 시집 간에 느 고생 안 헌덴 헷어."[임순애]

(나는 돈 벌 거 뭐, 이 다리 이렇게 한 거 이거 고치려고 아무 생각도 않고 대마도 오니까 형부가 한국에만 가라고 하는 거야. 그 시절에. 형부가 하는 말은 일본에서 고생한다고, 한국에 가야 좋은 데 시집가서 고생 안 한다고 했어.)

임순애 1941년생으로 2남 3녀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4·3사건에 사망했지만 임순애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임순애는 열일곱 살에 어린 시절 화상으로 입은 다리 흉터를 치료하고 싶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한편, 임순애의 오빠는 4·3사건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4·3사건에 남편이 죽게 되자 혼자 5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큰아들이 군대에 갈 시기가 되자 4·3사건에 죽은 아버지 때문에 큰아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큰아들을 일본으로 보냈다.

"오빠는 군인 보내지 말젠 헨 보냇덴 헤라, 우리 어무니가. 일본에 어무니도 흔 번 초청받안 와 갓주게. 그 때에 완에 허는 말이, 오빠는 무사 일본 보냇수과 허난 허는 말이, 막 남자들은 다 심어당 저 경찰이여 뭣이여 헹 죽여가난 아덜 하나 살리젠 일본꺼장 보냇젠. 아덜을 죽지 말앙 살리젠. 남편은 죽어불엇주만은 보냇덴 경 골아라."[임순애]

(오빠는 군인 보내지 않으려고 (일본) 보냈다고 하더라,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 어머니도 한 번 초청받고 왔다 갔어. 그때에 와서 하는 말이, 오빠는 왜 일본 보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저 경찰이여 뭣이여 해서 죽이니까 아들 하나 살리려고 일본까지 보냈다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남편은 죽어버렸지만은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

이들은 처음부터 일본에 영주할 생각으로 일본에 왔던 것은 아니다. 다리를 흉터를 치료하면, 혹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 그들 스스로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은 단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머무르는 임시 거처 정도로 생각했었다.

단속의 눈을 피해 밀항 배에 몸을 싣고

"부산서 배 타난 멧 시간 안 걸렷주. 밤 흔 열 신가 아홉 시*구라이(ぐらい)* 타난에 흔 두어 시간 탄 대마도 완게. *찌까이(ちかい)*. 겐 대마도 왕 흔 *잇슈깐이죠(一週間以上)* 살앗주게. 겨난 첨 밥, 보리쏠에 *다꽝(たくわん)*, 밥헤당 주먹밥 헤 주민 그거 얻어먹으멍 흔 *잇슈깐(一週間)* 더 살안.

-게민, 쏠덜은 챙경 가난 거?

아니, 그디 연락허는 사름덜이 일본 사름덜이 문 헹 지게 짐으로 경 왓어라게. 게난 영 영 헹 사름이 어느 숫막에 어떵 헌 사름덜이 멧 사름 시난 그디 문 밥을 헤가렌 헹 대마도서 문 시킨 거 아니?"[조옥선]

(부산에서 배를 타니까 몇 시간 안 걸렸어. 밤 한 열 시인가 아홉 시 정도에 타니까 한 두어 시간 타서 대마도에 왔어. 가까워. 그래서 대마도 와서 한 일주일 살았지. 그러니까 참 밥, 보리쌀에 단무지, 밥을 해다가 주먹밥 해 주면 그거 얻어먹으면서 한 일주일 더 살았어.

-그럼 쌀들은 챙기고 갔던 거?

아니, 거기 연락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전부 해서 지게 짐으로 지어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느 숯막에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거기 밥을 해서 가라고 시킨 거 아니?)

"그냥 배 우이 그자 앚은 거야. 큰 배 아니 째그만헌 배, 물 지치민 갈라짐직헌 배야.

-거기에 서른여덟 명이나 탄?

으, 것도 몰라신디 걸련에 서른으답 사름이엔 허난 아, 서른으답 사름이구나. 하하하.

-겐 대마도에서, 배에서 내리난 어디로 간?

산으로 가더라. 산에도 어디 산인지도 몰라. 가신디 그 할망이, 말째 곧는 거 보난 옷을 벗언 버려부난 밀항 배가 들어왓젠 허연 조사헌 셍이라."[임순애]

(그냥 배 위에 그저 앉은 거야. 큰 배 아니고 자그마한 배, 물 끼얹으면 가라앉을 거 같은 배야.

-거기에 서른여덟 명이나 탔어?

으, 것도 몰랐는데 (단속에) 걸려서 서른여덟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 서른여덟이구나, 하하하.

-그래서 대마도에서, 배에서 내리니까 어디로 갔어?

산으로 가더라. 산에도 어디 산인지도 몰라.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 보니까 옷을 벗어서 버리니까 밀항 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한 모양이야.)

밀항 시기나 상황에 따라 밀항의 경로나 방법은 사람마다 달랐다. 임순애는 부산에서 밀항 배를 탔다. 서른여덟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대마도로 들어갔다. 상황을 보고 일본 본토로 다시 이동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탔던 일행이 버린 옷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고 이에 섬을 수색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게난 부산 와가지고, 그 선원네 집이서 그 동래동. 배 선원인디 그디서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서 밥 먹고 헨, 거기서 배가 뜨게 뒈니까 거기서 뭐 헷주게. 저 그때 우리 한 다섯 명 그 집이서 살앗구나. 겐 그 다섯 명이 자동차로 그 부산 육부두. 헌디 그 배는 흔 사천 톤 배이데, 배가. 견디 그건 광석을, 어딜로 모르지만은 광석을 실러가지고 일본 보내오는 모양이대 보니까. 겐 거기서

동경, 동경에서 내려가지고. 동경 *미나또(みなと), 미나또(みなと).* 포구에 항구, 항구. 화물선 광석 푸는 부두가 있대. 거기서 우린 낮이, 낮이 한 멧 시에, 열두 시에 내렸어, 열두시에.

-그 다섯 사름이 다 제주도 사름이라?

다 제주도 사람. 다 우리 동네 사름, 삼양 사름."[장수종]

(그러니까 부산 와서, 그러니까 그 선원의 집에서 그 동래도. 배 선원인데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서 밥 먹고 해서 거기서 배가 뜨게 되니까 거기서 뭐 했어. 저 그때 우리 한 다섯 명 그 집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 다섯 명이 자동차로 그 부산 육부두. 그런데 그 배는 한 사천 톤 배였어, 배가. 그런데 그건 광석을 어디로 모르지만은 광석을 실어서 일본 보내는 모양이대 보니까. 거기서 동경, 동경에서 내려가지고. 동경 항, 항. 포구에 항구, 항구. 화물선 광석을 내리는 부두가 있대. 거기서 우린 낮에, 낮에 한 몇 시에, 열두 시에 내렸어. 열두 시에.

-그 다섯 사람이 다 제주도 사람이야?

다 제주도 사람. 다 우리 동네 사람, 삼양 사람.)

우리 그땐 파도가 상당히 쎗거든. 게니까 배로 헤가지고 한 *도오까(とおか),* 열흘 걸려실 거라.

-게민 배 탈 때 뭐 먹을 것도 챙기고?

챙기지 안 허고 거기서 밥 다 주대. 배 밑에 숨어가지고, 그 밥이엔 헌 건 식당에 뭐 헤난 뭣고, 그 먹단 남은 거, 그거 허영 줘 가지고 우리 ᄒᆞ꼼씩. 게난 밥 먹는 것이 한 번, 한 끼. 그것도 밤에. 그 선원이 한 이십오 명쯤 선원인 거라. 거기서 세 사름베낀 몰르거든. 거니까 알면은 또시 그 돈을 갈라먹젠 허면 돈이 족아지는 거잖아."[장수종]

(우리 그때 파도가 상당히 셌거든. 그러니까 배로 한 열흘, 열흘 걸렸을 거야.

-그럼 배 탈 때 뭐 먹을 것도 챙기고?

챙기지 않고 거기서 밥을 다 주대. 배 밑에 숨어가지고, 그 밥이라고 한 건 식당에서 뭐 했던 뭐지, 그 먹다가 남은 거, 그거 줘서 우리 조금씩.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한 번, 한 끼. 그것도 밤에. 그 선원이 한 이십오 명쯤 선원인 거야. 거기서 세 사람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알면 또 그 돈을 나누려고 하면 돈이 적이지는 거잖아.)

장수종은 부산에서 도쿄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갔다. 장수종이 탔던 배

는 일반적인 밀항선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광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었다. 사천 톤급의 화물선으로 선원이 25명 정도였다. 밀항 알선은 몇몇 선원이 개별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다른 선원들은 밀항자가 숨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같은 배를 탔던 밀항자들도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공간에 따로 숨어 있었다. 장수종은 밀항을 알선하는 선원의 집에 머물며 기회를 엿보다 같은 마을 이웃 네 명과 함께 부산에서 화물선을 타고 도쿄항으로 들어갔다.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대낮이었지만 항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땐 우리 팔촌 누님 남편이 일본 무역선을 탄 뎅겻주게. 게난 그 사름이, 일본 나오면서 웨삼춘아피 차빌 받으니까 그 차빌 고향에 앗다도렌 헤난 그 사름은 물건 사가지고 부산에 들어가당 그 세관에서 압수당허연. 게난 돈을 물지 못 헐 거니까 사름으로 보내믄 일본 데려다 주켄 헨. 나가 여기 와서 일년 동안 벌면서 거 우리 웨할머님신디 돈 갚앗주게. 그게 일본 돈으로 칠만 원. 아, 삼만 오천 원[3]. 그때 삼만 오천 원도 큰 돈이라.

-삼만 오천 원이면 61년도에 다른 사름덜에 비하면 대개 싸게 온 건데?

어, 우린 싸게 와서."[장수종]

(그땐 우리 팔촌 누님 남편이 일본 무역선을 탔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본 나오면서 외삼촌에게 차비를 받으니까 그 차비를 고향에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물건을 사서 부산에 들어가다가 그 세관에서 압수당했어.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할 거니까 사람으로 보내면 일본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내가 여기 와서 일 년 동안 벌면서 우리 외할머님에게 돈 갚았어. 그게 일본 돈으로 칠만 원. 아, 삼만 오천 엔. 그때 삼만 오천 엔도 큰 돈이야.

-삼만 오천 엔이면 61년도에 다른 사름들에 비하면 아주 싸게 온 건데?

어, 우린 싸게 왔어.)

"-어무니 올 때는 뱃삯을 얼마 줫수과?

그때 칠만 원. 일 년 후에가 칠만 원."[장수종]

(-어머니 올 때는 뱃삯을 얼마 줬습니까?

그때 칠만 엔. 일 년 후에가 칠만 엔.)

3) 여기에서 '원'은 '엔'을 말한다. 재일제주인 1세들은 화폐 단위를 이야기할 때 일본 돈을 이야기 하면서도 '원'을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에끼(えき)*에 완 ᄂᆞ리난, 곈 집이 오난 또 춪아왓어. 허난 돈은 엇이난 천천히 물크다. *이이요(いいよ)* 허멍 그 어른덜은 그냥 가불언. 글후제덜 헹 물엇주만은.

-돈 얼마나 물엇수과?

그때 돈 우리 *오야꼬(親子)*가 *나나만(七万)*썩 십ᄉᆞ만 원.

-한국에서는 돈 안 주고?

으, 아니 줜. *나나만(七万)*썩, ᄒᆞᆫ 사름이 *나나만(七万)*썩."[조옥선]

(역에 와서 내리니까, 그래서 집에 오니까 또 찾아왔어. 돈은 없으니까 천천히 물겠어요. 그래 하면서 그 어른들은 그냥 갔어. 그 후에 해서 물었지만.

-돈 얼마나 물었습니까?

그때 돈 우리 모자가 칠만씩 십사만 엔.

-한국에서는 돈 안 주고?

으, 안 줬어. 칠만씩, 한 사람이 칠만씩.)

"뱃삭은이 한국에서 오만 원 물고 여기서 이십만 원 물었어. 우리 올케가 물어 준 거야.

-게믄 한국에선 오만 원 주고 여기서는 이십만 엔?

응, 우리 올케가 가지고 가서 나를 데리고 온 거지. 오만 원은 선불 주고, 이십만 원은 헤서. 그걸 우리 올케네도 못 살아서 남의 집을 살고 있더라. 거니까 그거를 못 물어서 아메도 올케 아니가.[김영희]

(뱃삯은 한국에서 오만 원 물고 여기서 이십만 엔 물었어. 우리 올케가 물어 준 거야.

-그럼 한국에선 오만 원 주고 여기서는 이십만 엔?

응, 우리 올케가 가지고 가서 나를 데리고 온 거지. 오만 원은 선불 주고, 이십만 엔 해서. 그걸 우리 올케도 못 살아서 남의 집을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못 물어서 아무래도 올케 아니냐.)

배삯도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달랐다. 1959년 아들을 데리고 밀항한 조옥선은 한 사람이 칠만 엔씩 십사만 엔을 지불했다. 1961년 무역선을 타고 건너온 장수종의 경우는 삼만 오천 엔을 냈다. 일 년 후에 어머니는 칠만 엔의 배삯을 지불했다. 반면, 1967년 건너온 김영희는 한국에서 오만 원을 내고 일본에 도착한 후 이십만 엔을 지불했다고 한다.

재일제주인 1세의 이주 배경이나 과정은 각각의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일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일제주인의 이주에 관련된 앞선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바이다. 제주 사람들의 일본으로 이주 배경에는 가족과 친족이라고 주요한 연결 고리가 있었다.

일본 땅을 밟고

밀항이 불법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주 사람들이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이주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주 사람들이 혈연·지연에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밀항자에 대한 단속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경비망을 피해 밀항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도 인정하는 점이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일본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으로 생활이 자유로울 리 없었기에 그들의 생활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단속의 눈을 피해 혈연·지연에 의지하여 지낼 수 있는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으로 제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선시장 주변은 밀항자가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절호의 장소였다.

"경허난 우리 어머니, 어머니안티는 작은아버지주. 여기 완 그 공장에서 쭉 한 십 년 동안을 그 공장에서 일헤가지고.

-그 공장은 오사카 어디 잇어낫수과?

아노(あの) 조선이찌바(いちば) 마고또 병원 알아? 글로 조금 가민 거기 잇어나신디 그거 다 풀아불어가지고 저 히가시오사카, 동대판 기스리엔 헌 디 거기 갓어."[장수종]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작은아버지지. 여기 와서 그 공장에서 쭉 한 십 년 동안을 그 공장에서 일해서.

-그 공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조선시장 마코토 병원 알아? 거기서 조금 가면 거기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버리고 저 히가시오사카, 동대판 '기스리'라고 하는 데 거기 갔어.)

1965년 한일조약의 체결은 재일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교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 등 여러 의미에서 영향을 끼친다. 그 당시 일본은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그 경제 성장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오사카 이쿠노쿠에서도 사업들이 크게 부흥했던 것이다. 원래 가내수공업으로 이루어지던 곳에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이 고무 샌들, 케미칼 샌들 등 소위 헤프[4] 샌들이라 불리는 신발 제조 산업이었다. 이러한 산업의 부흥으로 일손을 필요로 하였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친척, 같은 마을 지인을 통해서 불러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일 국교가 정상화하여 정규 입국의 길이 열렸다고 해도 수속이 번잡할 뿐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소위 통통배라는 하는 배를 타고 어선 밑창에 숨어 일본에 들어왔다. 일단 밀항 알선자를 통행 일본에 와서 친척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숨어 지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경허난 처음에 밀항으로 온 사름덜은 일허영 집이 들어오민 목욕 감도 ᄆᆞᄉᆞ왕 못 갓어. 이젠 만딱 *후로(ふろ)*도 집이 이시난 헴주만은 그 시절엔 목욕탕 안 가민 목욕이 엇엇주게. 그 시절엔 다 목욕탕 갓주. 경허난 목욕탕에 일주일에 ᄒᆞᆫ 번 감도 ᄆᆞᄉᆞ와근에 아무 때나 갈 수가 엇엇주게. 겨난 집이서덜 물 데왕 머리 ᄀᆞᆷ고 다 헷주게. 옆이 사름덜이 수상헌 사름덜이 살암젠 허카부덴 뭘 수 이시민 한국 어른덜 집이 이층에 방덜 하나썩 빌엉덜 살고 그자 *도나리(となり)* 사는 사름덜도 모르게끔 조용히, 조용히. 말 ᄀᆞᆯ을 뭣도 엇주게. 겨난 이제도이 질레서 작작 말 ᄀᆞᆫ는 거 보민이 가심이 덜컥허여. 무사 저추룩 웨염신고 허영." [임순애]

(그러니까 처음에 밀항으로 온 사람들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목욕 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갔어. 이젠 모두 목욕탕이 집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시절엔 목욕탕 안 가면 목욕을 못 했어. 그 시절엔 다 목욕탕 갔어. 그러니까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무서워서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었어. 집에서 물 데워서 머리 감고 다 했어. 옆에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할까봐 될 수 있으면 한국 어른들 집 이층이 방들 하나씩 빌려서 살고 그저 이웃에 사는

4) '헤프 샌들'은 '헵번 샌들'이란 말에서 온 것으로 '오드리 헵번'이 영화에서 신었던 샌들에서 명칭이다.

사람들도 모르게 조용히, 조용히. 말할 뭣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도 길에서 크게 떠들며 말하는 거 보면 가슴이 덜컹해.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해서.)

"이 동네에서게 아이들 밀항으로 온 사름들이 있으니까들 다 같은 동네 사름들도 하고. 어디 일헴젠 허믄 그런 걸로 알고 허지게. 누게가 시켜주나게? 같은 고향 사름들. 같은 고향 사람이 *오야지(おやじ)* 허면은 그런 데서 일허고. 그디 잡으러 왐덴 허면은 도망허고. 하하. 벤소 가서 숨엇다가 어디 가서 숨엇다가 등록 없는 때는 우린 그러지."[김영희]

(이 동네에서 아이들 밀항으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같은 동네 사람들도 많고. 어디 일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알지. 누가 시켜주나?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이 주인으로 일하면 그런 데서 일하고. 거기 잡으러 온다고 하면 도망가고. 하하. 변소 가서 숨었다가 어디 가서 숨었다가, 등록이 없을 때는 우린 그러지.)

밀항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자유로울 리 없었다. 단속에 걸릴까 행동이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경찰의 단속이 있으면 주변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이 쪼끔썩 모지레 가니까 그 핑계로 자기는 등록을 잇으니까 없는 아일 없애버리면은 자기를 쓴다 헤가지고 그냥 밀고를 헤 분 거야. 거니까 그냥 바락 심으러 그냥 온 거야. 누구 헌 거는 나가 다 알고 있지.

-밀고하는 게 다 가까이 이신 사람들?

그래, 그렇게 심성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름, 우리 고향 사름들, 우리 고향 사름이 해. 일본 사름은 자기에 지장이 있으믄 밀고 허지만은 지장이 있으면. 자기가 지장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해. 한국 사름은 싸우고, 무시거 허고, 누게 헌 것도 다 알주게."[김영희]

(일이 조금씩 부족해 가니까 그 핑계로 자기는 등록이 있으니까 (등록이) 없는 아이를 없애버리면 자기를 쓴다고 그냥 밀고를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잡으러 그냥 온 거야. 누구 한 거는 내가 다 알고 있지.

-밀고하는 게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 그렇게 심성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우리 고향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이 해. 일본 사람은 자기에게 지장이 있으면 밀고 하지만 지장이 있으면. 자기에게 지장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해. 한국 사람은 싸우고, 무엇 허고, 누가 (밀고)한 것도 다 알지.)

제주 사람들은 마을이나 친족 단위로 관계망을 이루며 새로 들어오는 밀항자를 받아들였다. 밀항자는 먼저 와 있는 지인들 아래에서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갔다. 일본 경찰의 밀항자에 대한 단속이 있었지만 일본은 경제적 호황기에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을 적당히 방치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숨어 지내며 일하던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 단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밀항 단속에 걸려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밀항'은 제주가 살아가는 한 방법이었다. 4·3사건 당시 경찰 검거를 피해 제주 지식인들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그동안 끊겼던 양국 교류가 열리자,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든 많은 도민들은 한창 고도성장을 시작하는 일본으로 밀항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밀입국자의 검거 수는 1952년 2천 6백명으로 최고에 이르렀다가 1969년에는 6백7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늘기 시작해서, 1974년부터 연간 1천 명 선을 기록하고 있다. 1975년의 경우 해안에서 검거된 것은 약 10%로 나머지는 밀항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잠입하여 검거된 것이다. 1970년부터 5년간 해안에 검거된 것을 보면 90%가 제주도 출신이었다[5].

"일본 오단 걸렷잖아, 밀항으로 오단 걸리난에 보석 신청으로 나왓어. 언니네 시난 보석 신청으로 나와신디 한 삼 년 살아가난 한국 돌아가렌 허는 거라. 경헌디 그 입관 사름덜이, 대마도에는 여라 사름 잇지 안 허고 두 사름 잇어라. 게민 그 때도 두 덜에 흔 번산디 그디 강 서류 바꾸레 뎅겻주게. 겐디 그 어디 사모님이 *게도(けいと)* 짜는 선생이라. 게난 큰언니가 한국 가민 농서허지 말앙 먹어지게끔 자기 직장으로서 게도*(けいと)* 짜는 걸 배우렌 그디 강 배왓주게. 배우는디 그 관리청 사름이 한국 가지 말렌 허는 거라. 대마도 살믄 돌아가라 허

5) 제주특별자치도청(2010),『애향백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p.282.

니까 대판꺼장 가는 그 뭣을 끈어 줄 테니까 대판 강 들아나불렌 허는 거라. 무사녠 허니까 그 사름도 엿날에 서울 강 살앗덴 엿날에. 게난 한국보단 일본이 살기 좋난 일본서 들아나렌. 경헤영 이 오사카 와분 거라."[임순애]

(일본 오다가 걸렸잖아, 밀항으로 오다가 걸려서 보석 신청으로 나왔어. 언니네 있으니까 보석으로 나왔는데 한 삼 년 사니까 한국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입국관리국 사람들이, 대마도에는 여러 사람 있지 않고 두 사람 있었어. 그럼 그 때도 두 달에 한 번인가 거기 서류 바꾸러 다녔었어. 그런데 그 어디 사모님이 뜨개질 선생이야. 그러니까 큰언니가 한국 가면 농사하지 말고 먹고 살 수 있게 자기 직장으로 털실 짜는 걸 배우라고 해서 거기 가서 배웠어. 배우는데 그 관리청 사람이 한국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대마도에 살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사카까지 가는 그 뭣을 끊어 줄 테니까 오사카 가서 달아나라고 하는 거야. 왜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도 옛날에 서울 가서 살았었다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일본이 살기 좋으니까 일본에서 달아나라고. 그래서 이 오사카에 와 버렸어.)

"지나가단 잡혀시녜게. 저 *쓰가케(つっかけ)* 집이서 출리난 허단에 수금받으레 가단 순경이영 무신 일이 잇어 아메도 걸린 거 닮아. 게난 영 사름덜이 걸리는 게 밀골 허나 또 경허고 경찰이라도 넘어가단 요 사름은 이상허다 허믄 말을 물어. 겨난 운이 나쁘민 걸려드는 거라."[임순애]

((남편이) 지나가다가 잡혔어. 저 신발, 집에 차리니까 하다가 수금하러 가다가 순경과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걸린 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는 게 밀고를 하거나 또 경찰이라도 넘어가다가 요 사람이 이상하다 하면 말을 물어. 그럼 운이 나쁘면 걸려드는 거야.)

"오무라수용소에 간 때에 벤호사가 강 이혼 서류 받안에 이혼헤 불엇주게. 경허난 가짜 이혼이 아닌가 헹 조서를 헷주게. 가짜 이혼은 이혼이주만은. 경조살 헷주게. 겨난 보통으로 여기 와근에, 그 ᄆᆞ녀 밥 먹은 그 어른네도 남편 걸련 완에 또 자수헤영 등록 나왓젠. 자수헤영 나와신디 걸련사 나와신디 건 몰라도 그 다음에 등록헷젠 ᄀᆞᆫ더라. 게난 보통으론 다 그거라."[임순애]

(오무라수용소에 갔을 때 변호사가 가서 이혼 서류를 받고 이혼해 버렸어. 그러니까 가짜 이혼이 아닌가 해서 조사를 했어. 가짜 이혼은 이혼이지만. 그렇게 조사 했어. 그러니까 보통으로 여기 와서, 그 먼저 밥 먹은 그 어른도 남편 걸려서 (돌아갔다) 와서 또 자수해서 등록 나왔다고. 자수해서 나왔는지 걸려서 나나왔는지 그건 몰라도 그 다음에 등록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보통으론 다 그거야.)

"경찰에 잡히민 저 거세기 무시거, 형무소가 아니고 *유깐(入管)* 가사주게. 아니, 처음 잡히민 *유깐(入管)*이 아니라 미결소에 보낸다, 미결소. 저 재판허기 전이 임시 잇잖아. 그런 디 가근에. 그디 일주일, 보름 이시나마나 헤근에. 이 사름은 범죄가 아니니까. 뭐 한국 국적을 확인허민 *유깐(入管)*더레 보내불어. *유깐(入管)*에선 오무라수용소레 보내불주.

-게민 거긴 얼마 엇엉, 바로 보내부는 거?

흔 덜 정도 있는가? 견디 지금은 오무라수용소 안 보내잖아. 이젠 걸리민 그냥 미결소도 안 보내고 *유깐(入管)*더레 보내민 *유깐(入管)*에서 그냥 한국더레 보내불주. 그 대신 이젠 비행기표 자기 돈으로 안 허민 안 뒐 거 아닌가. 오무라수용소도이 운 좋민 빨리 가 한국더레. 거 멧 개월에 흔 번썩 배가 나가니까 그 배가 차기 전이 정도 가민 흔 덜 안 살앙 가곡. 그 배가 안 차민 육 개월썩 살앙 가는 사름이 잇곡. 우리 집 아방은 그런 건 빨라. 경허영 그냥 오무라로 한국더레 들어가주게."[임순애]

(경찰에 잡히면 저 거시기 뭐, 형무소가 아니고 입국관리국 가야지. 아니, 처음 잡히면 입국관리국이 아니라 미결소에 보낸다, 미결소. 저 재판하기 전에 임시 있잖아. 그런 데 가서. 거기 일주일, 보름 있으나마나 해서. 이 사람은 범죄가 아니니까. 뭐 한국 국적 확인하면 입국관리국으로 보내버려. 입국관리국에선 오무라수용소로 보내버리지.

-그럼 거긴 얼마 있다가, 바로 보내는 거?

한 달 정도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오무라수용소 안 보내잖아. 이젠 걸리면 그냥 미결소도 안 보내고 입국관리국으로 보내면 입국관리국에서 그냥 한국으로 보내지. 그 대신 이젠 비행기표 자기 돈으로 안 하면 안 될 거 아닌가. 오무라수용소도 운이 좋으면 빨리 가 한국에. 거 몇 개월에 한 번씩 배가 나가니까 그 배가 차기 전에 정도 가면 한 달 안 살고 가고. 그 배가 안 차면 육 개월씩 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 아버지는 그런 건 빨라. 그래서 그냥 오무라수용소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지.)

북으로 간 사람들

밀항자는 경찰에 단속되면 입국관리국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송환될지 여부가 결정되어 오무라수용소[6]로 보내진다. 이들은 제주도로 송환되

6) 해방 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밀항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이들을 관리하고 수용하기 위해 1950년 10월 나가사키현(長崎縣) 하리오(針尾)에 수용소를 설치했다. 이어 그해 12월 오무라에 수용소가 설치되어 하리오 수용소의 기능이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1993년

었지만, 다시 밀항하다가 검거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한 밀항자 중에는 단속에 걸려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우리 왕 보니까 북송선, 저 니가타에서 뎅길 때. 경허난 공휴일날 뒈면 저 코리아타운 뒷길에 산 뎅기지 못 헤여, *니모쯔(にもつ)* 정리헌다고. 고향에 간다고 행 우리신디도 고향에 가자고, 저 조국 가자, 공화국에 가자 경허여. 우리 고모 아들도 나 그때 열아홉일 때, 열아홉엔 공부하지 노동하지 않는다고 공화국에 가면 공부할 수 다 있다고, 집도 주고."[장수종]

(우리가 와서 보니까 북송선, 저 니가타에서 다닐 때. 그러니까 공휴일이 되면 저 코리아타운 뒷길에 서서 다니지 못 해, 집 정리한다고. 고향에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고향에 가자고, 저 조국 가자, 공화국 가자, 그렇게 해. 우리 고모 아들도 나이 그때 열아홉일 때, 열아홉에 공부하지 노동하지 않는다고, 공화국 가면 공부할 수 있다고, 집도 주고.)

재일한국인은 1947년 5월 2일 공포되었던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갑자기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고 더욱이 1952년 4월 28일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고 '무국적상태'에 놓여졌다. 동시에 일본 정부의 판단에 의한 추방이 가능해졌다.

1959년 8월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의 적십자사 사이에 「재일조선인 귀환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재일한국인을 집단적으로 북한에 보낸다. 추진 주체인 총련에서는 이를 '귀국 사업'이라 하였고 저지·반대 운동을 전개한 민단에서는 '북송 사업'이라 불렀다. 1959년에 시작된 북송은 1984년까지 이루어졌는데, 186회에 걸쳐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일본은 당시 다수의 재일 한국인 생활 피보호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있었고, 북한에서는 노동자와 기술자가 필요했다. 배는 북한이 준비했지만, 니이가타(新潟)까지의 교통비와 식비 등을 일본이 부담한 것은 재일한국인을 몰아내고 싶은 일본과, 조금이라도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북한과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여기에 일본에서의 민족 차별, 취업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재일한국인의 바람과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겹쳐서 조직적

오무라 수용소의 명칭이 오무라 입국관리센터로 변경되었다.

인 귀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제주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르방 결국은이 우리도 몰르게 북선 가불엇저. 죽어신디 살아신디. 뭐 죽기야 죽엇주만은. 자식덜이 어린 때에. 일본 각시 헤낫주게. 경허난 일본 사름 뒌 덴 데령 간 거야. 견디 각시는 안 갓어. 안 강 막 글후제 나신디 왕 어디 촞아 만지건 연락헤 주민 무시거 보내켄 헤라. 나가 어떵 촞아."[임순애]

(할아버지(작은 시아버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북한 가버렸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죽기야 죽었지만. 자식들이 어렸을 때에. 일본인 아내를 했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본 사람 된다고 데리고 간 거야. 아내는 안 갔어. 안 가고 그 후에 나에게 와서 어디 찾을 수 있으면 연락해 주면 무엇 보내겠다고 해. 내가 어떻게 찾아.)

"-그니까 육십 년도에 와시난 그때 막 그디 가젠 허는 사름이 많안?

한. 막 천지란게. 우찌모 고도모 쯔레떼 *잇따라(うちも子供つれて行ったら)* 그디 가민 집도 주고 아으도 공부도 시켜 주곡. 일도 그디서 나왕 허곡 허난 민나(みんな) 가렌 허는 사름이 *오오까따와(多かったわ). 소우다께도 우찌라, 우찌노 오또우상와 우찌 히또리다께다시(そうだけどうちら、うちのお父さんは、うち一人だけだし). 우찌(うち)* 북송 *잇따라 민나 고로시떼 시마우까라 우찌와 이께헨 잇떼(いったらみんな殺してしまうから うちは行けへん言って)*, 우리 시누이덜토 *민나(みんな)* 민단*야까라 이꾸노 한따이야시(やから行くの反對やし)*, 경헨 아니 간. 우리 시집 사름도 ᄉᆞ춘 시아주방, 큰시아방 아들네 너으 새끼가 갓어. 펜지도 아니 오고 죽어신디 살아신디 *와까란(わからん)*."[조옥선]

(-그러니까 육십 년도에 왔으니까 그때 거기(북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

많아. 아주 천지였어. 우리도 아이 데리고 가면, 거기 가면 집도 주고 아이도 공부도 시켜 주고. 일도 거기서 나와서 하니까 모두 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래도 우린, 우리 아버지는 나 혼자이고. 내가 북한 가면 모두 죽여버리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시누이들도 모두 민단이니까 가는 거 반대하고 그래서 안 갔어. 우리 시집의 사람도 사촌 시아주버니, 큰시아주버니 아들네 명이 갔어. 편지도 안 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임순애의 작은 시아버지도 이 시기에 자식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갔다.

총련 활동을 했던 작은 시아버지는 일본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려해 북한으로 건너갔다. 조옥선의 사촌 시아주버니 형제도 북한으로 간 후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게고 여기서 고등학교 뎅기는 아이들 수학여행 가게 되면은 선생이 일본 가면 절대 이디 말 하지 말라고. 나쁜 말을 허질 말라고. 어저께 여기서 만난 남자 어른 있었지? 그 사름 메느리가 *기따쪼센(北朝鮮)*계야. 게난 그 큰아덜이 결혼혯주만은. 그 아이가, 메누리가 공부를 잘 헤난 모양이라. 경헹 어떵 북한을 강 오게 뒈신디 경헌디 화장실에 가난 똥이 나오질 못 허커라렌. 너무 추접헤가지고. 겐 갔다 왕 문딱 국적 한국 국적, 이번에 일본 국적으로 다 바꿔불어실 거라."[장수종]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수학여행 가게 되면 선생이 일본에 가면 절대 여기 말 하지 말라고.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어제 여기서 만난 남자 어른 있었지? 그 사람 며느리가 북조선계야. 그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며느리가 공부를 잘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을 갔다 오게 됐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가니까 똥을 누지 못하겠더래. 너무 추접해서. 그래서 갔다 와서 모두 국적 한국 국적, 이번에 일본 국적으로 다 바꿨을 거야.)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을 내보내기 위한 일본의 정책과 '지상낙원'을 표방하며 조선인의 귀향을 적극 추진하는 북한의 정책에 의해 해방 후 일본에 남아 있던, 또 밀항으로 건너와 일본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 북송선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북한에 간 사람들에 의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들로부터 접하게 된 북한의 상황은 그들이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송환 후 다시 밀항

"얼마 만이 와신고 몰라. 거 계산해 보지 안 허난. 흔 일 년 정도 더 잇어실 거라, 몰라도. 한국 간 살단 각시도 얻고 헨 살앗주게. 경헌디 아방은 안 곧는디 시아방안티서 편지가 왓어라. 아기덜 생각행 도저히 못 살켄 허난 일본 보내노렌 편지 왓더라.

-또 밀항으로 온 거?

밀항으로. 완 살단 등록 만들앙 나완에 흔 십 년 쪼금 살앗저. 나는 그 전이, 우리 서이새낀 나왓주게. 아방은 글후제 살단에. 견디 큰아덜이 스물멧 살 뒈난 아방이니까. 난 호 떨어부난 나사지 안 헤도 큰아덜 나사난 등록이 나오더라." [임순애]

(얼마 만에 왔는지 몰라. 거 계산해 보지 않으니까. 한 일 년 정도 더 있었을 거야, 몰라도. 한국 가서 살다가 각시도 얻어서 살았어. 그런데 남편은 말하지 않는데 시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었어. 아기들 생각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니 일본 보낸다고 편지 왔더라.

-또 밀항으로 온 거?

밀항으로. 와서 살다가 등록 만들어서 나와서 한 십 년 조금 살았지. 나는 그 전에, 우리 세 명은 나왔지. 아버지(남편)는 그 후에 살다가. 그런데 큰아들이 스물 몇 살 되니까 아버지니까. 난 호 떨어버리니까 나서지 않아도 큰아들이 나서니까 등록이 나오더라.)

밀항자 중에는 단속에 걸려 한국으로 송환되었다가 다시 밀항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임순애의 남편은 세 번이나 밀항 단속에 걸려는데 한 번은 보석 기간 중에 달아났고 두 번은 송환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송환은 1965년으로, 임순애는 스물세 살에 결혼해서 그 해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두 번째 송환은 1976년이었다. 임순애의 남편은 두 번 모두 한국에 송환되었다가 얼마간 지내고 다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2. 일본 사회에 정착 과정

이주 초기 생활

"오사카 오난 눈앞이 캄캄이야. 대마도선 언니네 집이 사난 분시 몰르게 살아신디 저냑 배 고판에 눈물이 졸졸 나. 겡헤도 누구안티 강 밥 줍센도 못허고. 오사카에 오빠 잇어도이 올케, 집이 왕 보민 밥 다 먹어불언 엇나. 점심은 일허는 디서 밥을 주니까 먹어신디 저냑에 흔 시간 더 일허믄 우동을 흔 사발 줘, 그 시절에. 겐디 다섯 시꼉장은 보통 안 줘. 겐 집이 왕 보민 다 밥 먹어불어서."[임순애]

(오사카 오니까 눈앞이 캄캄이야. 대마도에선 언니네 집에 사니까 철 모르게 살았는데 저녁에 배가 고파서 눈물이 졸졸 났어. 그래도 누구에게 가서 밥 달라고도 못하고. 오사카에 오빠 있어도 올케, 집에 와서 보면 밥 다 먹어버리고 없어. 점심은 일하는 데서 밥을 주니까 먹었는데 저녁에 한 시간 더 일하면 우동을 한 사발 줘, 그 시절에. 그런데 다섯 시까지는 보통 안 줘. 그래서 집에 와서 보면 다 밥 먹어버렸어.)

"누게 삼춘 하나가 대마도서 오사카에 왓어. 아이구. 그 삼춘 보난 막 설러왕 막 울어지는 거야. 겨난 무사닌 허난에 어디 방 빌엉 가젠 헤도 돈도 엇고. 경헨 흔 열흘 시난에 대마도에서 돈을 보내 왓어. 돈 삼만 원을 보내왓더라고. 게난 그거 삼만 원으로 방 빌언에 냄비도 사고 뭣도 허연에 그 삼촌허고 둘리 살앗주게. 겨난 쳇 번 흔 덜 허난 돈 팔천 원 벌어신가. 아, 졸바로 허지 못 허연 처음이니까."[임순애]

(누구 삼촌 하나가 대마도에서 오사카에 왔어. 아이고, 그 삼촌을 보니까 아주 서러워서 울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고 하니까, 어디 방을 빌려서 가려고 해도 돈도 없고. 한 열흘 지나니까 대마도에서 돈을 보내 왔어. 돈 삼만 엔을 보냈더라고. 그거 삼만 엔으로 방 빌리고 냄비도 사고 뭣도 해서 그 삼촌과 둘이 살았어. 그러니까 첫 번 한 달 일하고 돈 팔천 엔 벌었는가. 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처음이니까.)

"오난 이디 질도 모르고 일도, 일도게 배왕 허젠 허믄게 경 흔 뻔에 헤지지 못 허고. 나니(なに) 허난 이디 강 허믄 그 일을 허지 말앙 이 일을 허렌 들아강 허민 말쿠뎬도 못 헹 강 허민 시원 안 허고. 경허멍 흔 일 년 뒁굴뒁굴 허단

일을 배완 이녁냥으로 일은 헷주게. 일은 허멍 아은 그냥 총련흑교 그냥 놓.”[조옥선]

(오니까 여기 길도 모르고 일도, 일도 배워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한 번에 잘 하지 못하지. 뭐 하니까 여기 가서 일하면 그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데리고 가면 안 하겠다고도 못하고 가서 하면 시원치 않고. 그러면서 한 일 년 뒹굴뒹굴 하다가 일을 배워서 스스로 일을 했지. 일은 하면서 아이는 그냥 총련 학교에 넣고.)

“경헨 오난 아이도 그냥 반 벵신, 어멍도 반 벵신. 정신 출리지 못헹. 헌디 이디 가민 저리 가라, 저디 가민 이리 가라 허난 아기도 울곡 어멍도 울곡. ᄀᆞ치 허멍 일허는 어른들은, 아는 어른들은 이디도 오랑 ᄀᆞ치 허렌 헹 강 그디 강 일허곡. 그땐 *오야꼬(おやこ)*가 *요우나이딴야(よう泣いたんや)*. 경 정 살멍 이 노릇을 어떵헹 좋으코 헹.”[조옥선]

(그렇게 오니까 아이도 반 병신, 어머니도 반 병신. 정신 차리지 못해서.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이리 가라 하니까 아기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같이 일하는 어른들은, 아는 어른들은 여기도 와서 같이 하라고 해서 가서, 거기 가서 일하고. 그땐 모자가 많이 울었어.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단속의 눈을 피해 어렵게 일본에 도착했다고 해도 바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낯선 땅이었다. 친척이나 가족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일자리를 찾고 숙소를 마련하고 생활 도구를 마련하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다.

“방을 빌젠 가난 할머니가 안 빌려주켄. 한국서 온 사름 안 빌려준다고. 겐디 오빠 말을 허난, 오빠가 여기 살아나니깐이 오빠 말을 허니까, 동생이 오빠 같으겠지 헤서 빌려준다고.”[김영희]

(방을 빌려고 가니까 할머니가 안 빌려주겠다고. 한국에서 온 사람 안 빌려주겠다고. 그런데 오빠 말을 하니까, 오빠가 여기 살았었으니까 오빠 말을 하니까 동생이 오빠 같겠지 해서 빌려준다고.)

“*쵸도(ちょうど)* 영헌 방이라. 영헌 디 안네 뚤 성제, 아덜 하나 서오누이가

눅는 방이고, 요만은 헌 방 요거 요만은 헌 방, *니죠(にじょう)* 방 에새끼가 살렌 빌어 주난, 눵 잠시민 왕 발도 불르멍 들어가고, 하하. 에새끼가 *마(ま)* 뭐 헤도 에새끼*다께다까라(だけだから)*. 언 땐 이불 하나, 이불도 엇이난 그때 시누이 더끄던 이불 줜 그걸 더껑 누웟단 허단, 추우난 여름 나민 좋켜, 여름 나민 좋켜 헨 여름 나가난 벳 발르고 *미나미 무끼다까라(南向きだから)* 밤인 그디 눅고. 에새끼가 울곡 경허멍 첨 그디 혼 삼 년 살앗어."[조옥선]

(꼭 이런 방이야. 이런 데 안에 딸 형제, 아들 하나 서오누이가 눕는 방이고, 요만한 방 요거 요만한 방에 어머니와 아들 살라고 빌려 주니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와서 발도 밟으면서 들어가고, 하하. 어머니와 아들 뭐 해도 어머니와 아들이니까. 추울 땐 이불 하나, 이불도 없으니까 그때 시누이가 덮던 이불을 줘서 그걸 덮고 지내다가, 추우니까 여름이 되면 좋겠어, 여름이 되면 좋겠어. 여름 되니까 볕이 들고 남향이니까. 밤에는 거기 눕고. 어머니와 아들이 울고 그러면서 참, 거기 한 삼 년 살았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일본인의 경우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방을 빌려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같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단속을 피해 지내야 하는 밀항자들이 반가울 리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리 잡은 친척에 의지해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말은 서툴지만 천천히 배워 가며

재일제주인이 모여 살았던 조선시장 주변은 우리말[7]이 통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우리말로 의사소통은 제한적인 수밖에 없었다. 신분을 숨기고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등 일본인과 마주치는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때문에 귀동냥으로 조금씩 배워가며 더듬거리며 서툰 일본어로 말해 보며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갔다.

"말은 *테레비(テレビ)* 보고 허난 우리 혼 3개월, 4개월 뒈난 보통 말하는 건

7) 여기서 '우리말'은 중의성을 갖는데, 재일한국인에게 '우리말'은 '한국어'를 가리키지만, 재일제주인에게 '우리말'은 '한국어'를 가리키기도 하고 '제줏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제보자들은 구술에서도 '제줏말'과 '한국말'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조선말'이라고 하기도 한다.

알아지대. 저 *테레비(テレビ) 방구미(ばんぐみ)*도 한자로 많이 쓰잖아. 난 그 한자 공부허니까 대개 의미는 좀 틀리지만은, 그 한국 의미허고 일본 한자 의미는 틀리지만은. 게난 ᄒᆞᆫ 멧 개월 시난 ᄒᆞ꼼씩 알아졋주. 그땐 경."[장수종]

(말은 그건 텔레비전 보고 하니까 우리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보통 말하는 건 알 수 있었어. 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한자도 많이 쓰잖아. 난 그 한자 공부하니까 대개 의미는 좀 틀리지만은, 그 한국 의미하고 일본 한자 의미는 틀리지만.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있으니까 조금씩 알 수 있었어. 그땐 그렇게.)

"한국말을 안 허기 때문에, 일본말만 허기 때문에 ᄒᆞᆫ 일 년 뒈 가믄이 주고받고 허는 말은 다 허여지더라. 한국말을 아예 못 허니까. 이녁 아는 처지에만 쪼금 말허주. 시장에 갓든 어디 갓든 사는 건 이젠 뭐 헹 삼주만은 *수빠(スーパ)*에 강 삼주만은 그 시절엔 다 *야오야(やおや)*ᄀᆞ치 질레서만 풀곡 허난 그런 디 가도 그자, 그자 *고레(これ)* 허영 ᄀᆞ리치민 주는 거뿐이니까 한국말을 아예 안 허니까 벱기가 쉬왓주게."[임순애]

(한국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말만 하기 때문에 한 일 년 돼 가면 주고받고 하는 말은 다 할 수 있더라. 한국말을 아예 못 하니까. 자기 아는 처지에만 조금 말하지. 시장에 갔든 어디 갔든 사는 건 이젠 뭐 해서 사지만 슈퍼에 가서 사지만 그 시절엔 다 야채가게같이 길에서만 팔고 하니까 그런 데 가도 그저 그저 이거 해서 가리키면 주는 거뿐이니까 한국말을 아예 안 하니까 배우기가 쉬웠지.)

장수종은 3, 4개월 지내면서 간단한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학교 다닐 때 한자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일본어 글자를 보면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임순애는 일본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일본에 건너갔는데 일 년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일본어를 알아듣고 간단한 말은 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쓰는 것은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있을 때였고 대부분 일본어를 써야 했기 때문에 빨리 일본어를 익힐 수 있었다.

서로 의지하고자 결혼

"견디 일헹 가는 것이 ᄃᆞᆯ베낀 못 베리는 거라. 낮인 집이 갈 수가 엇어. 아침이 강 밤이 ᄃᆞᆯ만 베려지멍 울어지는 거야. 무사 오사카에 와져신고. 그때에 한

국 갈 수도 엇어. 주수허민 어떵헹 가? 경허난 가도 오도 못 헌 거야 이제. 대마도서 형부가 가렌 헐 때 가부컬 그 생각이 나젼에. 경헤도 헐 수 엇이 이제 어떵어떵 허니까 신발 허는 거 배완. 배완 흔 일, 이 년 헤신가 헤연 아방허고 결혼헷주게. 무사 그때 결혼 안 해도 뒛주만은 외로와서."[임순애]

(그런데 일하고 가는 것이 달밖에 못 보는 거야. 낮엔 집에 갈 수가 없어. 아침에 가서 밤에 달만 보면서 우는 거야. 왜 오사카에 왔을까. 그때에 한국에 갈 수도 없어. 자수하면 어떻게 가? 그러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 하는 거야 이제. 대마도에서 형부가 가라고 할 때 가버릴 걸, 그 생각이 들어.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신발 만드는 거 배워서. 배워서 한 일, 이년 했나, 하고 남편하고 결혼했어. 그때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외로워서.)

"그디도 총련에 어멍 아방덜 *민나(みんな)* 한국 가부난, 첨, 저 북선 가부난 날 닮은 사름이 잇언, *오또꼬노 히또야네(男の人やね).* 그디 오랑 일허멍 밥은 못 먹으민 배고팡 술이나 흔 잔 먹곡 *나니(なに)* 허멍 헌디 일허는 어른덜 오민 *벤또(弁当)* 남으민 주곡. 그 사름이영 그디서 어떵 어떵 헹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집이 아덜도 둘앙 강 불쌍헌 거여 이거 저거 사 주고 *나니(なに)* 헤 가난 그 사름이 이제 나 느네 아방 헤시민 좋켄. 게난 으, 헤도 좋텐 우리 집이 아덜이. *가와가떼 구레루까라(可愛がってくれるから).*"[조옥선]

(거기도 총련에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한국 가버리니까. 참, 저 북한 가버려서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 남자가. 거기 와서 일하면서 밥은 못 먹으면 배고파서 술이나 한 잔 먹고 뭐 하면서 하는데, 일하는 어른덜 오면 도시락 남으면 주고. 그 사람과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서 불쌍하다고 이거 저거 사 주고 뭐 해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 네 아버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으, 해도 좋다고 우리 집 아들이. 귀여워해 주니까.)

가족을 떠나 이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임순애는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임순애나 조옥선은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다. 서로 의지하고자 비슷한 처지에 있던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하리꼬’ 일을 하며

오사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는 고무 제조, 플라스틱 제조, 봉제업, 신발 제조업, 금속 제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신발 제조업은 중소 영세 공장에 의한 분업 체제로 이루어졌다. 각종 부품을 제작하고 이 재료들을 합쳐 하나의 완성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 재봉, 밑창 붙이기, 압축 등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각의 단계에서의 일은 하청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곳의 가내 공장을 거치게 된다. 그만큼 많은 일손을 필요로 했다.

“-게민 신발 하나 나오젠 허믄 집을, 몇 개의 집을 거쳐야 되는 거라?

다 허게 되면 한 열 멧 밧디 거치는 거 아니? *기지(きじ)* 헤다가 *노리비끼(ノリびき)* 헤가지고 *노리(のり)* 부쪄. 그 다음에 *사이당(裁断)*에 와가지고 재단헤 가지고 그 다음 *나이쇼쿠(ないしょく)* 가가지고 이제 이걸 문딱 이런 걸 다 부쪄야 뒈지, 이거. *우라오모떼(うらおもて)* 문딱 부쪄가지고 이제 미싱 가지. 이제 이찌기리를 헤가지고 그 다음은 그걸 헤가지고 이제 *하리바(貼り場)* 가가지고, *하리꼬(はりこ)* 허는 디 가서 풀 멕여가지고 그걸 이제 부쪄가지고 *앗짝(さっさく)* 헤가지고 그 다음은 *하꼬스메(はこつめ)*. 한 열 멧 밧딘 걸쳐야 뒌다고.

-*하리꼬(はりこ)* 허는 게 맨 마지막 단계?

질 마지막.“[장수종]

(-그럼 신발 하나 나오려고 하면 집을, 몇 개의 집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 하게 되면 한 열 몇 군데 거치는 거 아니. 천 해다가 풀 붙여가지고 풀 붙여. 그 다음은 재단에 와서 재단해서 그 다음 내직(內職)으로 하는 가내 공장에 가서 이제 이걸 모두 붙여야 돼, 이거. 앞과 뒤 모두 붙이고 이제 재봉틀 하는 데 가지. 이제 ‘이찌기리’해서 그 다음을 그걸 해서 이제 붙이는 곳 가서 풀 먹여서 그걸 이제 붙여서 압착해. 그 다음은 상자에 넣어. 한 열 몇 군데 거쳐야 된다고.

-‘하리꼬’ 하는 게 맨 마지막 단계?

제일 마지막.)

“엿날에 한국서 온 사름덜은이 일헐 건 엇고 돈 날 건 다 그 하*리꼴(はりこ)* 헷주게. 나도 마찬가지. 옛날에 막 사름덜이 풀이 나빠부난 막 아프고 죽는 사름도 잇어라. 겐 우리 큰오빠 못 허게 헌디 완 보난에 대마도서 혼 2년 살앙 오사카 오난이 인심이 너미 박헤 놓난 이넉으로 벌지 안 허민 살 수가 엇어.“[임

순애]

(옛날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일할 건 없고 돈이 나오는 건 다 그 신발 붙이는 일을 했어. 나도 마찬가지. 옛날에 사람들이 풀이 나쁘니까 많이 아프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 큰오빠가 못 하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대마도에서 한 2년 살다가 오사카 오니까 인심이 너무 박해서 자기대로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신발을 만드는 일에서 마지막 단계는 재단된 재료를 신발 틀에 맞추어 풀로 붙이는 일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리꼬'라고 불렀다. 많은 재일제주인 여성들이 이 일에 종사하였다. 임순애, 김영희도 일본에 와서 처음 시작한 일이 '하리꼬'였다. 조옥선은 처음 얼마간 비옷을 만드는 일, 재봉 일을 몇 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칠십대 초반까지도 이 일을 계속 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제 근무가 아니라 완성된 제품 개수에 따라 수입이 달랐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문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신발을 붙이는 데 쓰이는 접착제 냄새 때문이었다.

"힘들어서 못 허겠더라 *하리꼬(はりこ)*는.

-무사 뭐가 힘들언?

밤이 오래여서. 또시 이 알레르기 체질이니까 기침 나오고 *노리, 노리(のり, のり)* 냄새로. 겐 그거 이 년밖에 안 헨."[김영희]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하리꼬'는)

-왜 뭐가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해서. 또 알레르기 체질이니까 기침 나오고 풀, 풀 냄새로. 그래서 이 년밖에 안 했어.")

"사람이 죽어 그 냄새, 게난 나가 그 일을 헤가난 코 막앙 숨을 못 쉬는 거야. 경허난 병원에 강 아멩 검사헤도 원인을 몰라. 경허당 그 일을 그만 두난 코가 탁 터젼. 겨난 그 병원에 뎅기던 것이 일 설러부난 안 뎅겻주."[임순애]

(사람이 죽어 그 냄새,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해가니까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몰라. 그러다가 그

일을 그만 두니까 코가 탁 트였어. 그러니까 그 병원에 다니던 것이 일 그만두니까 안 다녔지.)

접착제 냄새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리꼬' 일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배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완성된 제품 개수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 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재일제주인 여성들이 이 일을 했던 것이다.

"금방 오면 그 일들 허니까 하리꼬들 헤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잇서. 오래 허면은 먹을 거 충분 나와. 그걸로 아이덜 공부도 시키고 먹을 걸 나와. 나오니까 일을 허고 헷지, 그 일이 박허잖아. 신나 냄새. *우께도리(うけとり)*니까이 한 이십만 원썩도 되고 십만 원썩도 되고 한 달에."[김영희]

(금방 오면 그 일들 하니까 신발 붙이는 일들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어. 오래 일하면 먹을 거 충분히 나와. 그걸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먹을 거 나와. 나오니까 그 일을 했지, 그 일이 박하잖아. 시너 냄새. 하청이니까 한 이십만 엔씩도 되고 십만 엔씩도 되고 한 달에.)

견디 *나레루(なれる)* 헌 사름은 ᄒᆞ루에 이백 배 정도, 이백 배 더 헌다. 그런 사름은 그 기술 이신 사름은 보통 만 원 벌이 헌덴 허여. 경헌디 열 시간은 헌다. 영 보민 아침부터 허는 사름 빨리덜 오주게. 빨리 오고 저냑엔 다섯 시 정도에덜 다 간다만은 그냥 빨리 와. 게난 일이 박허여.[임순애]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하루에 이백 배 정도. 이백 배 더 한다. 그런 사람은 그 기술 있는 사람은 보통 만 엔 벌이 한다고 해. 그런데 열 시간은 일한다. 이렇게 보면 아침부터 하는 사람, 빨리 오지. 빨리 오고 저녁에 다섯 시 정도에 다 가지만 그냥 빨리 와. 그러니까 일이 박해.)

난 그자 하영 못 허고 그자 ᄒᆞᆫ 십만 원 *아마리(あまり)*. ᄒᆞ는 사름덜은 막 밤낮 아니 헹 허믄 *산쥬망(三十万), 이쥬망(二十万)* 허는 사름도. 난 하영 헤사 *쥬고만구라이 하지메와(十五万ぐらいはじめは)* 헤가단. 뭐 아무 걸 헤도 십만원 우인 헷주게."[조옥선]

(난 그저 많이 못 하고 그저 한 십만 엔 넘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밤낮없이 해서 하면 삼십만, 이십만 하는 사람도. 난 많이 해야 십오만 정도 처음에는 하다가. 뭐 아무 것을 해도 십만 엔 위로는 했어.)

‘다노모시’를 통해 돈을 모으고

‘다노모시’는 일종의 ‘계(契)’로 한 사람이 대표자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 한 달에 한 번씩 회비를 모으고, 모은 회비는 회원 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소액의 돈을 가진 사람들 여럿이 모여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을 회원들이 돌아가며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돈을 받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 사이에는 기간 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데 먼저 돈을 받아 쓴 사람은 회비와 함께 먼저 쓴 돈만큼의 이자를 더 내는 방식이다.

“그땐 오난 한국 사름덜 *다노모시(たのもし)*가 널어져 *시따야로(したやろう)*. 경 안 허민 *우찌라 도우야떼 가네 가리루노(うちらどうやって金借りるの)*. *가네 가리루 도꼬로가 아루헨야(金借りるどこがありへんや)*. 우리 등록 엇인 사름이 하난. 난 들여주지도 안 허고. 경허난 아는 어른이, 걱정 말라, 영 영 헹 *다노모시(たのもし)*, 나허고 순배엔 헌 어른 둘이 경헌 사름이 잇어낫어. 경허민 그 어른허고 나허고 헨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엉, 나 혼 번 놧저, 두 번차 놀 거여. 느 놩 놧당 어디 강 씨라. 느 놓민 나 ᄂᆞ려와 주마. 혼 멧 번 놩 허당 그거 ᄂᆞ려와 주민, 이제 따시 하나 들곡. 그걸로 씨곡. 일을 허영 보충해 가단 그거 ᄂᆞ류왕 물곡 따시 들곡 허난 돈에 걱정을 엇엇주 그때에. 경허난 그때 돈 헹 강 아이덜 굿도 헤 준다, 할마님네 죽어부난 이제, 아니 허민 *아깡(あかん)*이엔 헨 아이덜 이영 굿 헌다 허멍 경 정 헹 돈도 쓰고.”[조옥선]

(그때 오니까 한국 사람들 ‘다노모시’ 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어떻게 돈을 빌려. 돈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잖아. 우리 등록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난 (다노모시)에 들여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는 어른이, 걱정 말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노모시를, 나하고 순배라는 어른 둘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 어른하고 나하고 해서 다노모시 들어서 나 한 번 넣었어, 두 번째 넣을 거야. 네가 넣어다가 어디 가서 써라. 네가 넣으면 내가 곗돈을 받아 줄게. 한 몇 번 내다가 그거 받으면, 이제 또 하나 들고. 그걸로 쓰고. 일을 해서 보충해 가다가 그거 받아서 물고 다시 들고 하니까 돈에 걱정이 없었어,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 돈 해서 아이들 굿도 해 준다, 할머님이 죽으니까 이제,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해서 아이들 굿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돈도 쓰고.)

“옛날은이 돈 없으니까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어가지고. 은행 못 허니까 *다노*

모시(たのもし) 들어서 그걸로 이제. 신용허면은 미리 내려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거 보내고. 또 그걸로 이제 공부 다 허니깐이 돈 키울라고, 그거는 모일라고 그거 옛날에는."[김영희]

(옛날은 돈 없으니까 다노모시 들어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다노모시 들어서 그걸로 이제. 신용이 있으면 먼저 돈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거 보내고. 또 그걸로 이제 공부 다 하니까 돈 키우려고, 그거는 모으려고 그거 옛날에는.)

정식적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던 밀항자 신분의 재일제주인에게 '다노모시'는 돈이 필요할 때 먼저 받아 쓰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다. 밀항자의 신분이 아니더라고 '다노모시'는 당시 재일제주인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다노모시'를 통해 돈을 모아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재산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 '다노모시'는 도중에 목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재일제주인 1세들은 '다노모시'를 통해 돈을 운용하였다. '다노모시'는 급전이 필요하고 목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유용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받는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 외국인 등록을 마쳐 정식 외국인으로 일본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이다. 이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야 일본 정부의 단속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야 하는 밀항자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떳떳하게 일본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류 관리는 1947년 5월 2일에 발포된 외국인등록령에 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교부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등록을 하려면 해방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밀항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든 증빙 서류를 손에 넣은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밀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일본인과의 결혼이나 반드시 일본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나 요건을 갖

추고서야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게민 밀항 왕, 61년도에 왕 그렇게 딱 등록받은 게 몇 년 걸린 거과?

에또(え-と) 밀항으로 와가지고 13년, 13년에 걸려가지고 한 5년, 6년 돼가지고. 6년 돼니까 *아노(あの)* 나왔지. 19년, 뭐 20년. *아노(あの)* 등록 나온 거. 고향에서 왕 *에이쥬껜(えいじゅうけん)* 받을 때꺼지 허믄 19년, 20년. 게고 특별영주권 헌 사람들은 등록 *기리가에(きりかえ)* 헐 때도 *규약쇼(区役所)*에서 허거든. 우리는 *낭꼬(南港)*에 가야지. *아노(あの)* *유코꾸간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 *낭꼬(南港)*에. 게니까 뭐 이제 7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 건 걱정 엇주만. 저 번엔 3년에 한 번, 경허당 5년에 한 번씩 허당 7년에 한 번. 경허난 여기서 밀항으로 온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헷어."[장수종]

(-그럼 밀항 와서 61년도에 와서 그렇게 딱 등록받은 게 몇 년 걸린 겁니까?

에, 밀항으로 와서 13년, 13년째에 (단속에) 걸려서 (등록 나오는 게) 한 5년, 6년 돼서. 6년 되니까 나왔지. 19년, 뭐 20년 등록 나온 거. 고향에서 와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하면 19년, 20년. 그리고 특별영주권인 사람들은 등록 갱신할 때도 구청에서 하거든. 우리는 난코에 가야지. 뭐 이제 7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 건 걱정 없지만. 저 번에는 3년에 한 번, 그러다가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서 밀항으로 온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

"나는 서른셋 정도에 시작헨이 등록 나오는디 흔 오륙 년 더 걸련게.

-그때 자수헌 거?

자수허연. 자수허면 임시, *가리(かり)* 등록 나온다. 흔 덜에 흔 번씩 바꽈야 헐 거. 그거 바꾸레 매덜에 가신디 매덜에 가는 거 성가시난 사름 저 거세기 국회의원 통허영 등록 만든다게. 그 시절에 여기 국회의원.

-돈 줭?

으, 게민 그런 디서 다 집어놔 줘. 보통 경헌 사름이 하. 돈 하영 든다. 그 시절에 돈 천만 원 안 든 사름 엇저. 다 경 들엇저. 저 누게엔 밝히지 못 허는 거, 그런 거. 다 돈덜 하영 들엇저."[임순애]

(나는 서른셋 정도에 시작해서 등록 나오는데 한 오륙 년 더 걸렸어.

-그때 자수한 거?

자수했어. 자수하면 임시, 임시 등록 나와.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할 거. 그거 바꾸러 매달에 갔는데 매달 가는 게 성가시니까 사람 저 거세기 국회의원 통해서 등록을 만들었어, 그 시절에 여기 국회의원.

-돈 주고?

으, 그럼 그런 데서 다 집어넣어 줘. 보통 그런 사람이 많아. 돈 많이 들어. 그 시절에 돈 천만 엔 안 든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들었어. 저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다 돈들 많이 들었어.)

"등록 받은 거는 마흔, 한 8년 만이 받앗어. 일할라 허니깐게 자수헷거든. 자수헤야지게. 게서 그거를 나오니까 금방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헌 거를 다 말헤. 심어가도 안 허고 자수를 헌 거야 나는."[김영희]

(등록을 받은 거는 마흔, 한 8년 만에 받았어. 일을 하려니까 자수했거든. 자수해야지. 그래서 그거 나오니까 금방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다 말해. 심어가지도 않고 자수를 한 거야, 나는.)

"흔 덜에 만 원썩 이 년간, 이 년간 그디 돈을 냈어, 기부. 아기덜 생각혜영 이 년간을. 우리 아이덜을 길롸줍서, 길롸줍서 허는 마음으로 이 년간을. 나가 등록 허젠 *유깐(入管)*에 가니까 뭐 좋은 일 했나 궂은 일 했나 다 나오는 거야. 경 돈 낸 게 다 나오는 거야. 이런 사름은 십만 명에 하나 시나 마나엔. 흔 덜 두 덜 허는 사람은 있어도 이 년꺼지 허는 사람은 없다고. 게난 등록이 금방 나왓어."[김영희]

(한 달에 만 원씩 이 년간, 이 년간 거기 돈을 냈어, 기부. 아기들 생각해서 이 년간을. 우리 아이들 길러주세요, 길러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년간을. 내가 등록을 하려고 입국관리국에 가니까 뭐 좋은 일 했나 궂은 일 했나 다 나오는 거야. 그렇게 돈을 낸 게 다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십만 명에 하나 있으나 마나라고. 한 달 두 달 (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 년까지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등록이 금방 나왔어.)

장수종은 1961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지 13년 되는 해에 단속에 걸리게 된다. 보석으로 나온 후 등록 신청을 하는데 신청 후 등록이 나오기까지 5, 6년 정도 걸렸다. 17살에 일본에 건너간 임순애는 서른세 살 정도에 자수하였는데 등록이 나오기까지 마찬가지로 5, 6년 걸렸다. 1967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김영희는 신발 붙이는 일, 재봉일 등을 하다가 오빠가 운영하는 가내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운 후 독립하여 가내 공장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자수를 했다. 자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을 받았는데 밀항한 지 8년 만에 받은 셈이다. 일본에 간 후 얼만 없어 고향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어린이를 돌보는 기관에 매달 만 엔씩 2년 동안 기부했던 기록이 있어서 빨리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도움

"아이고, *소레까라야(それからや) 구로스루노와(苦勞するのは).* 동서네 집이 가민 시누이네 집이 가근에 밥이랑도 잇건 ᄌᆞ근ᄌᆞ근 먹으렌 날ᄀᆞ라. 나만 속으로 밥이사 먹젠 허민 씹엉도 먹고 아멩이라도 헹 먹주, 경 ᄌᆞ근ᄌᆞ근 씹으렌ᄁᆞ장 골으멍 날 먹으렌 헴구나. 나만 속으로. 암만 살아도 아니 뒘직헨 집을 빌엉 간디 일로 요만헌 디 에새끼가 눕곡 헨. 그디 ᄒᆞᆫ 삼 년은 살아져실 거라 그디서. 이제 동서네 집이 강 부름씨 헤 봣*따리(たり),* 시누이네 집이 강 부름씨 헤 봣*따리(たり).*"[조옥선]

(아이고, 그때부터야 고생하는 것은. 동서네 집에 가면 시누이네 집에 가서 밥이라도 있건 자근자근 먹으라고 날보고. 나만 속으로 밥이야 먹으려고 하면 씹어서도 먹고 어떻게든 먹지, 그렇게 자근자근 씹으라고까지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구나. 나만 속으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집을 빌려서 갔는데 요만한 데 아들과 눕고 했어. 거기 한 삼 년은 살았을 거야, 거기서. 이제 동서네 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시누이네 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일본 완 보난 친척은 베린 척도 안 허고. 그 시절엔이 친척덜도 베린 척 안 헤라. 등록 엇어 놓민 걸림이라도 허민 지네 피해 뒈카부덴 다덜 물러사불어. 게난 그 어른도 오빠덜 잇어도 베린 척도 안 헤 놓니까 너미 너미 웨로우니까."[임순애]

(일본 와서 보니까 친척은 본 척도 않고. 그 시절에는 친척들도 본 척을 안 해. 등록 없으면 걸리기라도 하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다들 물러서. 그 어른도 오빠들 있어도 본 척도 않으니까 너무 너무 외로우니까.)

"또 걸린 거. 난 ᄒᆞᆫ 번 걸령 그냥 저 들어간에 나완에 두 번채 아방 걸리난 자수헌 거야. 처음 걸련 보석헨에 나오난 도망쳐 불엇주. 그때 도저히. 견디 우리 족은 시아방네가이 도와주질 안 헤라. 그때 일본 돈 오십만 원 가져오민 등록 헤주켄 헌 사름이 잇어. 견디 우리가 돈이 삼십만 원 가졋주게. 게난 이십만 원만 도와줍서 헷주게. 일 년만 꾸와십센 헌 거라. 일 년 꾸와시민 일 년 동안 나 벌엉 물쿠다 헌디 안 헤 줘라. 겐 아방을 한국 보내분 거라. 겨난 ᄂᆞᆷ도 줜

마는디, 조케 돈 이십만 원 안 줭, 그런 생각헤져.”[임순애]

(또 걸린 거. 난 한 번 걸려서 그냥 저 들어갔다 나와서 두 번째 남편이 걸리니까 자수한 거야. 처음 걸려서는 보석해서 나오니까 도망쳐 버렸어. 그때 도저히. 그런데 우리 작은 시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어. 그때 일본 돈 오십만 엔 가져오면 등록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돈이 삼십만 엔 있었어. 이십만 엔만 도와달라고 했지. 일 년만 빌려주라고 한 거야. 일 년 빌려주면 일 년 동안 내가 벌어서 물겠다고 했는데 안 해 줬어. 그래서 남편은 한국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도 주고 마는데 조카 돈 이십만 엔 안 주고, 그런 생각해.)

제주에서 생활이 힘들어 어렵게 일본에 왔지만 의지하려 했던 친척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밀항자들이 마냥 반가울 리 없었다. 도움을 줄 거라 기대했던 가족, 친척이었기에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서러움은 더했다.

“하이고, 겐 오란 살아가난 이젠 저 아읜 흑교에 놓난 건국흑교 놔 *시따야로(したやろう)*. 건국흑교 놓난 멀고 말 몰르고 질 몰르고. 쳇 번은 둘아가난 난 뭐 일 허젠 허믄 *쯔레떼 이까레헨나(つれて行かれへんな)*. 아읜 강 오란 돌아왕 앚앙 울곡.”[조옥선]

(아이고, 그래서 와서 살아가니까 이제 저 아인 학교에 넣으니까, 건국학교에 넣었어. 건국학교 넣으니까 멀고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첫 번은 데리고 가니까 난 뭐 일 하려고 하면 (매번) 데리고 갈 수 없지. 아인 갔다 와서 돌아와서 앉아서 울고.)

“겐 살아가고 나도 일허멍 살아가난 그땐 아의도 이젠 지냥으로 허단 *고꼬(こうこう)* 가켄, *고꼬(こうこう)*를 보내난. *아노 다시마, 다시마(あの だしま、だしま)*엔 헌 디 *고꼬(こうこう)*가 잇주게. 허난 그딜 보내난, *아노(あの)* 총련 고등학교. 그디 가난 이제 이디서 일허는 아이덜, 한국서 오고 말도 잘 몰르고 헌 거엔 아, 옷을 입젠, 새 옷 사단 입젠 흑교 갈 걸로 헹 간. 저냑인 온 건 보난 옷이 *보로보로(ぼろぼろ)*라. 무사 경헤시니 허난. *마(ま), 바까니(ばかに)* 허연 말도 못허고 한국서 온 거엔 허멍 뜬 옷 찢어부난 나 일허크라. *가꼬(がっこう)* 아이 가켄.”[조옥선]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일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땐 아이도 이제는 자기대로 하다가 고등학교 가겠다고 고등학교 보내니까. 저 다시마라고 한 데 고등학교가 있어. 거길 보내니까, 저 총련 고등학교. 거기 가니까 이제 여기서 일하는 아이

들, 한국에서 오고 말도 잘 모르고 한 거라고 아, 옷을 입혀서, 새 옷을 사다가 입혀서 학교 갈 걸로 해서 갔어. 저녁에 온 거 보니까 옷이 너덜너덜이야. 왜 그랬니 물으니까. 무시해서, 말도 못하고 한국에서 온 거라고 하면서 옷 다 찢어버리니까 나 일하겠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또한 이민 사회에서 같은 한국 사람들 간의 차별과 갈등도 있었다. 조옥선의 아들은 열한 살에 어머니와 일본에 가서 조선학교에 들어갔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건국학교에 들어갔으나 일본 말도 근처 지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건국학교를 다니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가까운 조선학교에 들어갔다. 이쿠노쿠 조선시장 근처에 위치한 조선학교 초급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중급학교 진학했는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구타를 당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총련) 무사 이서낫주게. 게난 여기서 일본서 밀항으로 와가지고 아이들 학교 뎅기젠 허믄 조선학교 아니믄 저 금강학교주게. 금강학꼰 머니까 조선학꼰 요 근처에 있으니까 그거 헹 보냇주게. 경허영 이제 또 등록 뒈믄 거 빼젠 허믄 빼지 못헹 막 야단이라."[장수종]

((총련) 왜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서 밀항으로 와서 아이들 학교 다니려고 하면 조선학교 아니면 저 금강학교지. 금강학교는 머니까, 조선학교는 요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보냈어. 그래서 이제 또 등록 되면 거 빼려고 하면 빼지 못해서 아주 야단이야.)

당시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정식 등록이 없는 밀항자들이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는 북한계의 조선학교나 한국계의 금강학교, 건국학교가 있었다. 한국계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금강학교나 건국학교는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조선학교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련 사름덜이 핫저. 경헌디 우리 한국서 온 사름덜은 곱앙 살아도 이 총련 사름덜은 밀고 안 헌다. 그거는 알아야. 옛날에도 총련 사름은이 살려주젠 허주게. 민단 사름덜은 밀고허젠 허고. 경허난 민단에 나사지 못헌 사름은, 밀항으로 온 사름덜은 ᄆᆞᄉᆞ왕 민단에 나사지 못허주게. 총련 사름덜은 저 사름 한국서 온 사름이엔 헤도 곱져줘. 그건 잇어저 엿날부터. 경허난 이 민단, 저 총련 막 싫어허는 사름덜토이 감춰주니까 그디 좋아허지도 아무것도 안 헴주만은 감춰주니

까 그 사름덜 의지헹 산 사름덜 핫주게. 경허더라. 이 골목 골목에서 그 시절엔 영화도 다 허고이, 총련 영화 질레서. 저 무시거 청이 질레서덜 막, 북선 영화덜 막 허더라.

-총련 들렌 막 허지 안 헙니까?

그런 건 안 허여. 그런 거 안 허고 같은 한국 사름이니까 그자 경찰에로 걸리지 말게꾸름 헤주주 허는 식이로 헤엿주."[임순애]

(총련 사람들이 많았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도 그 총련 사람들은 밀고 안 해. 그거는 알아야. 옛날에도 총련 사람들은 살려주려고 하지. 민단 사람들은 밀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민단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밀항으로 온 사람들은 무서워서 민단에 나서지 못하지. 총련 사람들은 저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숨겨줘. 그건 있었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민단, 저 총련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감춰주니까 거기 좋아하지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감춰주니까 그 사람들 의지해서 산 사람들 많아. 그렇더라. 이 골목 골목에서 그 시절엔 영화도 다 하고, 총련 영화 길에서. 저 뭐를 쳐서 길에서, 북한 영화들 하더라.

-총련 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저 경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식으로 했지.)

한편, 재일제주인이 이민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게 이웃한 사람들의 도움도 컸다. 집을 장만할 때 스스로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섰을 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꺼이 발 벗고 나서는 이웃이 있었기에 차별 속에서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 전인 놈의 집이 강 일허단 이 집이 오기 전이도 집 빌언 헷주게. 경헌디 이 집이 풀젠 내놓난 친구가 돈 엇어도 이 집 사는 것이 좋수덴 허연. 헤신디 그 시절에 쓰가케(つっかけ) 허는 공장 사장덜도 도와줘라게. 벤리 엇이 다 돈 내여주고. 그 집이 일덜 헤가난, 일본 사름이라도이. 게고 일본 사름 하난 나 혼자 일 못 허켄 허민 일도 도와주고 혼 번씩. 그 사름덜 다 죽어불엇주만은. 어떵헌 게 일본 사름덜이 어떵어떵 허민 만나민 친허여져."[임순애]

(그 전엔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이 집에 오기 전에도 집 빌려서 했지. 그런데 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친구가 돈 없어도 이 집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 했는데 그 시절에 신발 만드는 공장 사장들도 도와주더라. 이자 없이 다

돈 내주고. 그 집 일 하니까, 일본 사람이라도. 그리고 일본 사람 하나는 나 혼자 일 못하겠다고 하면 일도 도와주고 한 번씩.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지만. 어떠한 것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만나면 친해져서.)

"건데 공장을 찰릴라믄 돈이 필요허니까 딸이 쪼끔썩 준 돈이 있으니까 많진 않지만. 벤리가 그때는 막 비싸낫어. 그때는 벤리가 막 비싸니까 원전만 썼다가 원전만 달라고. 나보고 돈을 저금헌 걸 앗다가 쓰라고."[김영희]

(그런데 공장을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딸이 조금씩 준 돈이 있으니까 많진 않지만. 이자가 그때는 아주 비쌌었어. 그때는 이자가 아주 비싸니까 원전만 썼다가 원전만 달라고. 나보고 저금한 돈을 가져다가 쓰라고.)

3. 이민 사회에서의 생활 문화와 고향과의 교류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제주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국땅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 이쿠노쿠 조선시장 주변에서는 제줏말로 소통할 수 있었다. 제주의 향토 음식이 있었고 제주의 전통 문화가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이주하여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본어를 익혀 사용하고 생활하면서 점차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간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조선시장 주변은 제주의 문화와 일본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말로 소통할 수 있는 곳

"*레인코토(レインコート)* 허는 디가 우리 *신세끼(親戚)* 어른이 영헌 디서 헴시난 그디 강 들어보카, 그디 강 헤 보젠 허권데 아무 일이라도 허여 보멍 어떵 일을 찾으나 어떵 헙주게. 경허난 경허렌 헨. 요디 *하리(はり)* 허는 딘 간 보난 또 우리 신촌 아는 어른네 집이라. 다 *민나(みんな)* 아는 집이라. 아이고, 오랏구나."[조옥선]

(레인코트 하는 데가 우리 친척 어른이 이러한 데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들어볼까, 거기 가서 해 볼래 하길래, 아무 일이라도 해 보면서 일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했어. 요기 신발 하는 데 가 보니까 또 우리 신촌 아는 어른의 집이야. 모두 아는 집이야. 아이고, 왔구나.)

조옥선은 1959년 열한 살 아들을 데리고 오사카에 살고 있는 시누이에 의지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을 찾기 위해 찾아간 친척이 운영하는 가내 공장뿐만 아니라 이웃한 가내 공장의 사람들도 모두 고향에서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국땅이었지만 조선시장 주변은 낯익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다.

출신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자문화 유지율을 높인다. 이는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조선시장을 중심으로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본 사회 안에 독특한 '언어의 섬'을 형성하게 된다. 일본 정부

의 단속을 피해 제주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형성하여 생활하게 하였고 정식적인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제줏말로 소통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주방언 화자의 유입은 이곳에 제주방언이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국가의 경계를 넘은 곳이었지만, 오사카 조선시장 주변은 우리말[8]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다.

"경허도 *소노 도끼와(そのときは)* 한국서 온 사름이 하도 하난 말 *ᄀᆞᆯ*아도, 질레서 만낭 말 *ᄀᆞᆯ*아보민 *ᄆᆞᆫ* 한국 사름이난*나(な)*. 아, *고찌와(あ、こちは)*, 이 *ᄉᆞ*방 넘어사민 *마(ま)* 일본 사름이 *오오이케도(おおいけど)* 일본 사름도 *ᄆᆞᆫ* 조선 사름 뒈영 나 조선말 *ᄀᆞᆯ*으민 알아들어 *스루네(するね)*, 그 사름도. *아, 아 고찌노(あ、あ、こちの)*. 우리 시누이영 동세네영 그디 아무 집이 *교다이야, 욧따라 민나 찬또(兄弟や、ゆったらみんなちゃんと)* 그 *ᄉᆞ*방에서 *민나(みんな)* 아난. *아, 츠루노 도꼬노 네짱야(あ、ツルのとこの姉ちゃんや)*. 멀리 아니 가난 조선*이찌방(いちばん)* *ᄉᆞ*방에선 일도 아무 디라도 이녁냥으로 *ᄎᆞᆺ*앙 가곡*나(な)*."[조옥선]

(그래도 그때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말을 해도, 길에서 만나서 말해보면 모두 한국 사람이니까. 아, 이쪽은, 이 사방 넘어서면 일본 사람이 많지만 일본 사람도 모두 조선 사람이 되어서 내가 조선말 하면 알아들어. 그 사람도. 아, 아 이쪽. 우리 시누이와 동서와 거기 아무 집에 형제야, 말하면 모두 잘 그 사방에서 모두 아니까. 츠루하시 누구네 언니야. 멀리 안 가니까 조선시장 사방에선 일도 아무 데여도 자기대로 찾아서 가고.)

조선시장 주변이 우리말이 소통되는 곳이라는 것은 조옥선의 구술에서 잘 알 수 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말을 걸어 보면 한국인이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어느 집에 와 있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다. 제주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도 웬만한 제줏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 그땐 우리 코리아타운에서, *이마(いま)* 코리아타운 있잖아. 거긴 우리 *ᄒᆞᆫ* 대여섯 시, 밤이믄 한국말로 거 *미세(みせ)*에 가가지고 한국말로, 보통 알아도

8) 여기서 '우리말'은 중의성을 갖는데, 재일한국인에게 '우리말'은 '한국어'를 가리키지만, 재일제주인에게 '우리말'은 '한국어'를 가리키기도 하고 '제줏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제보자들은 구술에서도 '제줏말'과 '한국말'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조선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땐 뭐 뭐 말 안 해. 경찰관 지나갈 땐 말 안 허고 일본말로 허고. 경헌디 경찰도 대갠 알주. *아노 나마리, 나마리(あのなまり、なり)*가 뒈잖아 우리가. 게믄 일본 사람들 뭐 허믄 고향 어디녠 허믄 우린 규슈렌 곧주게. 규슈 사름들이 *나마리(なまり)* 많이 허니까. 규슈 어디녠 허면 규슈 고향 잘 모르켄, 우린 어릴 때 여기 나와부난 모르켄 헤영."[장수종]

(아, 그땐 우리 코리아타운에서, 지금 코리아타운이 있잖아. 거긴 우리 한 대여섯 시, 밤이면 한국말로 거 가게에 가가지고 한국말로, 보통 알아도 그땐 뭐 뭐 말 안 해. 경찰관 지나갈 때 말 안 하고 일본말로 하고. 그런데 경찰도 대갠 알지. 저 사투리, 사투리가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일본 사람들 뭐 하면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우린 규슈라고 하지. 규슈 사람들이 사투리 많이 하니까. 규슈 어디냐고 하면 규슈 고향 잘 모르겠다고, 우린 어릴 때 여기 나와서 모르겠다고 해서.)

장수종은 조선시장 근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하였는데 일이 끝나면 가끔 동료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찾기도 했다. 조선시장 안의 식당에서는 한국어(제줏말)가 통했다. 서툰 일본어에 의아해하며 일본인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규슈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었다.

조선시장 주변 지역은 제주 사람들끼리 모여 지역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일본인과 직접 상대할 일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인으로부터 크게 차별을 받거나 한 기억은 없다. 하지만 밀항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영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난 쯔루하시광 이 새에서 사난 어디 멀릴 안 나갓주."[조옥선]

(난 츠루하시와 이 새에서 사니까 어디 멀리를 안 나갔지.)

조옥선은 줄곧 조선시장 근처에 거주하며 일을 해왔다. 이주 후 대부분의 일생을 보낸 그곳은 우리말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다.

'콥대사니 지시'를 담가 먹고

"이 조선*이찌바(いちば)* 다 제주도 음식덜 이시녜게. 엇인 거 시냐게.

-지금이야 막 잇주만은?

옛날에는 다 이녁냥으로 멘들멍덜 먹엇저. 옛날엔 멜첫도 담으멍 먹어라. 난 멜첫은 안 먹으난 담앙 놔두민 누게 줘불엇저만은. 담아 보긴 헷저. 멜, 멜이 막 헐헐 때가 잇어. 이삼백 원어치 사도 그 벵으로 하나 허난에."[임순애]

(이 조선시장 다 제주도 음식들 있잖아. 없는 거 있니.

-지금이야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자기대로 만들면서 먹었어. 옛날에 멸치젓도 담그면서 먹더라. 난 멸치젓은 안 먹으니까 담가서 누구 줘버렸지만. 담가 보긴 했어. 멸치, 멸치가 아주 쌀 때가 있어. 이삼백 원어치 사도 그 병으로 하나 하니까.)

큰손지 쯤은 콥대사니 지시도 잘 먹나. 콥대사니 지시. 겐디 일 감 시작허난 안 먹나. 학교 뎅길 때 그거 해년마다 담아 줘신디.[임순애]

(큰손지 쯤은 마늘장아찌도 잘 먹어. 마늘장아찌. 그런데 일 가기 시작하니까 안 먹어. 학교 다닐 때 그거 해마다 담가 줬는데.)

"김친 엿날에사 쭉 담앙 먹엇주. 엿날엔이 조기덜이 이디 하영 나라. 그거 사단 막 세 시간 정도 딸리민 물이 헤영허여. 그거 걸려근에 그걸로 *다시(だし)*헤여근에 김치도 담고 그 시절에 경헤라. *가쯔오부시(かつおぶし)* 그런 거 *곤부(こんぶ)* 거튼 것도 딸령도 허고. ᄀᆞ을 뒈민 뒈나마나 김치 담아사 허여, 그때는. 이거 아니 담은 거 ᄒᆞᆫ 삼십 년 됏주. 고춧ᄀᆞ루도 여기서 다 풀앗어. 겨난 이녁으로 고칫ᄀᆞ루 사단 놓고 마농도 여기 ᄑᆞ난 저 생강도 ᄀᆞᆯ아 놓고. 겐 *에비(えび)* ᄀᆞ튼 거, ᄆᆞᆯ른 *에비(えび)* 그런 거 막 솖아근에 *다시(だし)* 내영 그런 것도 놓고. 겨믄 집이서 만든 건디 맛좋덴 허는디 이제덜은 하영 안 먹어부난. 그땐 이것저것이 엇어사 헌디이 김치 하영 담아도. 저슬에 먹단 부족허민 또 담곡 헷주. 배춘 이디 이신디 일본 사름덜도 배추 하영 먹는디 이디 배추는 물이 하영 난다. 한국 배추 닮지 안 허영. 한국 배춘 물이 하영 안 나니까 김치가 오래 놔둬도 헌디 이디 껀 오래 놔두민 막 물 나온다."[임순애]

(김친 옛날에야 쭉 담가 먹었지. 옛날엔 조기들이 여기 많이 나왔어. 그거 사다가 세 시간 정도 달이면 물이 하애. 그거 걸려서 그걸로 양념해서 김치도 담그고 그 시절엔 그랬어. 가츠오부시 그런 거 다시마 같은 것도 달여서 하고. 가을 되민 어쨌든 김치를 담가야 해, 그때는. 이거 안 담근 거 한 삼십 년 됐어. 고춧가루도 여기도 다 팔았어. 그러니까 자기대로 고춧가루 사다가 넣고 마늘도 여기 파니까 저 생강도 갈아 넣고. 그리고 새우 같은 거, 마른 새우 그런 거 잘 삶아서 국물 내서 그런 것도 넣고. 그럼 집에서 만든 건데 맛있다고 하는데 이

제는 많이 안 먹으니까. 그땐 이것저것 없어서 김치 많이 담가도. 겨울에 먹다가 부족하면 또 담그고 했지. 배추는 여기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배추 많이 먹는데, 여기 배추는 물이 많이 나. 한국 배추 같지 않아. 한국 배추는 물이 많이 안 나니까 김치가 오래 놔둬도 괜찮은데 여기 건 오래 놔두면 물이 많이 나온다.)

임순애는 마늘장아찌, 김치 등을 직접 담가 먹었다. 멸치젓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렴하게 멸치를 구할 수 있으면 조림으로 반찬을 해 먹고 남은 것은 젓갈로 담았다. 맛있게 만들어진 젓갈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마늘장아찌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손자도 좋아하는 음식이다. 김치를 담그면서도 재료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

'빙떡'을 만들어서 제사 제물로 들고 가고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사는 돌아가신 선조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일제주인의 제사는 부계 친척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손과 사돈, 친한 이웃들이 모두 참여하여 조상 제사를 통해 그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삿집은 그러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였다.

"제사든 뭐든 여기가 옛날식이야. 경허난 한국서 시집온 사름덜은 막 웃어. 이거 엿날식이엔. 뭐 헴수과 허영. 죽어불민 메기주게.

-게도 어른덜 생각은 제사를 잘 지내야 자손덜이 펜안허덴 생각을 허난.

게메 말이여, 그것이 존 것산디. 그자 제사도 안 헤도 뒈는디. 제주 사름덜이 생일은 안 출려도 제서 멩질은 잘 출렷어. 일본에 완 아부지 제서는 오빠 산 때 까정은 제서 먹으레이 친척덜 와라. 견디 아부지, 오빠 돌아간 후젠 한국서 허난."[임순애]

(제사든 뭐든 여기가 옛날식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웃어. 이거 옛날식이라고. 뭐 하고 있냐고 해서.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래도 어른들 생각은 제사를 잘 지내야 자손들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것이 좋은 것인지. 그저 제사도 안 해도 되는데 제주 사람들이 생일은 안 차려도 제사 명절은 잘 차렸어. 일본에 와서 아버지 제사는, 오

빠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제사 먹으러 친척들이 와. 그런데 아버지, 오빠 돌아간 후에는 한국에서 하니까.)

"경 우리 친척에 식게 먹으러도 뎅기고. 요즘은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안 헤도. 우리도 어떤 땐 제사 때 ᄉᆞ못 대소상 닮아 ᄒᆞᆫ 오십 명씩 들어와.

-빈손으로 가진 않은 거 아니?

안 가지. 게믄 그 비용은 나오메. 부주 암만 못 혜도 오천 원. 술 가져가는 사람도 싯고. 술 가게 뒈믄 *비루(ビール)* 한 박스. 아, 우리 처음에 왔을 땐 일 안 허고 허난 삼천 원, 그땐 삼천 원."[장수종]

(그렇게 우리 친척에 제사 먹으러도 다니고. 요즘은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안 해도. 우리도 어떤 땐 제사 때 사뭇 대소상 같아서 한 오십 명씩 들어와.

-빈손으로 가진 않은 거 아니?

안 가지. 그럼 그 비용은 나와. 부조 아무리 못 해도 오천 원. 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술 가게 되면 맥주 한 박스. 아, 우리 처음에 왔을 땐 일 안 하고 하니까 삼천 원, 그땐 삼천 원.)

"-겐 제서 먹으레 가젠 헤도 빈손으로 안 가실 거 아니?

그땐이 술을 사 가더라. 저 이수펭으로 하나 담아진 술을 사가나 뭐 두 펭 사가는 사름도 잇고. 경헌디 이제덜은 술을 먹지도 안 허고. *마(ま)*, 올려도 ᄂᆞ리민 베꼇더레 케우려불주 아무도 안 먹나만은. 이젠 돈으로 앗앙 가주 술은 안 앗앙 간다.

-쏠 같은 거라든지 상웨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안 가졍 갓수과?

엿날에는 앗앙 가는 사름덜도 잇엇주게. 나도 아버지 제서엔 빙 만들앙도 앗아가나고 경 헷저.

-빙은 어떵 지져난?

ᄆᆞ물ᄏᆞ루 그때도 잇어라 여기. 게난 ᄆᆞ물ᄏᆞ루 사단에 거 여긴 또 그때부터 가스가 잇으난 가스에서 후라이판 놔근에 지졋주게. 경헤신디 ᄒᆞᆫ 멧 해 허나마나 헹 글후제덜은 그 송펜을 자꾸 만들아신디 것도 멧 해 허나마나 허단 아예 사단 올리주 만들지덜 안 헤."[임순애]

(-그래서 제사 먹으러 가려고 해도 빈손으로 안 갔을 거 아니?

그땐 술을 사고 가더라. 술을 하나 사고 가거나 두 병 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술을 먹지도 않고. 올려도 내리면 밖에 흩뿌리지 아무도 안 먹어. 이젠 돈으로 가지고 가지 술은 안 가기고 간다.

-쌀 같은 거라든지 상화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안 가지고 갔습니까?

옛날에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나도 아버지 제사에는 빙떡 만들어서 가지고 갔었어.

-빙떡은 어떻게 지졌었어요?

메밀가루가 그때도 있었어, 여기. 그러니까 메밀가루 사다가 거 여긴 또 그때부터 가스가 있으니까 가스에서 프라이팬 놓고 지졌어. 그랬는데 한 몇 해 하나마나 해서 그 이후에는 그 송편을 자주 만들었는데 것도 몇 해 하나마나 하다가 아예 사다가 올리지, 만들지 않고.)

-게민 그 사삼 때 돌아가신 제사를 이디서?

여기 큰오빠가 이시난 큰오빠가 헷주.

-언제서부터 헷수과?

나 완 보난 헴시난 몰라. 한국서도 허고 여기서도 허고. 두 밧디서 헷주게. 큰언니도 여기 이시난 처음엔 세 밧디서 헤실 거여. 큰언니넨 대마도서 사니까. 아버지 제사는.

-게민 아부지 어디 먹으러 갈 거라?

몰라, 하하. 한국서 어무니가 허고. 이제는 한국서, 이제 조케만 허는 거주. 오래비 아덜. 이디 헐 사름 엇이난. 헌디 아부지도 하도 오래 놓난 제서도 잊어분다. [임순애]

(-그럼 그 4·3 때 돌아가신 제사를 여기서?

여기 큰오빠가 있으니까 큰오빠가 했지.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나 와서 보니까 하고 있으니까 몰라. 한국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두 군데서 했지. 큰언니도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 세 군데서 했을 거야. 큰언니네는 대마도에 사니까. 아버지 제사는.

-그럼 아버지 어디 먹으러 갈 거야?

몰라, 하하. 한국에서 어머니가 하고.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조카만 하는 거지. 오라비 아들. 여기 할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도 너무 오래니까 제사도 잊어버려.)

임순애의 아버지는 4·3사건 때 제주에서 돌아가셨다. 임순애의 오빠는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아버지 제사를 일본에서 지내왔다. 물론 고향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임순

애는 아버지 제사에 제물로 '빙떡'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

제사상에 '오토미'와 '시리떡'을

"-게민 제사헐 때 음식은 뭐 헤난?

음식, 젓갈 보통 세 가지. 시아주방 바당에서 죽으난 저 바당고긴 안 쓰더라. 도야지 고기, 소고기 여기서. 요샌 *에비(えび)*덜 헌다만은 그 시절은 상이덜 허여. 지금은 *에비(えび)* 헌다. 점점 제따꾸(ぜいたく) 낭이 이젠 상이덜 안 먹으난에. 늑신네덜은 먹나만은 젊은 아이덜은 안 먹어라. 생선도 올리고.

-생선은 무슨 생선 올려?

오토미. 제사헐 거 다 이제 사단에 물련에 냉동헤 놔 뒷저. 오토미 허고 과일 세 가지, 다섯 가지. 과일은 여기 하난. 그자 그 정도주게. 떡 조금 사단 올리고. 옛날엔 송편 ᄀᆞ튼 건 만들아신디 지금은 아무도 안 만든다.

-시리떡도 만들고?

시리떡은 집이서 만들어 본 도래 엇다. 송편 정도 만들엇주만은. 그 시절에도 완 보난 시리떡은 만들앙 풀암서라. 게난 보통이 시리떡 ᄀᆞ튼 거, 손 가는 건 다 사단. 여기 시장에 ᄑᆞ느네, 옛날부터. 옛날은 더 풀앗저. 이젠 하영 아니 쓰니까 조금만 허주만은. 카스테라엔 헌 거 그런 것도 쓰는 집 잇곡이. 나도 떡 ᄒᆞᆫ엇이 아니 사진다."[임순애]

(-그럼 제사할 때 음식은 뭐 했었나요?

음식, 적 보통 세 가지. 시아주버니는 바다에서 죽으니까 저 바닷고기 안 쓰더라. 돼지고기, 소고기 여기서. 요샌 새우들 하지만 그 시절은 상어들 해. 지금은 새우 해. 점점 사치스러워져서 이젠 상어들 안 먹으니까. 노인네들은 먹지만 젊은 아이들은 안 먹어. 생선도 올리고.

-생선은 무슨 생선을 올려?

옥돔. 제사할 거 다 이제 사다가 말려서 냉동해 뒀어. 옥돔 하고 과일 세 가지, 다섯 가지. 과일은 여기 많으니까. 그저 그 정도지. 떡 조금 사다가 올리고. 옛날엔 송편 같은 건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만들어.

-시루떡도 만들고?

시루떡은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송편 정도 만들었지. 그 시절에도 와서 보니까 시루떡은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통이 시루떡 같은 거, 손 가는 건 다 사다가. 여기 시장에 팔아, 옛날부터. 옛날은 더 팔았어. 이젠 많이 안 쓰니까 조금만 하지만. 카스테라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쓰는 집이 있고.

나도 떡 많이 안 사.)

재일제주인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은 제주에서 올리는 음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고기 적과 '오토미(옥돔)' 생선을 굽고 '시리떡(시루떡)'을 준비하여 제사상에 올렸다. 조선시장에서는 시루떡이나 절편 등의 제사떡, 고사리, 삶은 돼지고기, 옥돔 등 제주의 제사상에서 볼 수 있는 제사 음식 재료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점점 음식은 아이들이 먹는 '새우' 요리나 '카스테라' 빵 등으로 바뀌고 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삭망은 한 달에 두 번

재일제주인은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친척은 물론 같은 고향 사람들까지 모여 제주말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달래기도 했다. 일본이라는 이국땅에서 지내는 장례였지만 제주의 음식이 올라왔고 유교식 제사를 지냈다. 심방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였다.

"-게난 옛날 사진들 보난 여기서 장례 치룰 때 다 제주식을 옷을 입어십디다. 영덜.

견디이 우리집 아방네 죽을 때ᄁᆞ장은 아니라. 우리 큰언니네 돌아갈 때ᄁᆞ장은 이 옷덜 다 입엇주게. 우리 큰언니가 돌아간 게 거저 사십 년쯤 뒈염저. 그땐 입언이 저 ᄒᆞᆫ 덜에 두 번 삭망 헷저. 초ᄒᆞ루허고 보름날. 두 번 헤신디 글후제 ᄎᆞᄎᆞᄎᆞᄎᆞ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씩만 허고 그런 옷덜토 안 입고."[임순애]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 보니까 여기서 장례 치룰 때 다 제주식으로 옷을 입었습디다.

그런데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죽을 때까지는 아니야. 우리 큰언니네 돌아갈 때까지는 이 옷들 다 입었지. 우리 큰언니가 돌아간 게 거의 사십 년쯤 되고 있어. 그땐 입고 저 한 달에 두 번 삭망 했어. 초하루하고 보름날. 두 번 했는데 그 이후엔 차차차차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고 그런 옷들도 안 입고."

"이딘 저 죽으민 ᄒᆞ루 정도베끼 안 놔준다. 놩 ᄉᆞᆯ아부느네. ᄉᆞᆯ고 또 사십구젠 그 논 디서 일본 절간에서 허고. 집이서 일 년 동안 상 놧저.

-여기서 일 년 동안 상 놘?

으. 상 놓난에 소상도 허고 삭망도 허고. 혼 덜에 혼 번. 이십 년 전에. 정확히 십구 년 뒛저. 99년도에 돌아갓저. 삭망허고 혼 덜에 혼 번 삭망허고 일년 동안 상 놓고. 구양풀이도 허고.

-그럼 상 봇을 때 매끼 밥 올리는 것도 허고?

밥은 허영 올렷주게. 아침에는 나가, 커피허고 빵허고 올렷단 나 먹고. 점심에는 일 가부는 따문에 올리지 못허주게. 경허고 저냑에는 밥 헹 올리고. 혼 덜에 혼 번 삭망허민 아이덜 다 와근에 삭망 먹고."[임순애]

(여긴 저 죽으면 하루 정도밖에 안 놔준다. 놓고 살라버려. 사르고 또 사십구제는 그 놓은 데서 일본 절간에서 하고. 집에서 일 년 동안 상을 놓았어.

-여기서 일 년 동안 상을 놔?

으, 상을 놓으니까 소상도 하고 삭망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십 년 전에. 정확히 십구 년 되었어. 99년도에 돌아갔어. 삭망하고 한 달에 한 번 삭망하고 일 년 동안 상 놓고. 귀향풀이도 하고.

-그럼 상 봤을 때 매끼 밥 올리는 것도 하고?

밥은 해서 올렸어. 아침에는 내가, 커피하고 빵하고 올렸다가 내가 먹고. 점심에는 일 가는 때문에 올리지 못하지. 그리고 저녁에는 밥해서 올리고. 한 달에 한 번 삭망하면 아이들이 모두 와서 삭망 먹고.)

"삭망은 쳇 공일날 삭망 헷저. 저 혼 덜이민 초승에 쳇 번채 일요일날. 다 일허기 때문에 초ᄒᆞ루날 못 허고 보통 경 헷저 이디덜은. 견디 상 안 논 디가 혼 십 년도 안 뒈실 거여. 그때꺼장 놔실 거여. 이제도 사십구제꺼장 놓는 사름은 놔."[임순애]

(삭망은 첫 공일 날 삭망을 했어. 저 한 달이면 초승에 첫 번째 일요일. 다 일하기 때문에 초하루날 못 하고 보통 그렇게 했어, 여기에서는. 그런데 상 안 놓은 지가 한 십 년도 안 되었을 거야. 그때까지는 놓았을 거야. 이제도 사십구제까지 놓는 사람은 놔)

임순애의 언니는 40년 전쯤 사망하였다. 그 시기 재일제주인의 장례는 제주에서의 장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세대로 세대가 변하고 일본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풍속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망자가 입는 수의와 상주가 두건을 쓰는 점 등의 상징적인 부분은 일부 남아 있지만, 일본 장의사가 장례식을 주관하는 등 일본의 장례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970년대 한국의 가정의례 준칙의 간소화 영향과 세대

교체 등으로 인해,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 현지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며 굿도 하고

"굿덜도 크게 이제도 허는 딘 크게 헌다. 허는 디가 잇어. 나도 굿 하영 헷저. 난 그런 거 흔엇이 모르는디이. 그 젤 처음에는 언니덜도 잇고 고모덜도 이시난. *마(ᄆᆞ)*, 모든 것이 집이 펜안헤 가민 굿이라도 헤시민 허영 헌디, 헌 십 년 넘어신가 어디 절간에 책 보는 디 갓어. 십이삼 년, 십오 년 뒈실 거라. 가난에 이제랑 아무 것도 허지 말렌 너미 많이 헷덴. 게난 허지도 말고 보레 뎅기지도 말렌 헤여부난. 글후젠 절간에는 간다. 일 년에 흔 번베끼 안 가주만은. 이제도록 헌 것이 만허니까 헐 필요가 엇덴 헹 글후젠이 그런 거 허지도 안 허고 가지도 안 허는디 절간에만 그자.

-언제 굿 헤낫수과?

보통으로 음력 정월 아니민 삼월에가 하영 헤라.

-그럼 그 굿을 매년 헷던 거?

그땐이, 엿날엔이 틈틈이 헤여신디 말째엔 삼 년을 부쪄 놩 허엿주게. 그때에 그 심방 허는 말이, 삼 년만 부쪄 놩 허민 이젠 안 헤도 뒈 헨 헤여신디 그 어른도 죽어불고 헨에 십 멧 년 전이 보레 가난 아예 허지 말렌 경 곧더라.

-게난 누구 특별허게 아프거난 헌 거 아닌데도 집안 좋으렌 헌 거구나?

그런 거주게. 초상덜 헤여 놔근에. 이제도 이디 그런 미신 막 한다. 매해에 허는 집덜 막 한다.[임순애]

(굿들도 크게 이제도 하는 데는 크게 해. 하는 데가 있어. 나도 굿 많이 했어. 난 그런 거 많이 모르는데. 그 제일 처음에는 언니들도 있고 고모들도 있으니까. 모든 것이 집이 편안해 가면 굿이라도 했으면 해서 했는데 한 십 년 넘었는가 어디 절간에 점치는 데 갔어. 십이삼 년, 십오 년 되었을 거야. 가니까 이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지도 말고 보러 다니지도 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절에는 가. 일 년에 한 번밖에 안 가지만. 이제도록 한 것이 많으니까 팔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이후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절간에만 그저.

-언제 굿을 했었습니까?

보통으로 음력 정월 아니면 삼월에 많이 했어.

-그럼 그 굿을 매년 했었던 거?

그때는, 옛날에는 틈틈이 했는데 나중엔 삼 년을 붙여서 했지. 그때에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삼 년만 붙여 놓고 하면 이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어른도 죽어버리고 해서 십 몇 년 전이 점치러 가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누구 특별하게 아프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집안 좋으라고 한 거구나?

그런 거지. 조상들 해 놓고. 이제도 여기 그런 미신 아주 많아. 매해에 하는 집들이 아주 많아.)

(굿은) 한국도 강 허고 이디서도 헷주게.

-어디서 헷수과, 집이서 헷수과?

그땐 집이선 못 허주만은 굿 헐 디가 하*스루네(するね)*. 경 굿 헐 *바쇼가 아루네(場所があるね)*. 경 집덜 짓엉 문 돈 벌젠 *민나 스루네(みんな するね)*. 경헨 헷주만은 이젠 엇어. 이젠 문딱 그 집도 다 틀어불고 민나 기레이니시떼(みんなきれいにして).[조옥선]

(굿은 한국도 가서 하고 여기서도 했지.

-어디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습니까?

그땐 집에선 못 하지만 굿 할 데가 많아. 그렇게 굿을 할 장소가 있어. 그렇게 집들 지어서 모두 돈 벌려고 모두 해. 그렇게 했지만 이젠 없어. 이젠 모두 그 집도 다 뜯어버리고 모두 깨끗하게 해서.)

"-게민 여기 사꾸라노미야(櫻のみや)는 굿 헐 때만 가는 거구나.

굿 헐 때. 이젠 못 허게 헨 안 허느녜. 전인 그디 일본 사름이 집 직허는 사름이 잇어. 저 째그만헌 막 거튼 집을 만들앙이 경허영 굿 허레 간 사름안테 돈 받앙 빌려. 경 그 사름덜은 그디 막에 강. 그디서 허단 것도 다 엇어져불어신디. 그디 가민 돈 얼마 주민 거 방 빌려주느녜. 겐 그디 빌언 나 그디 올려난 것도 주곡 허민 그 사름은 그거 먹곡 그 돈 받아근에 그디서 생활허는 거야. 견디 중간에 엇어져불엇주."[임순애]

(그럼 여기 사꾸라노미야는 굿 할 때만 가는 거구나.

굿 할 때. 이젠 못 하게 해서 안 해. 전엔 거기 일본 사람이 집 지키는 사람이 있어. 저 자그마한 막 같은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굿 하러 간 사람에게 돈 받아서 빌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거기 막에 가서. 거기서 하다가 것도 다 없어져버렸는데. 거기 가면 돈 얼마 주면 거 방 빌려줘. 그래서 거기 빌려서 거기

올렸던 것도 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거 먹고 그 돈 받아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없어져버렸어.)

재일제주인의 신앙에서 무속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가업이 기울거나 질병 등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해가 바뀌면 으레 가정의 안녕을 바라며 굿을 행했다. 굿은 시끄러운 무악이 동반되기에 조옥선, 임순애의 구술에서처럼 굿을 하기 위한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제주 여성들로, 굿의 장소는 제주 여성들이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는 공동체의 장소였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들은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다.

마을 친목회로 모여

제주 사람들의 일본으로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는 가족・친척이나 같은 마을 이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일제주인은 일본이라는 이국의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지내기 위해 마을을 단위로 다양한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주기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친목회는 단순한 사람들 간의 친목을 떠나 경제 활동 공동체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집안의 경조사를 함께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주 초기 1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던 친목회도, 1세들이 고령화하고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점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대포도 친목 잇엉 ᄯᅡ라다니고 헷주게. 건 등록 이신 사름 엇인 사름 관계 엇고. 다 ᄀᆞ치덜 허여근에 ᄒᆞᆫ 동네 어른덜은 다 친목회 들민 ᄒᆞᆫ 덜에 얼마썩. 일 년에 얼마 ᄒᆞᆫ 덜에 얼마 훼비 내영이 일 년에 ᄒᆞᆫ 번 두 번 모영덜 밥도 먹고 봄 나민 꽃 구경도 가고 허연게. 그 대포엔 헌 동네 사름덜은 경 정 빠져부난 오래 안 가고, ᄒᆞᆫ 이삼 년, 나 결혼행 이삼 년 허난 친목회가 헐어져 불어라. 사름이 벨로 엇엉. 겨고 우리 친정에는 ᄒᆞᆫ, ᄒᆞᆫ 이제부터 ᄒᆞᆫ 이십오 년 정도 전이 ᄁᆞ장은 친목회 헷저. 사름은 하지 안헤도. 경허난 일 년에 얼마썩 훼비 물엉 일 년에 ᄒᆞᆫ 번썩 모여근에이 저 밥덜 먹고 허여신디 우리 집 아방 죽어분 때ᄁᆞ장

친목회 헤신가. 겐디 그 훳돈은 메왕 놔두난 누게가 오꼿 먹엉 안 준 거라. 경허난 그때부떠 헤산뒈실 거여.”[임순애]

(대포도 친목 있어서 따라다니고 했지. 그건 등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관계없고. 다 같이 해서 한 동네 어른들은 다 친목회 들면 한 달에 얼마씩. 일 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회비 내서 일 년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밥도 먹고 봄 되면 꽃구경도 가고 했어. 그 대포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저렇게 빠져버리니까 오래 안 가고, 한 이삼 년, 내가 결혼해서 이삼 년 하니까 친목회가 없어져 버렸어.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우리 친정에는 한, 한 이제부터 한 이십오 년 전까지는 친목회 했어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 년에 얼마씩 회비 내고 일 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 밥들 먹고 했었는데 우리 집 남편이 죽을 때까지 친목회 했나. 그런데 그 회비 모아서 놔두니까 누가 먹고서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산되었을 거야.)

“-게민 삼춘 여기서 살멍 삼양 친목회라던지 그런 거 잇어낫수과?

응, 옛날엔 잇어낫주게. 겐디 총련이여 민단이여 싸움헤영 폐지뒈 불언.

-친목회로 ᄀᆞ치들 놀러 다니고?

응, ᄀᆞ치 뭐 헷주만은 그 후젠 그땐 민단이고 총련이주만은 나중엔 막 저 친목회, 삼양 친목회 허면 젊은 사람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은 다 민단 아니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총련이고. 게믄 싸움을 허주게. 경허믄 고향에서 온 젊은 아이덜은 말이 좋으니까 그걸 허믄 여기 하르방덜은 안 된다고 헤근에 문딱 폐지시키고.

-경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됨수과?

이거 흔 삼십 년, 사십 년 뒈지 안헤신가. 경허고 삼양국민학교 총동창회가 잇어낫주게. 그것도 돈 내난 다 돈덜 들러먹엉 폐지시키불고.”[장수종]

(-그럼 삼촌 여기서 살면서 삼양 친목회라든지 그런 거 있었습니까?

응, 옛날엔 있었지. 그런데 총련이여 민단이여 싸움해서 폐지돼 버렸어.

-친목회로 같이 놀러 다니고?

응, 같이 뭐 했지만 그 후에는 그땐 민단이고 총련이지만 나중엔 저 친목회, 삼양 친목회 하면 젊은 사람들, 고향에서 온 사람들은 다 민단 아니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총련이고 그럼 싸움을 하지. 그럼 고향에서 온 젊은 아이들은 말이 좋으니까 그걸 하면 여기 할아버지들은 안 된다고 해서 모두 폐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 한 삼십 년, 사십 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삼양국민학교 총동창회가 있

었어. 그것도 돈 냈는데 다 돈 먹어버려서 폐지시키고.)

마을 친목회가 해체된 데에는 해방 전 이주해 온 초기 이민 1세들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해체를 가져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나서 고향 방문

해방 이후 한일 간의 정식적인 교류가 끊기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제주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재일제주인의 고향방문은 60년대 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961년 정부 초청의 고향 방문단 250명 중에 제주 출신 3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향 방문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불법적으로 일본에 건너와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 방문은 꿈에 그리던 일이었다. 재일제주인에게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정식 여권을 만들어 비행기를 타고 고향의 가족을 만나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등록 받고 처음 제주도 간 게 몇 살이과?

멧 살인지는 잘 몰르지. 그때가 한 오십 멧 살인가? 오십 멧 살에 갔다 와실 거라. 그 후제 아들 팔 때도 갔다 오고. 그때는 자주 가지도 못헤도 무슨 산 뭐 헤서 갔다 오고 헤가지고 갈 일이 있으면은 갔지. 등록뒈면은 가는 거지. 등록뒈면 그냥 가는 거야."[김영희]

(등록 받고 처음 제주도 간 게 몇 살입니까?

몇 살인지는 잘 모르지. 그때가 한 오십 몇 살인가? 오십 몇 살에 갔다 왔을 거야. 그 후에 아들 팔 때도 갔다 오고. 그때는 자주 가지도 못해도 무슨 산 뭐 해서 갔다 오고 갈 일이 있으면 갔지. 등록되면 가는 거지. 등록되면 그냥 가는 거야.)

-등록을 얻엉 처음 제주도 간 게 삼춘 멧 살 때과?

마흔여덥 정도간 마흔일곱 정돈가 확실히 몰르켜. 한국올림픽. 그거 허기 전이 갓저.[임순애]

(-등록을 얻고 처음 제주도 간 게 삼촌 몇 살 때입니까?
마흔여덟 정도인가 마흔일곱 정도인가 확실히 모르겠어. 한국올림픽. 그거 하기 전에 갔어.

에, 그때에 발전됏엇데. 그때도 많이 발전이 됏엇주만은 그때에 발전됏엇주만은 한 30년 전부터 뎅김 시작허난 가는 해마다 틀려, 틀려. 또 우리 삼양이 그렇게 발전될 줄은 우린 생각도 못했거든.[장수종]
(에, 그때에 발전되었데. 그때도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은 그때에 발전되었지만은 한 30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하니까 가는 해마다 달라, 달라. 또 우리 삼양이 그렇게 발전될 줄은 우린 생각도 못했거든.)

"글후제 오래비 장게갈 때도 가오고 멧 번 가오긴 헷주만은 등록헨な. 글후제 애기 날 때 간 오고, *소레까라(それから)* 못 간 *니쥬고넨(二十五年)*. 이제 그때 난 아이가 *이마 니쥬고또 오모우네(いま 二十五と思うね.)*"[조옥선]
(그 이후에 오라비 장가갈 때도 가오고 몇 번 가오긴 했지만 등록해서. 그 이후에 아기 날 때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못 가고 25년. 이제 그때 난 아이가 지금 25살일 거야.)

고향의 가족에 경제적 지원

"할마님 놔 둰 오는 게 경 죄가 짚언. 아이구, 할마님을 어떵허민 좋고? 이젠 나 살아뎅기단 이불이영 나 입던 거영 다 주멍 이거 입으멍 살암십센. 나 강 스구(すぐ) 펜지허쿠덴 헨 나오난 펜지 헤짐이랑 말앙. 이녁 살젠 허난*나(な)*. 그 동생덜 다 컹 나가 돈 ᄒᆞ꼼 허영, 그때 돈으로 이디 돈 그거 돈 백만 원 *구라이(ぐらい)* 뒈신가 말아신가. 그 허난 권당덜은 아이고, 저 사름 뚤 따문에 막 잘 살암젠, 허멍 그때 헷젠덜 헨게만은. 그걸로 어떵 어떵 헹 아기덜 부쪈 살아가는 게 할마님도 죽엉 묻어불고 아바지도 죽어불고."[조옥선]
(할머님 놔두고 오는 게 그렇게 죄가 깊어. 아이고, 할머님을 어떡하면 좋을까? 이젠 내가 썼던 이불과 내가 입던 거 다 주면서 이거 입으면서 살고 계세요. 내가 가서 곧 편지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편지 하기는 커녕. 자기 살려고 하니까. 그 동생들 다 커서 내가 돈 조금 해서, 그때 돈으로 여기 돈 그거 돈 백만 엔 정도 됐는가 말았는가. 그거 보내니까 친척들은 아이고, 저 사람 딸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어, 하면서 그때 그랬다고는 하더니만. 그걸로 어떻게 어

떻게 해서 아기들 낳고 살아가는 게 할머님도 죽어서 묻어버리고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아이들 학비 안 보내줫수과, 처음에 왔을 때?
어, 헷지. 나가 공부는 시켰지. 그니까 공부는 다 시켜서. 그때는 경 모이고 모이고 헹 누게 갈 적 이실 때 보내주고. *다노모시(たのもし)* 헤가지고 한꺼번에 헤서 백만 원씩 그냥 헤서. 공부는 나가 시켰지, 시킨 거지. 그 밥값을 못 물어도.[김영희]
(-아이들 학비 안 보냈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어, 했지. 내가 공부는 시켰지. 그니까 공부는 다 시켰어. 그렇게 모으고, 모으고 해서 누가 갈 적에 보내주고. 계를 들어서 한꺼번에 백만 원씩 해서. 공부는 내가 시켰지, 시킨 거지. 그 밥값은 못 물어도.)

"게메양 돈도 엇수다만은 강 얼굴이라도 봉 이젠 따시 안 오켄 헨 오랑 죽으나 헤사주. 겐 이제 아시덜토, 첨 나 뚤 *미따이나(みたいな)* 아시덜이야. 시집간 이제 이녁 살 만이 사난, 언니 옛날ᄀᆞ추룩 못 젼디게 허지 안 헐 거난 옵서게 옵서 허권데 느네덜 무사 경 ᄀᆞᆯ암시게, 나가 무시걸 헤단 줘졈시냐, 가도 뭐 주도 못허고 경 정. *나나쥬마데와 시고또시따게도(七十までは仕事したけど)* 이젠 *나나쥬(七十)* 넘어가난 *고꼬가 죠또 요와이네(ここがちょっと弱いね). 요와이까라(弱いから)* 이젠 일도 못 허고. 허난 난 첨 *구니(くに)* 아니믄 살질 못 허주게. *구니노 모라떼루까라 순데이루노(国のもらってるから住んでるの). 소레 모라떼루까라 소레(それもらってから それ)* 의지*데(で)* 헴주, 누게 단돈 천 원 줄 사름도 엇고. 경허영 허난. *마(ま)*, 채비만 허민 *난또까(なんとか)* 강 옵니다, 강 옵니다. 허난 경허켄 헨 약속은 헨 잇주게. 약속은 헨 잇주만은 가질티 말티."[조옥선]
(그러게요 돈도 없습니다만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이제 다시 안 오겠다고 하고 와서 죽으나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우들도, 첨 나 딸 같은 아우들이야. 시집가서 이제 자기들 살 만큼 사니까, 언니 옛날같이 못 견디게 하지 않을 거니까 오세요, 오세요 하길래 너희들 왜 그렇게 말하니, 내가 뭐 해다 줬니? 가도 뭐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렇게. 칠십까지는 일했지만 이제 칠십 넘어가니까, 여기가 좀 약해. 약하니까 이젠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난 첨 나라(에서 받는 돈) 아니면 살지 못하지.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니까 살고 있어. 그거 받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있지. 누구 단돈 천 원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차비만 하면 어떻게든 갔다 옵니다.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약속은 했어. 약속은 했

지만 갈 수 있을지 말지.)

재일제주인은 제주도 각 마을과 학교, 그리고 가족과 친척에게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였다. 마을 친목회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족과 친척을 후원하며 도왔다. 조옥선의 경우, 일본에서 혼자 일하여 세 아이를 키우면서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다. 하지만 계를 하여 돈을 마련한 후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보냈다. 등록을 얻고 나서 고향을 방문하면서는 동생들에게 챙겨줄 선물로 짐이 두둑했었다. 예전처럼 가족에게 나눠줄 '선물', '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옥선은 고향 방문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몬 북촌에 사는디 그 이모도 우리 덕분에 집 살아낫지. 그 아들이 어디 위원장으로 막 돈 처쓰멍 밧 팔아먹었거든. 위원장으로 뎅기면 돈 들잖아. 그 놈의 새끼 그걸로 헹 막 재산 풀아먹으난 우리 이모가 빚졍 살단 나가 십 년 동안 쭉 초대했거든. 경 헹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이모 옛날에 북촌에서 제일 빚쟁이라주마는 이제는 농협에서 돈 ᄉᆞ오천만 원 저금한 사름 우리 이모베끼 없다고. 빚 엇이 저금한 사람은. 일본 오면서 그거."[장수종]

(이모는 북촌에 사는데 그 이모도 우리 덕분에 살았지. 그 아들이 어디 위원장으로 마구 돈 쓰면서 밭을 팔았거든. 위원장으로 다니면서 돈 들잖아. 그 놈의 새끼 그걸로 해서 재산 팔아먹으니까 우리 이모가 빚지고 살다가 내가 십 년 동안 쭉 초대했거든. 그렇게 해서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이모 옛날에 북촌에서 제일 빚쟁이이었지만 이제는 농협에 돈 사오천만 원 저금한 사람 우리 이모밖에 없다고. 빚 없이 저금한 사람은, 일본 오면서 그거.)

"이젠 딸은 불렀거든. 아들은 이신디 아들은 장가도 안 간 때, 딸을. 나 멧 설에 아이고, 잊어불엇저. 간호대학, 전주간호대학 다 시키고 공부 다 시키고. 이제 간호원으로 뎅겸신디 그 딸이나 불러서 벗헐려고이. 그 딸을 데려오젠 허난 학교 수속을 허는디 막 힘이 들더라."[김영희]

(이젠 딸을 불렀거든 아들은 있는데 아들은 장가도 안 갔을 때, 딸을. 나 몇 살에, 아이고, 잊어버렸어. 간호대학, 전주간호대학 다 시키고, 공부 다 시키고. 이제 간호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딸이나 불러서 벗하려고. 그 딸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학교 수속을 하는데 아주 힘이 들더라.)

한편, 등록을 받고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재일제주인들은 고향의 가족과 친척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초청 비자로 일본에 건너와 몇 개월간, 비자를 연장하여 또 몇 개월간을 일본에서 일하면서 호주머니가 두둑하게 돈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상의 산소 관리

"벌초는 안 가고 나도 벌초엔 참가 못 허주만은 벌초에 못 가는 대신에 고향에 갈 때마다, 한 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묘제가 잇주게. 우리 형제간만 허는 거. 나가 돈 100만 원 내놓고 우리 아이덜이, 나 골앗주게 너네도 고향에서는 벌초헤야 뒈난 돈 다 만 원씩 다 내노렌."[장수종]

(벌초는 안 가고 나도 벌초엔 참가 못 하지만 벌초에 못 가는 대신에 고향에 갈 때마다, 한 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묘제가 있지. 우리 형제간만 하는 거. 내가 돈 100만 원 내놓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말했지, 너희도 고향에서는 벌초해야 되니까 돈 다 만 원 씩 다 내라고.)

제주 사람들에게 벌초는 중요한 문중 행사 중의 하나다. 보통 음력 8월 1일을 전후로 문중 사람들이 모여 '모둠벌초'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산소 관리하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조상의 산소 관리는 일본에 가 있는 제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서 정식 체류 자격을 인정받고 고향에 왕래하기 시작하면서는 벌초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벌초는 자손의 주요한 의무이자 도리로 여겼다.

-삼춘 돌아가셔도 다 여기 묻을 거과?

다 여기서. 나가 저거 한 지금, *헤이세니 요넹니(へいせい 4年に)* 한 천만 원, 일본돈 천만 원 헹 나가 산을 갖고 잇주게. 아버지 산에 옛날 그 마누라도 다 헤주고. 거기 다 허니까 이제 우리 아이덜도 다 그레 갈 거. 게난 이젠 작년부턴 제사도 산에서 허고. 일본 메느리도 그거 뭐 *오보에떼(おぼえて)* 배와 가지고 헌다고 헤도 아이고 치우렌. 뭐 지금 세상이 다 바뀌지. 이제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세상인디 그거 제사해 봤자 잘 안 된다고.

-그럼 고향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겠다예. 어떵 허우과, 마음이?

마음이 이젠 없네이. 재산도 없고. 왜냐면 할머님 살 땐 나가 할머님 얼굴 보레 갔거든.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나가 외가집에서 자라나고 뭐 허니까. 경헤도 할머니 소상 때 나가 상, 나가 차림도 허고 비석도 다 세와드리고 경허니까 뭐 이젠 뭐 할 도리는 뭐 없지 뭐. 경허고 우리 선조한테도 나가 헐 만이 헷고 허니까 이제 뭐. 한 번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이모네가 돌아가지 않고 잘 살면 이모나 만나레 제주 가가지고 게믄 이제. 앞으론 인천공항을 한 번 봐야지. 인천공항 구경을 못 했으니까.[장수종]

(-삼춘 돌아가셔도 다 여기 묻을 겁니까?

다 여기서. 나가 저거 한 지금, 헤이세이 4년에 한 천만 엔, 일본 돈 천만 엔 해서 나가 산을 갖고 있어. 아버지 산에 옛날 그 마누라도 다 해주고. 거기 다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거기 갈 거. 그러니까 이젠 작년부터는 제사도 산에서 하고. 일본 며느리 그거 뭐 배워서, 배워서 한다고 해도 아이고 치우라고. 뭐 지금 세상이 다 바뀌었지. 이제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세상인데 그거 제사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럼 고향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이젠 없네. 재산도 없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살아 있을 땐 내가 할머니 얼굴 보러 갔거든.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내가 외갓집에서 자라고 뭐 하니까. 그래도 할머니 소상 때 내가 상, 내가 차리기도 하고 비석도 다 세워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할 도리는 뭐 없지 뭐. 그리고 우리 선조한테도 내가 할 만큼 했고 하니까 이제 뭐. 한 번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모네가 돌아가시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이모나 만나러 제주 가서 그럼 이제. 앞으론 인천 공항을 한 번 봐야지. 인천공항 구경을 못 했으니까.)

장수종은 정주(定住)할 생각으로 일본에 왔던 것은 아니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아갈 생각에 열심히 일하여 고향에 땅을 사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향의 재산을 모두 정리한 상태이다. 고향에 있는 친족에게는 선조의 산소를 정비하는 도움을 준 것으로 자신의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장수종은 일본에 가족의 묘를 마련하였다. 이후에 자신이 묻혔을 때 아들과 딸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게믄 나중에는 제주도 갈 생각 있는 거 아니?

제주도 가겠어. 난 이제 *헤루빠(ヘルパ)* 쓰게 뒈서 허면은 한국으로 갈라고. 병원에 들어가게 뒈면 한국으로 갈라고. 그런 여산 허고 있지. 겐디 나 연금이

니까 따라 가지. 죽을 때까지는 따라가서 나오지.

-일본에서 연금이 한국 들어갔는데도 나옵니까?

따라가. 나가 죽기 전에는 따라가. 남편 돈은 안 따라가지만은, 남편 돈은 이제 안 따라 간다 하더라. 난 내 거니까 따라가지. 그걸로 살고 있지. 하영은 안 나와도 그냥 먹는 거이. 쪼끔 뭐 허는 거.[김영희]

(-그럼 나중에는 제주도 갈 생각 있는 거 아니?

제주도 가겠어. 난 이제 도우미 쓰게 되면 한국으로 가려고.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으로 가려고. 그런 계획 하고 있지. 나 연금이니까 따라 가. 죽을 때까지는 따라가서 나와.

-일본에서 연금이 한국 들어갔는데도 나옵니까?

따라가. 나가 죽기 전에는 따라가. 남편 돈은 안 따라가지만, 남편 돈은 이제 안 따라 간다고 하더라. 난 내 거니까 따라가지. 그걸로 살고 있어. 많이는 안 나와도 그냥 먹는 거. 조금 뭐 하는 거.)

"겨난*나(な)* 아이고, 체얌 올 땐 아이고, *도시(とし)*라고 하여 가민 제기 늙어라도 불주만 무사 영 헴신고 *시따네(したね). 도시(とし)*라도 셔시민 *도시(とし)*라도 하영 가불민 *도시다까라 나니(としだから何)* 허주만은 어떵 헹 이 세상을 살 건고. 경허단 보난 중간에 *야빠리나 나니(やっぱりな, なに)* 헨 살아가난 아, 이젠 이디서 살아사 헐 거로구나 헨. 한국을 가주 허믄 한국은 이제 타관이 뒈영 가도 무시거 헹. 동기간이 셩 무시거 헤덴 헤도 오라방 각신 알아먹엉, *네상 나니모 세헹데모 이이요(姉さん何もせへんでもええよ).* 걱정 말앙양, 걱정 말앙 영 오고, 헤도 *야빠리(やっぱり)* 놈이 동싱*야로(やろう)*."[조옥선]

(그러니까 아이고, 처음 올 땐 아이고, 나이라도 많아 가면 빨리 늙지 왜 이러나 했어. 나이라도 있으면 나이라도 많으면 나이 많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건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역시 뭐 해서 살아가니까 아, 이젠 여기서 살아야 할 거로구나 했어. 한국에 가려고 하면 한국은 이제 타향이 되어서 가도 뭐 하고. 동기간이 있어서 무엇 하다고 해도 오라비 각시는 알고, 언니 아무 것도 안 해도 좋아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 말고 오라고 해도 역시 남의 동생이지.)

김영희는 밀항을 올 때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성장하여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고향에 살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의 하청을 받으며 가내공장을 경영했던 김영희는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아들 곁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한편, 조옥선은 처음 일본에 올 때는 어느 정도 살 만한 형편이 마련되면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자신을 자상히 키워준 할머니가 있었다. 얼른 나이를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어느 순간에 와서는 '아, 이젠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동생 부부가 살고 있지만, '남'인 것이다. 고향은 이미 타향이 된 지 오래다.

고향에 부모, 형제자매가 살아있지 않다는 건 재일제주인에게 고향과 자신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끊긴다는 것은 의미하다. 사촌, 조카, 먼 친척이 있지만 이젠 긴 시간 얼굴은 마주하지 않고 살갗을 스치지 않은 친척은 그저 어색하게 느껴질 뿐이다. 많은 재일제주인들이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자라며 생활 기반이 일본에 마련되면서 점차 일본에 남고자 한다. 가정을 이루어 2세가 태어나고 키우면서 일본 사회에 적응하면서 차별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직업을 얻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4. 자녀의 성장과 노년 생활

지금도 일하고 배우고

"-삼춘은 연금 나와마씨?
안 나와. 아이덜 주는 돈으로 살암주. 걱정 엇나. 큰아덜은 틈틈이 주고 족은아덜은 기정헹 십만 원 매덜 보낸다. 게난 살아가는 것은 걱정 엇나. 어디 강 막 팡팡 쓰지나 안 허난."[임순애]
(-삼촌은 연금 나옵니까?
안 나와. 아이들 주는 돈으로 살고 있어. 걱정 없어. 큰아들은 틈틈이 주고 작은아들은 정해서 십만 엔 매달 보낸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걱정 없어. 어디 가서 팡팡 쓰지 않으니까.)

"경헤도 흔 덜에 만 원 이만 원은 나온다. 간단한 *나이쇼꾸(ないしょく)*가 잇주게. 그런 거 허민. 오십 년, 오십 년 정도 헌 친구가 하나 잇저. 가이가 이녁냥으로 일허난 막 바쁘민 와근에 서너 시간썩 헤 도렌 허민 흔 만 원 이만 원. 그건 앚아둠서 ᄒᆞ꼼씩 허는 거난 친구영 말 골으멍. 가이도 오십 년 친구난 족은아덜 낳기 전부터 친구주게. 경허난 아이덜 어린 때 헤난 말 가이영 말 곧당 보민 시간 가는 중 몰르게 가."[임순애]
(그래도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은 나온다. 간단한 내직이 있지. 그런 거 하면. 오십 년, 오십 년 정도 된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아이가 자기대로 일하니까 아주 바쁘면 와서 서너 시간씩 해 주라고 하면 한 만 원 이만 원. 그건 앉아서 조금씩 하는 거니까 친구와 말하면서. 그 아이도 오십 년 친구니까 작은아들 낳기 전부터 친구지.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 했던 말 그 애와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

"민생이 생활비만 칠만 원 나온덴 헤라. 칠만 원이민 충분 살주게. 일본 돈 칠만 원이난. 집세 ᄯᅳ로 물어주고. 전기세 가스세 정돈 이녁냥으로 물주만은. 병원비도 흔 푼 안 들고. 겨난 이디덜 할망덜, 그 민생 타는 사름덜은 ᄒᆞ루에 세 밧디 병원에 간덴 헌다. 병원비 안 드니까. 그 ○○○이엔 헌 할망, 그 할망 ᄒᆞ루에 세 밧디, 네 밧디 보통 뎅기느녜. 버치지도 않은 셍이라. 못 젼디난 *덴떼기(テンテキ)* 맞앙 왓수다. 저 눈이 침침허난 눈 병원에 강 왓수다. 하하. 야개기 아프난 목 병원에 가왓수다. 안 가는 병원이 엇어, 하하하. 아이고, 감도 버치지

안 허영 보통 경 뎅겨. 이, 이 ᄉᆞ방엔 다 그거야.”[임순애]

(민생이 생활비만 칠만 엔 나온다고 하더라. 칠만 엔이면 충분히 살지. 일본 돈으로 칠만 엔이니까. 집세 따로 물어주고.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정도는 자기대로 물지만. 병원비도 한 푼 안 들고.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들, 그 민생을 받는 사람들은 하루에 세 군데 병원에 간다고 해. 병원비 안 드니까. 그 ○○○라고 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보통 다녀. 힘에 부치지도 않는 모양이야. 힘들어서 수액 맞고 왔어요. 저 눈이 침침해서 눈 병원에 갔다 왔어요. 하하. 목이 아파서 목 병원 갔다 왔어요. 안 가는 병원이 없어, 하하하. 아이고, 가는 것도 힘에 부치지 않고 보통 그렇게 다녀. 이, 이 사방엔 다 그거야.)

“견디 요샌 너미 하부난이 이 ᄉᆞ방에선 돈 잇어도 타주 무사 안 탐시닌 영헌다. 나신디도 왕 경 ᄀᆞᆫ나. 경허난 경 못 젼디게 살지 말앙 거 타민 펜안헐 건디. 견디 손지덜 지장이 잇어. 만약에 일후제 존 직장이라도 들어가젠 허민 거 세기 안 뒌덴 허드라.”[임순애]

(그런데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이 사방에선 돈 있어도 받지 왜 안 받느냐고 해. 나에게도 와서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못 견디게 살지 말고 거 받으면 편안할 건데. 그런데 손자들 지장이 있어, 만약에 나중에 좋은 직장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거시기 안 된다고 하더라.)

“우리 어무니가 지금 96세 한국 나이론. 1922년. 지금 이덜부떠 이제 자기대로 화장실 못 가가지고 나가 이제 똥오줌 다 치웜주. 말 못 허고. 귀도 막아불고 눈도 어둑고.

-고생헴신게 삼춘이.

고생은 뭐 편안허지. 일허는 거보다 편안허지.”[장수종]

(우리 어머니가 지금 96세 한국 나이로는. 1922년. 지금 이달부터 이제 자기대로 화장실 못 가서 나가 이제 똥오줌 다 치우고 있어. 말 못 하고, 귀도 막고 눈도 어둡고.

-고생하고 계시네요, 삼촌이.

고생은 뭐, 편안하지. 일하는 것보다 편안하지.)

“겐 ᄎᆞᄎᆞᄎᆞᄎᆞ 허연 이녁냥으로 살기도 좋곡. 가 갸 거도 *와까라헨야(わからへんや)* 한국선 아무 것도 안 허난. 이디 오란 야간 *가꼬우(学校)* 가라, 가라 헨 야간 *가꼬우(学校)* 간 히라가나 ᄒᆞ꼼 배와난 거뿐. *나니모 간지와 와까란게도 히라가나와 가꾸양까(なにも漢字は分からんけどひらがなは書くやんか).*”[조옥선]

(그렇게 차차차차 해서 자기대로 살기도 좋고. 가 갸 거도 몰랐어, 한국에선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여기 와서 야간 학교 가라, 가라 해서 야간 학교 가서 히라가나 조금 배웠던 거뿐. 아무 것도 한자는 모르지만 히라가나는 쓰잖아.)

긴 세월 불법 체류자로 영세 가내 공장에서 노동을 했던 재일제주인 1세는 연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재일제주인 1세 중에는 일본 정부의 생활 보조금인 '민생'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임순애는 현재 자녀들이 매달 챙겨주는 생활비에 의지하고 있다. 큰일만 없으면 생활하는데 충분한 돈이지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장수종은 현재 병상에 누워 있는 노모를 돌보고 있다. 조옥선은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야간 학교에 다니며 지내고 있다.

노년의 외로움

"-게난 무사 외로울 거라마씨? 친구덜 잇고 아이덜 다 여기 잇고?

속엣말허는 친구가 다 엇어. ᄆᆞ숩나 이딧 사름덜. 게난 동경 간 친구 하나가 잇주게. 전화*다인(だい)* 이거 정헹 돈 나온다. 일본 전국에 암만 전화헤도. 경허난 그디 친구영 일주일에 ᄒᆞᆫ 번씩 전화헤영 말 ᄀᆞᆫ주게, 이말, 저말. 이딘 이 만이 ᄀᆞᆯ앙 놔 두민 이 만이 벌겨지고."[임순애]

(-그러니까 왜 외로워요? 친구들 있고 아이들 다 여기 있고?

속엣말하는 친구가 다 없어. 무서워 여기 사람들. 그러니까 동경에 간 친구 하나가 있어. 전화요금 이거 정해서 돈 나와. 일본 전국에 아무리 전화해도. 그러니까 거기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말을 해, 이말, 저말. 여긴 이만큼 말해 두면 이 만큼 커지고.)

-게난 이 동네가 다 제주도 사름인게?

제주도 사름인디 그 집 주인허고 이짝에 할망 부부만 민생을 안 탕 다 탄덴. 경허난 그 집 주인 할망이 그 민생 탐젠 그 ○○이 어른네영 그 어른 내무린덴게. 내무련 경 무시거 허는 따문 그디서 뭣인엔 ᄀᆞᆯ민 또 그 주인이 경 뭣이엔 허는 셍이라.

-게난 앞집이 다 제주도 사름덜인디 경 사이덜이 좋지 안 헌 거 같아.

좋지 안 허여. 경허난 그자 뭐 허영 좋게 허영 살암시민 허주만은 ᄒᆞ쏠 허민 슝허고 ᄒᆞ쏠 허민 쌉곡 뭐 이거. 나 이거 ᄒᆞᆫ 멧 해 알앙 뎅기는디 사흘에 ᄒᆞᆫ 번씩 쌈나 그 동네 어른덜은. 무시걸 ᄃᆞ퇀 싸웜신고. 나 ᄆᆞ녀 ᄀᆞᆯ앗주. 무시거로 싸왐수과. 말 ᄀᆞᆫ는 거 하나에 쌉는 거라. 게난 그런 거 가졍. 늑신네가 사이좋게 헹 살민 뒐 건디 경덜."[임순애]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 제주도 사람이네요?

제주도 사람인데 그 집 주인하고 이쪽에 할머니 부부만 민생을 안 받고 다 받는대. 그러니까 그 집 주인 할머니가 그 민생을 받는다고 그 ○○이 어른과 그 어른을 나무란다는 거야. 나무라서 그렇게 뭐 하는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또 그 주인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앞집이 다 제주도 사람인데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거 같아.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저 뭐 해서 좋게 해서 살면 하지만 조금 하면 흉보고 조금 하면 싸우고 뭐 이거. 나 이거 한 몇 해 알고 다니는데 사흘에 한 번씩 싸워 그 동네 어른들은. 무엇을 다퉈서 싸우는지. 나 지난번에 물었어. 무엇 때문에 싸우세요. 말하는 거 하나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늙은이가 사이좋게 해서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딘 다 여기서 낭 큰 사름덜이여. 겨난 조용헌다 이딘. 나 ᄒᆞ나만 뭐, 우리 집이만 ○○이엔 헌 어른 왕 웨는 거뿐이주. 그 동네선이 사름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경덜 조살 허여. 겨난 못 살아 헐 정도. 게난 그 ○○이엔 헌 어른이 어디 가도 ᄂᆞᆷ아피 환영을 못 받나. 성질이 저추룩 허여부난. 어떤 때 풀쌍도 허곡이. 오널도 나 일허는 디 강 앚앗단에, 강 앚고 뒈나 속솜허민 뒈주만은 무신 일허는 사름덜안티 뭣이엔 ᄀᆞᆯ아부난 그 사름덜은 들은 척도 안 허는 거라. 경허민 능청 엇일 건디 무사 와신고 나만 속으로 허멍. 그자 아는 동네난 가기사 헷주만은. 경허난 ᄆᆞ녀도 ᄒᆞᆫ 번 와시난, *네상(姉さん)* 이제랑 나 하 감시난 어디 강 절대 무신 말 허지 맙서. *네상(姉さん)* 우터레 베리주 알러레 베리지 안 협니덴. 조용히 삽서 허난. 누게안티 ᄒᆞᆫ 번 ᄀᆞᆯ은 거 들으민 부에가 난덴 허는 거라."[임순애]

(여긴 다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조용해 여긴. 나 하나만 뭐, 우리 집에만 ○○라고 하는 어른 와서 외는 거뿐이지. 그 동네에서 사람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렇게 조사를 해.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그 ○○라고 하는 어른이 어디 가도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못 받아. 성질이 저러해서. 어떤 때는 불쌍도 하고. 오늘도 나 일하는 데 가서 앉았다가, 가서 앉으

면 조용하면 되는데 무슨 일하는 사람들에게 뭣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면목이 없을 건데 왜 왔지 나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아는 동네니까 가기야 했지만. 그러니까 전번에도 한 번 오니까, 언니 이제는 나이도 많으니까 어디 가서 절대 무슨 말 하지 마세요. 언니를 위로 보지 밑으로 보지 않는다고. 조용히 사시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한 번 이야기 한 말 (다른 데서)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하는 거야.)

자녀들을 다 키우고 치열했던 일터를 떠나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만도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웃한 제주 사람들이 많기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무심코 '뱉은 말'이 불씨가 되어 이웃들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또 그 말이 눈덩이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도 한다. 재일제주인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더 작은 사회 안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못해 외로운 노년이다.

아이들에게는 일본어로

"-게난 애들 키우멍, 애들 넷을 키웟수게. 뭐 말썽 부령 막 걱정허고 그런 건?

그런 건 엇어. 웨냐면은 나가 우리 아이덜 학교 뎅길 때, 국민학교부터 쭉 나가 집에서만 일헷거든. 게난 아이덜이 다 알거든. 우린 밤인 뭐 9시까지 일헷지. 9시까지 일허믄 목욕헤가지고 맥주 먹고 뭐 허니까, 지금 우리 아이덜이. 일본선 그런 말이 있잖아. 부모의 등을 보면서 새끼들이 자란다고."[장수종]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서, 애들 넷을 키웠는데 뭐 말썽을 부려서 걱정하고 그런 건?

그런 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부터 쭉 내가 집에서만 일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알거든. 우린 밤에 뭐 9시까지 일했지. 9시까지 일하면 목욕해서 맥주 마시고 뭐 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선 그런 말이 있잖아. 부모의 등을 보면서 새끼들이 자란다고.")

"집에서 한국말도 곧고 일본말도 곧고. 그 전에는 각시영이나 어머니랑 말 골을 때 일본말도 곧고 한국말도 곧고 뭐 보통 반반. 여기 왕 ᄒᆞ꼼씩 일본말 들으민 거 잘 들엇당 곧고 허멍 ᄎᆞᄎᆞ. 우린 와가지고 자기대로 그자 뭐 공부하면서 일을, 말을, 자기가 배워야 된다고 헤가지고. 아이덜신딘 일본말로 골앗지."[장수종]

(집에서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그 전에는 아내나 어머니와 말할 때

일본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뭐 보통 반반. 여기 와서 조금씩 일본말 들으면 거 잘 들었다가 말하고 하면서 차차. 우린 와서 자기대로 그저 뭐 공부하면서 일을, 말을, 자기가 배워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에겐 일본말로 했지.)

"아이덜은 한국말 몰른다. 아이덜 낳기 전인 아방이영 한국말도 곧고 일본말도 골앗주만은 아이덜 크멍 말 베와가난 일본말만 헷주. 뭐 아이덜 한국말 알아야 헌데 생각허지도 안 허고 학교 강이라도 한국말 허민 안 뒐 거난 일본말만 헷주게."[임순애]

(아이들은 한국말 모른다. 아이들 낳기 전엔 (아이들) 아버지와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했지만은 아이들 크면서 말 배워가니까 일본말만 했어. 뭐 아이들 한국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 가서라도 한국말 하면 안 될 거니까 일본말만 했지.)

재일제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일본으로, 소통, 교육을 위한 공식 언어는 일본어이다.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한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밀항자의 신분으로 생활에 제약이 있었던 이민 1세들의 바람은 자녀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붙이고 일본 학교에 보내고 가정에서도 일본어를 썼던 것이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1세의 인식은, 일본 이주 초기에 건너왔던 이민 1세들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자녀들에게 민족 교육을 강조하며 본명 사용을 강조하고 조선학교에 보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같은 고향 출신자의 배우자를 고집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저 큰메누린 부산. 저 족은메누린 일본 메누리. 겐디 족은메누리가이 삭삭허영 좋나. 준셈도 잇고. 와근에 제서 때에 왕 가멍이 영 봥 간다. 겐 다음엔 요거 엇구나 허민 똑 사온다. 비싼 거 아니라도 똑 사온다."[임순애]

(저 큰며느리는 부산. 저 작은며느린 일본 며느리. 그런데 작은며느리가 싹싹해서 좋아. 잔정도 있고. 와서 제사 때에 왔다 가면서 이렇게 보고 가. 그런 다음엔 요거 없구나 하면 꼭 사와. 비싼 거 아니라도 꼭 사와.)

아이들은 일본 국적

"우리 아이들도 너이 다 일본 국적으로 바꿔 불언.

-아이들 일본 학교 다년?

일본 학교. 일본 학교주마는 국민학교 때 우리학교 보내가지고 학교 뎅길 땐 또 한국말로도 곧곡 뭐 허는디 중학교, 중학교 들어강 일본 아이덜이엉 뭐 헤가난 한국말도 이젠 다 잊어불고. 지금 우리 손지들도 저 어디 뎅겨. 우리학교. 이녁 이름도 한국말로 써. 견디 이제 일본 사람으로 뒈 불 거라고. 어멍이 일본 사름이난. 일본은 자식은 부모에 따라가지고 어머니에 따라가지고 뭐 헤불주게."[장수종]

(우리 아이들도 넷 다 일본 국적으로 바꿔 버렸어.

-아이들 일본 학교 다녔어요?

일본 학교. 일본 학교지만 국민학교 때 우리학교에 보내서 학교 다닐 때는 한국말로도 말하고 뭐 했는데 중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일본 아이들과 뭐 해가니까 한국말도 이젠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손자들도 저 어디 다녀. 우리학교. 자기 이름도 한국말로 써.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 돼 버릴 거라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은 자식은 부모에 따라가지고 어머니에 따라가지고 뭐 해버리지.)

우리도 큰아덜네 다 일본 국적이라. 족은아덜은 절대 안 바꾸켄. 그런 것이 많아. 이디 살젠 허믄, 일본 국적 이시민 그런 디 들어가근에 뭐 허주만은. 우리 족은아덜 말적아니라도 자기가 능력 이시민 한국 국적이라도 얼마든지. 거난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멩헤도 차별 있나.[임순애]

(우리도 큰아들네 다 일본 국적이야. 작은아들은 절대 안 바꾸겠다고. 그런 것이 많아. 여기 살려고 하면, 일본 국적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가서 뭐 하지만. 우리 작은아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한국 국적이라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차별이 있어.)

장수종의 자녀들은 모두 일본 학교를 다니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재일한국인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1952년 233명의 귀화신청자 허가 이후 2016년까지 36만 5,530명이 귀화하였다[9]. 이 중 재일제주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통계 자료는 없지만 상당

9) 외교부 홈페이지, 재외동포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으로의 귀화자가 늘어나고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자녀들이 일본 국적으로 등록되면서 재일제주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임순애는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한국 국적이라도 얼마든지'라며 절대 국적을 안 바꾸겠다는 작은아들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으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차별이 있다'며 우려를 한다. 장수종이나 임순애는 국적 문제는 자녀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강한 일본에서 재일제주인의 민족관이나 고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적 문제는 여전히 민족 정체성과 같은 복잡한 이념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1세들은 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 고향으로의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민족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자녀에게까지 이를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

Ⅴ. 구술을 통해 살펴본 재일제주인 사회

1. 재일제주인의 언어와 생활 문화의 특성

○ 제주 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모여 살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국땅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 이쿠노쿠에는 제주의 향토 음식이 있었고 제주의 전통 문화가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제주 방언으로 소통이 가능했다.

○ 언어적인 측면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만이 아니다. 언어는 집단을 구분하며 그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은 제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며 제주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 재일제주인 1세가 구사하는 언어가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은 제주방언의 옛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령기를 제주에서 보내고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은 제주방언 화자다. 1950~60년대는 방송이나 교육 매체를 통한 표준어의 영향이 다소 적었던 시기이다. 물론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이들은 표준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일본으로 이주하여 제주방언을 사용해 왔다. 물론 이들이 사용하는 제주방언은 본적지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제주방언의 모습은 언어 내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언어인 일본어와의 접촉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일 것이다.

○ 재일제주인 1세가 구사하는 제주방언에는 상당 부분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이 혼용어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이중 언어 화자인 재일제주인 1세들만이 공유하는 '제3의 언어'다. 이러한 언어 혼용은 이중 언어 화자의 발화 전략으로 발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른 언어 선택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완전한 언어 구사 능력과 문법 구조가 유사한 두 언어 간의 간섭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재일제주인 1세는 제주방언과 일본어

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화자지만 '제한적 이중 언어 화자'로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여 두 언어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두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이 언어 간에 간섭 현상을 초래하였다. 독특한 언어 형태는 개인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언어 공동체로 전달되어 새로운 언어 체계로 발전해 온 것이다[1]. 이러한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 양상은 제보자들의 생애사 구술 자료에서 확인된다.

○ 한편, 출신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자문화 유지율을 높인다. 제주 사람들은 이민 사회에서 집단을 이루어 지내면서 제주식의 생활문화, 제주의 풍습을 지켜왔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사는 돌아가신 선조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의식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제사는 부계 친척은 물론 외손과 사돈, 친한 이웃들이 모두 참여하여 그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매개체였다. 제삿집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여성들의 경우, 굿을 행하는 장소 또한 공동체의 공간이었다. 재일제주인의 신앙에서 무속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가업이 기울거나 질병 등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해가 바뀌면 으레 가정의 안녕을 바라며 굿을 행했다. 이러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제주 여성들로, 굿의 장소는 제주 여성들이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는 공동체의 장소였다.

○ 제주 사람들의 일본 이주와 정착 과정에는 같은 가족이나 친척, 같은 마을의 이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일제주인은 일본이라는 이국의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지내기 위해 마을을 단위로 다양한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주기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친목회는 단순한 사람들 간의 '친목을 떠나 경제 활동 공동체 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 집안의 경조사를 함께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 하지만 일본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주 후 시간이 길어지고 세대가 변하면서 제주식의 생활 문화 풍속은 많은 부분에서 현지화 되고 재일제주인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

1) 김보향(2015),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9.

2. 재일제주인 공동체의 특성과 변화

○ 재일제주인은 '육지 사람'과 구별되는 '제주 사람들'만의 독특한 일체감으로 이민 사회에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였다. 이주 초기부터 혈연·지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일본 안에 작은 제주가 만들어졌고, 끊이지 않고 밀항으로 건너온 제주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재일제주인 사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제주 사람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재일제주인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혈연, 지연으로 맺어진 조직이 많다. 종친회, 마을 친목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 준다.

○ 이문웅은 재일제주인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은 빼 놓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2]. 섬은 기본적인 성격상 바깥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경계 구분이 분명하기에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섬 안으로 제한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은 훨씬 약화되기는 했지만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굳어진 제주도의 전통문화 요소들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언어, 생활 관습, 정서 등의 측면에서 '육지 사람'과는 구분되는 '우리 제주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독특한 일체감이 제주도에서보다는 오히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 재일제주인들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환경적인 요소로서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강한 동료 의식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들만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강한 소속감에 의한 연대 의식의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어느 사회나 사람들 간의 관계망에서의 연대 의식은 단체나 조직의 주기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즉 소속단체나 회원들 간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은

2) 이문웅(1998),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p.354.

마을이나 여러 조직체 친목 모임이나 제사 모임 등이었다. 이런 모임은 제주 사람 간의 '만남의 장'으로, 강한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키워왔다.

○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 변화는 이러한 '만남의 장'이 해체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모임의 주체였던 초기 이민 세대인 재일제주인 1세들이 고령화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교체와 함께 재일제주인의 공동체는 점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동체의 해체와 재일제주인 사회의 고령화와 정체성의 변화는 현재 재일제주인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이다.

3.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앞서 살펴본 재일제주인 공동체의 해체에 기인한 것이다. 재일제주인 사회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 공동체를 통해 고향의 친척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며 재일제주인 사회가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었으며 고향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있었다. 그러한 중심적 주체가 되었던 것은 이주 초기 1세들이다. 이민 사회의 세대가 교체하면서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고 공동체의 해체는 재일제주인 사회의 변화,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 두 번째 요인은 가족과 친족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연결 고리의 분리에 의한 것이다. 재일제주인에게 가족과 친족은 제주도와 일본을 잇는 제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이다. 그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는 고향의 가족이나 친족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 구술을 통해 살펴본 제보자들의 도일의 이유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면서 제주로 귀향은 멀어지게 된다. 이주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

향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살아 있지 않고 친족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조옥선의 구술에서처럼 부모나 형제가 존재하지 않는 고향은 '이제 타관이 뒈영 가도 무시거(이제 타향이 돼서 가도 뭐)'인 곳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족과 친척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연결 고리가 제주도와 일본을 잇는 제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일제주인 간의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와 함께 정체성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 재일제주인 1세는 일본과 고향을 잇는 관계망을 형성하여 자녀들에게 고향의 문화를 전수하는 문화적 중심체 역할을 하며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러한 1세에게 고향에 가족, 반가운 친척이 없다는 것은 재일제주인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반면, 삶의 터전에서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재일제주인 1세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이 일본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편안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이다.

○ 재일제주인의 구술로 살펴본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비단 재일제주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 1세대의 특징인 민족, 고향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은 2, 3세대에게서는 개인으로서의 삶이 중시되고 시민으로서의 인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Ⅵ. 결론

○ 이 연구는 해방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사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재일제주인의 이민의 역사는 100년을 넘어서고 있다. 역사의 격동기를 보냈던 1세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화하여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재일제주인 사회는 2세, 3세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고 4세, 5세까지 뒤를 잇고 있다. 이민 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후세로 갈수록 고향에 대한 애착과 유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일제주인 사회의 모습을 1950~60년대에 일본에 건너가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1세의 구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일본으로 이주한 배경과 과정, 일본 사회에 정착 과정을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상에 대한 구술을 통해 재일제주인 사회의 언어, 생활 문화의 특징과 공동체의 변화, 제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에 대한 재일제주인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재일제주인은 이주 초기부터 혈연·지연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살아왔다. 출신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자문화 유지율을 높인다. 이는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조선시장을 중심으로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본 사회 안에 독특한 '언어의 섬'을 형성하여 정식적인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제줏말로 소통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주방언 화자의 유입은 이곳에 제주방언이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제주의 생활 문화, 제주의 풍습을 지켜왔다. 제사나 마을 친목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 하지만 일본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주 후 시간이 길어지고 세대가 변하면서 제주식의 생활 문화 풍속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 현지화되고 재일제주인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 변화는 재일제주인 간의 '만남의 장'이 해

체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모임의 주체였던 초기 이민 세대인 재일제주인 1세들이 고령화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교체와 함께 재일제주인의 공동체는 점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 이러한 공동체의 해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고령화와 정체성의 변화는 현재 재일제주인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이다. 재일제주인 사회는 차세대의 정체성 약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의 저하 등으로 제주와 경제, 사회적 교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양측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관계 설정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제주도가 그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주도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재일제주인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재고되어야 할 시점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아울러 재일제주인의 삶은 '역사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세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가운데 2세의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자료는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일제주인 2세, 자신의 뿌리를 잊어가는 3세, 4세 등 이민 후세에게 전할 '실체화된 기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하는 기억이다. 재일제주인의 자료 수집은, 구술을 통해 전해져야 할 경험과 기억이 빠르게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시급한 문제이다. 자료 수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고선휘(2006),『재일 제주도 사람의 타향살이: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북제주문화원.

고선휘(2007),『일본으로 돈벌이 간 제주도사람: 요코하마 고토부키쵸를 중심으로』, 북제주문화원.

신재경(2014),『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보고사.

윤택림(2004),『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아르케.

윤택림(2006),『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질적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도청(1937),『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제주특별자치도청(2010),『애향백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정의선・김인덕・신유원 역(2012),『재일코리안사전』, 도서출판 선인.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2013),『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이주와 정주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선인.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2),『안주의 땅을 찾아서: 재일제주인 생활사 1』, 도서출판 선인.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5),『고향의 가족, 북의 가족: 재일제주인 생활사 2』, 도서출판 선인.

연구 논문

김보향(2014a),「재일한국인 언어 연구의 동향과 과제」,『재일한국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323～353.

김보향(2014b),「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과 일본어 혼용 양상 고찰」,『언어학 연구』제19권 2호, 1～19.

김보향(2014c),「오사카 이쿠노쿠 지역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영주어문』제28집, 111～136.

김보향(2015),「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창민(2003),「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 간의 관계 변화:1930-2000」,『비교문화연구』9-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5~221.
안미정(2008),「오사카 재일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탐라문화』 32, 179~218.
안미정(2010),「국경이 놓인 오사카 재일한인 여성의 가족과 친족」,『지방사와 지방문화』13(1), 역사문화학회, 403~440.
유철인(1998),「재일 제주인과 제주도」,『동아시아연구논총』, 9. 393~402.
이문웅(1988),「재일 제주인의 의례 생활과 사회 조직」,『제주도연구』5, 51～58.
이문웅(1989),「在日 濟州人 사회에서의 巫俗」,『제주도연구』6, 79～87.
이문웅(1998),「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355～378.
이준식(2002),「일제 강점기 제주도민의 오사카 이주」,『한일민족문제연구』3, 5～32.
이창익(2013),「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제주와 오키나와』,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재일제주인센터, 414~439.
전은자(2008),「제주인의 도항 연구」,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경희(2015),「불완전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사회와 역사』106, 39~75.
후지나가다케시(2010),「재일 제주인과 '밀항':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4.3과 역사』 10, 153～176.

보고서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3),『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신우기획.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재일제주인 1세 구술 채록」, 제주특별자치도(미출판).

외국 논문, 도서

枡田一二(1986),「済州島の地理学的研究」,『地域社会の発展とまちづくり』, シード・プランニング, 25～158.

杉原達(1998),『越境する民』, 新幹社.

玄武岩(2007), 「密航・大村収容所・済州島: 大阪と済州島をむす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現代思想』 2007年 6月号, 158～173.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재외동포 현황.

Abstract

A study on the oral life history of the first generation of Jeju people who reside in Japan

Kim Bo-Hyang

Keyword: Jeju people who reside in Japan, life history, relationship, community of Jeju people,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cord the life history of the first generation of Jeju people who went to Japan and now reside in Japan before and after liberation, and to research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oral history of the first generation of Jeju people in Japan,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immigration, the process to settle down in Japanese society and overall life style in Japan are researche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people in Japan and Jeju Island. Through this, the features of the language and life culture of the Jeju people 's society in Japan are investigat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 aspect of social community of Jeju people in Japan are researched. In addition,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Jeju, the changes of Jeju people 's perception on their hometown are reviewed.

Jeju people in Japan have lived in a group centering on regionalism and kinship since the early period of migration. Living together with people with the same hometowns might increase the rate of culture preservation. This has a great influence on language life. Jeju people gathered around the Chosun market and they formed a unique 'island of language' in the Japanese society, and communicate in Jeju dialect without having the opportunity to learn Japanese language formally.

And the continuous influx of Jeju dialect speakers played a big role that maintains Jeju dialect here. They have also maintained the life culture and customs of Jeju. Through regular meetings and gatherings such as memorial services and village social gatherings, they could strengthen each other 's unity. The social gatherings in this period were a way to maintain ties with people by sharing not just an economic activity community but also a family event.

However, the time after immigration has become longer and generations have changed during the process of settling in Japanese society, the lifestyle culture of Jeju style has been localized in many parts and the community of Jeju people in Japan has been disbanded.

The aging of Jeju people's society and identity change due to generation change and disbanded community are the problem faced by the current Jeju people's community.

The economic and social exchange and activity of Jeju people's society in Japan has been intimidated due to weakened identity of next generation, rare affection toward their hometown. This means that it is urgent for the both sides to establish a different level of relationship with the past. It shows that it is the time to reconsider the multifaceted policy for Jeju people in Japan, who have done their best effort to develop Jeju Island.

In addition, they dominate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peninsular as well as Jeju history in the aspect that they are the existences with 'historicality'. The first generation rarely survive and the aging of the second generation is ongoing. The data collection of the Jeju people in Japan is an urgent problem in the reality that experience and memory to be transmitted orally are rapidly disappearing. The ways where data collection activities can be actively carried out, should be sought.

<부록> 구술 전사 자료

1. 김영희(가명)
1930년생, 함덕 출신, 1967년 밀항

연세가 어떵 됨수과?
하찌주하찌야(はちじゅうはちや).
몇 살에 이디 오랏수과?
나가 서른다섯, 서른일곱에, 겐디 이제 팔십팔. 겐디 그때는 차 타는 사름이 없어. 글을 몰라서. 우리는 한글을 난 몰라. 웨정 때 일본 글베끼 한국에서 안 허니까. 그 때는 아무도 여자 한국에서 온 사름은 차를 못 허지. 글을 몰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해서 여기 와서 탈 수도 있고, 거기서 해 가지고 기리가에(切り替え) 헤 가지고 탈 수도 있지만은 그 엿날은. 우리 아덜네도 딸네도 비꾸리시떼(びっくりして).
경허지마씸.
겐디 운전헹 다니니까 이제 전차 탈 줄을 몰라.
기구나, 기구나.
차로만 뎅겨부니까. 차로 안 간 디가 없어. 동경도 차로 가.
일은 무슨 일 헤낫수과?
나 여저 사장. 저 거세기 사름 썬에, 그 등록 엇는 사름덜 엿날은 많이 잇잖아. 도요우베아링구라고, 베아링구, 바킹(パッキング)이라고 허면은 고무 한 하꼬(はこ) 헤 가지고 이거를 부찌는 거야.
예.
우리 조카가이 나가 거기서 국민학교베끼 못 했잖아. 일 칠십까지 헷어. 마흔둘에서부터 헹 칠십까지 했어.
오자마자 사장님을 헌 거?
아니, 아니. 오자마자는 못 허고 나가 사장 노릇은 마흔둘, 다섯에서부터 나가 사장.
처음 왔을 때는?
그 적에는 하리꼬(はりこ) 헷어. 한 이삼년. 신 만드는 거.
어떤 때는 쯔가께(つっかけ)렌 허고 어떤 건 하리꼬(はりこ)렌 허는 거?
오나지야(おなじや).
집에서 헌 거, 놈의 집이 강 헌 거?
놈의 집이 강 헷주게. 질 차음은 등록도 없으니까 놈의 집이 강 헷주. 심으러 온다 허믄 막 도망치면서도 허고. 여긴 오빠가 있으니까 왓지.

게민 쯔가께(つっかけ) 허멍 돈 하영 헤신게?

그런 거는 돈도 못 벌어. 그냥 먹기나 허고. 나는 와서 팔년 만에 저 우리 아이덜을 놔 둰 왓거든. 소학교 5학년, 중학교 일학년. 말을 안 들어 가니까 놔 두고. 언니안테 메껴 놓고. 하도 말을 안 들어가니까 죽으러 간다고 해서. 우리 오빠가 여기 살앗어. 오빠네 따라서 왓지. 오빠네 따라 가지고 왓어. 나는 우리 아이덜 따문에 ***라는 디가 잇어. ***라고 시즈오까. *** 그 사름이 보니까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잘도 울어지더라. 잘도, 잘도 두 시간 방구미(番組)디 잘도 울엇어. 아기덜 놔 두고 오니까. 저 아이덜을 구행 놔 두민, 우리 아이덜, 난 큰 아이 하나 죽어버리니까. 죽고 나가 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돈 벌멍 제주에 있는 아이덜 공부시킨 거?

공부시킨 거야.

여기서 돈을 부치젠 허민 어떵 보냇수과?

가는 사름안티 부쳤지. 그때는, 옛날에는 함불로 돈을 못 부치고 가는 사름안티 영 보내영. 저 선흘에 우리 동창인디이 그디 가도 조사헌덴 허더라. 경허난 브라자 소곱에 놩 갓젠.

사람 편에 보내면 떼여 먹기도 허고?

그때는 떼여 먹지 안 허여. 그런 사름허곤 상대를 안 허지. 같은 동창, 동창이. 그때는 곧 오면은 등록이 없으니까 우린 못 가니까 얼마 갓다 달라고. 또 내중에는 다노모시(たのもし)도 동창덜이 모녀 와서 등록된 사름덜이 많아. 여기 우리 동창은 그 사삼사건 때문에. 그래서 차비를 못 물어서도 동창이 물어준 적도 잇어. 다모노시(たのもし)를 들어도 신용이 문제거든. 신용이 엇이민 안 들어 주거든. 그러니까 다노모시(たのもし)도 끝까지 내라고 해주고 신용이야. 처음에 오니까 집도 안 빌려줘. 겐디 오빠가 좋은 사름이니까 나를 빌려준다고 할머니가. 나가 그 테레비 보다가 돈을 낸 거야. 흔 덜에 만 원썩 이 년간, 이 년간 내가 냈어. 기부. 아기덜 생각헤영 이 년간을. 막 울면서 우리 아이덜을 길롸 줍서, 길롸 줍서 이 년간을 내다가 나가 차를 사려고, 운전수가 졸바로 안 헤주니까 나가 운전허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니까 십만 원 한꺼번에 내 놓고 이제 이년 만에 그냥 끈엉 헌디. 나가 유깐(入管)에 가니까 이런 사름은 십만 명에 하나 시나마나엔.

기부한 게 다 남았구나.

이 년을 헷다고 해서. 아, 나가 헌 거 거기다 전화허는 거야. 허난 헐 때마다 하가끼(はがき)가 와.

게난 삼춘은 등록도 엇일 때에 기부를 헌 거라?

게난 등록이 뒛지. 나가 테레비를 봐 가지고 그디 전화를 헷거든. 게니까 주소 말해주니까 매덜에, 매덜에 월급 타민 만 원썩을 보내지. 겐 이 년간 보내다가 못

보내서 십만 원 한꺼번에 보내고 차 사고 나부니까 못 허겠다고 해서 끈었는데 등록을 허레 갔는데, 뭐 좋은 일 했나 궂은 일 했나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빠도 다 나오고 우리 오빠가 가서 죽은 것도 다 나오고. 이디 이신 것도 다 나오고. 게니까 이렇게 헤서 막 울어가니까. 영 영 헌 일베끼 엇다 허니까 그러면 가서 점심 먹고 그 하가끼(はがき)가 왓다는데 그레 딱 전화허는 거야. 겅 나 이름 탁 나오잖아. 게니까 이제 가서 가져오니까 이만이야. 2년 동안에. 십만 명에 하나 시나마나엔. 1, 2년 기부허는 사람은. 흔 덜 두 덜 허는 사람은 있어도 2년꺼지 허는 사람은 없다고. 금방 나왓어.

게민 삼춘이 서른 다섯 살에 왔잖아예. 등록 얻은 게 언제과? 몇 살이우과?

등록 받은 거는 마흔, 한 8년 만에 받앗어.

8년 만에? 그민 어떵헹 등록받게 뒌 거과? 자수한 거? 아니면 잡혀간 거?

일할라 허니깐게, 자수헷거든. 자수헤야지게. 자수헤야 해. 게서 그거를 나오니까 금방 나온 거야. 자수를 해야 해. 그러니까 자기 헌 거를 다 말헤. 여기는 심어가도 안 허고 자수를 헌 거야 나는. 사삼사건에 이렇게 헤서 왓다고 자수를 헌 거야. 게서 지금도 그 편지가 있는데 2년 동안 이니까 이만이라. 하가끼(はがき)가 매달에 와. 게니까 거기다 탁 전화허니까 유깐(入管)더레, 동경더레 전화허니깐 뭐 그냥 금방 나오는 거야.

음.

게니까 지금이, 나는 사삼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여기 와서, 중학교를 졸업을 못 헷잖아. 해방됀어 부니까이. 소학교 졸업헌 일본 공부만 허고 한글을 몰랏어. 게서 여기에서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꺼지 헷어. 나가 야간을이. 그레 못 허니까 원이 져서 야간을 다녔는데, 선생 작문을 쓰면은 그 사삼사건 작문을 다 쓴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보고 동경에 NHK서 선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와서 연설을 허라고. 건데 우리 연령 때는 함덕이니까는 오빠 죽인 사름도 다 알고 다 알아도 그 사름들 손지, 자손들은 나를 몰르지. 나는 그때가 조금 읔은 때이니까, 열 멧 설이니까이. 열대여섯 설 뒌 때니까 헌디, 그 아이들이 자식덜이 여기 온 아이들도 잇어. 나는 어떤 아이다 헌 거를 다 알지만은 가이들은 모르는디 이제야 그거를 얼굴을 감춰서 허면은 허지만은 얼굴 내놓고는 연설 못허겠다고. 건디 이제 다들 그디 자손들이 여기 와서 아, 난 저거 어떤 아이 자손이다, 우리 오빠 죽인 그 집이 가족이다 그런 거를 나는 알지. 가이들은 나를 누군지를 몰르지. 그거를 이제야 뭐 허고. 우리 조카 이번에 왓당 녹음헹 가더라. 지금도 원인이 사삼사건 원인은 무슨 원인인가 모르겠다고 작문을 써서 냇거든. 그걸 봐가지고 우리 조카 그걸 녹음헤가지고 저 거시기 이런 걸로 헤가지고 가더라. 여행 왔다가.

제주도 이신 조카과?

제주도. 우리 조카는 제주도 여성부장이야.

아 아, 게난 게난.

우리 동생 딸. 겐 여행 왔다가 그걸 봐가지고 가이들은 어리니까 모르잖아. 나가 쓴 그거를 저 이만이 있거든? 한글로 다 쓴 거를 게니까 지금도 나가 사삼사건이 무슨 원인으로 사삼사건 원인이 뭐인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헤서 나가 썽 바찐 적이 있어. 학교에. 그거를 가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가더라. 나는 다 알지. 머리 빡 끈어 놓 것도 다 알고. 그런 것도 다 보고. 우리 쵸도(ちょうど) 철이 그런 때야. 열 멧 설이니까. 열다섯, 여섯 쵸도(ちょうど) 중학교 갈 때 해방뒛거든.

기민 삼춘이 멧 년생이과?

30년생. 게난 일본 선생헌티만 공부헌 거야. 근디 공부헤가지고 우리 센닝바리(せんにんばり) 다 헤가지고 보내고 학교 입학허면은 선생이 *** 왕 다 오는 거. 게난 이제는 동해물가는 난 못 익어. **노히까리(**のひかり)는 익어도.

맞수다게. 그때 공부헤부난. 일본 글 공부헤부난.

한글을 몰라서 이제 교회 다녀도 일본책을 보고 잇어. 일본 저 거시기 저 한국 미사 책을 안 보고 한국 미사는 보지만은 일본 미사 책을 매일 자기가 익을라고 허기 때문에, 익는 때문에 집에서. 일본 미사책을 사서 보고 있잖아. 한글을 의미를 모르겠어. 우리 제주도 말베끼 못 헤. 나 제주도 말허고 일본말 반허고 막 헤버리면 수녀님들 둥글어가면서 웃는다. 못 알아들어서.

제주도 말 서껑 이시민.

제주도말 표준말을 몰르거든 우린 못 헤부니까. 그니까 육지 사람 제주도말 뭐 허고 헌디.

저기 삼춘 쯔가께(つっかけ) 헤난 일, 하리꼬(はりこ) 일 헤난 거 그거 놈의 집이 강?

남의 집에서 일허주. 옛날은 다 그리 일헷어.

그 놈의 집이 일헐 때 사람 몇 사람이나 ᄀᆞ치 일헙니까?

하리꼬(はりこ)들 헌 대여섯이서 허여. 대여섯 사름썩 허여.

겡 그거 허면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져?

몰라. 얼마나 받아졌는지는 몰라도 나가 이제 나가 공장을 살려서 헌 거는 나가니시긴소쿠로 헤서 일본말로 도요베아링구라 허는거라. 바킹(パッキング).

도요베아링구?

도요베아링구. 나가니시킨소쿠노. 저 바킹(パッキング) 있잖아게. 그거를 고무로, 고무 이제 헤다가 바킹(パッキング) 헌디 그거를 뽄드로 찍어서 요렇게 헤서 그거를 풀로 부치는 거야. 이 이꾸노에서는 그걸 안 헤줘. 건디 48년도에, 쇼와 48년도에 도루쇼쿠(ドルショック)로 막 그냥 없어졌어. 막 어려웠서 일본이. 쇼와 48년에이. 거니까 이제 그 나가니시긴소쿠에는 네아가 그 공장이 네아가 잇어낫지. 건디 난 차 타고 그디꺼지 간디 아홉 사름이 헷어, 시따우께(したうけ) 그렇게 헤서 받아가지고

이젠 그거를 이젠 다 이렇게 나이쇼꾸(ないしょく) 시켜서 집에서 기계로 허는 건 영 누뜨는 건 남자가 이제 기계 크게 놔서 허는데 공장 빌어가지고 기계로 그거를.

게민 삼춘이 공장허젠 허난 기계도 다 사고 헌 거?

그럼. 그럼 다 헷지. 공장 빌어가지고.

그믄 어떵 헹?

어, 게 일헐라면은 정부에서 돈을 헤주지. 돈을 헤주고 다노모시(たのもし) 거 들어가지고 돈을 빚져주는 거야 일헐라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것이 48년도에 도루쇼크(ドルショック)로 어려우니까 그 공장이 합쳐서 미에켄 히사이로 가버린 거야. 겨니까 히사이꺼지 나는. 기곈 들여 놓자 45년도에 들여 놧거든 48년, 3년 허니까 아이 그냥 절로 가게 뒈니까. 미에켄 히사이는 나고야 쪽이라.

얼마나 걸려 여기서?

이제 두시간 반.

차로?

차로.

가는데 두 시간?

가는 시간이.

아이고.

그디를 새벽이 일어나가지고 미에껜, 미에껜. 이 오사카도 아니고.

운전헹 거기까지 강, 물건 받앙 왕?

응, 그럼. 유명헤. 나 차타는 건 유명헤 일본에서. 게서 새벽이 우리 공장 빈 디가저 하까다라이. 일본 사름 한디 쇼뀨닝(しょくにん)들이 그땐 없는 아이가 하. 우리 고향 아이들이. 등록 없는 아이들이.

그지. 등록 없는 아이들.

어, 등록 없는 아이를 또시 많이 썼어. 경헹 저 산들에 절헤 두고 가라고. 절헤 두고 가라고 헤서 가서 너무나 머니까 두 시간은 가야 허는 거니까 옷도 깨끗허게 입고 새벽에 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야 헤. 그거를 가지고 고무 한 하꼬(はこ)에 담으고, 담고 헌 걸 이걸 뽄질 허는 거를 히라가다, 히라가다렌 허는디 저 간조센으로 히라가다를 또 가지고 가. 밤중에 게난 요 미도리바시 오면은 한 11시쯤 되믄 흘딱 졸으면 옆에 차 세워 놓고. 응 그렇게 힘들게시리 그디 4년을 다녔어. 그 설러부니까 기곈 들여 놓고 어떻게 허나. 4년을 다니다가이 같은 고향에 아이가 밀고를 헤분 거야.

뭐를 밀고헤?

등록을 있으니까, 등록을 없는 아이 있으니까.

그때 삼춘은 등록 있고?

어, 잇스니까 뒈엇지.

고용자들?

어, 쇼꾸닝(しょくにん), 쇼꾸닝(しょくにん). 게니까 일이 쪼끔썩 모지레 가니까 그 핑계로 자기는 등록을 잇으니까 없는 아일 없애버리면은 자기를 쓴다 헤가지고. 그냥 밀고를 헤분 거야. 거니까 그냥 바락 심으러 그냥 온 거야 그냥 한 아이 허는디. 심으레 와서 팍 심어 가니까 누구 헌 거는 나가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밀고허는 게 다 가까이 이신 사람들?

그니까. 그렇게 심성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름, 우리 고향 사름들, 우리 고향 사름이 해. 일본 사름은 자기에 지장이 있으믄 암말도 안 허고 밀고 허지만은 지장이 있으면. 자기가 지장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해. 한국 사름은 싸우고, 무시거 허고 누게 헌 것도 다 알주게. 그러니까 일도 히마(ひま)가 되고 없어가니까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제 그거 헌 줄을 나가 알거든. 그 아이 엇어버리믄 자기 쓴다고 자기가. 자기는 등록 이시니까 허다가 일 엇서가니까 일 안 헌다고 헤 가지고 헤 놓고 헤 버린거야. 팍 하게 그냥 뭐냐 저 문 열고 와서 하는 거를 와서 탁 이디부터 잡아. 2층에서 와서 사니까 2층에서 탁 올라가 뭐 그렇게.

몇 사람이 그때 일헐 때랏수과?

게니까 네 사름이 일허다가 차차차차 일 엇어가니까, 그니까 한 사름이 없는 아이가 심어가 버린 거야. 거니까 아이고 그 가이 헌 줄 아니까 창자 뒤집어져 가지고. 창자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같은 고향이고이. 그냥 일 공장에 등록 없는 아이 심어갔다고 말은 못 허고 헐허니까 안 하겠다고 헌다고 헤서 기계 설러가지고 다 갔지.

어디로, 기계 설렁?

회사에. 심어 갔단 말은 못 허고.

아 아, 안하겠다고 반납한 거.

이제 너미 헐헤부니까 직원 쇼꾸닝(しょくにん)덜이 안 헤 준다고 그래서 기계를 설러가지고 가져갔지.

아 아, 그럼 처음에 그 공장을 차리젠 허면 거기에서가 지원을 헤주는구나. 기계 같은 거랑?

기계는 안 헤주지만은 이 허는 이런 거시기 가다(かた), 가다(かた)는 거기서 와야 허지. 게고 그 물건도 오면 자기가 다 나이쇼꾸(ないしょく) 헤서 헤 가지고 다 헤 놓고 가고. 너무나 잘 허니까 여덥 사름이 차 타고 사장이 어떵허니까 이렇게 오느냐고 한국 사름들은, 저기서 온 아이들은 열심히 일을 잘 허지게. 그니까 많이 빨리 많이 구어서 숫자가 하. 거니까 사장이 어떤 요술을 부려가지고 허느냐고.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응, 많이 헌다고. 기계는 4개에다가 그디는 놀면서 놀면서 일본 사름들은 담배피우면서 하나로 허는디 우리는 두 개로 이거 디물려 놓고 이것에 다 나라베(なら

베) 시켜 놓고.

일은 잘헷구나.

그렇게 열심히 허는디. 보러 온 거야, 여덥 사름이 타가지고 사장이.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허는 걸 본 거야. 노는 시간이 없어. 그디 사름들은 기계 하나로만 헤. 가다 하나로. 하나 헤서 이거 구울 동안 담배도 피우고 뭣도 피우고 허면 수가 하영 나올 리가 없잖아게. 그니까 무슨 요술을 부리고 허나 헤서 보러 온 거야, 시간 맞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라고 헤서 그럼 너라도 우리한테 준거야 깨끗하게 헤 가고 허니까. 게서 여덥 사름이 보러 와낫어, 사장이. 와곤(ワゴン) 차에 싣건. 나도 와곤(ワゴン) 차. 여덥 사름 타는 와곤(ワゴン) 차 타가지고 다녔어. 죠요우(じょうよう) 차를 안 타봤어. 와곤(ワゴン) 차 탄. 저 세도와시가 일본에서 처음 멘든 땐 세도하시가 일본에선 최고 긴 하시(はし)야. 이젠 저 아까시(あかし) 저 고베가 크지만은 제일 진 하시(はし)니까 그 하시(はし)를 넘으믄 나가이끼(ながいき) 헌다고 헤서 그 하시(はし)를 넘어부니까 이건가.

나 이젠 사진이서 그 하시(はし)서.

어머 그 하시(はし) 넘으믄 나가이끼(ながいき) 헌덴마씸? 아, 가 보카. 하하.

그 하시(はし)를 그 하시(はし)를 이젠 헤가지고, 그거 넘어부니까 이렇게 나가이끼(ながいき) 허는 거 아닌가? 하하하.

회사허젠 허난 어려움이 엇엇수과, 일본 사름이영 거래허멍?

이제 신용을 안 허지만은 신용이 문제야.

그지 신용이지.

신용이 문제야. 남의 나라에서 사니까 신용이 문제야. 신용이 좋으면은. 나는 옛날에 등록 없으니까 집 안 빌려줘. 방 안 빌려줘. 요기 옛날에는 하도 심헤. 이제는 심으레 안 다니지만은 일허다가 여기서 영 헤난. 그래도 우리 오빠덜이 옛날에부터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 사니까 방을 빌리러 가면 할머니가 안 빌려 준다고. 어째서 안 빌려 주느냐 난 그랬거든. 방을 빌어서 살려고. 어떵 말이나 좋나 무시거 주박주박을 허나 요만이 헌 방에 냉장고도 같이 놓고 나가시다이(ながしだい)도 같이 허고 그런 쩨끌락한 집이거든. 겐디 냉장고도 같이 쓰곡 허민게 그디 거 먹어 버려도 안 뒈잖아. 그런데 거길 안 빌려 준다고 석 달 살아서 나가버린다 허니까 그러믄 할머니가 나쁜 할머니가 게니까 아니 하도 깨끗허다고 말이지. 게네 깨끗하걸랑 같이 깨끗허게 헤버리면 되지 헷서. 2층이고 아래층인디 할머니 방으로 벤조(べんじょ) 들어가갓고 옛날 집은 요만이 헌 것이 부엌이야. 게민 냉장고도 같이 써야 허고, 나가시다이(ながしだい)에도 쌀도 같이 놔야 허고. 할머니가 헤나면은 나도 헤야 허고 그런 데를 사는데. 이제 가니까 오빠가 여기 살아나니깐이 오빠가 사니까 오빠 말을 허니까 동생이 오빠 같으겠지 헤서 빌려준다고. 나는 이제사 오니까

모르지만은 오빠가, 그 오빠라 허면은 형제간이니까 오빠 같으겠지 헤서 방을 빌려 주더라.

그니까 오빠 봥 신용을 헤주는 거지?

으응, 그래서 방을 빌려주더라. 건디 새벽에 나와서 다섯 시에 나와서 일을 헤. 그러면 고미(ごみ) 한 번 내칠 수가 엇어. 그러면 요만이 헌디 나가이다시(ながしだい)에 할머니도 갖다 놓고 나도 놓고 허는디 너무나 미안헤서이 할머니보고 이걸 사오지 말라 허지게. 할머니도 사 올라고 헤. 나만 고미(ごみ) 한 번 내칠 수가 없으니까 나만 허겠다고. 또 벤조소우지(べんじょそうじ) 한 번, 12시꺼지 일헤. 밤 12시꺼지. 그러믄 12시에 가믄 벤조소우지(べんじょそうじ)도 한 번 못헤 봣어 나는. 그니까 벤조(べんじょ) 갈 때도 할망 방으로 넘엉 가야. 그 종이도 갖다놓지 말라고 그랬지. 겡 나가 사온다고. 나는 청소 한 번 못허고 퐁퐁이도 사오지 말고 벤조(べんじょ) 청소 한 번 못허니까 나가 사온다고. 이런 사름은 이제꺼지 헤도 없더라고.

그 할머니는 일본 할머니?

일본에 원래가 일본에 웨정 때부터 완 산 할머니인데.

조선 사람인디 웨정 때부터 여기서 왕 산 거?

응, 법환리 할머니인데 딸 8살 난 딸 데령 가네모찌(かねもち)고 영감은 와세다 대학 왔는데 여자허고 친 헤부니까 시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헤서 그때 왕. 혼자 사는 할머니가 나이가 만허니까. 그 할머니 그렇게 뭐 헤 가지고 나보고 나가지 말아서 살라고, 게믄 막 그 할머니도 하소연허고 나도 하소연허면서이. 그렇게 돈도 나보고 전기값이고 가스값이고 뭣 값이고 합쳐서 돈 만 원 달라 하더라, 집세. 겅허니까 사름 한 번 못 불르고 테레비도 한 번 못 켰어. 전기값 나갈까 싶어서. 다른 사름은 팍팍팍팍 써 부니까 석 달 살아서 나가라 허잖아. 겡 나가 나오게 될 때는, 공장을 허게 뒈니까 나오게 뒈니까 니 같은 사람은 엇다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안마씸?

오 년을 살안.

처음 들어간 데서 오 년?

응. 느 같은 사름을 놔두고 가라 헤서 혼자 사는 사름 등록 엇는 아이 헷지. 이거고 저거고 합쳐서 만 원을 내노라 허니까 집세도 도꼬로까(ところか)게 막 전깃세고 가스세고 무시거고 물세고 다 써부니까 돈 만 원 받아봤자 소용엇이난 석 달 뒈난 나가라 허더랜. 게니까 어떻게 헨 나왔나 허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온다고 나가라 허더라. 아이고, 그렇게 좋은 할머니더라. 건디 집을 짓어 가지고이 저 딸이 부제난 그디 사가지고 나만 찾으는 거야. 이제 자기네 집은 쪽으니까 못 사니깐이 나만 찾아서 우리 오빠한테 온 모냥이라. 게서 와서 누게는 아래층에 살고

진 2층에 살겠다고, 딸이라도 게믄 찾아보라 헤서 길에서 만나니까이 만숀(マンション) 빌어 갈 때 그때는 오십만 원 저 보증금을 걸어야 헤. 그난 너무나 아깝다고 헤서, 만숀(マンション)을 빌엉 갔을 때 우리 오빠한테 와서 들으는 모양이라. 건데 공장을 찰릴라믄 돈이 필요허니까 딸이 쪼끔썩 준 돈이 있으니까 많진 않지만은, 벤리가 그때는 막 비싸낫어, 여기는. 그때는 벤리가 막 비싸니까 원전만 썼다가 원전만 달라고 나보고 돈을 저금헌 걸 앗다가 쓰라고 허니까.

아이고 그게 어디라 원전만 쓰는 게.

그니까, 친하니까게 원전만 공장 찰리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허니까 그래도 그 할머니 꺼 쓰다가 못 물면 어떻게 허나 안 썼어. 응 너무나 친절허게 헌디 그러다 못 물면 큰일날 꺼 아니가. 그게 앗아다가 써서 원전만 달라고. 이제 쪼금썩 모인 돈이 저금허고 있다. 그 큰 벤리덜 쓰지 말고 그거 쓰라. 공장 찰릴 때. 그렇게까지 헤준 할머니 돌아가는 데야, 딸한티 가서이 여기 오니까야 그 딸한테 가서이. 사우가 온천 주인이지게. 경헌디 이디 온 후제이 할머닐 이제 한 번 볼라고. 내가 바빠서 일도 엇고 허니까 먼 디 강 살아 불고 히가시나리쿠 살아 불고 못 봤거든. 겐디 아파서 병원에 갔다 허니까 그 할머니를 보고 영 헐라고 한 번은 볼라고야 가서 영 허니까이 딸이이 아멩헤도 요양원 같은데 넣은 거라. 못 보게 뒀다고 그렇게 말허더라. 그 옆에 사는 사름이 저 사름 어떻게 헤서 살아나서 딸 말은 안 허고 저 사람 말만 자꾸 헌다고. 그 할머니가 그 옆에 사름이 나 말만 헌다고. 나만 경 좋은 것만 말헌다고. 겐디 그디 살다가 이제 공장 따라서 가게 됀난. 사람은 일본에서 살라면은 정직헤야 헤. 쇼지끼(しょうじき)라 헤야지. 헌디 옛날 그러더라 요디이 이런 디덜 저 팔찌도 가짜로 다 허고 반지도 가짜로 허고 이디도 가짜로 허고. 그래서 돈 빚져 먹는 거야. 다노모시(たのもし)를 들어서 먹는덴. 그거를 난 내중에서 알아서 그러믄 남 보기는 막 가네모찌(かねもち)로 알거든.

여기 일본 올 때, 어디서 배 탓수과, 밀항 때?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애기들 내벼두고. 우리 아들이 내가 어릴 때 애기를 떼놓고 우리는 예수 믿었거든. 게니까 난 신학교를 가게 됏잖아. 다섯 설, 일곱 설 내놓고 서울을 갔는데 정월달에 가서 4월 덜에 신학교 입학을 헤 놓고. 신학교에 입학하러 정월달에 갔지. 신학교 입학을 허고 할머니헌테 처음으로 떼놓고 갔거든. 근디 큰아이가 죽어분 거야. 아기 죽으니까 목 딱 잘라매서 울지도 못 헤서 소리도 안 나와낫어. 그렇게 그 애기가 죽고.

큰 아이는 어떵헹 죽게 된 거우과? 병으로?

옛날에 그 마누라.

아, 홍역 걸령?

거니까 어릴 때 떼놓고 가니까 다섯 설, 일곱 설 떼놓고 신학교를 갔거든. 게니까 나가 시집 가보니까 시어머니도 두 살 난 애기 있더라. 게니까 아홉 설, 일곱 설, 다섯 설. 서이가 마누라를 헌 거야. 게서 서울에 그때 육이오사변에는 이북에서덜도 많이 왔잖아 피난.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길로 나가 시집을 안 갔으면은 수녀가 뒈지만은 시집을 가부니까 전도사를 뒈라고 헤서. 것도 4년을 헤야 허여 공부. 게니까 우리 언니네는 옛날부터 믿으니깐이 게서 그렇게 이제 믿으니까 그 길로 이제 다섯 설, 일곱 설 내놓고 시집에 갔다 매껴 놓고 가서 석달 만이 죽어간다고 와서 보니까 비행기도 없을 때 아니라. 목포로 와서 하룻밤 자고 와서 보니까 묻어 불엇더라. 그니까 기절헤 분 거야. 게서 나가 기절헌것이 그냥이 목이 그냥. 이제 그 다섯 살 난 것만 있고, 일곱 살 난 거는 석달 만에 죽었잖아. 잘도 잘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불러 어머니 불러 허다가 마누라로. 석달 만에. 그러니까 화를 안 날 수 잇어. 남편 땀에. 일 년 동안 교회 안 다녓어. 예수님도 필요 없더라. 후암동, 국방부가 있거든. 국방부에 있는 그 밑에 언덕 후암동에 강 밤에는 매날 기도헷어. 웨 나에게만 불이 떨어지느냐고. 남편도 뺏겨, 애기도 죽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아도 애기를 죽으니까 일 년 동안 나가 교회를 안가니까 아고 다리가 아파서이. 와가지고 왕 보니까 죽엉 묻어 불엇더라. 거니까 탁 하고 자빠젼 기절헹. 함덕은 알동네 웃동네, 내가 알동네니까 아, 말쩬 보니까 벵완장도 왓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헤서 데려가 가지고 막 심방소리도 나고 링겔도 놤고 그래서 깨낫서이. 건디 우리아버지 제사 때이 남편도 멧 년을 안 살았지만은 그 아이가 큰 아이니까 학교 가젠 허민 구두 요렇게 놔가지고 영영영영 다까 주는 거야. 고 돌 넘은 아이가, 죽은 아이가. 그렇게 헤난 거를 기억이 낫어이 온 거야. 와서 이제 뭐라고 말허는 거니까 이젠 저 살림을 갈리겠다고. 갈리겠다고 모슬포로 경찰관으로 간 거야. 학교 선생 설러 가지고. 설르고 설르고 나하곤. 게난 가서 거 헤겠다고 헤서이 시어머니가이 남 뭴까 싶어서게 바자마 바람에 보냈더라, 나 사는 디게. 게서 어쓱어쓱 허니까 저 우리 딸을 나분 거라.

아, 겡 그때 딸이 생겨분 거?

어. 어씩, 어쓱 왔다가니까 그 아이가 실제가 되니까이. 파자마 바람에 우리 시어머니가 보낸거 야.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보낸 거지. 나 이제 남편이라도 정헹 가버릴까 싶어서. 게난 하루 저녁 어쓱 바자마 바람에 온 거 이녁 남편이니까 웨지도 못허고. 야, 게도이 다섯 덜, 여섯 덜 뒈민 배는 안 나와도 얼굴은 소양허잖아. 이제 여섯덜 뒈니까 지우레 간 거야. 아기는 벨 짓을 헤도 아니 지니까, 병원에서 이제 지워야 헐 거니까 석달 가서 병원 갓다 오니까이 이제 너네 성 알았느냐 허니까 알았다 허니까 성 알면은 애기는 지우라고 돈 주면은 그 살인죄가 아니가. 그니까 성도

알고 허니까 어떤 놈이야 생겼는지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석달 동안 서울을 갔다 오니까이 건디 우리 딸은 특히나 더 아방 닮아 불언. 응, 그래서이 그냥 아니 지웁고 난 거야. 이젠 호를 놓을라고 애를 먹는 거야. 호 놓지 못헤서. 나 석달 동안 갔다 오면은 그거를 이제 놈 생긴 거니까 지왔다고 헐까 싶어서이 낳고 뵈운다고 헤가지고 어려와도 낳고 뵈왓지. 게서 석달 만이 우리 언니네 집에 애기 구덕에 놘이 허난 영 뵈우난 빙삭 웃으면서이 지 얼굴 똑 닮으니까. 아이고 게서 재산이고 부모네 재산이고 하간 거 다 팔아먹고 망해불고.

게민, 서울 갔당 부산 왕 밀항배를 탄 거? 어떵 제주도에서?

게난 제주도 왕 또 살안, 이제 애기 죽어부니까 살고, 저 똘은 이젠게 생겨놓니까 딸게 소학교게 육학년 때꺼지 아들허고 딸허고 키왓지게. 아들도 할머니한테 매껴다가 이제 일학년 육학년 중학교 삼학년 시키고 딸도 소학교 시키고 허단 아들이 말을 아니 들어가는 거라. 공부 막 헤가지고 너네 아방 원수풀이 헤달 라고 공부만 허라고 책도 다 사주고 뭐 허다 보면은 가라데 허는 디 가고 그냥 창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 어디 죽으러 간다고 헤서 언니안티 매껴 놓고 왓지. 말 안 들어서 옥아가니까. 우리 아들은 나가 일허멍 공부나 시켰지. 돈 십 원 한 번 장가갈 때 보내 보지도 못헤도 메느리가 좋은 메느리 헤 가지고 이제 서귀포 별장 짓엇어 한 천 평.

아이고.

어. 거니까 천 평을 짓어 놓니까. 아들이영 딸이영 저 뭐 헤주니까 살고 있지게, 나가 여기서. 그냥 기도나 허고이.

게난 고생헌 거 아니꽈게. 고생허난 그만큼 잘 커준 거고.

우리 아들네도 다 믿어. 딸도 다 믿어도 딸이 일본 사름안티 가부니까. 우리 메느린이 서울. 우리 아덜도 오또꼬마에(おとこまえ)라. 거고 이제 하여튼 아무 것도 엇언, 아무 것도. 장가도 거기서 다 가버리고. 그 사돈은 저 거시기 군인 장관이라나서.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연애들을 허니까 어머니는 일본 갔다고 허니까, 사삼사건으로 일본 가서 제주도는 빨갱이라고 다 허잖아. 사삼사건으로 일본 가고 군인 대장이라나니까 어떻게 허나게. 죽어도 못 허게 허고 빨갱이난 갓다고. 게서 어머니 또 일본 가고 헷다고이 그러니까 어머니 영 허더라이 어머니 저 전화로 편지도 못허고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 내중에는 말헤도 전화로 못헤서 이런 총련 계통에나. 이디 막 왕 보니까 그렇게 포장치고 총련이 그냥 허잖아. 총련 그냥 영화 허고 말만 헤나도 안 되잖아. 게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은 전화론 못 허고 어머니 무슨 일 있으믄 난 모가지 없어요. 국방부에. 국방부에 민간인 거시기 헤난디 없어요, 없어요 경 곧고 우리 똘은, 우리 딸은 중학교 때이 여중 때, 그 사라봉에 굴 팠잖아. 그 웨정 때 굴 판 굴이 있잖아. 놀러 가가지고이 놀러 가서 보니까 그 굴을 파난디가이 어떤 아이가 쪼끌락 헌 아이가이 요만이헹 물 촐

촐 내리는디 나와서 바가지 물 헤서 그레 들어가더렌. 학교 갔당 오민 거기 놀레 간 모양이라. 거니까 이상허다 헨 강 보니까 눈 봉사 할머니가 있더렌. 건디 그 손자 어린아이가 무신 박세기에 물 받아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가. 겅 불쌍허다고 학교 갔다 오면은 여중에 다녀서 학교 갔다 오면은 한 거 무시거 헤다가 다 주워 부는 거라. 거난 군인은 가끔 갓당 돌다가 보니까이 여중학교 입은 학생이 그 굴 속으로 들었다 나왔다 있고 가시나 메칠, 메칠을 가봐도 경 들어 맨날 가서 경헌 모양이라, 학교 가당. 이상하다 해서 가서 하당보니까이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 헤서 대통령 상장까지 타고 이제 박정희 딸 이제 대통령 허고 어린 때. 같은 동갑이라. 사진도 찍은 거 있고. 저디서 상장도 타고 저디서 대통령 상장도 탄 거 여기 보내왔덴, 어릴 때. 우리딸이 그냥 지 이모영 살면서 그 불쌍허다고, 그 할머니. 막 그 딸도 나 성격같은 모냥이라. 겡 불쌍한 사람은 이렇게 뭐 헤 자기 거 아깝지 안 헤서. 우리 메느리가 뭐라 허는가, 어머니허고요 고모허고 자기 아들이 없는 사름을 이렇게 막 헌다고. 그렇게 헤서 똑같애요, 성격이. 게도 우리 아들이 저번에 민세 받을 때 첨, 영세 받을 적에 교회에서는 십일조를 내라고 그래. 십일조를 떼놓으라고 허여. 한꺼번에 돈을 쓸라면은 돈을 못 쓰거든 없어서이. 게믄 만 원이민 천 원 떼놓고 천 원이민 백 원 떼놓고 그걸 떼 놩 모영 모여근에 교회에 필요헌 돈을 십일조 떼놔서 쓰라고 그 학교 견습받은 그 학원 교회 거시기 받을 때 그렇게 허니까 그걸 떼 놨다가 엇어가니까 한 십만 원이 되더라. 나가 한 칠팔 년 전에 **가 영 아즈면은 북삭한 것이 영 아즈면 ***기지 꺼니까. 일어서면은 그냥 일어서지 못헤 그냥 다리아파서. 그니까 나가 다리 아파가니까 일어사지 못허니까 그거를 이젠 그 십일조를 참고 써부니까 안되니까이 한 8년 뒛어. 그거를 그냥 사다가 놨지. 사다가 이젠 그거를 신부님 한테만 말헤서 저 거시기 친구 하나. 그런디 나 이름을 안 써서 아들허고 손자만 쓰니까 아픈디 없느냐 나보고들. 난 나 이름을 헤서 헤본 적이 없고 아들 손자 이름헤서 헌 거주게. 나는 다 살았잖아. 너무 살았지.

아니우다게. 아직 건강하신디.

아기도 못 와도 이만이 살믄 뒈. 애기들 고생 시키는 것이 너무나.

거난이 건강하게 사시당.

게니까 아들도 보태주고 딸도 보태주고 우리 아들들이 아이들 오도시다마(お年玉) 어릴 때 놓아두고 가면이 우리 아들이 메느리랑 이제 그때는 받아. 게 놓고 갈 때는 책 속에 놔두고 가서 아이들보고는 한국 가서 한국 돈으로. 안 받아. 우리 메느리가. 절대로 일본 돈으로 못 쓰게 헤. 어머니 배부른 거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메느리를 최고로 잘 들여서. 최고로 잘헤서 메느리를.

복이우다게.

그렇게 메느리를 헌 거야 부잣집에라도 그렇게 자기는 화장 하나 안 헤. 화장 하나 안 허고이 옷도 가민 만지그면 그냥 사줘. 영헤서 만지그면 어머니 이거 필요해요? 안 헹 오면은 소포로 보내와. 우리 메느리 그렇게 좋은 메느리야.

복 받앗수다. 고생허난 복 받안. 저기 밀항헐 때 얘기 좀 해 줍서.

아, 부산에서 와서, 밀항헤서 오다가 아기들 때문에 오다가, 죽으면은야 약이라도 먹을라고 수면제라도 사가지고 왓어. 못 사니까. 고향 가도 없으고 남편이 다 팔아먹어버리고. 거니까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라고 온 것이 잘 온 거야.

잘 온 거야? 그때 배 탈 때 멧 사름이나 ᄀᆞ치 타젼?

소우야나(そうやな). 한 니쥬닝구라 찌가우까나(二十人ぐらい違うかな) 부산에서.

부산에서. 게민 약속은 제주도에서 하고?

제주에서 밤에 타가지고 저 나니 도꼬야노(なに, どこやの) 저 구마모토, 구마모토 와서 내려서 오빠한테 연락헤 가지고 오빠가 와서 데려왔지.

구마모토에서 내령?

구마모토에서 내령. 한 멧 시간 타니까 거기서 호텔, 여관에서 하루 자고 오빠가 일로 데려와.

부산에, 부산 어디서 탄?

부산에. 부산 어디서 탓는고 몰라, 잘. 너무나 오래니까 몰라. 부산은 부산이야.
저 나가 말허민 수녀님들이 막 웃이는 거야.

수녀님들이 제주말을 못알아들으니까예?

수녀님들은 제주 말 못 알아 들으니까. 옛날말 하니까 건디 지금은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노(あの) 말을 못 알아 들어가지고 우리는 제주 그 한글을 못 읽잖아. 옛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 가도 일본말만 쓰게 헤서 학교에 곧 들어가니까이 우린 그 조천면 함덕이니까 함덕 국민학교가 없엇어, 옛날에는.

함덕에 국민학교 엇어낫수과 삼춘 때?

함덕은 없어. 조천은 잇엇어. 조천면 함덕이니까. 그리고 딸들은 옛날에는 안 시키잖아. 언니는 내보다 6살 위니까 안 시키고 오빠들 여기들 다 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 옛날.

게난 삼춘이 88세이면, 1930년생?

30년생이여 나는. 1930년생, 나가. 우리 나이로 88. 말띠.

아이고, 저희 어머니보다 여덜이 우인디 잘도 젊수다.

아, 그래. 그서 우리 언니는 6살 위에니까 공부를 안 시켜줫어. 나부터 동생허고 나허고 동생, 나보다 밑에. 그때는 괜찮게 살아도 딸들 안 시켜줬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나는 학교를 안 되니까 그 공훼당이라고 헤서 훼관집 있잖아. 그 훼관집에 이제 그런 디가 있잖아. 이제 같으면 저 뭐라고 허나 옛날은 훼관집에 허면은 이

제 옛날은 훼관집이라 헤낫어. 그런 디가 옛날은 잇엇는데 학교가 없어서, 함덕은. 함덕은 없으니까 아홉 살에, 여덟 살에 보통으로 공부를 시키러 보내줬는데 일본말을 써야 헤. 옛날엔.

거기서도?

아이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이 일본 선생이니까. 옛날 그니까 학교는 없으니까 국민학교는 들어가지 못허고 여덟 살에. 그러다가 뒷해에는 함덕이, 학교가 뒛어. 학교가 뒛는데 이제 나는 3회야 그래도.

함덕 국민학교 3회?

3회.

1학년으로 입학한 거?

1학년으로. 게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름들도 멧이 잇주. 게도 여자는 얼마 엇어도 팔십 명이야. 한 구미(ぐみ)에 팔십 명이라도 여자는 한 여섯 명베끼 없어. 여자는 안 시키잖아. 그래도 안 시키다가 이제는 학교가 뒈니깐이 어떵 들어갓어. 헌디 우리 앉아가지고 그때는 말을 한국말 못 써. 다 일본 선생이야. 요렇게 헤서 앉아가지고 이제 고찌기나사이(こちきなない)、고찌기나사이(こちきなさい) 허는 거를 요기로 오라고 허는 거를, 그 쉬는 시간 있잖아. 요기로 오라고 허는디 아찌이끼나사이(あっちいきなない)、아찌이끼나사이(あちいきなさい) 그 급장이 있었어. 근디 기비시이(きびしい). 그 급장이 영 돌다가 학교 가면은 모여 있잖아 그 쉬는 시간 한 10분이. 그러믄 한국말을 못 쓰게 헤낫어. 빨리 일본말을 허라고 그러면 일본말을 헌다고 하는 것을, 아찌이끼나사이, 아찌이끼나사이(あちいきなさい、あちいきなさい) 허민 절로 가라 허는 말이지. 고찌기나사이(こちきなさい) 헤야 헐 건디 아찌이끼나사이(あちいきなさい) 거꾸로 말을. 그렇게 말 허면서 헤서 한국말로 허민 그냥 벌을 세와. 한 시간. 한 시간 로까(ろうか)에 벌 세와. 절대로 한국말을 못 쓰게. 빨리 배웁게끄름이. 그러니까 한글을 못 허니까 이제 쵸도(ちょうど) 열 살에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허자마자 중학교를 들어갈라 허니까 우리 오빠들이 여길 다 살앗어 서이가. 일본에, 그때.

삼춘은 형제가 어떵 됨수과?

거니까 나 네 살에 우리 아버지가 한국을 데려간 거라.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목포에서 그 남총독부, 조선총독부 경비선을 타낫어. 게니까 목포 살앗댓어. 아버지네는. 일본 살다가. 한국광 일본광 그 조선총독부가 있었어. 그 경비선을 타낫거든 겡 목포 살았지. 일본에 살다가. 게서 우리 오빠들은 여기서 서이가 다 살앗어.

게믄 삼춘도 태어난 건 여기서 태어난 거?

그니까 일본에서 아니고 목포에서 난 거 같애. 나도 생각이 헤보니까 지금 기억허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다섯 살인가 네 살에 나가 그 제주시 막 그 거우니머리 있잖아. 그디 걸어서 함덕까지 온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것이 쪼끔 기억이 나. 걸면서 웨 이렇게 짚으나. 길은 높으고 밧은 지픈, 그 기억 하나 나. 그 처음으로 온 때 걸어서 옛날 차도 없었잖아. 목포에서 설러가지고 우리 아부지가 데이넨((ていねん) 둬니까. 건디 공부를 안 시켜준디 안 시켜주더라 촌이니까. 그러다가도 괜찮으게 살아지니까 나부터 공부시키는디 일본 선생이야. 전부 한국 선생은 없었어. 다 일본 선생인디이. 우린 졸업헐 때꺼지도 일본 선생인디 금방 금방 대동아전쟁 일어났잖아. 우리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대동아전쟁이. 그거는 나가 알아지지. 게서 제일 처음으로 일본에서 가는 것이 하와이 **** 요번에 테레비로 나왔잖아. 이제 비행기로 가는 기름은 놓아도 오는 기름은 안 놔주는 거야. 가서 도스께기(とつげき) 허라고 그 군함에. 미국 가서 도스께기(とつげき)허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헤서 그거를. 거니까 모리야 도시유끼 선생이라고 헤서이 일본 선생인디 우릴 센닝바리(千人針) 다 헤줘서. 여자가 너이야. 전부 남자고 여자 너이가 길에 사가지고 글 붉은 거 여기 쳐메가지고 보내주고 보내주고 허민 학교로 오는 거야. 교실이런 하꼬(はこ) 다 놘 그거 기억나. 기억나가지고 이제 해방, 공습 팡팡 헤가니까 저 굴을 팠잖아. 학교 뒤에 굴을 팡 옛날은 그 뺏데기이. 그 감자이. 이제 뭐 헤가지고 막 모였는데이 학교 마당에 이디 눌었어. 그거를 눈 디 교실 안에서 공부를 못 헷어, 위험헤서. 폭발들 털어질까 싶어서. 그러면 그 눌 눈 뻬떼기 눌, 공출 받아가지고 눌어 놓은 디 그디서 막 쳐서 공부를 허면서 그걸 홈파 먹으면서 하하. 그거 기억나. 하나썩 파면서 먹으난 그거 뺏데기. 겅허고 막 기름이 없어가니깐이 별거를 다 헤 오라고, 함덕은 모살판이 있잖아. 숨베기라고 있어 나무가. 숨베기 기름, 것이 기름이 난데. 휘발유 기름. 그런 거를 학교서 헤오라고 허는 거야. 학교에서 그걸헤서 공출을 시킨 거야. 일본에 막 망헤가니까 비행기 기름이 없다고 그걸 기름으로. 그런 거꺼지 다. 그니까 나는 이 알레르기 체질이니까 밧데 갔다 오면 그것이 막 올라가지고 못 허니까 우리 아부지가 그런 거 다 헤다 줘난 그거 기억나. 학교 뎅길 때. 학교에서 그거 공출헤야 해. 그 기름. 그래서 그까짓 걸 보내봤던들 무슨 일본이 이길 수 있나게. 기름이 다 떨어져가니까 그것이 피만지 기름, 피만지 기름 짜서 허고 숨베기 ᄋᆞ름이 거 함덕 모살판에 숨베기 ᄋᆞᆯ매가 요만썩 허거든. 그것이 기름을 빤데. 그거를 따라 오라고 학생헌테, 공부는 안시키고. 우린 그런 거 헤낫서. 막, 막 다달아 갈 때는. 게서 그 학교 6학년에 아스마 선생이엔 헤서 동경, 여기 엇일 때에 동경 살았다 허더라이. 그 선생이 해방이 되버렸거든. 일본 기모노 입고 마누라까지 가서 함덕 비석거리 살아낫는데 이제 쵸도(ちょうど) 졸업반에, 그 선생이 헐 때 해방이 둬니까 뭐 헷잖아.

그민 국민학교 졸업까진 삼춘 하신 거과?

응, 졸업을 다 헷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갈라고, 그 중학교 들어가젠 허믄 뭐를 받아야 허잖아. 그래 이제 간조(がんしょ)를 이레루(いれる) 허는디이 우리 아부지가 간조(がんしょ)를 안 써주는 거야. 일본에서 오빠 서이가 있고 올케들이 다 있고 다 있는데 오늘인가 낼인가 공습으로 죽을 건디 국민학교만 헤도 좋다 헤가지고 그러는 중에 해방이 뒈분 거야. 게서 졸업허자마자 해방이 뒈부니까 이제는 나이가 무시거 헤가지고 곱을락 헐 수베끼 없잖아. 잡아 갈라고. 올라오라고 허잖아. 나이가 차차 잇어가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네는 저 거시기 밭에 가면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군인도 무섭고 서북청, 우리 함덕 학교 제일 위험헌 디가 함덕이야. 함덕, 학교에 주둔을 헤낫거든 삼천 명 주둔헷는데. 우리 연령이 쵸도(ちょうど) 우리 동창이고 우에들이고 다 산에들 올라가는데 우리 오빠, 우리 올케가 우리 형부가 남영군도에 결혼헤서 안 살겠다고 안 살겠다고 우리언니가 막 그래서 웨정 때 시집가고 그니까 그냥 남향을 갓어.

남향군도에?

응. 그때는 그 웨정 때는 갈 수가 있었지. 형이 거기 가니까 우리 형부가 거길 가니까 우리 언니는 가자마자 우리 성은 혼자 거든. 그러니까 오빠들안티 일본을 온 거야. 일본을 와서 우리 아버지도 일본을 온 거야. 다 일본들 왔다갔다 왔다갔다 헷잖아. 그때는 증명 헤가지고. 그니까 왔다갔다 허는데 오빠 서이가 다 여기 살아불기 때문에. 겡 우리 언니는 남편이 남향군도에 가니까 전장이 일어나니까, 대동아전장이 일어나니까 꼼짝을 못 헤, 오도가도 못 헷잖아. 그런데 우리 언니는 이제 그때야 곧 시집가서 안 살겠다 살겠다 하면서도 가버리니까이 운다분다 헤서 우리 아빠가 일본을 데려와서 살다가이 공십이 너무 힘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만 온 거야. 우리 아버지만 오니까 우리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웨 딸을, 홀어멍 딸을 안 데리고 왔느냐고.

게니까 아버지만 왔다는 건 아버지만 제주도 왔다는 얘기?

응. 게니까 웨 딸은, 아들들은 다 마누라 정행 살고 이신디 홀어멍으로 혼자 사는 딸을 안 데리고. 우리 언니는 막 울고불고 헤 가니까. 우리 작은 오빠가 공장장 허거든 유명헷댔어. 민단에서도 유명허 민단에서도 꽃다발을 다 왐덴 우리 큰오빠 한테. 그니까 우리 오빠가 데려온 거야 우리 언니가 울어가니까. 데려오자 뒷날 해방이 되분 거야. 그래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 뒷날 해방되부니까이 이제 오도가도 못 허고이 아무것도 여기서 중학교도 다 허고 다 헷는데.

게민 와이프는 일본에 잇어, 있고?

있고.

게믄 오빠가 둘이과?

오빠 서이라. 서이가 다 잇어낫는데. 제일 족은 오빠가. 사삼사건에 서른 설에.

언니 한 명?

언니 하나. 우리 딸 셋 아들 셋.

밑에 여동생 있고?

우리 동생이영 살았지. 동생은 한국, 언니는 돌아갔지게 나보다 우에니까. 거니까 우리 오빠가 그때 서른 몇 개 안 뒌 때야. 애기도 없고. 건데 가니까 뒷날 해방뒈분 거야. 뒷날 해방뒈부니까 오지도 가지도 못허고. 경허니 산에 올라오라고 헤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일본에서 공부허고 일본에서 사니까. 건디 어떻게 헤서 가나. 한번은 게도 올라오라고 헤가지고도 헨.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서운 거야. 우리 오빠가 가니까 가죽 장갑을 껴난 거 같애. 한번은 경찰이 다 담아들어, 새벽이. 와서 밤에 와서 사름을 죽여불잖아 산에서 와서. 죽이면은 토벌, 순경들은 토벌간 봔에 가죽 장갑이 이시니까 이거 우리 오빠 거라 헤서이. 우리 오빠가 일본에 가니까 장갑을 껴 나니까 우리 집이 달려든 거라. 우리 오빤 자고 있잖아. 그렇게 양쪽에서. 양쪽에서 그러니깐이.

게믄, 오라버니는 산사람한테 죽은 거과?

산에 사름안티 죽었어. 게서 올라오라고 헛는데 (안가니까.) 아니 갈라고 헤서 한번은 데리러 온다고, 데리러도 안오는 거야. 그니까 우리 오빠 이신 줄 아니까 경찰도 무섭잖아 근데 그때는 집단 생활 다 시킬 때야. 미리미리 가버렸으면은 모르지만은. 있었는데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섭고 허니까 한번은 올라갈라 허다가 데리러 올라 허다가 안 데려가니까 구들목에 곱았다가이 아부지한테이 아부지 나 지금 올라가면은 어머니네 집단생활 다 시켜서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고. 나 안 올라갔다고 헤서 산에서 와서 나 하나만 죽여버리면 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오빠 와서 죽여분거야.

그때가 18살?

응, 쵸도(ちょうど) 그때가 연령이 뭐 헐 때고 나도 위험헐 때니까. 건데 그 산에서 가 나는 원인이 모르지만은 우리 오빠는 이제 그러니까 그 청년이니까 아무도 없었잖아. 이제 오십 선거니까 그 저 사무실에들 있으라 헤가지고. 나도 이제 뭐 어디고 또 군인들 삼천 명 우리 함덕 국민학교에서 주둔 헷어. 그런데 나는 저, 나가 저 국민학교 졸업허여도 그때 웨정 때 졸업허니까 제주시 군청이 잇어낫어. 군청 교환수로 나가 들어갓어.

아, 일?

응. 교환수로 들어가서 그 관덕정 있잖아, 군청이라낫거든. 건데 그 뒤에 집을 서문통에 방을 빌어서 살다가 보믄 아침이 일어나 보믄 삐라가 이만이야. 왜 정의와 인의를 사랑하는 이제 청년이 하나도 안 올라오느냐고 매날 올라오라고 삐라가 이만

이 뿌리는 거야.

산으로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그냥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다가 허다가 그 무서워서 한 삼 년 다니다가 그만둬잖아.

아, 거기 계속 삐라들이 놓여있으니까.

삐라를 계속 뿌려. 아침에 일어낭 보면 이만이야. 그러고 나 삐라를 어디 뿌리느냐 하면은, 우리 오빠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여기도 못 허고 저기도 못 허고 이제 그냥 사무실에를 잇어거든. 이제 산에 못 올라가서 이제 경허면은 게믄 저 무신 사무실 민보단 사무실을 정헤낫어 그때는. ○○○이라고 돌아갔을 거야. 우리 오빠네 동창이야. 경헌디 ○○○인 도의원 나오고 헌 사람인디 근데 그 우리 오빤 이제 계속 막 위험헤 가니까 저 도로 넘어갈라고도 헷지만은 이제 지서에는 와서 뭐를 뿌리느냐 허믄, 오빠는 경찰 비밀을 알리면은 느의 동생은 산으로 올려 보내고 있다. 그런 삐라를 지서 앞이 가서 뿌려 부는 거야. 하고게 걸 뿌리면은 뿌리니까 이제 나를 심어가는 거야. 나를 또 심어가. 나 서북청년, 그 함덕 학교가 이 길다게. 그럼 그디 엎드려 심어가서, 엎드려서 그래서 이 허리는 이제 아프는 거야. 다닥 다닥 다닥 짚어서. 바로 말 허라고.

그믄 경찰한테 끌려간 거?

서북청년이 심어가 가지고. 그런 삐라를 가서 뿌려 부니까. 연락을 안 헤도 헌다고 그런 거짓말을 헤서 난 그것이, 그런 것이 웨 그렇게.

경 거기서 벌서난 거?

이제 오빠는 밑에 산에 안 올라가니까 경찰 비밀을 알리면은 누이동생은 산으로 올려 보낸다고 그런 삐라를 밤에 와서 지서 앞이 와서 뿌려 부는 거야. 경허니까 나도 심어가는 거야. 겡 위험헤 가니까 ○○○이나 그런 사름덜 뭐 헌 사람들 있잖아. 도담부로 넘어갈라고 넘어갈라고 허는 중에,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데 난 심어 가 부니까 우리 오빠가, 지서에서 날 심어가면서 답도리를 허는 거야. 바른 말을 허라고. 건데 나가 발발발발 떨면서 바른 말을 뭐 그런 그런 그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빠는 누이동생을 지서에 심어갔는데 도담부로 못 가게 되니까 어머니영 기다리다가 한 시간쯤 헤서 나오니까 아이고 오빠 막 발발 떨어지데. 오빠가 게서 그 뒷날 죽여 버렸어. 그래서 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뒷날 죽여 분 거야. 저 집에 와서. 우리 집이서 아니고 마누라네 집에 저 밤 넘어가지고 가서 그디 갔는데 포위를 다 사가지고 그디 가는 거 산에 탁탁탁탁 중간 중간 포위.

게믄 오라방도 저기 들어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당분간은 잇어난거다예?

한 멧 년게.

멧 년. 거기서 결혼허고 헐 정도면.

꼼짝을 못 허니까.

거기서 배가 없어지니까예.

그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허고 그냥 산에 올라가지도 못 허고 경찰에도 못 허고. 겐디 내중에는 민보단 조직을 된 거야. 민보단 조직인데 ○○○이라고 ○○○이는 이제 저 거시기 제주도 그 함덕 사람이야. 그니까 민보단 단장이야. 차차차차 해방이 뒈어 갈 때, 이제 민보단을 조직헤서 게니까 우리 저 처녀들도 집에 못 잇서. 군인덜이 삼천 명이 와서 주둔헤 가지고 집에 와서 여자 끌어다가 까먹어 놓고 뭐 허고 죽여 부는 수도 있고 허니까 사무실에 살았어. 사무실에 사는디 서북 청년이 한 번 와 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압수시켜 놓고 그 삼천 명이 함덕 국민학교 와서 주둔헌 거지. 헌디 성도 다 쌓아 놨잖아 우리 함덕은. 야 그런 시절은 무서워서. 거니까 나가 야간학교 와서 지금까지 왜 그.

게민 그때 보초도 서고 막 헤낫수과? 어떵헤난?

우리는 보초도 어렵, 처녀니깐이. 그 보초덜토, 보초는 성을 싸가지고 보초를 섯지. 성 싸고 보초 서도 그 보초 서는 사람들 죽여 불까봐 싶어서 산 쪽 붙을 수 베끼 엇잖아. 우리가 지금 생각에. 웨냐허면은 보초 사면은 그런 거 와서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 근디 나가 우리 오빠 죽어가지고 우리 언니가 조천면에 살앗어. 조천에 사는데, 새벽에 와서 딴 집에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일 오십 선거니까 다 올라오라고 헤불언. 우리 집이만 삐라 안 뿌렷지 다 올라오라고 헤부니까. 어디 보니까 영장 헐라 헤도 사람도 없어.

게민 오빠가 죽은 게 오십 선거 전날?

오십 선거, 구일 날. 십일 날은 이승만 대통령 선거야. 구일 날 죽여 불엇어. 게 구일 날이야, 그걸 나가 잊어불엇는디, 겐디 아무도 영장 헐라고 헤도 없잖아. 딴 데 가서 죽어서 영장을 내가 탁허게 막 팟을 사가지고, 올케가 올케도 누웟는데. 영헤서 손가락 딱 끈어지고. 오빠가 아 무섭다 하드라고. 거서 무섭다고 헤서 그니까 그 처제네 집이 가서 죽은 거야.

누구네 집? 다른 사람네?

그 처자네 집이. 마누라 동생네 집이 갓다가.

아, 처제네 집이.

게서 저 발에 눕고 술을 한잔 막 먹고 올케는 잣는데, 새벽이는 다 보초를 산 거야. 그 밧디 중간 중간 다 사고. 다 중간 중간 사서 이 여기로 멧 메다 여기서 연라꾸 또 여기서 연락꾸 또 여기서 연락이야. 그렇게 헌 거거든. 겐디 우리 오빠 집이서 가는 거를 다 봐서 그디 가는 거를 알앗거든. 우리 집이서 밭 몇 개 넘어가야 거기야. 그거를 겅 겅허난 건디 새벽이는 오빠가이 발에 누웠다가 막 무섭다고 허더렌. 저 거창문을 더끄라고. 거니까 다 보초를 산 거야들 다. 거서 거창문을 더꺼서이 얼

뭇얼뭇 잠 자는디 훤허게 그냥 문을 열고 발에 누운 거 다 알고 있거든. 다 알아 가지고 와서 칼을 팍 찔르더라 나 이 가슴에. 팍 찔르니까 우리 올케는 이펜 짝에 눞다가 칼을 확 심으니까 손가락 딱 끈어졌어. 게서 아이코 허면서도 목을 탁 찔러분 거야. 게서 뒷날은 선거, 우리도 몰른데 우리 뒷집이 사름이 애기는 있으니까 뒷담을 넘어가지고 온 거야. 산에도 못 올라가고 다 산에 올라오라고 연락을 헤 분 거야. 겡 그이가 말헤서 안 거야. 오늘 선거니까 못허게시리 다 올라오, 우리 집이만 안 말한 거지. 그날 죽여 버린 거야.

오라버님 성함은 어떵되십니까? 남 뭐과? 그때 돌아가신.

○○○

○○○. **아, 아.**

애기도 없고. ○○○

아이고 애기도. 일본에서도 애기 엇어나고?

서른 설이니까게 애기가 엇어낫지. 겡 마누라는 우리 아버지는 여기 살면은 어떤디 여자를 헐런지 몰르는디 오빠들 다 불러 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헌디 우리 올케가 제주도는 제주도지만 옛날 평양 살았어. 몇 달.

어디? 평양 사람?

평양. 함덕인디, 그 웨딸이야. 건디 우리 오빠를 헤와서 이제 해방뒈 부니까 못 가니까 우리 올케는 이제 글로 그냥 갔지. 일본에서 가서 죽었데. 자식도 엇고 결혼, 결혼은 한국에서 와서 결혼헤 가지고.

그난 일본에서 왕 일본에서 결혼헹 살아신디.

결혼도 한국에서 와서 헷어.

오빤 들어가불고 허난 여기 있던 올케 언니는 평양 가버린 거.

해방뒈 부니까 일로 절로도 못 가고 자기 친정에 가분 거지. 평양에. 원래 평양 사름이 아니고 함덕.

아, 원래는 함덕 사람인데 평양으로 가 분 거?

평양에, 어머니 아버지가 평양에 사니까 그 옛날은. 옛날은 평양에게 자주 왔다 갔다. 웨딸인데 에그 우리 오빠 유명헤낫다.

기니까. 삼춘 잘도 기억헴수다 그걸.

나는 그때 쵸도(ちょうど) 젊은 때니까 나가 기억을 경허고 이젠 그 다음에는 나니까 연령이, 우리 언니는 시집가 불고 우리 동생은 어리고 나가 좀 더 허난 난 군청에.

언니는 몇 살 위?

우리 언니는 나보다 6살 위니까 결혼허고.

여동생은 몇 살 밑이과?

나보단 3살. 기니까 잘 몰라. 나가, 나가 제일 잘 알지. 나가 제일 잘 알지. 이젠 차

차차차 뒈니까 열일곱 뒈니깐게 이젠 군인이 사무실을 그 헷는데 삼교대가 뭐 헷는데 내중에는 성을 쌓 가지고 너무나 위험허니까 그 중대장 소대장 문딱 그 청년이서 헷어도 그딜 부뜨고 싶어서 허는 것이 아니고 밤에 와서 죽여 버리니까 할 수 없이 뒈지라도 잡아서 보내는 거야. 지금 이제 생각을 허면은 걸 몰래 헌 것이 누게가 밀고를 헌 거야. 밀고를 헤부니까 중대장 소대장. 어머니 아버지 와서 죽여도 앞에 우리 여럿 사람 죽이는 거 다 봣어.

게민 그 당시에예, 그 사삼사건 날 때 그니까 해방된 후에 함덕에는 누게 누게가 같이 살아낫수과? 아버지 어머니 다 ᄀᆞ치 살아난?

응.

아버지 어머니 삼춘 오빠 여동생.

오빠는 없어낫지. 오빠는 죽어 부니까 여동생 하나.

그니까 죽기 전에?

죽기 전에는 오빠는 와서 그냥 일 년도 안 뒈근에 그냥 한 일 년도, 한 일 년에 죽여 불엇거든.

아니 그니까 결혼헹 ᄀᆞ치 안 산 건가?

우리 오빠는 죽여 버렸지게. 죽여부니까.

아니 그니까 해방뒈가지고 사삼사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삼 년 동안의 기간에 잇수게.

해방뒈니까, 은행에 취직헤낫어.

은행에 취직헤난?

은행에. 그동안은 못 가니까 은행에. 시에 은행에.

게민 따로 살고?

같이 살고. 따로도 안 살고 우리 집이 커나니까. 그래서 이제 마누라도 못 오고 해방뒈 부니까 마누라 정헤 가지고. 오빠 죽은 후에 우리 오빠 산을 놨는데 우리 그 저 지서가 저펜이 고두물머리 저끗딘데 우리 친척이 거기 살았어. 친척이 거기 살고 있었는디 우리 남구장이라고 헤서 우리 친척 삼춘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빠가 죽은 후제는이 일절 여기서도 저기서도이 액헌 사름 죽었다 헤 가지고 산에서도 겁을 안 허, 저 뭐를 안 허고, 의심을 안 허고 경찰에서도 의심을 안 헤. 우리 오빠가 죽으니깐이. 그냥 그 모략으로 그냥 그렇게 헷는데. 글후젠 헌디 우리 집이는 아무 연락도 헤 주지도 안 헌디 우리 아버지가 가보라 삼촌네 집 가고 있잖아 지서 옆이거든. 가보니까 이런 저 철창. 우리 집이 막 멧 사름이 숨으러 왔더라게. 겡 이제 통시 소곱에 다 들어가고 우리 오빠 죽은 후에 산에 영 논디 산에 절허면서이 낼 모레 해방 금방 뒌다고, 누군지도 몰라. 우리 집이는 조사 안 헌다고 헤서 우리 집에 숨으러 온 거야. 그냥 막 지프차가 와가니까. 지서에

불을 부쪄서. 지서에 불을 부쪘는데 아니 삼춘네 집 가보라 삼춘네 집 가보라 가보니깐이 한 여남은이 창, 칼에 창. 이제 노랑개가 온다고, 노랑개라고 해. 지프차는 노랑개라고 허고 순경보곤 검은개라고 허고.

아, 경 불러낫수과?

그때 노랑개라 부르고, 노랑개가 온다고. 빨리, 빨리 가자 헐 때이. 야 불을 부쪈에 허는데이 구들목에 가서 곱앗는데이, 지렁지렁 끗어다가 불여 부쪄 불고 가더라. 나 그거 봤어. 지서에 불 부쪄 놓고, 불 부찌니까 순경이 멧 개 있나게. 게니까 구들목에 가서 숨었어. 그런데 그걸 거기선 열 명이 온 거야 대창 들러 가지고.

산에서예?

산에서. 게서 와서 불을 붙였거든

밤에 온 거라?

아침에.

아침에도?

응. 하여튼 무슨 말만 허면은 와서 죽여 부니까게. 무슨 말을 허나 운동을 허나 와서 바른말만 헤도 죽여 버려. 산에서 온 사름. 밤에 와서 죽여 버려. 게니까 삼춘네 집에 강 보렌 허난 우리 집이는 죽영 보니까 산에서도 무신 나쁜 일이 하나도 없잖아. 오빠가 가니깐, 오빠 죽은 후젠. 게니까 지렁지렁 구둘목에 곱은 것 끗어다가 불러레 짓더라. 난 그걸 봐났어. 삼춘네 집이 카는 거 보러 갔다가. 겡 대창 들르고 이제 노랑개 온다고 빨리, 빨리 가자 헤서 그냥 빨리 떠나는 거야. 도망치는 거야. 산으로 올라갈려고. 그렇게 무조건 허니까 그냥 사름들이 그냥 무서워서.

겐 글후제 어떵 살아낫수과? 그거 끝나고 나서. 언제 시집가신 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름 죽이는 것도 보고 싶지 안 허고 나도 쪼끔 ᄋᆞᆨ아가니까이 산에서 죽여 불까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갈 때는 밧디 데려 가 가지고 처녀니까 순경들이 돌다가 거 군인이야, 군인. 순경은 멧 개 안 뒈지만 군인이 와서 주둔허기 때문에. 성 바우로 돌아다니다가이 심어다가 까먹어 버리고 버리잖아이. 그니까 위험헤 가지고 저 거시기 밧디 데려 갈 때는 밧디 가서 산 그 파내는 골충이 있다. 그 소곱에 앚져 놓고 일을 헤나서. 난 처녀이기 때문에.

기믄 삼춘은 ᄀᆞ치 일은 안 헷수다예. 밭에 일은. 밭에 일은 안 헨?

밭에 일 헐 시간이 없엇어. 학교 다니고 뭐 허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헷지.

몇 살에 결혼을 헷수과?

스무 살에.

스무 살에. 거믄 육이오 날 때 쯤 그때 결혼이다이. 한 50년도?

건디 군인도 갔다 오고. 군인은 남자도 허지만은, 남자도 또 저 서울 교육대학 나와

가지고 산에도 안 올라갔다 오고. 건디 그때 지서 형사 저 주임이 이북 사람이더라. 우리 함덕 지서 주임이. 겐디 자식도 잇어도 이북에서 넘어온 거 같아. 자식 하나 허고이. 이북에서 넘어와서 함덕 지서에 잇엇는데. 한재원이라고 이제 유명한 도의원이라난디 우리 오빠네랑 동창이야. 그 사름은 살았지 우리 오빠네랑 ᄀᆞ치 있었다가. 청년이 지서에도 안 뒈면 안 뒈고 여기에도 안 보면 안 뒈고 경허니까. 게서 우리 오빠는 죽어 버렸지만은 그이가 소개를 헤 가지고 중진을 논 거야.

아, 그분이 소개시켜 준 거?

응. 소개시켱 중진을 놓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주임이거든 순경. 조 배로 무꺼 가지고 돌 무꺼 가지고 거 함덕 섬, 저 물에 넘어가면 저 **라고 섬이 잇어. 바당 저펜 짝이. 그디 가서 들이치라고.

누구를?

나를. 우리 아버지가.

왜?

경찰관한테서 중진을 오면 우리 가족 또 다 죽인다고. 나가 적어도 처녀 때 뒈 가니까. 아이고 저 딸 베로 무꺼 가지고 바당에 가서 들이치라고. 왜냐면 그 이는 우리 집이는 사삼사건이랑은 깨끗허거든. 이레도 저레도 안 부뜨고 산에도 안 부뜨고 헌 줄 아니깐이 소개를 헌거야. 이젠 그 주임을. 거니까 아고 경찰관안티서 중진을 왓다고 말이지 이제는 딸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죽인다고. 돌멩이 베로 무꺼서, 바당에 무꺼서 들이쳐 불라고 우리 아버지.

게믄 겅 헹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건게?

응, 군인도 다 갔다오고 결혼헷는데 동창한테 뺏겼지. 두 해 살고.

결혼헹, 스무 살에 결혼헹 멧 년을 ᄀᆞ치 살아진 거?

두 해 살고.

두 해 살고. 게민 글후제는 그냥 혼자 지냈었던 거과? 애기 키우멍?

딸, 딸. 저 아들, 금방 가서 시집가니까 아들 베영 하나 낳고. 이제 아덜, 제주도 있는 아덜이 이제 베영 석 달 만에, 게니까 시집가서 2년, 3년 채 갈라서서. 그래서 친정에서 살앗지.

친정에서?

아니, 조천 우리 언니네가 잘 사니까 언니네 집에서 살앗어.

거믄 일은 어떤 일 허고?

양제질도 허고 패물도 허고 와서 배와 가지고 피복청에 가서 부산에 가서 일도 허고. 어어 애들 역어가니까. 게서 저 아덜, 아덜이 이제, 아덜은 매껴 놓고. 난 우리 옛날부터 믿으니깐이 교회. 우리 언니네도 믿으니까. 거 신학교 갔다가 여섯 설에 우리 큰아이 죽어 버렸거든. 그래서 와 가지고 다섯 설 일곱 설 내놓고 친정에서

키웁다가 육이오사변에는 이북에서도 많이 왔다 전도사님들이랑. 우리 제주도는 천주교는 없었어, 그때. 예수교만 있어. 감리교. 제주시 감리교 헤서.

아니, 저기 어디 신창 쪽에도 엇어낫수과? 저 서쪽에.

제주시에. 아니 옛날에는 없엇어. 감리교 죽장 허고 교회, 목사님. 이제는 천주교는 있지만은 천주교가 없었어. 건디 그때부터 나가 믿기를 시작헌 거야. 우리 교다이(きょうだい)가 다 믿어.

그니까 애기 낳고 갈라서고 나서예?

응, 응.

그럼 일본 오신 건 몇 살 때 일본 오셧수과?

나 일본 온 거는 서른일곱인가?

게믄 아이들 막 컸을 때우다?

키와 놓고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말을 안들으니까 이제.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라. 게서 중학교 뒈가니까이. 그러니까 아빠 저기 저 거시기 포시허라고 허다 보니까. 여자 부떠가지고 재산도 다 팔아먹고 그 각시가, 같은 동창이. 나 유명해 우리 함덕에서. 아이, 그런 거 허지마. 우리 아들 잇어. 우리 아들 하도 고생헤부난.

게믄 일본 오는 얘기만 물어보쿠다. 그건 빼고.

게니까 우리 오빠가 우리 큰오빠도 가서 돌아갔지만은 오빠가 여기 살고 . 거니까 나가 처녀 때 시집가기 전에 멧 번을 왔댔어. 일본을, 밀항으로. 그 사람 죽이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헤서 멧 번을 왔댔어. 오다가 못 가고, 오다가 못 가고. 한 번 걸려서 또시 돌아가고 멧 번을 처녀 때부터.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지.

몇 살 때부터 영 밀항을 시도 헷던 거과?

나가 그러니까 처녀 때부떠도 한 서너 번 왔다가 안 뒈니깐이 그냥 이젠 글후제는 안 와 가지고 결혼 헤부니깐이. 이제 갈리니까, 못 살아서 저 아덜이 커가니까 말을 안 들어가니까 중학교 시키다가 빨리 공부헤 가지고 빨리 헤서 아빠 포시허라고. 안 허니까 나가 와렷지.

게민 처녀 때 일본 오젠 막 밀항헐 때는?

게니까 그때는 막 돈도 없고 애기들도 허고 아빠는 살았지만은 각시는 재산 부모네 거영 뭐영 다 팔아먹고 도망쳐 버련. 그 아들 두 개 잇엇어 도망치고, 도망치니깐이 어떻게 헤서 뭐를 먹고 살아. 살 수가 없고 아들은 커가니까 말을 안 들어가니까이, 난 너무 힘들게시리 헤가니까. 공부만 허라 공부만 허라 책 사다주고 헤도 가라데 배우러 가고 그 오현중학교 3년 시켜놓고. 그 ○○○ 선생님이 잘도 알어. 저 여자 중학교 교장.

이름도 잘 기억헴수다 삼춘.

저 국민학교, 함덕국민학교 때부턴디 나 서귀포서 양재점을 헤낫거든. 건디 국민학교 헐 때 삼사반 허던 아이가 오륙반에 가가는 거라. 겐디 중학교를 들어가게 뒈면은 어떻게 헤서 떨어졋냐, 어머니는 어데 갓나, 아빠는 어데 갓나. 그때야 그 선생이 마지막으로 공부를 헤놓고 들어갈라 허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헤서 만나서 말헷어. 나가 중학교는 시킬 자신이 없다고 말이지. 아빠가 어디 어디 살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말헷거든. 그니까 중학교 시키게 뒈면은 아빠가 오현중학교 1회생이렌 허난 경헤서 찾아가서 그 선생이 이제 그 아일 중학교를 시킬라고 우리 아들을 이제 지죠(事情)를 들으니까 불쌍하다고 헤서 할머니허고 사니까 공부도 잘 안 뒈고 뭐 허고 공부 떨어져가니까 큰일났다 헤서 어머니를, 나가 만났거든. 게서 전부, 이디 올 때까지, 이디도 멧 번 왔다 가서 선생이. 응, 이디도 멧 번 와가지고. 그 선생이 옛날부터 믿었는데 이디 와서 헐 적에 편지를 논 것이 한 일 년 데리고도 살앗어, 우리 아덜.

어, 고맙다예.

응, 그렇게 헌 선생이야. 게서 나를 봐서, 옛날부터 믿으는 선생이니까이. 이제 나와분 후제 일 년을 데련. 저 홍길동이 모냥으로 한창 때니까. 우리 언니네 집에 매껴 놔도 그디 일곱이야 애기가. 그런데 우리 딸허고 그거허고 둘이가 그냥.

말썽을 피웠구나?

응 응.

게도 선생님 덕분에 게도 사고는 안 쳐신게.

그 선생님이 이제 나신디 큰 일만 저지르지 안 헤도 하느님 때문이로 압서, 허면서이. 저 말을 안 들어가니까 나가 여기 온 줄 아니까. 저 도둑질을 허나 사람을 죽이나 큰일을 저지르민 사름이 뒈나게. 건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안 헤도 하느님의 은혜로 생각하라고 헤서이. 그렇게 그 선생, 요번에 작년에도 왔다갔어.

좋수다게. 그런 인연을 영.

게난 내중에는 그 함덕국민학교 잇엇다가 마지막으로 이젠 신성에 와서 헷다가 교장이 뒈서 교장 뭴 때 이디 저 거시기, 다마쯔꾸리 이제 거시기 그 학교가 있다게. 천주교 무슨 학교. 그 학교허고 결연시키는 거 나가 연락헤 주고, 그디서 봔 와가지고 그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고, 좋은 일 하셧수다게.

그런 거 이제 다 헨. 나가 있으니까 그 선생이 말허니까이 이제 와가지고 그때는 교감에 왔더라. 게난 그디서도 올 사람 오고 여기서도 그디 가서 헤서 다 헨.

애썻수다, 애썻수다.

작년에도 왔다 가서. 작년에도 왔다가고 우리 집이 일은 또 형제꺼지 다 알지. 나

내용도 다 알고. 고생헌 것도 다 알고.

아이고 좋수다게. 그런 선생님 이시난 덕분에 아들예.

거난 그런 선생님. 게서 잘도 아유.

게민 삼춘 처녀 때 밀항을 할 때는 실패는 헷지만 한 세 번 정도.

그 처녀 때 일본에 올 때는 사삼사건 때니까 사름 죽이는 거를 볼 수 없는 거라. 경헹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를 찾아서 시집가기 전에 멧 번 와서 걸련.

여기까지 도착은 헤난?

한 번 도착헤낫어.

아, 기민 처음서부터 한번 곧아 봅서.

오다가 빙빙 돌다가 우리 오빠가.

배는 어디서 탄?

조천에서 밤이 살짝이 타고.

몇 사람이나?

한 그때는 제주시 가네모찌(かねもち), 부자덜은 위험허잖아. 사삼사건 허니까 한 오십 명썩 타가지고, 오십 명 타가지고 우리오빠가 기관장 선장 다 헤가지고이, 큰오빠가 건디이 밤에 타는디이 막 물집이 터졋덴 허는 거라 나는 막 수질헷어. 아이고 물은 푸면서라도 가야지. 제주도가서 그 꼴은 못 보겠다 위험허고 우리도 위험허고 허면서 사람 죽이는 꼴을 안 못보겠다고. 게서 내중에는 내리라 헌 거 보니까 또 올라난 디서 또시.

경 처음에 실패로 끝난 거고, 배가 물집 터져부난, 터져부난 그냥 돌아온 거?

그런 거 같아. 오다가 물 푸면서라도 가자고 그랫어, 우리 오빠가.

그날 밤에 출발헹 그냥 그날 밤이 돌아온 거? 첫 번째는예?

응,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물집 터지니까 그냥 돌아온 거지. 그때는 밀항으로이, 저 반동자로 취급헌 사름은 다 오는 거야. 그 적 사름덜은. 맨날 와서 밤에 와서 죽여버리니까. 거니까 산에 안 올라가고, 억지로 올라간 게 우리 동창도 많이 죽은 것이 웨냐면은 한창 때거든 중학교 못 간 것이 그거지. 무조건 도니까꾸(とにかく) 남자들 올라오라고 헌 거지. 그 멧 명이 그런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올 때는?

두 번째 올 때는 게메게 두 번째 올 때는, 한 번은 허고 두 번째 올 때는.

어디서 배 탓수과?

내렸다가 우리 그 올케허고이 죽어 분 올케허고, 오빠보고 또 내려 달라고, 또 내려달라고 헤서 내렸는디 또시 이제 죽어도 제주도 살 생각은 없더라. 거 사람 죽이는 꼴을. 겐 두 번째 올 때는.

게민 그때는 삼춘이랑 올케 언니랑, 오라방은 아니고 족은 오라방은?

죽어 분 때니까. 죽어 분 때니까게. 게 멧 번 오다가게 안 뒝 위험허민 그냥 가불고 그냥 가 불고 그러다가 이젠 못 왓잖아. 게 우리 올케는 그냥 일로 왓어, 겐이북을 가버린 거야. 이디 와서 옛날 못 사니까. 그 죽어 분 올케.

아, 그럼 이북 갔다는 올케가 여기서 결혼한 올케가 아니고 제주도서 결혼한 올케?

그때는 말짜 와서 그디 와서 얻은 각시지. 그 장가가고 시집간 후젠 우리 오빠가 가 부니깐이 친정으로 가버렸어. 죽엇고. 웨 혼자 못살잖아. 이젠 그니까 제주도 가니깐게.

게민 삼춘은 그때 두 번째 올 땐 여기 일본 땅 밟아젼?

아니 위험헤 가민 그냥 배에 가 불고 가 불고 하지. 들어가 불어.

어디 들어가 불어?

한국에 가 불어. 위험허면은,

아, 가까이까지 왓당 위험헐 거 같으면 다시 들어가 불고.

소소(そうそう) 가 불어.

경헹 배 탕 잡혀보진 안 헷수과?

잡혀보진 안 헷지.

그냥 위험하면 도착안 헹 그냥 돌아가 불고?

으, 그래서 두 번은 경헷지만은 처녀 때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고. 아니야, 두 번째 왔댔어. 우리 올케도 다 흔디 오십 명이 탔더라. 다 시에 사름이더라 가네모찌(かねもち). 긴디 어린 아이가 하나 탔더라. 한 남자 열 멧 살 난 아이가. 건디 오빠가 배가 오니깐이 가고시마 오니깐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본다고 고기 나끄는 배가, 일본 배가. 그니까 오빠가 이거 밀항으로 오는 거 알아서 일본 사람들은 유명해. 비밀을 말 안 해. 헌디 사람이 시껏나 안 시껏나 배를 영 헤 본다고.

잠깐만 잠깐만 그 흔들어 본다는 게 사람들은 배 위에 있는 거 아니예, 밑창에 있는 거?

배는 오는데 고기 나끄는 배 이제 가고시마까지 오니까 일본 배들이 고기 나끄는 배들이 있지. 겨니까 그때는 밀항으로 많이 영 올 때니까 한국 밴 줄 알거든. 기계 고장난 거로 기계를 죽여 분거야. 기계를 고장났다고. 거니까 함부로 올라와서 보진 안 헤. 함부로 안 허는디 옆에 와가지고 배를 흥창흥창 이렇게 헤 본다고. 사름이 탔나 안 탔나. 밀항으로 하도 올 때니까.

그럼 흔들어 보면 알아져?

이거를 헤 보면은 게 사름을 타면은 드끈드끈 허잖아게. 또 안 타면은 흐글흐글 허잖아. 그렇게 영리해 일본 사람은. 게니까 이렇게 헌다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선장 기관장을 허니깐이 그거를 말해서 안 뒈겠다, 돌아가야 허겠다 내리지 말라, 허는 거야. 내리지 말라고.

오빠가 기관장이라서?

우리 오빠가 배를 헤가지고 이제 거시기 다 ᄀᆞ치 탔거든. 우리 형부랑 우린 반동자

로 취급헷으니까 여기 다 헌디 오빠가 그디서 선장 기관장을 헤낫어.

어느 오빠가?

응, 큰오빠가, 큰오빠가. 거니까 절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밀항으로 올 때니까 영영 흔들어 본다고, 일본 사름들은 영리헤. 입으로 안 들어. 조사도 와서 안 헤. 건디 입으로 안 들어 건디 사름이 탓나 안 탓나 이렇게 흔들흔들. 기계고장 났다고 허니까 배가 흔들흔들 허잖아. 고장난 걸로 헤 분거야. 그니까 흔들어 보는 거야 사름이 탓나, 안 탓나. 그런다고 말을 허는 거라. 그래도 난 제주도는 죽어도 살질 못 허겠다 허는 거라. 그 사름 죽는 꼴을 멧 번을 봐 나니까. 와서 죽여 불카도 싶고. 그 꼴을 보고 싶지 안 헷어. 건디 이젠 내려도 다 연락헤서 잡은다, 내리지 말라 허는 거라. 내리지 말라고. 건디 우리 올케가 같이 탓는데 게도 나는 죽어도 내린다고 헷어. 난 제주도는 안 살겠다고. 죽어도 안 살겠다고 막 내린다고 허니까 일본 돈 만 원을 주더라. 그래서 그냥 그거 받앙 에염에 가고시마 바당에 그 긋디 그냥 내린 거야. 다 내려달라고 헤서 다 오십 명이 다 가네모찌(かねもち)덜이라이. 다 내린디 어떤 아이 하나, 한 열 멧 설 난 사나이가 하나 있더라. 게 내리니까 수질을 허니깐 헌디 막 올라가 가지고 그디 넘어가니까 촌이더라. 그니까 집이 멧 가옥 잇언에, 빈 막 가옥덜 잇고이 그리 어떵 어떵 올라갓어. 게도 잡힌다고 헤서 우리 오빠는 젠부(ぜんぶ) 내려부니깐이 그때는 막 개역도 헤가지고 오고이 이디 셋오빠가 사니까. 셋오빠가. 건 다 내비 두고 우리 오빠는 아무도 없으니까 배 찍 찍 들어온 거야 일본꺼지. 일본꺼지 들어와서 들어왓다가 간 거야. 이제 오래 못 있지만은 와서 다 연락을 헤 놓고 헌디 내리지 말앙 이디 숨어 있당 그냥 가게. 경 헹 이제 이렇게 허민 이제 내려도 다 일본은 연락헤 가지고 뭐 헌다고 헤서 이제 그렇게 말허더라. 그래도 난 죽어도 안가겠다 헤서 이제 올케랑 나랑 내렸지. 내리니까 돈 만 원을 주면서 그냥 온 줄 아니까 잔뜩 포기하는 거라.

누가 포기해?

그 촌에라도 경찰에서. 겐디 산으로 이제 위에 올라가서 꼿밧디가 있더라. 꼿밧디 가서 숨었지. 게난 집을 하나썩 하나썩 있는디 촌이니까. 우스도(うつぞ) 우스도(うつぞ) 허는 거라. 순경이 우스도 우스도. 게니까 저기서이 겡 보민 팍팍 쏴부니까 꼿밧디 숨었다가 그냥 나왔지 줄줄이. 그때는 나 우리 나이로 나 열일곱이라도 열다섯이라고 헤 가지고이. 열다섯이라고 허민 밥 많이 주어.

경 잡혀간 거? 일본 경찰안티?

아니 경찰이 가도 밥을 많이 주어. 그냥 돌려보내.

아 잡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국 가라고 그냥 돌려보내?

응, 다 심어다 놧다가 돌려보내.

아아, 때리거나 그러진 않고?

안 헤. 다 돌려보내어.

아니 그때 돌려보낼 때 여기에 유깐(入管) 같은데 거치는 건 아니고마씸?

그때도 그때 해방돼서 아무 것도 뭐 허니깐이.

없을 때?

그런 거 같애. 뭐 기냥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번에 뭐 헐 때도 조사헐 때도. 그냥 어린아이는 밥을 많이 주는 거야. 그니깐 열다섯이라 헤서 밥을 큰사발로 배고팡. 그래서 돌아갓지. 꼿밧디 강 숨었어. 우스도 우스도(うつぞ、うつぞ) 허는 거라 게난.

우스도가 무슨 말이라?

쏜다 허는 말이지 일본말로. 우스도 우스도(うつぞ、うつぞ), 권총 심어가지고 나오라고. 우스도 우스도(うつぞ、うつぞ) 허니까 내가 일본말을 아니까 하고 그냥 한국서가 하도 쏘아나니깐이 겁낭 줄줄 나갔지. 어릴 때 경 헤나서.

게민 그때 잡힐 때 일본에서 한 며칠은 이서난 거 닮으과?

며칠?

며칠 엇어난? 바로 한국 들어간?

게난 한 며칠 한 이삼 일 강 보니깐 오십 명 다 심엉 갓더라. 전국으로 연락해. 우리 배 탄사름 다 심어 갓어. 겐디 그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내려도 그 어린아이는 몰랏어이 이제 우테서 이층에서 보니까이 경찰 앞이서이 영 헹 보고 있더라이. 바깟디서 이거 어떵허난 우리 배에 타난 사람 이신고 허당 보난 가이조차 심엉 가분거야. 어린아이는 그런 말 안헷다가. 그냥 보내. 그냥 그때는 이디도 막 복잡헌 때고.

게난 그때는 오므라수용소도 어서낫다예?

그거는 우리 오빠는 잇어도게 가고시마니까 그냥 금방 한 시간 오덴 헤도 연락을 헐 수가 엇지게. 또 그레 보러 오지도 못허고 그냥 한 며칠 한 이삼 일 있다가 보내줘.

경헹 그때는 돌아가가지고 그 사이에 또?

그 사이에는 못 왓지.

결혼허고?

응, 그 사이에는 그냥 결혼허게 뒈고 ᄎᄎᄎᄎ. 경헌 나중에 애기 낭 키우단에.

게믄 그때 올 때, 일본 올 때는 배는 어디서 탓수과?

밀항배를 부산에서 탔지.

그믄 제주에서 부산까지 왕, 부산에서?

응, 부산에서.

게믄 일본 오젠 허믄 영 얘기를 헤야 뒐 거 아니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랑?

그런 밀항배가 그럴 땐 잇어낫서. 다 그 가는 사름들안티로 어디로 허는 거 다 연락

을 헤가지고 그 가는 그런 밀항 배가 잇어낫어.

게민 그때는 몇 사람이나 ᄀᆞ치 와서?

그때도 한, 한 이십 명은 뒐 거야.

어디서 내렷수과?

그것이 이제 구마모토.

배 탕, 부산에서 배 탕, 구마모토까지 얼마나 걸립디까?

한 멧 시간베끼 안 걸리더라. 멧 시간베끼 안 걸리더라.

그 배는 어떤 배라신지 기억남수과?

그냥 배도 사름도 몰라. 긴디 선장이 말허기를 한 스무 명이 탔는데 짐을 시꺼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어디다 숨어가지고. 헌디 일본 사름은 그렇게 지도 시키더라. 내리면은 한번만 이렇게 안한다고, 아리가또(ありがとう), 아리가또(ありがとう), 아리가또(ありがとう) 이렇게 헌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 사름은 버짝헤 가지고 허지만은 사름을 만나면 그렇게 시키더라. 만약에 내려서 무슨 말을 허면은 아이고 영 헹 스미마셍(すみません), 스미마셍(すみません), 아리가또(ありがとう) 영 헹 절을 다섯 번 여섯 번 헌다는 거라. 일본 사름은 그레. 게니까 딱 내리면 그런 식으로 허라고 그렇게 다 시켜, 다 시켜 주더라. 경허니까 짐을 시꺼 갓는디 이제 그 창 아레 곱았다가 이제 짐을 여자들이 다리판 놓고 탕 탕 탕 탕 짐들 다 푸는 거라. 짐 시꺼 가지고 헌디.

무슨 짐인지는 모르고?

무슨 짐인지는 모르지. 소(そう) 겐디 저 배 아래 어디 창곰을 하나 멘들아서. 그 딜 이제 숨어 가지고들 겐디 와당탕 와당탕 여자가 오줌 와서 갈 갈 갈 갈 싸놓고 이제 그 짐들 푸다가 여자들이 와서 짐 다리판 놓고 퍼서 밤에 뒈니까 왕 보니까 기미가요를 부르고 있더라게. 옛날 기미가요 나가 불러나니까 아, 일본 다 왔구나. 축항에 불이 훤헌 거라. 기니까 다 그때는 짐을 다 퍼놓고 캄캄허게 축항에 짐들 다 짐들 다리판허고 남자옷 여자는 남자옷 우와게 입어 가지고 밤에이 게니까 미리 연락들은 다 헌디 전화를 헤 가지고 먼 데 그 짐 축항이니까 망 보고 잇서서 다 기다리고 잇서서 야 가끔 하나썩 한 열 명쯤인가 멧 명 안 뒈. 겐난 그약꺼지 수면제꺼지 난 사가지고 와나서. 오다가 죽으면은, 오다가 걸리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애기들이 살 수가 없어. 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그냥 바당에 빠져 죽을라고 자살 헐라고 그래서 약까지 다 사 가지고 와낫어.

완전 완전 독한 마음 먹었구나?

응. 오죽헤야 마지막으로 애길 떼놓고 오나. 살다가 살다가 버치니까 돈도 없지, 집밧 다 팔아먹었지, 그 아빠가. 애기는 말을 안 듣지. 그니까 자이가 어릴 때 이제 그거를 생각허는 거야. 장가갈 때 돈 한 푼 안 허고 공부만 여기서 헤서 보내 가

지고 옛날은 돈도 보내도 돈을 은행으로 못 보내잖아. 게니까 친구가 가는 데는 이제 헤서 이런 디, 이런 디 놓고 간다더라. 브라자 속에. 게서 공부를 시키고 친구가 하나 왓길래 영 헹 저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어가지고 뭐 헤면서 언니한테 돈 보내서 공부를 시키켄 허니까. 우리 언니도 일곱 아기에 그거 둘 허면 아홉이야. 게민 이디 가서 살았다가, 저디 가서 살았다가 겡 우리 동생이 올 때게 언니 아이들 커 가면은 하간 나쁜 편지라도 허면은 언니 섭섭 안 허겟나 허니까 나도 버친 애기를 매껴 놓고 가는디 형제간안테, 원수뭬 리가 있나. 게서 우리 이제 언니랑 동생이랑 막 생각이 나지. 그 자기네 할머니네도 다 뭐 헤버리고.

많이 도와줘신게.

응. 동생들이니까 그니까 아이가 나쁜, 나가 버쳐서 헌 애기가 가이가 나쁠 리가 있나. 우리 동생이 이만큼 여행으로 오는디 서류를 써 가지고 왔더라. 그 돈 쓰는 거를 다. 나 이런 거 안보겠다고 형제간을 못 믿으면 어떻게 허냐고. 건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걸 알아서 성공을 헌 거야. 장게갈 때 돈 십 원 한 장 못 헤보고. 잘도 잘도. 경헤서 요작이는 손지안티 가서이 야 나 늙어 가면 서울 손자한테 가서 같이 살까 허난 어머니 손지 한 번 안아나 봤어요? 그렇게 말하더라, 처음으로 말하더라. 그 말을 손지 한 번 안아보고 말을. 여기 와서 헤도 오또시다마(おとしだま) 줘도 우리아들 다 놔두고 가 메느리도. 가서, 그때는 받아가지고 한국 가서 아이들안테 오또시다마(おとしだま) 어린 땐 오거든. 그디 가서 준다고 헤 놓고 그거 한국 가서 어느 책 속에 놨다 헤 가지고 돈 일본 돈은 죽어도 십 원 한 장 안 헤 가지고.

어머니 고생한 돈인줄 아난.

어머니 쓰라고, 맞아. 우리 메느리도 어머니가 먹다가 어머니 편안허게 헌디 일허기 때문에 아직은 영 민세(みんせい)는 안 타지만은이, 나가 공장 일을 허게 뒈서 이제는 저 거시기가 없으면은 보험이 없으면은 그 호껜(ほけん)이 없으면은 쇼꾸닝(しょくにん)을 못 써. 호껜(ほけん)이 들어서 호껜(ほけん)으로 반 헤 가지고 허지. 건디 이녁 호껜(ほけん)을 허는디 연금을 나가 그때는 놈의 집에서 일허면은 그디서 반 헤 주고 나가 반을 낸데, 오만 원쓱 나가 낸 거야. 20년을 내는 거야. 겐디 우리 동생이 한번 왔다가 쇼꾸닝(しょくにん) 때문에 이십 년을 내다가 저 쇼꾸닝(しょくにん) 왔다갔다 허면은 호껜(ほけんしょ)에서 전화 오는데, 일본말로 뭐라 허니까 전화를 탁 끈어 분 거야. 왕 보니까 이름 탁 써져 있으니까 자기 회사에는 사장은 못 써. 나 운전수로 헤서 들어갔지. 이십 년을. 딱 끈어 부는 거야. 게서 그때 돈 그때가 육십하나로부터 여긴 타거든 이젠 육십 다섯이지만은, 육십 하나로 타는 건디, 그 칠십까지 나가 일을 헷거든 게니까 걸 안 타고 내버리니까 천만 원이 나왔어. 안 타먹은 거. 그걸로 이제 쩨끌락헌 막사리 하나 사고.

아, 잘 뒛수다, 잘 뒛수다.

응, 막사리 하나 사고. 내가 동생도 내주고 이젠 딸은 불렀거든. 아들은 이신디 아들은 장가도 안 간 때, 딸을.

몇 살에? 몇 살에 불른 거?

우리 딸. 멧 설에 나 간호대학, 전주간호대학 다 시키고 공부 다 시키고 장가도 안 가고 원 나 이제 다 잊어불엇어, 시집가기 전에. 이제 간호원으로 뎅기다가 딸이나 불러서 벗 헐려고이 불렀는데 우리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한 시쯤에, 밤 한 시쯤에 전화가 왔더라. 헝헝 울면서 단 하나베끼 없는 누이동생을 불러갔다고. 막 헝헝 울면서이. 겡 울면서, 딸을 불렀거든. 한국 사우 헤가지고 아들, 저 아들은 못 불르고. 딸은 뭐 헐라고 헤서 불렀는데 저 그 자격증은 그 나라 그 나라베끼 못 써. 간호원 멘허증 전주대학 나와서 간호원으로도 잇서지만은 이 나라 와서는 못 쓰니까 가시와라대학, 전주대학 허영 저 가시와라 간호대학에 또 2년 가서 헷어.

아, 여기 와 가지고?

응, 여기 와서 이 년 시키는데 병원에 취직헤 가지고 나라(奈良)에 사꾸라(さくら) 병원에 다니면서 헌디 그 나라(奈良)에?

게민 딸 불른 건 대학 졸업헹 부르난 여기 왕 저기 학교 등록허난.

학교에. 학교 수속을 허니까 막 힘이 들더라. 그 수속을 허는디 힘이 들어서 나가 오사카 구청에 가서 아이고, 와서 학교 입학을 허는데 웨 이렇게 허니까. 그거는 교장이 한따이(はんたい) 허지만은 이런 법의 거시기는 나라가 한따이(はんたい) 허는 거니까, 이디 가민 저디 가라, 저디 가민 이디 가라, 뭐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그냥 그 졸업장 전부해서 그 간호대학을 또 대학 학원을 2년 허는디 말 하나 모른 거지게. 다 이제 거기서 헤논 거니까. 건디 여깃 아이들은 다 떨어져도 자격증을 못 받는디 우리 딸은 2년 동안 그 대학을 헌 거니까게 자격증을 받으니까 나라(奈良)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한국 아이가 와서 자격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디 그 우리 사우는 일본, 그 사우가 병원장인데, 어머니가 나보다 하나 위라도 막 약제사라서.

아, 게민 딸은 여기 왕 다시 대학 헤 가지고 병원에 취직한 거?

응.

아, 완전 잘 뒛구나.

그래서 그 헤 가지고 우리 딸을 점을 찍어가지고 한국 아이를, 나라(奈良) 사름은 한국 사름은 막 싫어헤. 말도 공손허고 나라(奈良) 사름은 오사카 가트지 안 헤. 그냥 앚아서 절허고 그렇게, 공손허게. 우리 손자 이제도이 돈에 오(お)자를 붙여. 우리는 가네, 가네(かね, かね) 허는디.

오까네(おかね)?

오까네(おかね) 경. 나헌티는 슝 안 헤도 자기 어무니안테 오사카 할머닌 오까네(おかね)보고 가네, 가네(かね, かね) 헌다고. 하시(はし)도이 이거 하시(はし)가 무시거 허다 허민, 오하시(おはし). 이렇게 일본 사름덜이 공손헤. 그렇게 엄헌 집이난 문딱 병원장, 약제사 허고이. 경헌디 그디도 한따이(はんたい), 나도 한따이(はんたい). 난 한국 사름을 헤서 딸 좀 아들 좀 부려먹고 시킬라고 헷는디.

으, 맞수다, 맞수다.

일본 사람을 허니까 너무나 공손헤서, 이제도 공손헤서 그냥게 뭐 허잖아. 사우는 사우대로 나를 거리가 그냥. 공손허고 이젠 난 나대로, 사운 사우대로이 딱 공손헤. 게고 또 배운 사름이니까. 나라(奈良) 사름 도꾸베쯔야(とくべつや). 겡 그디서도 한따이(はんたい) 헤도 우리, 어머니가 보통 아니라. 약제사고 보통 아니라. 경 이쁘고 나보다 하나 우이지만은, 그런디 그렇게 막 뭐 헤 주어근에 헌디 결혼을 헌디 우리 아들네만 왔다가서, 메느리허고. 나도 잔치에도 안 갓어.

무사 안 가마씸?

한따이(はんたい) 헤가지고게 하하하. 일본 사름허고 헌다고 한따이(はんたい) 헤가지고. 근디 사우가 그냥 어머니 보겠다고 그냥 막 뭐 헤서 이제 딸이영, 메느리영 아들허고 헤서 어떵 어떵헤서 이제 식헤서 그냥. 사우도 그렇게 공손허고. 건디 경 나를 알아줘 가지고이 자기 어머니 대우, 나는 시키고 있잖아. 결혼을 할라면은 웨편을 삼대를 본단다. 메느리를 할라면. 아빠 쪽을 안 보고 웨할머니, 어머니, 본인. 경허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시켜야 한데, 우리 사우가. 그렇게 이제 헤서 우리 아들 오라고 허영 허민 우리 사우가 어머니 아들 책임으로 오라 허는 거는 정확허다고 그러지만은 어머니 여기 오래 살아부니까 거기 가면 보께루데(ぼけるで). 헌디 딸 시키거든, 네따끼리야데(ねたきりやで) 시어머니가. 집에, 같이 사는데. 시아버지는 또 따로 살고

아, 시아버지는 따로 살고?

옛날부터 재혼헤 가지고. 게도 각시도 안 허고 마누라도 안 허고게. 겐디 어머니가 벨난 어머닌디 가서 만나 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 년 동안 나가 안 갔어. 우리 사우들은 만났지만은 시어머니는 안 만나니까 거 어머니도이 보통 어머니가 아니지 약제사거든. 돈도 많고 허난. 나 한 친구들허고 온천 가서 삼 일 살 테니까 와서 집이라도 한 번 붸우라고 어머니, 오사카 어머니. 그니까 우리들은 솔직히 순진 솔직헤. 그니까 가서 그 이제 전화가 왓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영 영 헤서 온천 간다고 허니까.

일부러 피해 줘신게.

한 번 와서 집에 와서 봐 하길래. 야, 너 시어머니허고 한 번 인사도 안 헷는데 웨 도둑년 모냥으로 나가 다마떼까라(たまってから) 갈 수가 있나. 건 안 뒌다. 인사를

헤 놓고 가야지. 없는 때 응큼허게 가면 뒈느냐고. 안 뒈 그거는 안 뒈. 이제 말허니까 남편은 갈 적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헌다고 허니까 어서 어머니 불러서 한 번 집이라도 보라고 허라고 헷는데. 갔다 와서 어머니 이렇게 말허더라 허니까 그것이 아따리마에(あたりまえ), 원칙이라 허더레.

맞수다, 맞수다.

안 그러나게. 인사도 안 헤 놓고 나가 움착허게시리. 응 그래서 정확허다고. 한국 사름이라고 막 뭐 헐 거니까게. 이렇게 헤서 절허고 헌디. 이제는 나를 그냥 오사카 어머니 부르라고, 먹으러 가자고. 걷지도 못 헤가지고 영 부축헤 가지고 부축헹 네따끼리야(ねたきりや). 경허니까 사우가 날 이렇게 생각헤 줘. 지도를 시킨다고. 가서 청소 다, 할머니 방에 청소 다 허고. 난 우리 딸보고 이거 청소도 안 허고 이렇게 헷다고. 시어머니가 못 허게 헌다고 허길래 시어머니니깐 못 허게 허는 거다. 게니까 그거를 못 허게 헌다고 헤서 안 허믄 안 뒌다 말이지. 이렇게 너무나 우리 딸이 솔직을 헤. 딸도 보태주고 아들도 보태주니까 살고 있잖아게.

어머니, 삼춘 고생허난 그 보람인 거우다.

그니까 다 알아주는 거야. 자식이 알아줘서.

게난, 게난 그때 구마모토로 들어왕, 그때 밀항 올 때 구마모토로 들어왕 바로 오사카로 온 거과?

어, 그 우리 오빠가 그디로 데리러 와서 하룻밤 자고.

데리러 온 거 거기로?

응. 연락헤서 나가 어떻게 헤서 와. 글로 다 연락을 헤 줘. 그 배에서. 경허니까 거기서 와 가지고 이제 데리러 와서 여기 와서 살다가 살면서 나가 그렇게 ***에 기부도 허고 그렇게 뭐 헤 가지고 좋은 일을 헤야 해.

예, 맞수다. 그때 돈은 얼마나 줘나신지 모르쿠과? 그때 밀항 올 때 돈 얼마나? 배삯 얼마나 줘신지?

배삭은이 한국에서 오만 원 물고 여기서 이십만 원 물었어. 우리 올케가 물어 준 거야.

게믄 한국에선 오만 '원' 주고 여기서는 이십만 '엔'?

응. 우리 올케가 가지고 가서 나를 데리고 온 거지. 오만 원은 선불 주고, 이십만 원은 헤서. 그걸 우리 올케네도 못 살아서 남의 집을 살고 있더라. 거니까 그거를 못 물어서 아메도 올케 아니가. 오빠는 그걸 벌어서 보낼라 헤도 나는 학비들 아이들 때문에 다노모시(たのもし)를 들어 가지고 헤도 오빠가 워낙 신용 있게 사니까 다노모시(たのもし)를 등록 없는 사람은 드물려 주나. 건디 같은 고향사름이 다노모시(たのもし)를 들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창이 옛날에 할무니영 살아서 못 산디 가네모찌(かねもち)가 뒈 가지고 저 거시기 또 허고 다까즈끼(たかつき)서 와서 우리 왔다고 허니까 그 돈을 나보고 올케안티 막 구속 받는다 허고

그 돈을 물라고 헤서 한국 가서 보내지 말고 우선 차비를 물라. 빚져서 낸 거니까. 우리 올케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문다 허는 거를 누가 우리 동창이 말을 헌거야. 동창 많이 왔댔어, 그때. 그래서 그 동창이 잘 사니까 다노모시(たのもし)는 미리 내리면은 오만 원, 오천 원썩 더 내야 허니까 마지막꺼지 이제 받지 말고 허고 이십만 원을 나가 헤 줄 테니까. 그동안 걸리고 가면은 나한테 기부한다고 허는 거야. 헤서 마지막에 타라고.

완전 친구 좋은 친구.

마지막에, 동창이 마지막엔, 그디도 할머니하고 살아서 고생허니까 마지막에, 그 중학교 간 사름은 힘들어. 그때는 사삼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온 사람도 많아. 동창덜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는 못 들어가고 츄도한빠(ちゅうどはんぱ)로 이것도 못 허고 저것도 못 허고 사삼사건이 일어나 부니까. 쵸도(ちょうど) 학교 갈 때에. 허니까 이제 다 마지막꺼지 타서 이십만 원을 원전만 달라고. 벨리가 그때는 막 비싸. 게니까 이제타면은 오만 원썩 오천 원썩을 더 내놔야 헌다고. 게서 올케안테 물고 있다고 누게가 말허니까 우리 동창이. 그래서 올케한테 물어 놓고 올케도 남안테 꾼 거니까 물어놓고. 방 빌어서. 한 사름은 이제 저 그 동창이 마지막까지 헤서 타서 원전만 달라고. 그동안 나가 걸려서 가면은 기부헌다고. 건디 이제까지 살아젼. 헌디 좋은 일을 헹 놔두면은 그서 이제 그 애기들 나가 죽어 먹고 또 그것들을 분시 몰르게 방도 하나 엇이 놈의 방에 이제 오십만 원이민 살고 있는데 살지도 못 헤도 그 방에 사는데 가이들 온다 간다 헤도 저 못 보내잖아. 장가도 그냥 힘들게 못 보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아들 이제 그거는 다 아니까 어머니를, 자기대로 성공헌 거야. 집도 절도 엇이 아빠가 얼마나 다 팔아먹고 할머니도 고생시키고. 그렇게 허고 있잖아. 건디 딸도 보면, 우리 딸은 나 닮아서 그냥 아무 거라도 그냥 요번에도 가니깐이 아 옷은 필요 없다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옷은 필요 없고 화장품으로 사주고 이쁘게 헐라고. 목 아프니까 이디 뭐 허는 거 사주고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게난 삼춘 여기 왕 막 도와준 사람들이 많은게예. 그 친구도 20만 원 먼저 헤주난 벨리 엇이 헤주난 도와준 거고 처음에 집 빌엉 살 때 그 할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날. 응, 도와준 사름이 많아. 거니까 나는 지금 교회도 나가 돈을 내고. 삑삑 빠지고 안내놓는 거라. 십일조 떼는 거야. 한꺼번에 연금이 나온덴 헤도 이디 민세이(みんせい) 타는 사름 7만 원이 나오잖아. 먹는 거 7만 원 나오고 병원비도 없고.

별도로?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 가이고(かいご) 보험이 8천 원 이제 국민보험이 2천 원. 만 원썩 떼 앗아. 요새 돈 7만 원도 안 뒈. 헌디 나는 집이 작아도 이리구찌(いりぐち)

가 딴 디야. 요 방을 따로 아래, 문이 따로라. 전기도 가스도 따로. 경헤니까 나 혼자가 살 수가 없어. 이층 삼 층꺼지 긴디. 방하나 구들 하나베끼 없는데 원래가 짓을 때 그렇게 짓어불엇더라.

빌려 줜?

게니까 남을 빌려줘서 이제 집세 3만 원을 받으는 거는 교회에 기부를 헌다고 교회를 다 이번에도 이런 걸 허야 허니까 10만 원을 나가 내겠다고 십일조를 떼놓고 있잖아. 그 돈으로는 교회다 쓴다고 헤서 이제 먹는 거는 생활비베끼 안 나오니까 전기 값도 무료, 뭣도 무료. 병원에 거튼 데도 여기는 기부가. 그거를 나는 옛날부터 허면서 헤나 부니까 끈지를 못 헤, 병원에. 가는 병원마다 다 허고. 어머니날에도 어머니네 동네 할머니들안테는 다 안 헐 수가 없어. 나를 위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자들, 아들을 위해서.

딸이랑 아들이랑 제주도 이시난 조금씩 조금씩 돈 보냇던 거잖아예?

보내주진 안 허지만은 받지를 안 허고 가, 와 주어도.

아니, 그니까 어렸을 때 학비 같은 거 안 보내줫수과? 처음에 왔을 때.

어, 헷지. 나가 공부는 시켰지. 그니까 공부는 다 시켜서.

그때는 한 한 달에 얼마씩 보내집디가?

아 그때는 경헤난 겡 모이고 모이고 헹 누게 갈 적 이실 때 보내주고. 다노모시(たのもし) 헤 가지고 한꺼번에 헤서 백만 원씩 그냥 헤서 공부는 나가 시켰지. 시킨 거지. 동생들이 시키지 안 허고. 그 밥값을 못 물어도. 겐디 우리 언니 보게 떼까라(ぼけてから)이 교까이(きょうかい)에이 오십만 원썩 내놓면서 병원에 살고 있더라 강 보니까. 이제는 돌아갔지만은.

요양병원 같은데?

응 응. 요양병원에 기독교 병원, 김녕. 아고, 난 아고 그냥 이거 나한티 어머니 그런 요양원에 보내나. 그런데 한 오륙년 이상 살았어. 그래서 돌아갈 때 나도 아이들을 매껴 두고 허니까 한국 돈 백만 원썩 멧 번 당헷지. 오십만 원씩 내고 있더라. 게난 딸보고도 얼마 내라고 허고 아들은 큰 집 짓젠허니까. 나도 뭐 허다가 이젠 돌아갔지만은. 건데 우리 아들이 나도이 보게루(ぼげる) 허면 허진 못허니까 여기는 너무 필요 없다. 암만 교회라도 남은 필요 없고 자식이 젤 필요허니까 나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게 뒈면은 한국을 가겠다 헷거든. 한국을 가면은 그 연금이 나온데 한 7만 원 그거 생활비베끼 안 나오니까 그걸로 허고. 집은 딸 줘 불라고 허는 거야. 이제 그거를 거시기 헤가지고 뭐 허고 얼마 이젠 얼마 가지도 안 허고 허니깐이. 이제 그걸로 허다가 모지란 거는 뭐 허라고 허니까. 아직까지는 건강허니까 그래서 요양원에 갔다 노라고 허니까, 어머니 이모님 요양원에 갔다 놨두고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분시도 몰르고 헷지만은 자빠지면은 자식들 못 보는 거야.

맞아마씸.

응, 못 봐 못 봐.

요즘 제주도에 그런 요양원이 잘도 많수다.

건디 그런데 이제 좋은 디 찾아놨다가 그렇게 허라고 난 아들보고. 난 여기는 교회 사람들 있지만은 자식이 필요헌 거야. 내 딸이 멀어서 올 수가 없는 거라. 여기서도 다 가면은 허지만은.

게믄 나중에는 제주도 갈 생각 있는 거 아니?

제주도 가겠어. 난 이제 헤루빠(ヘルパ) 쓰게 뒈서 허면은 한국으로 갈라고. 병원에 들어가게 뒈면 한국으로 갈라고. 그런 여산 허고 있지. 겐디 나 연금이니까 따라 가지. 죽을 때까지는 따라가서 나오지.

그민 일본에서 연금이 한국 들어갔는데도 나옵니까?

따라가. 나가 죽기 전에는 따라가. 남편 돈은 안 따라가지만은, 남편 돈은 이제 안 따라 간다 하더라. 난 내 거니까. 나 거니까 따라가지. 그걸로 살고 있지. 하영은 안 나와도 그냥 먹는 거이. 쪼끔 뭐 허는 거.

도와준 사람들도 많고.

여기?

예, 여기서예?

도와주는 사람 없어.

엇어? 아니 어쨌든 그 할머니도 그렇고 옛날 처음에,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라도이 그렇게 좋은 사람덜이이.

삼춘 여기 왕 일헤난 거 맨 처음에 서른일곱 살에 왔을 때 맨 처음 헷던 일이 뭐과, 일본 왕?

하리꼬. 신 만드는 거. 그런 거베끼 엇어낫어.

놈의 집에 들어강 일한 거? 그때 한달에 얼마나 벌어젼?

얼마나 벌었는지도 몰라. 그거는 잊어부니까.

오자마자 일헌 거?

오자마자 그런 일 허여야지 어떻게 사나. 건 우께또리(うけとり)니까 하영 허믄 하영. 작게 허믄 작게. 거니까 밤, 아침 네 시, 다섯 시에 와서 밤 열두 시까지 헐 때도 잇어. 보에끼몽(ぼうえきもん) 헐 때가 잇으니까 보에끼몽(ぼうえきもん) 헤 가지고.

보에끼몽(ぼうえきもん)이 뭐과?

어, 보에끼몽(ぼうえきもん)은 웨국더레 보낼 거를.

아, 보낼 거를 주문 받앙 이시면 빨리 헤야 뒈난.

게서 밤 열두 시꺼지 헐 때도 있고 제사 가서 먹고 와서 헐 때도 있고. 인제 그거

허면서 그 어떤 사람은, 그때는 많이 썻잖아. 그땐 형사덜이 막 심으레도 다니고. 이 골목 아니고 저펜 골목인디 형사가 그렇게 다녔어, 그때는 잘도 잘도.

게민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이 동네 사셨던 거과?

오빠네 집 쪽에서 살았어.

어디?

오빠네 집.

오빠네 집이 어디라난?

게니까 이 뒤깡에. 마루도 병원 근처. 그 근처에 살았지. 이제는 심으레 다니는 사람 없는데 그때는 오니까 잘도 심으레 다녀. 형사가 잘도 심으레 다녀난. 뎅기다가 이 가도몽(かどもん) 이제도 가도몽(かどもん) 사잖아이. 가도몽(かのもん) 상 이시민 어디 가도 못 허고. 가도 못 허고 그 옛날에.

기민 막 밖에도 뎅기지 못 헤나신게예. 일허고 집 허고 일허고 집 거고 겅만.

으, 어디도 다니지도 못 헨. 그냥 왕 보민은 그 옛날은 족은 부락에 여럿 골목에는 포장 쳐 가지고 총련들이 포장 쳐서이 영화, 미국 영화, 중국 영화. 그 옛날 이북 영화.

이북 영화예?

응. 총련이 힘이 쎄연.

그때는. 기믄 와 가지고 막 총련 가입허렌은 안 헤낫수과?

총련 돈도 내라고 허는 사람도 있어난 모양인디 우리 헐 때는 그런 건 안 헷어.

아, 그런 건 엇어나고.

응. 우리는 그냥 한국 훼비도 못 내낫지. 온 걸로 안 헷어. 허가가 없으니까게. 그니까 알면은 총련에서 내라고 헤낫어. 내라고도 헤낫어.

응. 내라고도 헤낫어.

우리 아들이 국방부 민간 거시기 허니까 그런 말은 못 허고 나보고 어머니 이제 여기는 와 보지도 안 허니까 그런 총련이 막 그때는 막 쎄엇거든. 골목 골목마다 영화 헷어, 영화. 회비도 받아낫다 허던데 우리는 회비꺼지는 내 본 도레 없지만은. 근데 회비를 내고 골목 골목마다 그런 거 헤낫는데. 회비 내는 사람들도 양펜이 회비 내고 헷는데 이제는 민단이 회비 내고 있지만은. 회비는 내중에는 회비는 내야 허잖아 민단에는.

그 하리꼬 일헐 때, 삼춘 제일 하영 헐 때가 얼마나 만들어져낫수과? 멧 배나, 신발?

몰라. 한 이 년베끼 안 헷어.

이 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미싱 헷어. 집에서 미싱.

무슨 일마씸?

가방일.

아, 가방일. 집에 미싱 사다놩?

으, 지뗀샤노(じてんしゃの) 여기 영 씌우잖아.

저기 앉는 데?

응, 앉으는 데 씌우는 거. 그런 거 헤난.

아, 그거 만들어난.

나가 미싱 헤나니까.

아, 미싱 헤나니까 게민 미싱일은.

힘들어서 못 허겠더라 하리꼬는.

무사 뭐가 힘들언?

밤이 오래여서. 이 알레르기 체질이니까 기침 나오고 노리, 노리(のり, のり) 냄새로.

노리(のり) 냄새예, 겐 그거 이 년밖에 안 헨.

이 년밖에 안 헤연에 한 사 년째 뒈가니까이 오빠네 집에서 공장 시작을 한 오 년 헤젼. 공장 시작헷지.

아, 기민 2년 동안은 하리꼬허고, 그 다음 미싱?

미싱도 한 2년 헷지.

2년 허고 겐 그 다음서부터는 오빠네 공장?

공장 출려서. 바킹(パッキング) 공장.

그럼 그 집이, 오빠네 집에서 바킹(パッキング) 공장 그건 얼마나 헷수과?

그 바킹(パッキング) 공장 그땐 얼마라 헌 지 멧 십 평짜리라.

아, 그니까 그거는 몇 년 동안? 그것도 이 년 동안 헨?

그거 한 오 년 헷어.

아, 그거 오 년 헹. 본인이 차린 건 그 뒤에?

근디 혼자만 출려서 허는 것이 저 멧 년을 헷느냐 허면은 한 십 년 헷나? 게니까 연금이지. 공장 출려서. 공장허게 뒈면은 쇼꾸닝(しょくにん)을 써야 허는데 쇼꾸닝(しょくにん)을 쓰게 뒈면 보험이 없으면은 쇼꾸닝(しょくにん)을 못 써. 게민 자기 공장에는, 근디 여기서 보험 내는 사름은 놈의 공장에서는 호껜(ほけん)을 들지. 호껜(ほけん)을 들면은 반은 거기서 내 줘. 나는 이녁 공장이니까 나가 다 내어. 오만 원씩 그 옛날에. 그러고 사장을 이녁 공장에는 못 들어. 걸 나가 발각이 뒈 불엇어. 난 운전수로 헹 들었지. 허단 버쳔 운전 배우레 갓지. 자수도 빨리 헷지.

게난 어쨌든 사업허젠 허난 자수도 헌 거 아니?

소우소(そうそう). 그니까 가구가 다 있고 사삼건에 온 사름은, 그렇게 오빠가 죽고 게니까 여기서도 안 좋아 헷거든. 헐 수 엇이 살아날라고 온 거를 다 알고 잇엇어.

그냥 일허러 온 것도 아니고 살아날라고 허니까 온 걸로 잇엇어. 오빠가 죽고 헤부니까. 우리 오빠는 여기서 돌아가서 가자마자 죽은 걸로 알고 있어. 경허니까 뭐 일허레 온 것도 아니고이.

다노모시(たのもし)는 어떵 헤낫수과?

다노모시(たのもし)는 헌 거는 옛날에 등록엇어도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으믄 키우는 거지게. 얼마썩 매덜에 내는 거.

매달에 얼마씩 내난?

매덜에 한 이만 원썩 내면게 한게 두해에 허면은 한 이백만 원도 뒈고게. 회비게 없으면은 선불 타고 헤도 등록 엇어도 그런 거를 들어주더라. 신용을 헤서. 그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허고 공장을 차리려 허면은 이디서 알면은 공장에서 은행으로 돈을 부쳐주지. 그래서 물어야지 매덜에.

경 일하멍 아니면 다노모시(たのもし) 허멍 다른 사람한테 떼이고 헤 본 적은?

나 이십만 원 뺏긴 적이 잇어. 아는 사람이 선불다 헤주고 선불 헤주고이 다른 사람 선불 안 허는디 한 두 번쯤 세 번쯤 내면은 내주고 내주고 그걸 허는디, ?튼 고향 사람이니까 등록 없어도 건데 멧 번 그렇게 허다가 다섯 번째는 오만 원짜리를 허더라. 오만 원짜리 헷어 그거를 네 번 내엇어. 오만 원짜리를 이만 원썩 허는디 오만 원짜리를 네 번 내면 이십만 원 아니가? 이십만 원 헷는데 그 사름이 파 헤부니까. 난 거 달라고도 안 헤 봐서. 달라고도 안 허고 이제 이십만 원을 헤도, 멧 백만 원썩 멕인 사름도 있고, 나는 등록 엇어도 헤 줘서 차비까지 헤 준 그것을 생각허니까 그거는 생각도 안 헤봣서. 돈 달라고도 안 헷어.

그지예.

달라고도 안 헨. 그냥 내버렷어. 돈백만 원썩 멕인 사람도 있으니까. 달라고도 안헷는디 그 양심상 그 같은 고향에 사름이니까. 나 등록 없어도 등록은 신용헤서 멘들어 주니까 그때는. 게고 오빠가 있으니까 헌 거 아니가게. 우리 오빠가 신용이 있어서이 그렇게 사람이 좋으니까. 집도 안 봐도 우리 오빠 말허니까 빌려주더라. 오빠 같으겠지 경 생각허더라고 하하하. 오빠가 이디서 어릴 때부터 살고 멧 십년을 살고. 그난 그 다노모시(たのもし)도 그렇게 헤도 그 이십만 원 헤도 그 돈은 달란 말도 못 헤 봔. 경헌디 그 사람은 미안헤서이 어떵 허당 목욕탕에서 만나니깐이 아이고 미안, 미안허다. 아이고 그런 거 생각도 허지 마세요. 멧 번을 없을 때도 헤주니까. 그리고 저 등록 어실 때는이 돈 번 거 있느냐 헤가지고 돈 번것도 없으니까 보증금 걸라고 헤여. 얼마 있느냐 헌 거. 게니까 등록 엇어도 기샤(きっしゃ)점에 이디 그 앞에서 일헤 부니까이 다노모시(たのもし) 모인 거 있다고 돈 이백만 원 가져 가지고이 한 삼일만 나 이름에 은행으로 놔. 그거 헤 가지고 가져가 흔 삼 일 또 헤당 줘. 얼마 있는냐 그걸 헤오라 해. 게믄 이제 그걸 헤다가 놔. 돈 헤주더라. 이백만 원

다른 곳에 모인 거 있으니까. 그걸 가서 나 이름에 통장 헤서 것도 신용허니까 헤 주는 거 아냐. 게서 이제 그거 헤가지고 가져가지. 그럼 이제 내중에는 또 내려다가 줘버려.

공장 허멍 막 어려워난 점은 엇수과?

공장허면서는 이백만 원썩 타서 쇼꾸닝(しょくにん)덜 다 주면은 얼마 벌진 못 헷지게. 쇼꾸닝(しょくにん)덜은 많이 벌었지만은 집세도 물고 뭣도 물고 나가 운전허고 그니까 이백만 원썩 타다가 우께또리(うけとり)니까 멧 십만 원썩 타 쇼꾸닝(しょくにん)덜은 그때. 게고 보험 거튼 것도 다 내고. 어려우면은 안 허지. 그 일은 아무나 못 허는 일이니까이. 나가 운전허니까 그냥 나 운전수 값 나온 거지.

어쨌든 그 일허는 기술은 오빠 공장할 때 배워난 거난?

그거는 이제 쇼꾸닝(しょくにん), 쇼꾸닝(しょくにん)덜이 그디 가서 이제 배오 놓고 어떻게 허는 거는 거는 가다(かた)가 잇어. 가다(かた) 놓고, 그 가다(かた) 놓는 걸 쇼꾸닝(しょくにん)이 헤 주는 거야. 난 시꺼 갓닥 시꺼 왓닥.

삼춘 맨 처음 여기 일본 온 게 1967년 될 거우다예? 처음 일본 오니까, 오사카 오니까 제주도는 그때 막 못살아 났잖아. 일본 오난 다른 게 이십디까?

아이고, 우리 친척도 저 오면서 공항에 가서 시꺼 오는디이 이거 제주도만이도 안 허다.

지금이야 경 허지만은 처음 삼춘이 여기 왔을 때. 60년대에. 서른일곱 살에 오난 여기랑 제주도랑 틀린 거 이십디가?

마찬가지라. 오사카는 저 번창헌 디는 퍼졌지만은 이디는. 우리 사는 디는 그냥 옛날 멧십 년짜리 집들 아니가게. 그런 집이고. 집도 그냥 어디 저 촌집 닮은 집들이주만은 그런 디도 경 비싸. 나도 그 거시기 들어간 집은 그 막살이. 그때 살 때도 십오 년 된 집인디 나라에 들어간디 천만 원에 산 것이 이제는 오백만 원도 안 줘. 그렇게 싸. 천만 원. 거시기 들어간 집을 천만 원에 하난 그냥은 한 천오백만 원 이상 될 집 아니가. 그런디 그냥 나라에 들어간 집을 사서 천만 원 나온 걸로 그런 집이라도 사서 살아야지 일 안 허게 게믄 못 사니까. 그자 먹는 거마다 그거 나오니까 먹는 거 생활비. 게서 연금을 안타고 사니까 나라에 가면 큰소리 허지. 난 세금 내고 살앗다고. 큰소리 허지. 이제꺼지 세금 내고 살고 있잖아.

기민 처음 일본 와도 막 먹는 거나 사는 거나 막 틀린 건 아니다이, 제주랑?

응, 게니까게. 자기 그냥 금방 오면 그 일들 허니까 하리꼬(はりこ)들 헤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잇서. 오래허면은 먹을 거 충분 나와. 그걸로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먹을 걸 나와. 나오니까 일을 허고 헷지 안하면은 안 뒈지만은 그 일이 박허잖아. 신나 냄새. 우께도리(うけとり)니까이 한 이십만 원썩도 되고 십만 원썩도 되고 한달에.

하영 하면 이십만 원?

소우소(そうそう). 자기가 빨리 허면 우께도리(うけとり)니까. 아침 다섯 시로 저녁 일곱 시 열 시, 열두 시까지도 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께도리(うけとり)니까. 하영 허믄 하영, 작게 허믄 작게. 이제는 잘 안 신어, 구두가 나오니까. 그때는 그런 거 경 안 허면 미싱. 가방 미싱. 그런 것들만 경 허는디 벌어 먹진 못 헤진 안 허여. 뭐 나도 아는 우리 친구 하나가 어머니가 오만 원썩 번다 허더라 하니까 그냥. 게서 나올 생각 잇엇어. 한국서 돈 오만 원은 벌려면. 경 아기들 공부도 시키고 헷지.

게난 나오난 영 살아지난 잘 나온 거 같으과 그때?

그때 와서 헷으니까 뒛지게. 그때 와서 안 헷으면 어떻게 사나. 한국에서 뭐, 집 밧다 팔아먹고 어떻게 사나. 거 미싱일 헤봣던 거 그냥. 패물 미싱 나 다 헷어. 부산 가서 배워 가지고. 부산 가서 배와 와서 패물 기계도 허고, 쉐타도 짜고. 서문시장에서 양재점도 허고.

부산 강은 얼마나 살아난?

부산에 가서 살면서 그거 배웁고, 피복창에도 살고.

겡 몇 년 정도 살앗수과?

한 오륙 년 살앗어. 피복창에 다녀서 군인 옷덜 허고, 광안리에. 제주도 헐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거 광안리에도 못 허니까 구제시장에서 피복, 저 거시기 배와 가지고 와 가지고는 양재점 헷지. 남원에도 가서 양재점 헷어. 원피스 하나 못 입는 사름덜 있더라. 부끄러워서 못 입겠다고. 아이고, 오빠 무섭다, 아빠 무섭다 허멍, 처녀들.

경 헹 여기 와 가지고 등록도 얻어지고 허난 친구들이나 함덕리 모임이나 그런데도 나가고 헤낫수과? 마을 모임 거튼 것도 잇어실 거고.

아이고, 일허젠 허면 그런 디 모임에는 안 허고, 아니 이런 영화 ᄀᆞ튼 거 가면은 허고 한국 회비는 죽장 내야 허고.

한국 회비? 민단?

민단게. 것도 내야 해. 응 지금도 내여.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일 년에 오천 원 내여.

젊을 때는 얼마 냇수과?

천 원썩 내여. 한 달에 천 원. 이젠 한 달에 오백 원. 젊은 땐 천 원썩 내연. 안내는 사름도 있어.

함덕리 모임 같은 건 엇어난?

모임 잇어. 우리 교회에서 시꺼 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헤낫어. 우리 교회에서 데려가니깐이 영사관에 가서 찍엉 오고. 이번에는 안 허고, 안 가고. 가지 못 허

니까. 국회의원 허는 것도 파스포토(パスポート) 민단에 가져가서 허라고 줘 버리고.
여기서 식게 먹으레도 다니고 막 안 헤난?
난 그렇게 놀러다니진 않안. 먹으러 그냥 민단에서 무슨 요리나 뭐 허면 난 서지부에, 난 서지부니깐이 아니 저 서지부니깐이 거기 가지 서지부에. 거기 무시서 모일 때는 가지, 놀러 가지. 춤추는 거 보러.
겅 한국 들어간 건 언제 들어갓수과? 아이들 보러 처음 들어간 거. 67년에 나왕 그 이후에 한국 들어간 건 언제 들어갓수과?
게난 나가 아파서 병원에 나대로 걸지 못헤서 헤루빠(ヘルパ)를 쓰게 되면 가야지.
아니 아니, 앞으로 갈 거고. 한국 한번도 안 들어가낫수과?
아니 갔다 완. 작년에도 갔다와서.
그니까 그니까 등록 얻엉 처음 한국 들어간 게 언제과?
몰라 그런 건. 등록 나오니까 갔다 왔지.
그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고?
멧 살인지는 잘 모르지. 그때가 한 오십 멧 살인가.
오십 멧 살에. 오십 멧 살이면 한 십 멧 년은 못 갔다에, 한국에?
오십 멧 살에 갔다와실 가라. 아들 팔 때도 갔다오고. 그때는 자주 가지도 못 헤도 무슨 산 뭐 헤서 간다고 헤 가지고 갈 일이 있으면은 갔지. 등록 뒈면은 가는 거지. 등록 뒈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저 거시기 카도로 헤줘부니깐이. 우리는 저 거세기 엿날 오지 안 허니까 특별 영주권은 아니지만. 후쯔노 도꾸베쯔 도꾸베쯔(ふつの, とくべつ, とくべつ)가 아니고 그냥 저 영주권이라도 또 약헌 것이 있어, 세 가지라. 두 번채 거.
아, 영주권 종류가 세 가지가 잇어?
세 가지. 도꾸베쯔(とくべつ) 옛날부터 왕 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게믄 두 번째 거라에.
두 번째 거. 젤 처음은 엿날부떠 산 사름.
그니까 특별영주권은 옛날부터 산 사람.
옛날부터, 웨정 때부터 산 사람. 일반 거시기 허고 또 영주권 엇인 사름이 있잖아.
영주권 엇인 사람들도 많주마씸, 아직도.
이제는 엇인 사람 없지 않나?
아니 아직도 이신거 닮아.
많이 이신가. 아니 등록 어신 사람이 있나? 이제는 심으레도 안 다니고 옛날엔 그렇게 심으레 다니더라.
심으레 다닙디까? 그냥 이유 없이 심으레 온 건 아니잖아 누게가 밀고나 허난 심으레 오는 거지.

아니지. 안 헤도 그냥 잘도 잘도 그 옛날 우리 올 땐 무서워서 그냥.

무서웡 헤난?

다니질 못 헨. 밀고도 허면 건 물론이지만은 안 헤도 함부로 다니질 못 헤. 어떵 허다가 무신 무신 겐디 밀고도 허는 사름이. 대강 한국 사름이 밀고를 많이 해. 일본 사름은이 자기가 지장이 없으면 일본 사름은 안 헤. 한국 사름은 싸우고대고 뭐 허고 뭐 허면은 그냥 헤 버려. 그러면서도 누가 헌 거를 잘 알지. 일본 사름은 자기네 지장이 없으면은 안 헤. 그리고 이렇게 속에 쿰어도 속엣말을 안 헤. 한국 사름은 바바바바 헤 놓고 싸와 놓고. 일본 사름은 속에 쿰엉 죽어도 헤소쿠리(へそくり)에서 땅 소곱에 다다미 소곱에 단지 소곱에 놔 둬. 안 말허고 죽어, 일본 사름은. 그런 거 뉴스에 나올 때 있잖아. 단지 소곱에 담아 가지고 그냥. 한국 사름은 어려워 가면 그냥 내놓고 쓰고 있잖아 비밀이. 일본 사름한텐 함부로 후쯔노고또(ふつうのこと) 말 못헤. 그냥 쿰어서 자주 말을 안 헤. 우린 바바바바바 허지만은 일본 사름은 안 헤. 우리 동넨 다 일본 사람이야. 경허고 좀 솔직한 말만 허지 보통 거시기로 허면은 주고받고 장난말을 못 헤, 일본 사름은. 경허고 곧는 말만 딱 허고. 그리고 죽으면은 똑 그걸 갚아야 허고. 많이 주면은 게난 일본 사람은 주어도 쪼끔 주어야 맛을 안다고.

게난예 그럼 여기 왕 일본 왕 먹는 거는 어떤 거 헹 먹어낫수과?

먹는 거는 어떻게 해서 먹느냐고?

응, 먹는 거?

아무거나 한국식으로 헤서 사다가 먹지.

사다가? 그냥 장에 강 재료들 사당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어.

부엌 같은 게 따로 엇어낫잖아예?

부엌에 따로 헷어. 난 나대로 해먹지. 혼자니까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집에서 얼마 안 먹잖아이.

게난 고향서 먹어난 거 막 먹고 싶은 거 그리운 것들 엇어낫수과?

아이고, 이디 조선이찌바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잇어.

지금이야 다 있지만은 옛날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야 그렇게도 못 헷지. 등록 엇이니까 저기 그 거시기 가도망(かどもん) 사거든이. 가도망(かどもん)만 사도 순경인 줄 알앗어.

고우방(こうばん)을 가도망(かどもん)이렌 허는 거?

가도망은 이제 이렇게 직허는 사름을 순경 같으잖아 옛날에는. 그런 사름만 봐도 무서워서. 우린 딱 심한 때 와나니깐 그 옛날이니까. 해방 뒈서 얼마 안 허니까.

게난 여기서 지내멍 제주서 먹어난 거 막 그리운 것들 엇어난?

그리운 것도 없어. 여기 것이 더 뭐 허니까 뭐 제주도 거. 제주도 거 별다른 것도 없고. 난 제주도 갈 때 뭐 헤 가지고도 안 간다. 옛날에는이 커피가 어려워서이 코피 한 하꼬(はこ)썩 헹가면이 이젠 좋아했는데이 말쩨는 그거 헤가니까이 이런 무거운 거 우리 조카들 뭐 허러 헤오느냐고 헤서 커피 하나 안 가지고가 난. 거기 없는 것이 없잖아. 거기서도 난 앗아 오지 말라고 헤. 앗아 올 것도 없어. 옛날 저 서귀포가니까 오분제기, 오분제기 된장국에 여섯 개만 담아 오니까 그것만 스끼데 오이시까따와(すきで おいしかったわ). 오분제기 된장찌개. 오분제기, 그 전복 쪼끌락한 것이 여섯 개가 들었더라이. 그걸 처음으로 먹은 거. 여기는 그런 된장찌개 해 달라 허믄이 아사리 한 서너 개쯤 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서귀포 사니깐이 나 가면은 그 갯깃이 금방이라. 그거 허고 자리회가 스끼다네(すきだね). 서귀포 자리회가 스끼(すき).

여기 왕 처음 일할 때 하리꼬 일할 때 그건 누게가 소개시켜 준 거?

이 동네에서게 아이들 밀항으로 온 사름들이 있으니까들 다 같은 동네사름들도 하고 같은 아는 사름들도 하고게. 어디 일헴젠 허믄 그런 걸로 알고 허지게. 누게가 시켜주나게. 같은 고향 사름들. 또 같은 고향 사람이 오야지(おやじ) 허면은 그런 데서 일허고. 그디 숨으러 왐덴 허면은 도망, 고불락 허고. 하하. 벤소 가서 숨엇다가 어디 가서 숨엇다가 오지도 말라고 헤서 저리도 가라고 허고. 곧 등록 없는 때는 우린 그러지. 앞에 집이도 뭐 허는데이 새벽에 와. 문을 잠가 버렸어 없는 아이가 둘이 헷어. 우리 고향아이가. 아침에가 그냥 형사가 다니니까이 그 이층에서이 이짝허고 이짝이니까 뭐렌 말 못허고이 오지 말렌 허는 거라. 게니까 제기 올라 갈라 하니까 문을 잠갔더라. 게니까 이제 이층 문을 열어가지고이 그 이층더레 숨으러 갈라 허니까 가이도 날 잡아 제껴불고 또 가이 가면 나가 먼저 올라갈려고.

먼저 도망가젠?

잊어불도 안 허여. 도망가젠. 이층더러 올라갈라고 날 팍하게 뗑겨 두고 가이가 올라강 가이 딱 올라가젠 허면 나가 딱 당겨두고 올라가. 그디서가 영 영 영 영 허는 거야 그 집에서가. 형사가 다니고 있다고. 제기 들어가라 허는 거지.

그니까 신호를 주는 거라예?

빨리 들어가라고 허는 거지. 그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위험헤나서 그때는. 벤조(べんじょ)가서 다 곱고. 밀고도 들어가는 수도 있고, 질에서도 허다가 나쁜 일 허면은 뭐 허면은 그렇게. 이제는 예상이야, 이제는 예상이라도 요번에 작년에, 우리 집 아래가 빌려주는디 이제 유학을 왔다가 아는 아이가 소개를 허는디 유학을 와서 그만두고 여기서 결혼이라도 헐려고 헌 거 아니가 그만두니까 이제 밀항이 뒈거든 안 가부니까. 건디 친언니가 그 방을 빌렷다 허니까 빌려 줄라 허는디 이제는 경 잡으러 다니는 것이 없어. 워낙, 그때는 여행도 못 오잖아. 나가 이제 그때는, 야

거시기 개를, 고넹이를 길른다고. 근디 그 옆에 사름이 우리 앞에는 집 안 짓어가지고 풀이 이만이야. 근데 고양이가 다니니까 그냥 막 물을 뿌리고 약을 뿌리고 막 헤. 옆에 집에. 겐디 그 옆에 방에 우리 집은 옆이지. 겐디 등록이 없다 허니 깐이 고양이 끼리는 앵 앵 앵 앵 허면은 소곱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고양일 싫어허는데 밀고라도 헤불까 싶어서이. 없다고 헤시믄 도우도우또(とうとうと) 헌디 장판 긁으민 다 헤 준다고 헤도 암만 생각헤도 등록이 없다 허니까 그걸로 안 뒈겟다고. 그것이 위험허잖아게. 말 안 들어가면 고양이끼리 그 사람은 고양이 싫어서 막 약뿌리고 다 허는데 앞에는 풀 있고게 고양이 다녀가니까 싫어서 막 약 뿌리고 허는디 앞에는 풀 잇고게. 고양이 다니니까 싫어허는디 고양이끼리 앵 앵 앵 앵 허면 그 사람은 이거 어떵 허난 이디 말 안 들엄시니, 고양이 길룀젠 헹 경찰에 보고헤 불면 어떻게 하나게. 그것이 위험헤 가지고이 말을 못 허더라. 못 빌려주더라 기냥. 아무래도 안 뒈겟다고 가진 것만 있으믄 문제가 아닌디 그니까 그것이 위험허다고 말이지. 위험헤서. 등록 엇일 때 그 할머니가 살려줘서 헤도이 그렇게 좋은 할머니가 벨로 엇서. 좋은 할머니 경 길루어 가지고이. 아유 등록엇어도 잘도 잘도 좋은 할머니더라. 경허니까 동네사름이 병원에 가면 니 어떻게 살아서 딸 말은 안 허고 니 말만 헌다고 나보고 돈ᄁᆞ지 공장 찰리니까. 그때는 등록이 될 때지만은 공장 찰리니까 돈, 이자가 비싼 돈 허지말고 딸 조금썩 준 돈 가져다가 원전만 달라고.

얼마나 고마울 거과?

그렇게. 고마와도 공장이 잘 되면 허지만은 못 물면은 너무나 많이 고마와서 그 돈을 못 씨겟더라. 그렇게 말 헤도 못 쓰더라. 막 그렇게 고마워서. 지금도 생각을 헤서 기도를 헤. 영혼을 하늘 나라로 안식헤 달라고 지금도 기도를 헤 나는. 건디 교회도 다니는 거 보면은 교회 교부금 내는 것도 안 좋아허는 사름도 많고 그렇게 허는디 나는 그렇게 못 헤. 십일조를 떼서 나는 그거를 나를 위해서 허는 것이 아니고 자식. 우리 **에서 일 년에 한번 통지가 와서 백일기도를 허는데 통지가 와. 겐디 돈 천 원 헤 가지고 우체국으로 걸 이름을 써서 붙여 누구 기도를 헤 달라고. 허면 아들허고 손지만 부치믄 한 번 멧 년 전이 나가 거기 갔는데 난 어디 아픈 데도 없느냐고 나 이름 없다고. 아들허고 손지만 이름 써서 자꾸 보내니까이. 한 멧 년 매해에 오거든. 그러니까 난 어디 아픈 데 없느냐고 듣는 거야. 나 이름을 안 쓰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들 마음이 다 그거 아니과?

응, 아무 것도 없는 아들 우리 아들이 성공된 것이 첨, 누웡 잘 때 방 하나도, 놈의 발에 강 눕는 디도 못 누웡 잔 아이가 성공을 헷어.

2. 임순애

1941년생, 서귀포시 하예동 출신, 1958년 밀항

몇 살에 일본 왓수과?

열일곱 설에 왓주게. 열일곱 설에 오난 올리 저 이른일곱이난 거저 육십 년 뒛주만은. 나 온 후제 결혼헨 난 조케가 쉰 우답인가 쉰 아홉인가주게. 우리 큰 아덜이 올리 쉰다섯. 살아보난 어린 때 생각을, 요즘은 일 안 헤영 집이 ᄀᆞ만이 앚으니까 그 생각을 나.

열일곱에 여기 오기 전인 어디 살앗수과?

제주도. 연리엔 헌 디 살앗주게. 난드르엔 헌 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뭐 잇수과? 거기서?

거기서 기억 나는 건 아버진 사삼사건에 돌아가신디, 그땐 아부지 죽은 중 모르고 막 떡허고 허난 막 좋아헷주게. 분시 몰르니까 겐디 어느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션. 아버지가 나 어린 때에 멘장이여 구장이여 헤난 거 닮아. 경허난 집이 안 부떤젠.

삼춘이 막둥이과?

아니, 아니, 막둥이 오래비 잇엇저, 나보단 세 설 아래.

형제가 어떵 뒘수과?

다섯 오누인디 젤 큰언닌 이제 살아시민 우든우답 정도 뒈실 거여. 겐디 돌아간 이디서, 일본서. 오빠는 이제 살아시민 우든다섯이야 겐디 돌아갓고. 오래빈 이제 나보다 세설 밑에난에 이른넷 날 건가. 가이도 서른 멧 설 한국서 돌아가고. 작년이, 재작년이 두 번채 언니가 돌아가난 이제 나 ᄒᆞ나뿐이야. 게난 어린 때 살아난 생각이 이젠 문득문득 나.

아부지가 연리 사름인 것과? 어무닌?

난드르, 어머닌 가파도. 게난 가파도나, 난드르도이 동난드르 서난드르 잇주게. 견디 우리 동난드르야. 견디 서난드르 사름덜이 이딘 하. 한디 이디 왕 사는 사름덜은 알아도 거기 신 사름덜은 몰라. 무산고 허민 어린 때 접촉을 안 허니까. 거난 우리 집이 옷상(おっさん)네 조케 하나가 이디 잇저게. 저 미나미다츠미. 삼춘 영 헷수다 정 헷수다. 나 하나토 몰르메. 지금 사름덜 ᄀᆞᆯ으난. 기자 기냐 기냐 허는 거뿐이주. 견디 동 난드르 사름은 이제 어린 아이덜은 모르고 엿날에 사름덜 아는 거주.

난드르 사름덜 여기 많이 왓구나.

동난드르 사름은 하지 안 허다. 서난드르 사름이 하영 왓저.

난드르를 연리엔 헷던 것과?

이젠 하예동엔 뒛젠 헤라. 하동은 엇주게. 이젠 중문면도 엇고. 옛날엔 중문면이

잇어신디 지금은 중문면도 엇고 헌디 서귀포시로 다 뒈불언. 우리 큰아덜이 호적, 엿날 호적부터 쭉 불런 보난에 그 나라에 일헌 사름이 잇더렌. 겐디 나신더렌 안 골아라. 지 ᄉᆞ춘안티 어머니네 집이 웃대에 그 나라일 헌 사름이 잇덴. 누겐고 난 헤도 난 몰라. 겨난 이녁 ᄇᆞ딘 친척덜은 알주만은 어젓게 그젓게 어디 먹으레 ᄋᆞᆫ디 우리 친척 아이 장서허염저. 어느 날 가난에 삼춘 한국더레 전화헴수다 허멍 헌디 어린 때 ᄀᆞ찌 생이 잡아다 줘 먹어난 어른신디 전화헌 거야. 하하하. 야 죽지 안 헹 사난 전화로 말 통해졈저이 허멍 말헹 웃엇주게.

게난 삼춘도 생이 잡아먹고 어린 때 제주도에서 잇어난 일 기억나는 거 잇수과?

기억나는 거이. 어머니가 물질을 잘 헷어. 가파도서 낭 크니까. 물질도 잘 허고 옛날에 어머니가 해녀 회장, 부인 회장 오십 년인가 멧 년인가 헷젠 헌다. 난 학실히 모른디 들으난. 어무니가 그 시절에 전복 잡는, 전복 물리는 바당에서 잡아오민 집이서덜 물류왓어. 물류민이 그걸 매일 널어야 허여. 소금 짜게 허영이 메칠을 소금 헌 거 확실히 모른디 사흘산디 일주일산디 소금 헷당이 그걸 이제이 그 전복을 시쳐 깨껏이이. 거 전복 바우에 검은 거 잇지 안 허느냐. 걸 무시걸로 독독 돌에 두들령 거레 다 벳겨야 헤여 헤영케. 거 검은 거 하나라도 이시민 물건이 풀지 못허주게. 안쪽에 가삭가삭헌 바우 잇잖아 그거. 그거 돌에 톡톡 겐 널어. 널민 뭐 커 메칠 널어신디 모른디 또 솖곡 솖곡 세 번을 솖아. 겡헤영 물리민 돌 닮앙 쾅쾅헤. 겐디 걸 어디 푼딘 몰라. ᄑᆞ난 아메도 쭉 그걸 헷주게.

그럼 전복을 아예 바짝 물령 풀앗던 거라?

게난 거 중국 요리에 들어간덴 허더라. 글후제 큰 후제 들으난. 거 물류와근에 놔두민 전복은 난 모르는디 그 거펑을 엿 장시가 받으레 와. 겐디 그 거펑 껍데기도 존 건 뭐 허는 디서 사가부는 거야. 겐 파치 골령 내불민 엿장시 오민 그거 흔 하꼬(はこ) 주민 엿이 막 주는 거야. 어린 때. 하하하.

그 전복 물릴 때 그 전복 뚜껑 다 따 가지고?

따 가지고 소금 허는 거야. 게난 그 게웃 잇잖아. 그건 일 년 내낭 그 게웃젓은 집이 잇어. 그 전복을 물리, 게웃 뜯어근에 물리는 따문. 어무닌 경헤영 농서허고 물질허고 그거 헷어. 게난 그런 것은 지금 생각헤 보난 어무니가 그런 장서를 허난 어려운 것이 하난토 엇어낫주게. 어린 적에.

게난 잘 살기 헷수다예, 아부지 엇어도예?

아부지 엇어도 어무니가 물질 잘허고 모든 거 못허는 거 엇이난. 국회의원 선거, 엿날에 현○○이네 선거 어무니가 다 헤실 걸. 그런 거. 게난 선거 때 뒈도 우리 집이 어려운 것이 하나토 엇어. 뭐 비누 ᄀᆞ튼 거, 고무신 ᄀᆞ튼 거, 수건 ᄀᆞ튼 거 막 어질렁 데며 놩. 그런 시절이 잇엇주. 게난 촌에서 어무닌 밑에서 산 것이 젤로 행복헌 거야. 나완 보난 그것이 아닌디 이 고생허멍 무사 살아져신고. 아이고. 경

헌디 곳사 어른도, 그 어른도 이디 왕 고생허궈렌 헤도이 그 어른넨 잘도 돌아뎅기멍 잘도 놀멍 살앗저. 난 어디 온천도 흔 번 안 가 봣저. 온천 흔 번 갈 거민 어떵 헤영 아이덜이영 살아갈 생각을 허니까이 그런 여유가 엇엇어. 대신 아이덜은 착허고 또 지네 먹을 건 어떵 어떵 먹어 가니까 게난 이디서난 친구 하나가 네상(ねえさん) 고생헌 값으로 아이덜이 살아가니까 이제랑 안심 헙서 헤도 이녁이 d 외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나는 거야.

무사 외로웁니까게? 집에 혼자 이시난?

집인 누게가 ᄒᆞ루에 흔 번이라도 안 오진 안 헌다. 경헌디이 어딘가 몰르게. 겐디 병이, 이 냉병을 얻어 노니까 다리, 발이 칭칭 ᄲᆞ아.

미싱일 헤낫수과?

아니. 쯔가켄(つっかけ) 헤도이 흔 스무흔 설부터 시작허연이, 스물흔 설부터 마흔ᄋᆞ덥꺼지 헷저. 경헨 이젠 가방 프라찌꾸(プラチック) 허켄 헨에 프라찌꾸(プラチック) 출련 험 시작허난 것도 이디서 자전거로 ᄉᆞ십분 정도 가는 디 이십 년 뎅겻저. 매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자전거로 사십 분. 젊은 아이덜은이 십오 분에 간다만은 난이 삼십 분 사십 분 걸리느녜.

어디?

히가시오사카. 경허난 그디ᄁᆞ장 비가 오고 눈이 오고이 공장을 험 시작허난 아무래도 아이덜 허여건에 성공헹 밥이라도 먹게 허주 생각허민이 붉아가민, 아멩 못 젼뎌도 붉아가민 진통제라도 줴여근에 공장더레 둘아. 스물네 시간 돌리니까. 월요일날 아침부터 일요일날 아침까지 돌려. 지금도 경허여. 게난 메느리가 작년부터 맡앙, 이젠 나 엇이난 자기 혼자가 헤살 거, 나 허는 일을. 게난 일허멍 나 생각이 난덴. 이 못 젼디멍 어떵 일 헤신고 경 생각헤노렌 허난 게난 이제 알아주는 사름도 잇구나 허연. 이젠 저 아기 난 아방이 들어강 헴저. 손지가. 경헤도 욕심 잇엉이 손지도.

게난 아덜이 아부지 허는 일 물려 받앙 허는 거구나.

우리 집 아방 헐 충 몰를고이 한국서 커 놓난 그자 출립만 허민 뒈카부덴 헌 거라. 게난 아방 헌 건 뒈지 안 헤서. 안 뒈고. 겐 공장 빌언 허단에 집세가 너미 아까우난 아덜이 당장 공장을 짓엇어. 짓언에 이제 거저 십 년 뒘저.

아덜이 잘 뒛구나.

이젠 어떵 어떵 헤영, 헤영 그자 큰손지가 곧나. 이 정도로 밥은 먹어 갑니덴. 큰손지. 큰손진 병원에 강 일헤 불엄주게. 학교 졸업헨. 가인 그디 하나토 생각 안 허영. 족은손지가 성 공장 반 도렌 안 헙니까? 안 헌다. 하하. 욕심은 잇언. 거난 족은아덜이 잘 뒘저. 놈의 회사일 헴주만은이 그디 강 사장 못 허는 거 족은아덜 다 허니까. 경허난 족은아덜네가 탄탄허주. 메누리도 일본아이가 ᄋᆞ망지고.

게난 무사, 뭐가 외로울 거라마씨? 친구덜 잇고 아이덜 다 여기 잇고.

속엣말 허는 친구가 다 엇어. ᄆᆞ숩나 이딧 사름덜. 게난 동경 친구 하나가, 간 친구 하나가 잇주게. 게난 전화다인 이거 정헹 돈 나온다. 일본 전국에 암만 전화헤고 경허난 그디 친구영 일주일에 ᄒᆞᆫ 번씩 전화헤영 말 ᄀᆞᆫ주게 이말, 저말. 이 만이 ᄀᆞᆯ앙 놔 두민 이 만이 벌겨지고. 경허난 ᄒᆞᆫ 번은 이딧 어른 왕 영 영 ᄀᆞᆫ건대 게메양 뭘 헹 놔두난 그 사름이 그 사름말은 허지도 안 헷주게. 겐디 그 사름이 어디 강 돈 엇인 사름인디 민세 타는디 그 ᄆᆞ녀 느 그 어른 왓걸랑 고사리 줘 줍센 헌 어른. 그 어른 자꾸 뎅긴다. 경헌디 그 어른 뭐 삼시난 돈 엇인디 조그만이 삽서 헌 셍이라. 경허난 그 어른 나신디 왕 돈 만 원 꿔 가지난나 경 ᄀᆞᆯ앗젠 허는 거라. 네상(ねえさん) 나 네상(ねえさん)안티 돈 만 원 못 받아도 준 이상에 말 허지 안 허쿠덴. 경헌디 무사 경 생각헴수과? 겡 글후제 ᄒᆞ꼼 이상헌디 요새사 풀어졋저. 요자기 완에.

아파나신디 아픈 건 괜찮고마씨?

다리 아파나신디 다리 절엉이 휠체어 탕 돌아다닌다. 게도 ᄀᆞ만인 안 헌다.

게니까 ᄀᆞ만이 있을 성격이 아니시잖아예?

으. 막 돌아다닌다. 겐 그 깡도 그 어른이 줏어당 이디 놓는 거라. 그디ᄁᆞ진 앗아 가진 안 허고 우리 집이 놓느녜. 그 어른이 놈 말은 안 헌다 경 돌아뎅겨도. 건디 딴 사름 ᄆᆞᄉᆞ와. 그 어른안티도 이젠 나가 하 가니까 실수가 잇어 부는 따문. 겨난 언니 이신 때 ᄒᆞᆫ 번썩 전화헹 영 허곡 정 허곡 헹 말 ᄀᆞᆯ아신디 지금은 제주도 전화헤도. 자꾸 전화허는 친구 ᄒᆞ나가 잇주. 그 우리 동네에. 자꾸 전화헤 가민 돈 하영 들엄시메 전화 조그마니 헙서 허멍 못 허게 헤여. 게도 멩질 넘은 후제 아니헤 가난 ᄒᆞᆫ 번 헤살 걸. 허단 내불엇주마는. 살아온 것이. 올케도 여기 하나 잇어. 겐디 올케허고이 맞질 안 허여. 겐디 조카덜은 맞아. 오빠 똘덜은. 경헌디 원 오빠 똘덜은 맞아도이 젊은 아이덜이 바쁘니까 말허젠 경 앚앙 놀아지느냐. 경허고 무신 일 잇어도, 그자 영영 헷젠 ᄀᆞᆯ아둬 그냥 나와 불주. 무사 놀당 갑서 허민 느네 바쁜디 허멍 그냥 와 불주. 가지지 안 헌다. 아덜네 집이도 안 가는디. 아덜네 집이도 미나미다츠미난 가젠 허민 가주만은 안 가진다. 가민 메누리라도 뭐 성가셩 허카부덴 일절 안 가져.

메누리는 일본 메누리과?

저 큰메누린 부산. 저 족은메누린 일본 메누리. 겐디 족은메누리가이 삭삭허영 좋나. 준셈도 잇고. 와근에 제서 때에 왕 가멍이 영 봉 간다. 겐 다음엔 요거 엇구나 허민 똑 사온다. 비싼 거 아니라도 똑 사온다. 올 땐 이거 고베서만 만들암수다 헹 빵도 상이. 그냥 오지 안 헌다. 경허고 족은아덜은 아기가 엇이난. 아기 엇다. 메누리가 아길 못 낳게 뒈 불어서. 게난 아덜이 왕 메누리 앞이서랑 아기 말 허지 맙서 허난 나도 일절 안 헌다. 전인 아기 하나 돌아당 키우켄 헤라만은 ᄀᆞᆯ앗

저, 놈의 아기 키웁는 것이 쉽지 안 헌 일이여. 경허난 잘 생각허라 허난 글후젠 곧지 안 허여. 견디 맞벌이 헤 노난 펜안허주게. 족은아덜도 월급 하고 메누리가 월급 하주. 좋은 직장. 대학 나왕 그냥 들어간디 이거 이십 년 이상 허는 거 아니. 게난 젤, 지냥으로 오래허는 사름이엔 골아. 결혼헹 다 설러 부는 사름 이신디 아기 엇고 허난 계속 다념주게. 친정에도 아버지 하나 잇어도 연금으로 사니까 도와줄 필요 엇고.

삼춘은 연금 나와마씨?

안 나와. 아이덜 주는 돈으로 살암주. 걱정 엇나. 큰아덜은 틈틈이 주고 족은아덜은 기정헹 십만 원 매덜 보낸다. 게난 살아가는 것은 걱정 엇나. 어디 강 막 팡팡 쓰지나 안 허난. 크게 아픈 것 엇인디. 경허난 나냥으로 운동 헤 봣당 뭐 헷당. 요디 운동도 뎅겸시녜. 근디 요새 병원에서 가지 말렌 허난, 언 때랑 가지 말렌 허난.

추울 때, 추울 땐 혈압도 조심해야 뒈마씨.

게난 먹는 것은 뭐헤도이 놀레도 가게 뭐 헌다만은 훤엇이 안 가진다. 아이덜 못 젼디게. 이녁 헤준 건 뭐 허주만은 메누리 왕 밥 먹으레도 가고 헙서 허주만은 어떵허당. 저 어른 막 먹으레 가는 거 좋아허는 어른이야. 돈은 신디 엇인디 몰라도. 경헌디 손지덜이 저 집인 하영덜 와. 똘에 손지, 아덜에 손지 담아 들엉덜. 넘어가는 사름, 넘어오는 사름 다 들긴 든다만은 그자. 경허고 나도 시간 이시민 요디 신발허는디 일본 사름네 집이 매날, 오늘도 간에 낮에 두 시간 놀단 왓저. 강 일도 ᄒᆞ꼼 도와주곡. 경허민 또 심심풀이 헤 두민 지네도 또 유달른 거 헹 먹어지민 앗아 오고. 선물 받은 거 이시민 앗아 오고 헌다. 어제, 어저께도 일본 새일절 드는 날이난 그 김밥 먹는 날이난. 게난 어제 만들앙 하나 앗아오난 어제 낮에 먹언. 경헌디 그거 이백 년 뒛젠 헤냐 경 엿날부떠 아닌 거엔. 어제 곧는 거 보난. 그 김 만드는 사름덜이 김을 풀젠 허민 어떵 허는 그 시작으로 그 김밥을 만들엇덴 경 허더라고. 겐 어젠 일본 사름덜은 김밥 먹는 날. 오널은 한국 사름덜이 오전인 놈의 집이 가민 안 뒌덴 헹 옛날에 말 들어신디.

삼춘 어렷을 때 그런 거 엇엇수과?

무사 엇어게 잇엇주게. 잇엇주만은 어린 때난 그걸 어디 깁골령 가신디 말아신디 학교도 가렌 허민 실펑 안 가신디 뭐. 요디 아는 어른도 완에 저 오널은 오전이, 오전이 놈의 집이 가민 안 뒌덴. 경헨 어린 때 들어난 말이로구나 생각헤신디. 이디선 그런 거 안 헌다만은 가기 실프난 오후에 가시난에 이제도록 뭐 헷어 허멍 오늘 새일절 드는 날이난 오전인 아니 왓습니다 골아부난 일본 사름이 그런 식도 잇녠 허난 그런 식 한국은 잇덴 골으난 남펜이 우리 저끗디 사람이주게, 중문리 사름. 서방 죽어 불어도 한국서 온 사름 하영 접촉헤나난 골으민 기다 허여. 딴 아이덜은 골아도이 그런 거 무시거라 듣지도 안 헌다.

게난 고향서 학교도 다닌 거?

우리 난드르엔 헌 동네는 학교가 엇엇주게. 째끄만 헌 삼백 가호 정도라, 이젠 얼마나 신디 그 시절엔이.

동난드르, 서난드르 다 합쳥?

아니, 서난드른 학교가 잇어서. 겐디 동난드르선 그 서난드르 멘이 뚠나니까 학굘 못 가.

게민 난드르가 동난드르는 중문면?

으, 서난드르는 안덕면. 겨니까 우린 연리엔 헌 디 학교 가사헤. 견디 그 밧ᄀᆞ튼 디 소낭밧 ᄀᆞ튼 디 에염에 이신 질로 넘어가사주게. 견디 엿날에 무사 경 밤이 어두워사 집이 와신디 몰라. 학교서. 경허민 그 배에, 배에 바당에 간 것이 소낭 트멍으로 불이 봐지는 거라. 반짝반짝허영. 게민 귀신 나왓저 허연 가도 오도 못 헤서. ᄆᆞᄉᆞ 왕. 경헨 헴시민 어무니네가 너미 늦어 감시민 춪아근에 나오주게. 이제서라 그 소낭 트멍에 배덜이 넘어가멍 반짝반짝헌 걸 귀신 나왓젠 허멍 벌벌 턴 거야?

벗 엇엉 혼자?

벗 잇어주게 둘리. 둘리가 다 벌벌 터는 거야. 학교가 멀어 놓고이 겨고 나 학교 뎅길 때 우리 동네 아이덜 멧 개 안 갓저. 남자덜도 우리 동네서이 세 사름가 네 사름 갓저. 나 또래 중에서. 여자도 네 명 가신디이 우리 언니 엿날에 간 때 나영 같이 학교 뎅긴 아이 션. 자이도라. 자이영 곧지 말라. 무사? 나보단 세 살 우에. 다 느보단 우이난 자이, 자이 허지 말라고. 기. 남자도 ᄒᆞ나 이신난, 그 사름 나보다 우이엔. 는 그냥 학교갈 시절에 가신디 그 사름덜은 멧 설 지낭 간. 겐디 그 사름덜이 다 졸업을 못 헤어. 중간에 다 그만 둰. 겐디 중학교 중문리 가사헤서. 중문리ᄁᆞ장 가는디.

중학교도 졸업헌 거?

중학교 시험을 치뤗어. 견디 안 갓주게. 나만 어떵 그디 가느니?

어머니 대단허다예. 혼자 아이덜 키우멍 학교도 보내고?

어머니가 공분 시켜사 헌데 헤서, 자기가 글 모르니까 그런 해녀 회장 거튼 거 뭐 헤도, 머리는 영리헤도 글을 못 쓰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전복 받는 것도 나가 다 문세 헷저. 소학교 뎅겨시난 그 글 뒈여신가 생각허여진다만은. 그거 나가 허영 그 할머니덜안티 돈을 줘사. 전복 동넷할망덜 거 다 사가지고 물령 ᄑᆞ는 거야.

그민 그 손질은 누가 헌 거라?

어무니도 허고 나도 허고. 그 틔는 건 나가 못 허니까 어무니가 허주만은 그 영 소지 허는 건. 도와도 난 잘 못허여. 게도 어무니가 두불 허주게. 겐 데왕 널어근에 그 대로 헤진 것에 널엉헌 디 누게 완에 줏어가나 허카부덴 지키긴 헤야 뒈주. 겐디 전복을 수술헌 사름 먹으민 안 뒌다 허는 거 이젠 생각헤 보민 전복 잡으멍 어디 찔러벤 기스 난 거야. 그거는 물릴수록 헤싸져 불어. 게민 그건 죽 쒕 먹어 불어

사. 건 물리지 못허여. 오래 물려가민 그런 디 썩어 불어 여름에. 경허난에 지금 수술헤여근에 헌 사름은 거 먹지 말라 허는 것이 그 병이 돋아지는 건가 생각을 헤져. 전복이 그런 뭣이 이신거 닮아. 게난 어무니는 공부허렌 헤신디 나가 허지 안 헤서. 오래빈 말 안 들엉,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꺼장 나와실 거라 오래비. 큰오빠도 중학교 나완에 일본 완에 고등학교 졸업 안 헤실 거라. 고등학교 중퇴헤실 거라. 대마도서 누님덜이 돈 보내줘도 오사카 살젠 허난 부족헤렌. 겐에 돈 안 보내도 좋니까 일허켄 헨 일 시작헨. 공장에 들어가도 아무도 안 써 줘렌. 한국서 일도 안 헤 보난 아이가 일 못 헌덴 아무도 안 써주난 일본 집이 들어간 허엿젠. 일본 집이 들어강 옷 다리는 일. 그거 일 년인가 이 년 허난에 그만이민 일 허여지켄 헨에 공장에 들어간 일허궈렌. 아이덜 이디 사는 거 보민 아 이디 살아도 좋주 헷주만은 나 외롭는 거 생각허민 아이구 한국 가시민 외롭지 안 허컬 생각허여지고 기자. 헤진다만은 이제사 무슨 그것 저것 생각헤영 뭐 허느니. 앞아시민 족은아덜, 족은아덜은 자꾸 전화 온다. 영 헙서, 정 헙서. 겐디 큰아덜은 지 살젠 허난 버치는 거 아니. 손지덜 저 도랑도랑 잇어 놓고 살림이 버쳠주. 돈도 연말에 온디 돈 족영 앗앙 오궈렌 헨게. 돈 안 줘도 좋다. 헌디 내베뒁 가난.
학교 뎅길 때 아버지 상 놩 이신 거 닮아. 학실헌 건 몰라도. 겨난 결국은 아버지 죽어 부난 일본 오게 뒛주게. 오빠도 경헹 오고. 오빠는 군인 보내지 말젠 헨 보냇덴 헤라 우리 어무니가. 일본에 어무니도 흔 번 초청받안 와 갓주게. 그 때에 완에 허는 말이, 오빠는 무사 일본 보냇수과 허난 허는 말이, 막 남자들은 다 심어당 저 경찰이여 뭣이여 헹 죽여가난 아덜 하나 살리젠 일본꺼장 보냇젠. 아덜을 죽지 말앙 살리젠. 남편은 죽어 불엇주만은 보냇덴 경 골아라. 자세헌 건 나도 모른다.

게난 열일곱 설에 온 거라예, 큰언니신디로?

큰언니신디 대마도 왓주, 대마도 완에 그 시절에이, 열일곱 설에 완에 대마도에 삼 년 살앗어. 일본 오단 걸렷잖아, 밀항으로 오단 걸리난에 보석 신청으로 나왓어. 보석 신청으로 언니네 시난 나와신디 한 삼 년 살아가난 한국 돌아가렌 허는 거라. 경헌디 그 입관 사름덜이, 또 대마도에는 여라 사름 잇지 안 허고 두 사름 잇어라. 게민 그 때도 두 덜에 흔 번산디 그디 강 서류 바꾸레 뎅겻주게. 겐디 그 어디 사모님이 게도 짜는 선생이라. 게난 큰언니가 한국 가민 농서허지 말앙 먹어지게끔 자기 직장으로서 게도 짜는 걸 배우렌 그디 강 배왓주게. 배우는디 그 기계영 다 사주난 뎅겨신디 그 관리청 사름이 한국 가지 말렌 허는 거라. 무사닌 허난 대마도 살믄 둘아가라 허니까 대판꺼장 가는 그 뭣을 끈어 줄 테니까 대판 강 둘아나불렌 허는 거라. 무사녠 허니까 그 사름도 엿날에 서울 강 살앗덴 엿날에. 게난 한국보단 일본이 살기 좋난 일본서 둘아나렌. 경헤영, 경헤영 이 오사카 와분 거라. 왕 산디 오사카 오난 눈 앞이 캄캄이야 대마도선 언니네 집이 사난 분시 몰르게 살아신디 저냑 배

고판에 ᄒᆞ루에 눈물이 줄줄나. 겡헤도 누구안티 강 밥 줍센도 못 허고.

오사칸 누구 엇어난?

오빠 잇어도이 올케, 집이 왕 보민 밥 다 먹어 불언 엇나. 점심은 일허는 디서 밥을 주니까 먹어신디 저냑에 ᄒᆞᆫ 시간 더 일허믄 우동을 ᄒᆞᆫ 사발 줘. 그 시절에. 겐디 다섯 시ᄁᆞ장은 보통 안 줘. 겐 집이 왕 보민 다 밥 먹어 불어서.

게난 오자마자 일은 헤진 거?

오사카 완 보난 그 무시거 시다바리(したばり) 허는 거난 쯔가껭(つっかけ) 영 담는 거 헷주. 건 헤지는디 ᄒᆞ루에 그때 백 원 받아신가 백오십 원 받아신가 ᄒᆞᆫ 덜 헤도 오천 원 안 뒈. 경허는 디 그 신 부찌는 사름덜은 거자 이만 원 돈을 타가 ᄒᆞᆫ 덜에. 경허난 그디 두 덜 헤신가 허난 그거 안 헤영 신발 부찌는 거 허켄 헤난 큰오빤 그때 막 풀이 나빠가지고 사름덜 막 죽고 헷주게. 냄새에. 겐 반대헤도 먹고 살젠 허믄 자기대로 벌어야 허주 안 뒈켄 헨에. 헤봐도 언니네신디 누게 삼춘 하나가 대마도서 오사카에 왓어. 아이구, 그 삼춘 보난 막 설러왕 막 울어지는 거야. 겨난 무사닌 허난에 어디 방 빌엉 가젠 헤도 돈도 엇고. 경헨 ᄒᆞᆫ 열흘 시난에 대마도에서 돈을 보내 왓어. 돈 삼만 원을 보내왓더라고. 게난 그거 삼만 원으로 방 빌언에 냄비도 사고 뭣도 허연에 그 삼춘허고 둘리 살앗주게. 겨난 쳇 번 ᄒᆞᆫ 덜 허난 돈 팔천 원 벌어신가. 아, 이번 졸바로 허지 못 허연 처음이니까. 견디 일 헹 가는 것이 둘베낀 못 베리는 거라. 낮인 집이 갈 수가 엇어. 아침이 강 밤이 겐 둘만 베려지멍 울어지는 거야. 무사 오사카에 와져신고. 그때에 한국 갈 수도 엇어. ᄌᆞ수허민 어떵헹 가. 경허난 가도 오도 못 헌 거야 이제. 대마도서 형부가 가렌 헐 때 가부컬 그 생각이 나젼에. 경헤도 헐 수 엇이 이제 어떵어떵 허니까 신발 허는 거 배완. 배완 ᄒᆞᆫ 일, 이 년 헤신가 헤연 아방허고 결혼헷주게. 무사 그때 결혼도 안 헷주만은 외로와서. 아파또(アパート)에 혼자 살고.

41년생이난 58년도 대마도 온 거우다예. 게난 대마도에서 삼 년은 살고 이디 오사카에 온 거라.

게난 막 그때 생각허민, 이제 생각허민 외로운 거야. 아파또(アパート)에 우리집 옷상(おっさん)도 방 하나 빌엉 사니까. 아파또(アパート)에 한국서 온 사름덜은 다 사니까. 할무니덜도 사니까. 겐 말 곧고 무시거 허민 서로 서로 그자 의지헨 살카 헌 생각이 들엇어. 게난 생활이 완전히 곤란헷주 그때부터. 경헌디이 그 시절엔이 이제도 경헌디 등록 엇인 사름은 놈 앞이 강 말도 못 곧아. 곱앙만 뎅겨사 허난. 벤소에 갈 때도 아파또 살 땐 아기 업엉 갓어. 문 올앙 내불민 사름 지나가단 문 올앙 들어오민 곤란허니까 문 좀강 벤소에 갈 수 엇이난. 빨래허레 갈 때도 업엉 빨래허고 업엉 벤소에도 갓어.

감긴이 우리 큰언니산디가 느 전복 하영 먹어부난 저 건강헴저만은 허는디, 감기 걸려도이 ᄒᆞ꼼 허민 ᄂᆞ려가분다. 열 나는 것은 아 헌다. 다다(ただ) 이 다리 아픈 거이 그것이 확확 걸어다니지 못 허는 것이. 운동 다니고 자전거 탕이 ᄒᆞᆫ 바퀴 돌아. 그냥은 못 돌아뎅기난. 경헌디 올리인 일로 아래 실롼게. 무산고 허난 작년이 신발허는 디서 사름 엇이난 ᄒᆞ꼼 헤도렌 허난 두 덜 강 일헷주게. ᄒᆞᆫ 다섯 시간씩은 헌디 그 냉병을 돋아진 거 닮아. 더 실롸.

이거 피 안 통해 부난. 운동해야 피 통해야.

경허난 운동허레 감시녜. 경허난 올리도 헤 도렌 헤도 다 거절헤 불엇저. 이젠 안 허켄 험저. 돈 벌엉 나 새로 살 것도 아니고 아이덜 주는 돈으로 먹을 거 충분허니까 안 허켄 헤근에. 경헤도 ᄒᆞᆫ덜에 만 원 이만 원은 나온다. 간단한 나이쇼꾸(ないしょく)가 잇주게. 그런 거 허민. 오십 년, 오십 년 정도 헌 친구가 하나 잇저. 가이가 이녁냥으로 일허난 막 바쁘민 와근에 서너 시간썩 헤도렌 허민 훤 만 원 이만 원.

뭐 허는 거?

그건 쯔가키(つっかけ)엔 허난 그디 기름거치 ᄇᆞᆯ르는 거야. 풀도 ᄇᆞᆯ르고 기름도 ᄇᆞᆯ르고. 거난 이디 앚아둠서 ᄒᆞ꼼씩 허는 거난 친구영 말 ᄀᆞᆯ으멍. 가이도 오십 년 친구난 족은 아덜 낳기 전부터 친구주게. 경허난 아이덜 어린 때 헤난 말 가이영 말 ᄀᆞᆫ당 보민 시간 가는 중 몰르게 가. 견디 ᄒᆞ꼼 멀어부난 오또모쬬주게. 경헤부난 자꾸 안 감주만은 저끗디 거트민 자꾸 가주만은. 오널도 저디 가난 그디 강 놀레 가도 좋을 건디 허권데. 멀어 부난이 일허는 거라도 강 나 도와주켜 허민 미안헐 거난 요새 일 엇어불고 허난 아니 감저. 허난 그것이 좋수다. 또 이디도 안 가민 이 무사 안 왐신고 헌다. ᄒᆞ루에 ᄒᆞᆫ 번이라도 안 가민. 오널도 가난에 ᄒᆞᆫ 시쯤에 가시난 나 가난 졸음 깨엿젠 허멍. 게난 집인 ᄀᆞ만인 안 앚앙 이신다.

뭐 외로울 틈 엇인게.

밤이가 외로와. 줌을 못 자니까? 건디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시작허난 아방이 밤일 허니까 아방 시민 줌 못 자. ᄒᆞᆫ자만 자 나난 버릇 뒈난 건디 이젠 일 안헤가난 밤이 줌을 못 자근에 열두 시에 일어낭 움직거려 봣단에 또 큰소리 퉁 퉁 허민 이디는 사름 안 사난 관계엇인디 이딘 아이덜 잇주게. 밤이 줌 자는디 깨와져 불카부덴. 게도 소소헌 건 못 듣나. 가베 잇어부난 밤이 일어낭 우로우로 허기 실프고 그자. 견디 아침이 경 늦게 줌을 못 잔다. 아멩 늦어도 ᄋᆞ섯 시만 뒈가민 일어낭 요디 왕 앚앙당 이디 왕 앚앗당 그자. 허당 실프민 이디 왕 눳당 테레비 틀어놩 경헤 불엄주. 겐디 이 ᄉᆞ방은 다 여기서 낭 큰 사름덜이난 인사 정도 헤도 경 집이 들어가는 것은 안 헤진다.

예.

게난 아침이, 게난 어제도 족은아덜 친구가 마사지 요디서 일허는, 족은아덜 그디가 근에 이제랑 마사지 헙서 허는디 아침이 커피 먹으레 가는 것도 실프고 또 돈도 아깝고 허난 가고장 안 허는디 아침이 일어낭 우두커니 앚앙 혼자 뭐 먹는 거 보단 그디 강 말 곧고 허민 정신 나난 매날 감저 허난 가이 웃으멍 헌디. 곳사 어른은 아침이 일찍 안 일어나메. 흔번 읏덥 시 반 쯤 전화허난이 일어나지 안 허궈렌. 게난 글후젠 전화 안 헌다. 무신 볼 일 셩 전화헐 때도 늦엉. 아침인 느직이 일어나는 셍이라. 혼자라도. 고히도 집이서 만들앙 먹엉 또 열 시 넘어가민 찻집이 강 고히 먹고 경허는 셍이라. 그 어른도 아기덜이 다, 아기 읏섯 개엔 헤라 이제사 알앙 보난. 똘 하난 돌아간 엇덴. 죽어불엇젠. 수정이 하 노난.

게난 다 친허게 지내는 거로 보여도 다 잘 모르는 거군아?

속꺼정 모른다. 게난 나도 친구 하나 바스도리(バスどうり) 저짝에 사는 이제 흔 오십오 년 동안 친구허는 네상(ねえさん)허고 이디 하나 네상허고 저 구메다쬬 먼디여. 우리 동네 어른 잇저 그 어른이영 흔 번썩 전화로 말 곧아. 그 어른덜은, 네 사름은 어린쩍에부터 일본 왕 헤 온 거 만딱 안다. 겐디 딴 사름은 모른다. 곧을 필요도 엇고. 곧앙 보민 잘못 곧으민 슝 허고. 겨난 어제도 누게 와시난 옛날에 송곳 어무니 빌엉 탄 먹어난 생각이 눈 오민 생각남젠 허난에 경헌 똘이 이디 왕 무사 이 고생 험이과 허권데 걸 알아져. 사름 팔자가. 경 곧앙 웃겨던 가신디 절대 곧지 못헌다. 아이덜 말은 요만이 헌 거 요만씩. 게난 난 아이덜이 뭐 헌 거 일절 안 곧나. 견디 일본은이 민생이 좋으니까 곳사 어른도 민생 타는 거 닮아. 경헤도 일절 안 골아. 누게 말이.

삼춘은 무사 안 돼 대상자가?

아덜덜이 막암시녜게. **끈으켄 헴시녜 아덜덜이. 그거 존 거카 부덴 헴시녠. 어멍 하나 못 멕영 그거. 아덜덜이 허락 허락 안 허민 안 줘시녜. 게난 못 타게 헌다. 펜안허지 그거 타불민 아이덜안티 신경 안 쓰게 먹어가는 건. 거이 먹는 값만 칠만 원 준덴. 병원비도 안 들고 다 허니까.

자식덜 잇고 재산 잇는 사름덜도 어떵 어떵헨 받는 사름이 많읍니게.

많넨. 겐디 건 좋지 안 헌 일이주게. 민생이 존 것이 아니여. 만딱, 게믄 옛날 일본 사름덜은 민생 타믄 ᄌᆞ손이 안 뒌덴 허여. 무산고 허난 만딱 피눈물 나멍 세금 바찐 돈이엔 허멍 일본 사름. 엿날에이 우리집에 왕 일허는 똘이 쯔가께(つっかけ) 일 허난 아방 병이라 젊을 때부터 겐 일을 못헤서. 겐 곤란헤영 월급 타 왕 열흘만 이시민 오바상(おばさん) 돈 얼마 마에** 헤 줍센 허주게. 경허난 나가 또 월급 줄 땐 거 제헹 줘불민 풀쌍허난 아버지 민생 타민 안 뒈느냐 허난 아버지가 아기덜안티 물려줄 거 엇어도 손지덜안티 피헤시키진 안 허켄 허멍 죽을 때까지 안 받앙 죽엇덴 허여. 일본 사름은 안 받는 거라.

언니랑 오라방이 일본 나왕 잇어낫잖아예. 언니는 언제 나와나신디 알아지쿠과?
언니는 사삼사건 끝나난 일본 온 거 아닌가. 언니는 결혼헤서 그때에 그 시절에. 결혼헤신디 언니 남편 뒈는 사름이영 언니 말허는 거 보난 손도 혼 번 안 잡아봥 산에 폭도 잡으레 가렌 허연에 간 오난 뒷날 경찰에서 잡아당 죽여 불엇덴.
신랑을 결혼헌 신랑을?
으, 겨난 언닌 얼굴도 졸바로 몰른덴 허는 거라. 부모덜끼리 뭐 허영 결혼은 헤신디. 게난 결혼헷저 험뿐이주. 남편이영 식은 지내엿주만은 손도 혼 번 안 잡아보 궈렌. 그날, 결혼헌 날 뒷날 아칙이 불러가 부난 결혼헌 날은 옛날은 밤새낭 말곧고 놀고 뭐 허난 얼굴도 졸바로 못 봣덴. 겐디 뒷날 산에 간 왕 집이 오기 전이 경찰에 불러간 죽여벳젠. 그때 나 생각헌 것이 확실히 몰라도 아지방이 돌아가난에 얼마 엇엉 일본 온 거 아닌가 생각허여. 오빤 아부지 죽어 부니까 군인 가민 죽여분덴 헨에 어머니가 일본 보냇젠 허고. 고모덜이 일본에 이시니까. 경 말허더라고. 게난 언니는 그 사삼사건 때 와실 거라. 아버진 사삼사건에 돌아가고. 제주시에 어디 비석 세왕 잇더라. 그디 우리 조케영 제서날 끝난에, 지금 제서 빨리허니까 제서 끝나민 그 비석 세운 디 갓다 오덴 허더라. 이디 조카덜 그디 가민. 아버지가 한국 나이로 서른 아홉에 돌아갓덴 헤라.
삼춘 일곱설 때예?
확실힌 몰라. 단지 그 중문이엔 헌 디서 죽엿젠. 이제 천지연 잇잖아. 그디엔 아부지 돌아가신 디가. 천지연에 그 엿날에 그 중문에 뎅겨나신디 거 천지연 엠에 큰 소낭밧이 잇어낫어. 그디서 죽엿덴, 삼백 명 죽엇젠 헤라. 경허난 엿날에 어린 때 제주도 신 때 그날은 떡 허레 가믄 그 어디가 중문린가 사레 가도 살 수가 엇인덴. 다 식게날 혼날이라부난. 경헌디 요자기도 요샌 제서덜이 학 지내부는디 우리 하르부지 뒈는 사름도 죽여불어서 ᄀᆞ찌. 겐 ᄀᆞ튼 날에 제서가 두 밧디 잇어신가, 세 밧디 잇어신가 학실히 몰르주만. 어린 시절이니까. 겨고 우리 집 엠에서 우리 난드르 이디 ᄀᆞ트민 가이간(会館)이엔 헨에 거 공원거튼 디 잇어낫어. 학교 집거치 잇고. 그디서 사름 죽이는 거 나도 봐서 어린 때. 밧디 넘어가는 디 총소리가 막 들려. 그디서 멧 사름 죽여실 거라. 게난 우리 할머니 아시 아덜 그때에 그 무신 쬬도. 겐 그 할머니가 왕 막 울어서 그때. 그거는 알아져. 게도 그때 죽지는 안 헷어. 그때 안 죽언에 글후제 배 탄 어디 가단에 돌아갓젠 들어서.
새해쯤에랑 비석이랑 헤여보카 헨에.
제주도 강?
아니 아니. 아이덜이 이디 잇어 부난 제주돈 못 간다. 가민 어떵헹 아이덜 가느니. 이디서나 허여보카 허연에 아이덜 헐 때 쪼금 허는 거라도 보태 주젠 올린이 이월, 이월허고 삼월도 친구 또 신발창 허는 친구가 잇저. 그디 간에 두덜 헷저.

그딘이 가도 두 시간 세 시간만 허난 좋딘. 이 친구네 집인 아침 아홉 시에 가민 마(ま), 늦어도 다섯 시 전인 온다만은 네 시에 왓닥 세 시에 왓닥. 오널은 거저 다섯 시꺼장. 오늘 왕 앗아갈 거라부난. 버치건 강 ᄒᆞ꼼 쉬영 옵서 헌다만은 일허단 내불어 뒁 버치덴 헹 왕 쉬어져. 경허난 그자 감 시작허난 ᄒᆞᆫ 열흘 뎅기난 이제 ᄒᆞᆫ 낼부터 사흘 가민 이젠 아니 와도 뒐 거우다 헐 거 아닌가 나만 생각헴저. 일 오는 것이. 사름이, 이 신 부찌는 사름이 이제도록 두 사름만 잇엇주게. 경헌디 ᄒᆞᆫ 열흘 전이서부터 ᄒᆞᆫ 사름이 들어완. 견디 시원치 안 헌ᄀᆞ라 설러 불켄 헴젠 그 사름이. 이번 금요일ᄁᆞ장 허연에 그만 오켄 헴젠. 그 사름 아니 오민 나 헐 일 엇주게. 겨난 아니 와도 좋덴. 모르켜 가지 말렌 헷저 어제 ᄀᆞᆯ아라만은.

게민 그디서 신 부찌는 일이 그게 하리꼬인 거?

하리꼬(はりこ), 하리꼬(はりこ). 나도 그거 엿날 헤 낫저만은이.

게민 하리꼬(はりこ)랑 쓰가케(つっかけ)랑?

ᄀᆞ튼 거주게. 신 만드는 거난.

똑같은 거?

하리꼬(はりこ)엔 헌 거 일본말, 일본 사름덜이 하리(はり)엔 헌 건 부찌는 거를 하리(はり)엔 헌다. 아무거라도 부찌는 걸. 게난 그 부찌는 것이 하리(はり)엔 헤난.

그럼 쓰가케(つっかけ)는?

쓰가케(つっかけ)도 ᄒᆞᆫ 가지.

아, 같은 건데 불르는 이름이 다른 거?

으, 불르는 이름이 ᄠᅳ난 거고. 구쯔(くつ) 부찌는 것도 하리꼬(はりこ)엔 허고 신발 부찌는, 저 쓰가께(つっかけ) 부찌는 사름도 하리꼬(はりこ)엔 헌다. 신발 풀 멕여근에, 그 가따(かた) 짜근에. 나도 이디서 ᄒᆞᆫ 이십 년 헷저게. 이 집이서 헷저. 다른 디 서 허단 집이 놩 헤신디.

그거 부찌젠 허면 기계가 잇어야 허는 거 아니?

기계 잇나. 눌르는 기계가 필요헌다. 겐디 그 기곈이 헐헌다, 경 비싸지 안 헌다. 이젠 ᄒᆞᆫ 백만 원 감신가. 전인 칠십만 원, 육십만 원. 게도 거 문딱 출리젠 허민 백만 원 이상은 든다. 거 다이(だい)도 영 쒜로 헤진 거이. 널르게, 풀이난 저 보로가미(ボロ紙) 부쪙 안 뒈난. 쒜로 헤진디 영 헤여근에. 풀 멕영 허고. 엿날에 한국서 온 사름덜은이 일 헐 건 엇고 돈 날 건 다 그 하리꼴(はりこ) 헷주게. 나도 마찬가지. 옛날에 막 사름덜이 풀이 나빠부난 막 아프고 죽는 사름도 잇어라. 겐 우리 큰오빠 못 허게 헌디 완 보난에. 대마도서 ᄒᆞᆫ 이 년 살앙 오사카 오난이 인심이 너미 박헤 놓난 이녁으로 벌지 안 허민 살 수가 엇어. 견디 그때 ᄒᆞ루에 백오십 원 월급이라라. 처음 온 때.

보통 はりこ 일 허민 그거 개수로 돈 주지 안 헙니까?

게난 처음에 가난 백오십 원 주는디 난 흔 덜에 오천 원베낀 못 벌언. 겐디 하리꼬(はりこ)덜은 이만 원썩 벌어.

아, 게난 삼춘은 하리꼬(はりこ) 헌 게 아니고 시따바리(したばり) 헌 거로구나?

으, 하꼬(はこ)에 담는 거. 경허난 그걸 배우켄 허난 우리 큰오빠 그거 배우민 몸 나빤 죽느녠 헌디, 죽어도 좋으난 그걸 배왕 허켄 헷주게. 견디 그거 배왕 일허영 아기 두 개 킵고 헤엿저게. 게고 이 집도 사는 체 허곡.

이 집은 산 들어온 것과?

으, 이거 산 들어완.

언제?

흔 서른읏답인가 서른아홉에 상 와실 거여.

그 전인 열일곱에 일본 온 거잖아예?

으, 스무 정도꺼장 대마도 살앗주. 겐 오사카 완에 스무 번은 이사헷저. 스무 번은.

남편 만난 것은 언제 만나서?

글후제 흔 스물세설 난 때. 결혼허기 전인 흔 번, 두 번베낀 이사 안 헤신디 아방허고 만난 후에, 아방이 등록이 엇어 부난 아방 순경만 넘어가민 이사허켄 허여. 므슷왕. 하하. 낮이도 이사 안 허영 밤이만. 겨난 결혼헐 때 단스거튼 거 다 사신디이 끗어뎅기지 못허난 슷춘 시아방네 집이 강 머쳔 내분 거야. 살레고 뭣이고 이불도 그땐 더끌 것만. 겐 이 집 완 삼십구 년 살앗저. 게난 이디 왕 이산 안 헷주.

이 집에 이사온 후에 집이서 쓰가케(つっかけ)를 이십 년 허신 거잖아예, 그때서야 쓰가케(つっかけ)를 헌 거?

아니. 그 전인 놈의 집이 강 일허단, 이 집이 오기 전이도 집 빌언 헷주게. 경헌디 이 집이 풀젠 내놓난 친구가 돈 엇어도 이 집 사는 것이 좋수덴 허연. 헤신디 그 시절에 쓰가케(つっかけ) 허는 공장 사장덜도 도와 줘라게. 벤리 엇이 다 돈 내여주고.

아, 벤리 엇이?

으, 그 집이 일덜 헤가난. 일본 사름이라도이. 게고 일본 사름 하난 나 혼자 일 못 허켄 허민 일도 도와주고 흔 번씩. 그 사름덜 다 죽어 불엇주만은.

게민 어쨌든 일본 사름덜이 살려 줘신게, 도와주고?

으게. 어떵헌 게 일본 사름덜이 어떵 어떵 허민 만나민 친허여져. 이제 가는 아이도 나보다 읏섯 설 밑엔가 일곱 설 밑엔가 경헤도 처음 일 뎅기멍 이 기사뗀(喫茶店)에서 흔 번썩 일요일날 고히(コーヒー) 먹어신디, 고히(コーヒー) 혼자만 먹지 말앙 ᄀᆞ찌 먹게 허멍 알아뎅겨신디 이젠이 지 어머니 대신이엔 헌다. 어머니날 꼿도 사 왓어라.

아이구, 이거 아덜이 사 온 게 아니고.

가이 사 완. 가이 사오고 신발도 존 거 하나 사 왓어라.

그런 사름 옆이 이시난 좋은게게.

경허난 나 헤 주는 건 엇인디 나 받음만 허는디 경허근에 일 바쁜 땐 왕 헤 줍센 허민 돈 생각을 안 헤영 헤여도. 또 돈도 하영 준다게. 말덴 허여도. 경 뭐 허연 살암저. 이제 뭐 어느 날 가도 죽어도 뭐 원헐 거 아무 것도 엇주 헤지는디. 큰아덜네만 일 잇엉 살아감시민 좋주 경 생각헤져.

일본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과?

일본 경기가 안 좋음도 허곡이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다 웨국덜 가 불어시녜. 경허고 저 일본서 저 도시락거튼 것도이 이제 백 원짜리가 얼마든지 풀암시녜. 경헌디 제라허게 물건 아는 사름은 백 원짜리 안 산다게.

아, 막 싼 것들이 잇어부난?

으, 여기서 만드는 것도 싼 것덜 잇주게. 경허는디 나가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헤 보민이 싼 건 멧 초에 하나썩 떨어지느녜 물건. 경허는디 우리 집이선 물건 나오는 것이 세 개 떨어져사 하나 나온다. 경허난 난 저추룩 빨리 놓렌 허민 도야(どんや)에 가민 통과 안 헌덴 헨 못 허게 헌다. 겐 그런 물건이 잘 안 나가는 거 닮아. 저 도얀(どんや) 막 큰 디여. 난 모른디 우리 친구말이 일본서도 세 번차 가는 큰 회사엔 곧나만은. 경헤도 것이 우리 집이만게. 일 백 밧디 정도 내쳐 놓난 흔 밧디만 올 수가 엇주. 경허는 거 닮다. 그자 경 히마(ひま)우다 허는 거 보난 기자 경 헴구나 헌디. 왕 영 허우다 정 허우다 일절 안 곧나.

큰아덜이 허는 공장은 식구만 허는 거 아니면 종업원도?

종업원 하나 잇저, 밤이, 밤이. 밤낮 돌리주게. 종업원 하나 남자 아이 썬에 낮이 아덜네 두 가시허고 족은 손지허고 서이가. 전인이 밤이영 낮이영 넷 사름, 다섯 사름 써 낫저만은 이젠 일이 엇어가난 줄어 불엇주게. 똑 십 년 뒈엇저. 저 땅 산 짓은 것이. 겨난 그것이 문제여. 그걸 어느제, 십 년 계약헹 처음엔 사 놔신디 일이 히마(ひま) 뒈가난 몰라도 돈이 밀려가는 거 아닌가 생각헴저. 못 물엉 밀려가민 삼분의 이 정돈 물어실 거여. 나 짐작에.

그것만 다 물어도 걱정 엇일 건디예? 식구덜이 허난.

으, 경허난 마(ま)、어떵 어떵, 은행, 저 개인 빗은 하나토 엇다. 은행에만 흔 밧디서 빗 헤노난. 저 쓰가케(つっかけ) 출령 허멍도 정부에 돈 꿔근에 나가 굳작 물고 세금도 쭉 물곡 허난 그런 신용 잇엉 돈은 하영 꿨주게. 그거 하나 걱정이고 다른 건 걱정 엇다. 몸만 아프지 안 허민. 경헤도 손지 와시민 골아진다. 몸만 안 아프민 살아지난 몸만 아프지 말라. 큰손지가 틈틈이 와근에, 지집빠이 닮나. 지집빠이ᄀᆞ치 왕 헤 준다만은. 족은아덜은 고베 살아노난 오기가 힘들어. 이번 일요일날도 오쿠덴 전화 왓언게 아침 뒈난에 버쳔에 일어나지 못 허쿠덴. 겨난 안 와

도 좋다 헷주게. 제서 때나 모여지곡이, 멩질 때나 모여지주.

제사는 몇 번 헴수과?

아방 흔 번. 시아주방네가 제주에서 시아방, 시어멍 제서 다 허난. 그디가 큰아덜.

삼춘 결혼헐 때, 23살쯤에 결혼헷잖아? 그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몰랏주게.

살아계셨던 거?

살아난. 제주도에서. 얼굴도 몰랏주게.

게민 고슈진(ご主人)만 여기 왕 잇어난 것과?

밀항으로 왕 잇어낫주.

게민 삼춘네 등록은 몇 살에 얻은 거라?

나는 서른셋 정도에 시작헨이 등록 나오는 디 흔 오륙년 더 걸련게.

경 걸려? 근데 그때 자수헌 거?

자수허연.

등록 나오기 전에 자수허면 가리(かり) 등록이 나와?

임시, 자수허면 가리(かり) 등록 나온다.

일 년씩?

아니, 흔 덜에 흔 번씩 바꽈야 헐 거. 그거 바꾸레 매덜에 가신디 매덜에 가는 거 성가시난 사름 저 거세기 국회의원 통허영 등록 만든다게. 그 시절에 여기 국회의원.

돈 줭?

으, 게민 그런 디서 다 집어 놔 줘. 보통 경헌 사름이 하.

게민 돈 하영 들컨게.

하영 든다. 그 시절에 돈 천만 원 안 든 사름 엇저.

경이나 허여?

어, 다 경 들엇저. 저 누게엔 밝히지 못 허는 거, 그런 거. 다 돈덜 하영 들엇저.

삼춘은 무사 경 오래 걸린 거라?

아방이 걸련 한국 송환을 시켜낫잖아.

그럼 고슈진(ご主人) 돌아갓단 온 거?

으. 송환 시킬 당시에 송환시키게 뒈난.

그거 삼춘이 멧 살 때?

서른다섯 정도 아닌가. 아방이 송환헐 때난 호적을 빼어불엇주게. 이혼시켜 불엇어, 벤호사 놩. 아방허고 결혼헌 입장으로 우리도 돌아가야주게.

그럼 걸리난 바로 이혼허는 걸로 갈라서 불언?

갈라서 불엇주.

오무라수용소 있을 때 아니면 구치소에 있을 때?

오무라수용소에 간 때에 벤호사가 강 이혼 서류 받안에 이혼헤 불엇주게. 경허난 가짜 이혼이 아닌가 헹 조서를 헷주게. 가짜 이혼은 이혼이주만은. 경 조살 헷주게. 겨난 보통으로 여기 와근에, 그 ᄆᆞ녀 밥 먹은 그 어른네도 남편 걸련 완에 또 자수헤영 등록 나왓젠. 나와신디 걸련사 나와신디 건 몰라도 그 다음에 등록헷젠 곧더라. 게난 보통으론 다 그거라.

보통 자수허면 아이 이디서 학교 다니고 헐 때 뒈면 등록 만들아진덴 헙디다예?

아이 학교 다니고 허여도이 조건이 많이 잇어, 여라가지.

어떤 조건덜 잇수과?

한 사름이, 여자가 등록이 이시나, 남저가 등록이 이시나 허민 무조건 등록이 뒈여. 근디 두 가시 다 밀항으로 왕 등록 엇인 상태는 재산을 하나, 그런 무신 이유가 잇어. 경헌디 재산 한 걸로만도 햇수가 만허지 안 허민 안 뒈. 쇼와(昭和) 28년 그 정도, 28년이민 천구백 사십 멧 년, 오십 년 정도에 온 사름덜은 등록 나오게 뒈 잇주.

53년이우다. 쇼와(昭和) 28년이믄.

으, 그 정도로. 겨난 그 때에 온 사름덜은 신문에도 막 낫젠 헤라. 등록 뒌덴. 엿날에 온 사름덜, 일름도 놈의 일름으로 등록헌 사름덜이 하. 겐 중간에 다 이녁 일름으로 등록 멘들안. 그런 사름덜이 많앗주. 그 사삼사건 후에 온 사름덜은, 사삼사건 전이 온 사름덜은 쉬운디 그 후에 온 사름덜은 힘들어. 견디 나 열일곱 설에 일본 왓주게. 경헌디 삼십년 뒈신가 한국 대통령, 정부에서가 편지 왓더라.

뭐렌?

우리 아버지가 사삼사건에 죽여 불엇잖아. 겨난 사과허는 편지엔 허더라. 겨난 나 아무것도 몰르고 무사 한국서 나신디꺼장 펜지 왓수과? 허난 아는 네상(姉さん)、이거 네상(姉さん)네 아부지가 돌아가부난 거 사과허는 펜지우다 헨게. 견디 그때 펜지 왓자 그자 펜지 와신가 헷주. 아부지가 중문리 멘장 헤낫젠 허드라. 나 날 때산디 막 옛날이주게. 헌디 아부지가 밧을 풀앗젠 헤라 멘장질 허멍. 빗 나녠. 밧을 ᄑᆞ난 이제 멘장을 설러근에 일본을, 감저 받안에, 전장 전이야나(な). 그 때 일본을 와근에 돈을 벌레 가켄 헨 출려신디 어머니가 병 난에 못 왓젠 허더라. ᄀᆞ찌 온 사름은 요쪽에서 막 잘 뒈서. 우리 아버지허고 ᄀᆞ찌 저 감식이렌 헤근에 ᄀᆞ찌 오기로 헌 사름은 잘 뒈신디 그 사름도 죽어 불엇저. 낫설이 낫설이난게.

그럼 고슈진(ご主人)은 어떵헹 잡힌 거? 그냥 지나가단, 아니면 누게 밀고헤 부난?

지나가단 잡현. 지나가단 잡혀시녜게. 저 쓰가케(つっかけ) 집이서 출리난 허단에 수금받으레 가단 순경이영 무신 일이 잇어 아메도 걸린 거 닮아.

영 말 들어보면 일본 경찰이 심하게 밀항자덜 막 찾이레 다닌 건 안 같습니다. 누게가 밀고 허나?

밀골 허나 또 경허고 경찰이라도 넘어가단 요 사름은 이상허다 허믄 말을 물어. 겨

난 운이 나쁘민 걸려드는 거라. 난 아무리 경찰이 넘어가도 우리 집 아방허고 나영 싸와근에 우리 ᄉᆞ춘 성님신디 간에 순애가 잘못 헷수다 허민, 무사 가이가 걸려서 아지방이 걸렷주 헤 불민 부에 나근에. 하하하. 견디 그런 경찰에 뭐 허는 사름이 잇는 것 닮아. 뭐 헤도 나 생각에.

게민 걸령 단계가 어떵 됩니까? 경찰서에 잡형 며칠 있당 수용소에 가는 거라?

경찰에 잡히민 저 거세기 무시거, 형무소가 아니고.

오무라 수용소?

유깐(入管) 가사주게.

유깐(入管)이 어디 잇어?

유깐(入管)은 이제 난꼬 잇주게. 엿날엔 저 오사카죠 엠에 잇어나신디. 저 이제도 느네 나오젠 허민 입관 심사를 허지 안 허느냐게.

예.

그런 유깐(入管)이 저디 오사카죠 엠이 잇어낫주게. 겐디 ᄒᆞᆫ 멧 해 전이 저 난꼬 갓저.

게민 처음 잡히면 경찰서에서 유깐(入管) 가?

처음 잡히민 유깐(入管)이 아니라 미결소에 보낸다.

어디?

미결소. 저 재판허기 전이 임시 잇잖아. 그런 디 가근에.

얼마나 잇어?

메칠 엇어. 일주일, 보름 이시나 마나 헤근에. 이 사름은 범죄가 아니니까. 뭐 한국 국적을 확인허민 유깐(入管)더레 보내 불어.

게민 유깐(入管)에서 얼마나 잇어?

유깐(入管)에선 오무라수용소레 보내 불주.

게민 거긴 얼마 엇엉 바로 보내부는 거?

ᄒᆞᆫ 덜정도 있는가? 견디 지금은 오무라수용소 안 보내잖아. 이젠 걸리민 그냥 미결소도 안 보내고 유깐(入管)더레 보내민 유깐(入管)에서 그냥 한국더레 보내 불주. 그대신 이젠 비행기표 자기돈으로 안 허민 안 뭘 거 아닌가.

고슈진(ご主人)은 오무라수용소 강 얼마나 살아난 거?

오무라수용소도이 운 좋민 빨리 가 한국더레. 거 멧 개월에 ᄒᆞᆫ 번썩 배가 나가니까 그 배가 차기 전이정도 가민 ᄒᆞᆫ 덜 안 살앙 가곡. 그 배가 안 차민 육 개월썩 살앙 가는 사름이 잇곡. 우리 집 아방은 그런 건 빨라. 경허영 그냥 오무라로 한국더레 들어가주게.

겐 부산 강 다시?

부산 강 제주 강 다시 언제?

부산 강 어떵 헷덴 헌 얘기는 못 들엇수과?
못 들언.
막 매 맞고 했다는 얘기는?
아, 그런 건 엇어. 매 맞진 안 헌덴 헤라. 옛날에 밀항헌 사름덜은 막 매 맞앗젠 허드라. 저 일본에서이 밀항으로 가근에 물건 ᄀᆞ튼 거 풀레 갓다근에 잡히민, 잡히민 막 맞앗젠 헤라. 경헌디 밀항으로 온 사름은 왕 살단 걸령 가민 한국에서 못 먹으니까 일본 갓덴 허민 뭐 안 헌덴.
아, 다 매 맞는 거 아니랏구나.
아니엔 헤라. 그딘 나쁜 짓 헌 사름. 뭐 옛날에 총련ᄀᆞ튼 디 들어가나 그런 무신 뭣이 이신 사름덜은 허주만은 그런 거 엇인 사름은. 우리 아는 네상(姉さん)도 걸련, 걸련 한국 간에 다음엔 초청으로 와신디 간 제주시에 간 ᄂᆞ리난 그 형사가 완 아줌마 이리 옵센 헤렌. 경헌디 둘이가 그때 가졋어렌. 경헌디 하난 남자가 간 무시거엔 헴신디 막 ᄀᆞᆯ안 온디 아멩 생각해도 이디서 잘 빠져나가젠 허믄 어떵허코 허난에, 막 죽어가는 소리 허궈렌. 뭐 못 먹어근에 살 수가 엇이난, 아기덜이영 살 수 엇이난 일본 갓수덴 허난에 갑서 헤렌. 하하하. 게난 그런 디도 가근에 고정허게 허민 안 뒈큽디다. 경 ᄀᆞᆯ아라, 그 어른. 이제 한국 강 어디서 살암신디 몰라도.
경허엔 부산 강 들어 간 거잖아예? 오무라수용소에는 한 달이나 잇어난?
우리 집 아방 ᄒᆞᆫ 덜 엇어실 거라. 몰라도.
게민 면회는 안 가낫수과?
여기서 면회 못 가주게. 이혼헤 부난. 변호사 놩 딱 이혼시켜신디. 하하하. 갈 순 엇어.
아. 게민 유깐(入管) 갔을 때에 이 사름을 오무라수용소에 보낼 건지 아니민 일본 살 게 헐 건지 그런 심사는 막 헙니까?
그걸 심사허여신디 나가 실패헷잖아. 국회의원 비서 놧신디이 그 사이에 사름은 놓난 돈은 그 사름이 다 먹어분 거라. 아방 내여 주켄 허여.
그런 때 돈 쓰는구나.
으, 그 사름안티 돈 쓰단 보난 아방은 오무라 보내분 거라. 경허난 헐 수 엇이 벤호사 놩 이혼시켜 분 거라. 이 거세기 여기서 처음부터 오무라를 갈 걸로 헤시민 돈을 안 썻주만은 돈 썬 이젠.
그때 돈 얼마나 썻수과?
ᄒᆞᆫ 번에 안 써 부난 몰라. 쪼금씩, 쪼금씩.
쪼금씩, 쪼끔씩 주머니 찔러 준 건디? 보통 영 걸리민 유깐 강 경 조사를 허는 거 아니예, 오무라 보낼지 일본에 살아도 뒐지?
저 그때랑이 보석으로 나오주. 일본에 학실허게 살게 뭐 안 헌다.

보석으로 나오민?

그 새에, 아방 걸리난 ᄌᆞ수헷주만은 우린 아이덜 잇고 허난 집이 강 한국 갈 거 출리나 뭐 허렌 헹 무조건 뭐 헌디 아방 걸리난에 뭐 사름 산 놔 부난에 그디서 가 보석헹 내 주렌 헹 보석헹 놔신디 경헌디, 저 살단 짐 챙기렌 일단은 보석을 헤 주는 거야. 그 살림 사는 사름. 혼자 사는 사름은 안 헤 주는디 그 짐 거튼 거 헹 사는 사름은 겐 보통으로 짐 다 챙경 한국 가렌 나오는 거야, 보석으로. 옛날에덜은 다 경헷주게.

경 보석으로 나오민 자기가 다 알앙 들어가는 거?

들어가나 또 경 안허믄 여기서 운동헤여근에 등록은 멘들주.

그때는 유깐(入管) 들어가민 그때는 가리(かり) 등록 안 나옵니까?

가리(かり) 등록, 임시 저 보석, 건 ᄒᆞᆫ덜 등록이 나온다.

그니까 경 그것 가지고 석달 영 늘리멍 등록 얻는 거 아니?

다 경 늘렷주게. 늘류멍 어떵 수단 부령 이녁, 이녁 만썩 아는 사름, 아는 사름 놔근에.

그 기간에 등록 이신 사름이랑 결혼헌 사름도 이십디다.

그 기간에 등록 결혼허민 나오는 거. 겨난 요즘 그런 사름덜이 너미 많으니까 지금 영주권을 안 줘젠 허잖아. 요새 이 ᄉᆞ방에 하르방덜, 일본 하르방 봉강 살단 ᄒᆞᆫ 멧 년 살앙 죽어 불민 다 민생 타멍 다 이젠 놀레 뎅기곡 헤 가난.

한국 여자덜이?

어. 이 마숀(マンション)에도 막 하영 살암저. 일본 하르방, 한국 하르방 이제 뭐 헌 사름덜 호 놔근에 ᄒᆞ꼼 살단 하르방이 죽어 부난 뭐 허민 마(ま), 연금이나 이신 사름덜은 걱정 엇이 살주만은 연금이나 엇엉 그자 ᄒᆞ루 ᄒᆞ루 살단 하르방 죽어불민 영주권 잇곡 허민 민생 신청허민 일본에서는 민생 주잖아. 집세도 물어주고. 병원비도 다 물어주고.

민생이 얼마나 나오는 디마씨?

민생이 생활비만 칠만 원 나온덴 헤라. 칠만 원이민 충분 살주게. 일본 돈 칠만 원이난. 집세 물어주고. 집세 ᄯᅳ로 물어주고. 전기세 가스세 정돈 이녁냥으로 물주만은. 병원비도 ᄒᆞᆫ 푼 안 들고. 겨난 이디덜 할망덜, 그 민생 타는 사름덜은 ᄒᆞ루에 세 밧디 병원에 간덴 헌다. 병원비 안 드니까. 그 ○○○이엔 헌 할망, 그 할망 ᄒᆞ루에 세 밧디, 네 밧디 보통 뎅기느녜. 버치지도 않은 셍이라. 못 젼디난 덴떼끼(テンテキ) 맞앙 왓수다. 저 눈이 침침허난 눈 병원에 강 왓수다. 하하. 야개기 아프난 목 병원에 가왓수다. 안 가는 병원이 엇어. 하하하, 아이고 감도 버치지 안 허영 보통 경 뎅겨. 이, 이 ᄉᆞ방엔 다 그거야. 견디 요샌 너미 하부난이 이 ᄉᆞ방에선 돈 잇어도 타주 무사 안 탐시닌 영 헌다. 나신디도 왕 경 곧나.

아덜덜이 타지 말렌 허는디?

으, 경허난 경 못 젼디게 살지 말앙 거 타민 펜안헐 건디. 견디 손지덜 지장이 잇어. 만약에 일후제 존 직장이라도 들어가젠 허민 거세기 안 뒌덴 허드라. 요기 제주시 쪽에 할머니 민생 타난 손지가 제주도 가 줍센 헷덴 헤라. 손지가 할망신디 왕. 민생 타부니까 일본 사름으로 귀화 못 헌덴.

무슨 말?

국적이 한국 국적인디 일본 국적으로 허젠 허민 민생 타는 할머니 시난 안 뒌덴.

기마씨. 그 손지는 국적을 바꾸고 싶은디 할망 때문에 못 바꾸난.

게난 할망ᄀᆞ라 제주도 가 줍센. 게난 것도 불쌍허지 안 허냐? 손지는 국적을 일본 국적 바꽝 뭐 허젠,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 국적을 바꾸젠 허는디. 좋은 직장허젠 허민. 우리도 큰 아덜네 다 일본 국적이라. 족은아덜은 절대 안 바꾸켄. 그런 것이 많아. 이디 살젠 허믄. 일본 국적 이시민 그런 디 들어가근에 뭐 허주만은. 우리 족은아덜 말적아니라도 자기가 능력 이시민 한국 국적이라도 얼마든지. 거난 것이 살아가는. 아멩헤도 차별 있나. 지금 차별 엇덴 헤도이.

게민 고슈진(ご主人) 유깐(入管)에서 한 달 정도 살단 오무라 강 한 달 못 살앙 제주도 들어간 거잖아예. 겐 얼마 만에 다시 왓수과?

얼마 만에 와신고? 몰라. 거 계산해 보지 안 허난. 흔 일 년 정도 더 잇어실 거라, 몰라도. 한국 간 살단 각시도 얻고 헨 살앗주게.

정말?

경헌디 아방은 안 곧는디 시아방안티서 편지가 왓어라. 경헌디 아기덜 생각헹 도저히 못 살켄 허난 일본 보내노렌 편지 왓더라.

또 밀항으로 온 거?

밀항으로. 완 살단 등록 만들앙 나완에 흔 십 년 쪼금 살앗저.

고슈진(ご主人) 다시 와근에 등록 만든 거라?

나는 그 전이, 우리 서이새낀 나왓주게. 그때 아방 글후제 살단에. 견디 큰아덜이 스물멧 살 뒈난 아방이니까. 난 호 떨어 부난 나사지 안 헤도 큰아덜 나사난 등록이 나오더라.

겨민 다시 결혼은 안 헤도 등록 나온 거?

등록 나온 후제 호 논 거야. 게난 큰아덜이 스물 멧 살 뒈연에 나사니까 아방허고 자식은 떼불지 못 헌다 허는 식으로. 난 유깐(入管)에 가난, 큰아덜 가난 경 ᄀᆞᆯ아라. 아방이 아덜을 살려야 헐 건디 아덜이 아버질 살렴젠 허멍. 결 말허더라. 족은아덜도 고등학교 정도 때고 큰아덜이 스물멧 설에.

게난 아방 와 가지고 등록 엇이 한 얼마 정도 살았구나.

으, 흔 칠 팔 년 이상 살지 안 헤신가. 흔 십 년 정도 살아져실 거라. 어디 저 히라

노(ひらの) 공장. 견디 일생 사는 것이 잠깐인디, 잠깐이라 경헌디 지금 생각헤 보난 아방이 저 큰아덜 난에 어린 때에 걸리난 한국 들어가겐 헌디 그 시절 들어가시민, 우리 큰아덜 경 헌다. 그때 들어가시민 어무니도 고생 안 허고. 어무니는 제주도보단 여기서 키운 것이 좋다 생각허주만은 그것도 아니우덴. 자기 나라에서 뭐 허고장 헌냥 살아야 헐 건디 어머니 고생헷덴 허멍.

게난 애기 때도 걸려낫구나.

저 아기 때 걸련에 유깐에도 가 왓주게. ᄌᆞ수엔에 가 와신디.

누가, 다 자수헨.

으, 나가 자수허민 아이덜 다 데려가주. 흔 사나흘 사난 내 주더라.

게민 걸련 나완 살단 또 걸린 거?

또 걸린 거. 아방 세 번 걸린 거야. 난 흔 번 걸령 그냥 저 들어간에 나완에 두 번째 아방 걸리난 자수헌 거야. 처음 걸련 나오난 보석헨에 도망쳐 불엇주. 그때 도저히. 견디 우리 족은 시아방네가이 도와주질 안 헤라. 그때 일본 돈 오십만 원 가져오민 등록 헤주켄 헌 사름이 잇어. 견디 우리가 돈이 삼십만 원 가졋주게. 게난 이십만 원만 도와줍서 헷주게. 일 년만 꾸와십센 헌 거라. 일 년 꾸와시민 일 년 동안 나 벌엉 물쿠다 헌디 안 헤줘라. 겐 아방을 한국 보내분 거라. 겨난 놈도 줜 마는디, 조케 돈 이십만 원 줭 그런 생각헤져. 엇인 사름은 더 도와줭 놔두민 언제가 잊어불 수가 엇는 건디. 하르방 결국은이 우리도 몰르게 북선 가 불엇저. 죽어신디 살아신디. 뭐 죽기야 죽엇주만은. 자식덜이 어린 때에. 일본 각시 헤 낫주게. 경허난 일본 사름 뒌덴 데령 간 거야. 견디 각시는 안 갓어. 안 강 막 글후제 나신디 왕 어디 춪아만지건 연락헤 주민 무시거 보내켄 헤라. 나가 어떵 춪아.

그럼 북한 가가지고 편지 흔 번도 안 완?

우린 몰라. 간 중도 몰라신디. 하르방 집도 놈 빌려주난 집 안 베와주난 줘둬 갓젠 헤라. 우리신디 곧지도 안 허여. 겐디 글후제, 후제 그 저 시아방각시 헤난 사름이 여기 춪앙 와서 어디 이신 줄 몰르니까 알려주민 뭣 허영 보내켄 헤도 나가 어떵헤 춪아. 춪을 수가 엇주. 겐디 총련 사름덜 놓민 춪아질티 모르지만은 총련 사름덜 그냥 강 말만 헤지느냐. 오짜(お茶)라도 흔 잔 사 줘사 허고. 거 우리집 아방이 총련 사름은 말 곧는 것도 싫어허여.

경헤 부난 사이가 별로 안 좋앗구나. 저기 고슈진은 민단 쪽이었고 족은 시아방은 총련 쪽이어시난. 경허난 별로 연락을 안 헤영.

이, 이 총련 학교 잇어놓난 어떤 때 웨여가민이 이디 집 산 왓젠 나신디 멧 번사 싸와신지 몰른다. 총련 ᄌᆞ꼿디 집 산 왓젠. 난 이젠 펜안헌디. 아이구, 게메 말이여 일평생 이젠 앚안 ᄀᆞ만이 밤이도 앚앙 생각허민 잠깐인디 허는 생각을 헤져.

그 당시에는 철 몰른 것이 아니고 결혼헌 것이 좋냐 궂으냐 헌 것을 생각을 안

허고 일본 사름 트멍에 이시난 너미 웨로왓어. 이제ᄀᆞ치 한국말도 못 ᄀᆞᆯ아. 방 안에서나 고소코소(こそこそ) ᄀᆞᆫ주. 다 등록엇이난 걸리카부덴. 어디 테레비(テレビ)가 시냐, 라지오(ラジオ)나 하나 시나마나야. 게난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동경 강 살암주만은. 서방 얻젠 헨 얻엇수과 웨로완에 결혼헤져렌 헌 거라. 한국서 아기가 한국 잇어신디이 일본 완 보난 친척은 베린 척도 안 허고. 그 시절엔이 친척덜도 베린 척 안 헤라.

아니 무사. 여기 가까이 사는 데도 베린 척 안 헤마씨?

베린 척 안 허여 보통은. 등록 엇어 놓민 걸림이라도 허민 지네 피해 뒈카부덴 다덜 물러사불어. 게난 그 어른도 오빠덜 잇어도 베린 척도 안 헤 놓니까 너미너미 웨로우니까. 일 헹 강 혼자만 밤낮을 살아가난.

게도 어쨌든 여기 일본 올 때는 누게라도 친척이라도 이시난 나 강 일본 강 돈 벌어야지 생각헹 와진 거 아닌가?

마(ま), 경헌 사름도 핫지.

삼춘도게?

나는 돈 벌 거 뭐, 이 다리 이추룩 헌 거 이거 허젠 아무 생각도 안 헹 대마도 오난에 형부가 한국만 가렌 허는 거라. 그 시절에. 형부 허는 말은 일본서 고생헌덴 한국 가야 좋은 디 시집 간에 느 고생 안 헌덴 헷어. 견디 그때 게이또(毛糸) 짜는 거 배우레 뎅겻주게 나가 대마도서. 언니가 그때 임시 보석으로, 오단 걸리니까 임시 보석으로 나오니까 나오난에 언니가 한국 가렌 헨 가게 뒈거덜랑 제주도 강 그 게이또(毛糸) 짜는 거 헤여근에 저 생활허라 허연. 그 게이또(毛糸) 짜는 디 뎅기는디, 그때 대마도도 유깐(入管) 잇어라게. 유깐 신디 이디거치 큰 디 아니. 방 하나 헨 사름, 둘이 사름 잇어. 겐디 하나 각시네 집이 나 게이또(毛糸) 짜는 거 배우레 뎅겻주게. 견디 한국 가지만 말렌 허여 그 사름. 그 사름도 어디 서울 쪽에서 살앗덴 어린 때. 경허니까 한국 가민 고생헌덴 가지만 말렌 허여. 경허난 형부 한국 간 온 그때는 배로 하나 양단 헹 상 시꺼주크메 가라, 가라 헤도 대마도서 오난 완전히 살기 펜안허연. 성님네 집이 오난, 언니네 집인데 전기도 잇고 목욕탕도 잇고 온돌방도 잇어라 그디 완 보난. 경허난 대판도 경허카부덴 온 거주게. 완 보난 원 하늘과 땅이라. 견디 이딘 오난 방 하나라도 빌언 살아야지. 방세, 이천 원, 삼천 원 집세가, 그 당시에. 겐디 이 방에도 저 방에도 다 살아.

영 뒈여 잇는 방에 다. 게민 부엌은 ᄀᆞ치 쓰고?

ᄀᆞ치 쓰고. 이층에 살아도 밑에 와근에 부엌 허고. 견디 방 한 칸썩, 한 칸썩 빌어도이 이천 원, 삼천 원 허여. 근디 돈 만 원 정도 버나마나난 그거 빌언 살젠 허믄 뭐 먹고 얼마 남지도 안 허여 그 시절은. 경허난 마(ま), 온 사름덜은 ᄒᆞ꼼이라도 벌젠 허믄 그 하리꼴(はりこ) 헌 거라.

하리꼬(はりこ)가 돈 많이 버는 거랏수과?

건 우께도리(うけとり)로 허니까. 흔 배 허민, 나 처음 배울 땐 흔 배 허민 팔 원이라라. 게난 ᄒᆞ루에 백 배 허민이 팔백 원. 견디 그때는 일당으로 백오십 원 헐 때주게. 흔 덜 내낭 허민이 이만 원 뒈나마나야 그때도. 이만 원이민 큰 돈이랏수게. 지금 생각해 보민, 그때는 이녁만썩 이녁 방 안에서만 사니까 먹고 자곡만 허니까 돈도 남주게. 아멩 족영 벌어도. 겐디 누게 ᄀᆞ찌 놀레 가젠을 허카, 이런 커피점도 엇고. 그 커피말앙 하나썩 헌 거 우리 ᄀᆞ튼 사름은 가젠을 안 허주게. 게나제나 집이서 밥 헹 먹는 거베끼 겨니까 그 시절에 돈이 남은 거야. 겐 돈도 벌고. 제주시에서 사는 네상(姉さん) 그때에 완에 그 어른도 일본 완 삼십 년 살안 간 어른 이신디 그 시절에 돈을 하영 벌엇젠 허여. 이, 삼년 살아가난 보통 오만 원 정도 하리꼬(はりこ) 허는 허는 어른덜은 벌엇어.

오만 원이민 큰 돈이지예?

으, 겨난 우리 온 때보단, 나 온 때보단 흔 삼ᄉᆞ년 후에 온 사름덜은 마(ま), 배와 놓민 흔 오만 원, 육만 원. 우리집이 쓰가케(つっかけ), 하리(はり) 허는 사름덜이 흔 덜에 오만 원, 육만 원. 칠, 팔만 원 허는 어른도 잇고. 북촌 사는 어른은 작년이 전화 왓더라만은 우리 집 왕 하리꼬(はりこ) 헤난 어른.

몇 사람이나 여기 둬 가지고 하리꼬(はりこ)를 헤낫수과?

우리 집이 처음 아방 일 헐 때 ᄋᆞ섯 사름 헷주게. 견디 이 집이 완 하리꼬(はりこ) 두 사름만 썬. 나허고.

게믄 그 여섯 사름 쓴 때 고슈진(ご主人) 한국 들어갓다 온 후제?

가기 전이, 가기 전이. 그땐 일이 경 하라게. 못 헤켄 헤도 막 데며 놔라. 글후제 이 집이 온 후제도이 일 년에이 석 덜은 그자 나 혼자 헤도 백만 원 뒈여. 글후젠 경 하지 안 허는디 흔 석덜은 일이 바쁘주게. 그땐 흔 덜 백만 원 정도.

게민 그 하리꼬(はりこ)를 헐 때 도야에서서 물건을 갓다 줍니까?

갓다 준다. 가져 가고 가져 오고. 나 혼자 허니까 일본 도야에 사름덜도 왕 왕 일도와주고. 못 헤가민 와근에 그 하꼬에도 담아주곡 허여. 바쁘니까 지네가. 빨리 허영 앗아가야 허여. 경허멍 허여신디 그땐 경헨 버난 등록 허멍 돈 써도 마(ま), 살아왓주. 보통 때도 삼사십만 원 헷어. 겨니까 살아가졋주.

삼사십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도 큰 돈인디 그때라시민 더 큰 돈 아니과게?

더 큰 돈. 게난 등록 허멍 돈을 써도 살아온 거주.

밀항 올 때 배를 어디서 탓수과?

몰라, 어디 부산 쪽 아닌가.

제주서는?

제주서 부산꺼장 고모가 데려 간 거라. 겐디 고모부가 부산 살앗주게. 겐 고모가 데

려 온 거야. 고모부가 일본서 한국 밀항을 헌 거 닮아. 나도 그 시절에 몰라신디.

아, 그럼 고모부는 일본 올 때 ᄀᆞ치 그 배 탄 온 거?

그 배 탄 온 거 오모우(思う). 난 그때 고모분 준도 몰라서. 몰란에.

고향에서 제주시까지 완.

제주시산디 서귀포산디 것도 모르고 배 탄에 고모영 ᄀᆞ치 왓지. 대마도 갈 때 고모부가 잇어난 거 닮아. 대마도 완에 이젠.

멧 사름이 그때?

서른ᄋᆞ답 사름이.

그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오는디 얼마나 걸립디까?

멧 시간 안 걸려서. 밤이 밤중이 ᄂᆞ리난. 견디 ᄂᆞ련에 걷는디 육짓할망이 옷을 젖어분 거 닮아. 한복을 입언 완에. 바당가에, 가까이 아메도. 벗언 버린 거야. 그것이 발각뒌 다 걸렷주.

다 대마도에 내려 놓고 걸린 거라.

으, 대마도. 경헌디 글후제 보석허연에 대마도 간에 그때도 언니네도 아무 거엔도 안 ᄀᆞᆯ으난 몰랏주게. 글후제, 후제 ᄒᆞᆫ 이삼 년 살안 오사카 온 거라. 완 사니까 그때 작은 고모가 일본에 살아낫어. 작은고모 허는 말이 느네 시꺼온 주인이, 밴 빌언 허니까 그 헌 사름이 큰 고모부여 허는 거야. 정말 허난. 그 사름 벌써 걸령 한국 보내분 거야. 징역 살앙, 삼년 징역 살안 갓덴.

오무라에서? 어디서 징역을 살아?

일본에서 그 밀항 장서허여 부니까. 일본 교도소에서 징역 살아신가. 삼 년 살안 강제 송환 뒌 셍이라. 그 사름덜은 제라헌 등록이 있으니까 송환당헷젠 허드라. 겐 부산 살단 돌아갓주게. 고모가 경 ᄀᆞᆯ아사 그때사 아, 젤 큰 고모가 아니주게, 두 번채 고모야. 그 고모 남편이 우리 ᄃᆞᆯ아왓구나 생각헷주게.

게민 그때는 삼춘 올 때는 아는 사름 누게가 잇어낫수과?

아는 사름.

ᄒᆞᆫ디 온 사름 중에.

몰라. 다 모른 사름이라.

거기 제주도 사름도 한 거 닮으디가?

제주도 사름도 어디 사름도 말 ᄀᆞᆯ을 뭣이 엇어.

배 속에 숨엉 뭐 헨?

배 소곱에서 ᄒᆞᆫ 몰라도.

배 밑에? 바닥?

아니, 아니 그냥 배 우이 그자 앚은 거야. 큰 배 아니 째그만헌 배. 물 지치민 ᄀᆞᆯ라 짐직헌 배야.

거기에 서른 여덜 명이나 탄?

으, 것도 몰라신디 걸련에 서른읏답 사름이엔 허난 아, 서른 읏답 사름이구나.하하하.

겐 배, 대마도에서 배에서 내리난 어디로 간?

산으로 가더라. 산에도 어디 산인지도 몰라. 가신디 그 할망이 말째 곧는 거 보난 옷을 벗언 버리니까 밀항 배가 들어왓젠 허연 거 대마도 ᄀᆞ튼 디 조사허는 셍이라. 조사허니까, 우리 산에서 ᄒᆞᆫ 일주일 살아주게. 경헌디 살아신디 저 육지 사름이 데리레 왓어라. 겐 다른 사름덜은 인칙이 가신디 이틀만이 경찰에서 완 다 심어가더라.

경헨 유깐(入管)으로 넘어간 거?

저 유깐(入管)에 갓주게. 대마도서 저 하카다 유깐(入管)더레 보내더라.

대마도 유깐(入管) 말고 하카다로 보낸 거?

대마도서 ᄒᆞ룻 밤인가 이틀 밤 살안. 하카다 보내난 ᄒᆞᆫ 덜 살아신가 ᄒᆞᆫ 스무날 살아신가. 난 보석으로 나와 불엇주게. 형부가 보석 신청 허니까 나완에 대마도 간 살아불엇주.

겐 대마도 살단 오사카로 도망 나와분 거라예?

으. 오사카 오젠 허난 그 유깐(入管) 사름이 증명을 써 준 거라. 게난 그거 앗앙 오사카 온 거라. 그때 형부 곧듯이 한국을 가시민 그 고생 안 헷주. 우리, 우리 한국 신 형부도 ᄒᆞᆫ ᄒᆞᆫ 이십오 년 전이 일본 왓다가신가, 초청으로. 나 초청허난 석 덜 살안 가신가. 견디 한국 성님은 나만이 고생 안 헷젠. 아지망 일본 완 완전히 고생 헷젠. 긴가 허멍.

스물세 살에 결혼을 하셨잖아예, 큰 아이는 멧 설에 낳은 거라?

그 스물세 설에 정월에 결혼헤신디 동짓덜에 자이 난 거야. 그 해에. 아기 아방 걸령 가부난 데령 뎅기멍 일을 헷주게.

그때 갓다는 건 유깐(入管)에 잡혀간 거?

아방은 유깐(入管)에서 저 족은아방덜이 여기서 등록 헹 사니까 자비 출국으로 일주일만이 한국 보내분 거라. 비행기로 가서, 서울로.

누가.

아방 걸린 때.

애기 그렇게 어렸을 때도 걸련?

걸련에 그 족은아방네가 자비 출국으로 헨에 한국 보내분 거야. 오십만 원이민 등록 헤 준덴 허난 이십만 원만 꾸와십서양 헤신디 그거 못 받으카부덴 안 꾸와줜 아방 십삼만 원 들연에 한국 보냇덴 허더라. 말째사 들으난.

에이구 경헐 거민 칠만 원 보태영 이십만 원 만들어 주주.

경허난 그런 바보 하르방도 어디 셔. 겨난 글후제 자이 큰아덜 둘앙 뎅기멍.

몇 살 때 큰아들?

큰아들 ᄒᆞ쏠 걸음 시작허난 돌아 뎅기멍 일헷주게. 게믄 낮좀 자젠 허민 그 쯔가케(つっかけ) 허는 이런 다이 밑에 하꼬(はこ) 안에 눅져근에 좀 재우고. 경 일허영 올 때 그디서 허는 나이쇼꾸(ないしょく)에 허는 것이 잇주게. 게믄 그거 쪼금 앗앙 왕 ᄒᆞ꼼 나이쇼꾸(ないしょく) 허민 집세 삼천오백 원 허민 사난 집세 물고.

그 나이쇼꾸(ないしょく)도 쯔가케(つっかけ)일 관계로?

그런 영 신발 반도 영 오그렷닥 뒈싹닥 허는 것이 잇주게. 가방에 ᄒᆞ꼼 앗앙 가도 ᄒᆞ루 이삼백 원 뒈니까 밤인 그거 허영, 아기 눅져 뒁 그거 허영 아침이 일 갈 땐 앗앙 간에 낮인 하리꼬(はりこ) 일허고. 게난 아방 걸령 가도 차비 무는 건 다 나가 헷주게.

돌려 줫수과?

다 물엇주.

그 십삼만 엔?

아, 십삼만 엔 안 물언. 그건 그 하르방덜이 자유로 허니까 도렌도 안 허고 나신디 곧젠도 안 허고.

그럼 뭘 물엇다는 거?

아방이 밀항으로 오민 또 그 값도 하영 드난.

그럼 그때는 얼마나 잇단 다시 온 지 몰르고?

얼마나 잇어는가 ᄒᆞᆫ 일 년 정도 잇단 와신가 헐 정도디. 올 때에 삼십만 원 ᄉᆞ십만 원 준 거 아닌가.

여기서 준 거?

으. 여기선 주지 안 헤서 시아방덜이 거기서 빚젼 보냇덴 허난 그레 보내 준 거야. 여기선 그 어딜로 온 건 난 모르고.

그럼 고슈진(ご主人) 제주도 갔을 때 어떵 어떵 연락덜은 헐 거로구나.

연락은 헐 수가 엇어 그때는. 전화도 엇고 아무 것도 엇으니까.

그럼 어떵 헹 오는 줄 알앗수과?

아방 여기 왕 살아나니까 아는 어른네 집이 온 거야. 우리 집으로 안 오고. 나 사는 딘 모르니까. 난 이사 다니니까. 아는 어른네 집으로 오는 거야. 그디서가 나신디 데려다 주는 거야.

경을 두 번 헌 거?

세 번채 완에 자수헹 등록 나온 거주. 겨난 경허영 못 젼디게 살지 말앙 그때 가시민 좋아실 건디 헌디 그때 가시민 손지덜토 안 나와신디 모르니까. 하하하. 우리 큰아덜 게난 ᄀᆞ뜬 사름으로 안 나와도 딴 모양으로 나와신디 모른데 경 말허더라.

건 맞수다.

하하하. 딴 모양으로 나와신지 모른덴 허난 웃엇주만은. 그때 ᄀᆞ찌 들어가 불어시믄 마(ま)、우리 집이 하르방은 부지런허니까, 일은 잘 못 허여. 나만이 못 허여. 나 반

베끼 못 허는디 사름이 손이 넘이 떠. 촌에 밧디 강 일허는 건 모른디 여기 공장 생활은 너미 손이 떠. 경헌디 처음에 가시민 사름 부지런허니까. 아침이 일 간 때도 나 일리지 안 허영 그냥 가불어. 줌 자는디 내불엉 뒁 지만 일 가. 이제 다 넘은 일이니까.

아침이 일곱 시 뒈나마나 허민 매날 공원이 걸으레 감시녜. 견디 너미 아침이 일어나도이 베꼇디 확 나가지 못 헌다. ᄒᆞ꼼 집이서 달련 시켠에 공원에 가근에 쪼금 걸어졍 왕 고히 만들어 먹곡 헹 아홉시 뒈가민 일, 이거 이제 사흘 가민 두 주. 토요일 가민 오지 말라 그럴티 모르켜.

처음에 일본 와 가지고 일본 말 모르난 힘들지 안 헤난마씨?

경허난 처음에 밀항으로 온 사름덜은 일허영 집이 들어오민 목욕 감도 ᄆᆞᄉᆞ왕 못 갓어. 이젠 만딱 후로도 집이 이시난 헴주만은 그 시절엔 목욕탕 안 가민 목욕이 엇엇주게.

게민 방 빌엉 사는 디 화장실 옆에라도 후로(ふろ)가 엇어?

엇어, 엇어 그 시절엔 다 목욕탕 갓주. 어떤 사름덜이라도. 경허난 목욕탕에 일주일에 ᄒᆞᆫ 번 감도 ᄆᆞᄉᆞ와근에 아무 때나 갈 수가 엇엇주게. 겨난 집이서덜 물 데왕 머리 ᄀᆞᆷ고 다 헷주게 그 시절엔. ᄋᆞᆶ이 사름덜이 수상헌 사름덜이 살암젠 허카부덴 뭘 수 이시민 한국 어른덜 집이 이층에 방덜 하나썩 빌엉덜 살고 그자 도나리(となり) 사는 사름덜도 모르게끔 조용히, 조용히. 말 ᄀᆞᆯ을 뭣도 엇주게. 엇어. 겨난 이제도이 질레서 작작 말 ᄀᆞᆫ는 거 보민이 가심이 덜컥허여. 무사 저추룩 웨염신고 허영. 요자기도 목요탕서이 막 머리 심엉 흔들멍덜 싸왓젠 헤라.

무사?

몰라.

일본 사름이영?

아니, 한국 할망 둘이가. 창피시럽지 안 헙니까 허난. 창피시러웡 와 불고렌 허멍. 옷 다 벗어근에 머리 튿으는 사름덜이 어디 잇느니? 그땐이 일 허는 디도 강 속속헹 일만 허주이. 말 ᄀᆞᆯ을 못 해.

게난 왕 말은 어떵 알아집디가?

나도 대마도 완 사난 제주도 사투린 알아도 표준어는 몰라. 견디 테레비 보고 비데오 봐 가난 허주만은. 처음에 한국서 시조케가 와가지고 '간장' 허난 '간장'이 뭣인디 몰라. 장물만 ᄀᆞᆯ아나난. 누게 아는 아이 와시난 "야, '간장'이 뭣이니?" 허난 가이도 친척 아이난 "언니 간장도 몰라?" "간장이 뭣이니?" 허난 "저, 장물 아니과." 또 도시락, 도시락 허난 도시락이 뭣인고 헷주. 그 두 가진 확실히 몰라. 도시락이 뭐이니 허난 점심 쌍 가는 거우다. 나 어린 땐 저 무신 녹사발인가 아레미 자왕 그디 밥 거령 뎅겨나서. 학교 다닐 때.

차롱착에는 안 헤낫수과?

차롱착은 안 허고 그것에 밥 거려 가고. 저 뭐 날 계란. 그거 앗앙 강 공책을 사 낫어. 겐디 하나 생각나는 것이 그거 앗앙 강 까져불언. 날 계란 앗앙 강. 견디 가반에 놩 놔두난 것이 깨져불엇어. 게난 그때. 겨고 제주시 쪽허고 우리 동네 쪽 허고 틀리주게. 우리 동넨 또 막 촌이니까 촌. 일학년 때산디 이 학년 때산디 몰른디 우리 학교, 소학교 산에서 왕 불을 부쪄분 거야. 게난 그 폭도 어멍허고 아덜 아닌가 막 쭌 할망허고 젊은 소나이고 둘이가 심어단이 학교 불 태와부난 다른 디 갓어. 간 심어단 가네덜 하나썩 우리 어린 아이덜은 안 허고 마 사학년 오학년 육학년 아닌가 하나썩 망뎅잉 두들련 헌디 우린 앚앙 베림만 헷어.

게민 얼마나 뒈난 영 일본말 알아들어지고 굴아지고 헤진 거라.

한국말을 안 허기 때문에 일본 말만 허기 때문에 흔 일 년 뒈가믄이 주고 받고 허는 말은 다 허여지더라. 한국말을 아예 못 허니까. 이녁 아는 처지에만 쪼금 말허주. 시장에 갓든 어디 갓든 사는 건 이젠 뭐 헴 삼주만은 수빠(ス一パ)에 강 삼주만은 그 시절엔 다 야오야(八百屋) ᄀᆞ치 질레서만 풀곡 허난 그런 디 가도 그자 그자, 고레(これ) 허영 ᄀᆞ리치민 주는 거뿐이니까 한국말을 아예 안 허니까 뵙기가 쉬왓주게. 이제 거치 한국말 작작허여. 나도 저 표준말은 이 비데오(ビデオ) 봄 시작헨 조금 알앗저. 제주도말만. 난 대마도 오니까 보석으로 나완에 성님네 집이, 사는 그 옆에 순경 살암서라게. 파출소 거치 흔 동네에 순경 ᄒᆞ나베끼 엇어. 대마돈 촌이니까. 경헤근에 나 조케덜 헤근에 살암시민 그 순경이 왕, 우리 조케덜이 이모님, 이모님 허민 그 순경님도 나 일름 이모님이엔. 하하하. ᄀᆞ찌 이모님이엔. 조케덜이 이 시난에 또 어린 때난 소학교 뎅기난 그 책 있잖아. 경허난 글은 모르고. 그 시절엔 글도 하영 배와줘신디 이제 잊어불언 안 뒈크라.

그때 조케덜이 배와준 거라.

ᄀᆞ찌 으. 말도 경헨 곧고. 그 대마도 촌에선 다 나 이름 이모님이야. 일본 사름도 왕 이모님 허고.

아이덜이 이모님, 이모님 불러가난 이모님이 이름인 줄 안 거 아니?

으. 우리 성님이 오난에 조케덜안티 이건 이모님이여 굴아주난 이모엔 곧는 말. 거 이모님, 이모님 헤가난 거 일본 사름도 다 ᄀᆞ찌 왕 이모님, 이모님. 하하하. 경헤라 그 시절에 경허고이 대마도도 왕 보난 낭으로 밥 헴고이. 오사카도 왕 보난 낭으로 밥 허는 디 엇인디 숫, 숫으로 간데기. 또 프로판 가스.

프로판 가스를 그때에 썬?

프로판 가스로 헷저. 숫도 놈의 방 이층에 살젠 허민 숫은 쓰지 못허주게. 이녁 방에서. 게난 프로판 가스 이만헌 통덜 잇어라. 겐 그거 하나 사당이 방 안에서 반찬 ᄀᆞ튼 거 밥 ᄀᆞ튼 거 다 헐 수 잇어.

이만헌 방에 부엌 따로 잇는 게 아니고?
저 수도는 없으니까 공동으로 강 수돈 허영 씰 시치나 그릇 시치나 헤여 와도 만드는 건 방 안에서. 겐디 그때 완 보난 밥 허는 솟은 잇어라. 전기 솟. 밥만 헤지는 전기 솟. 저 보온은 안 뒈고. 나도 그때. 대마도선 그런 솟이 엇엉 낭으로 뗑 밥을 헷는데 오사카 완 보난 전기 솟. 솟 사단에 밥은 거기서 헤 먹고. 반찬만 그 프로판 가스에. 견디 그 시절에 다 경헨 살아시녜. 게도 어떵 친척덜이 와근에 잘 도와준 사름덜 이신 사름덜은이 성공헹 잘 사는 사름덜도 잇고. 도와주지 안 헤영 이녁만 살젠 허민 힘들주.
겐 일 년 지나난 일본어는 ᄒᆞ꼼씩 ᄀᆞᆯ아졌던 거고. 제줏말은 영 안 ᄀᆞᆯ아봣잖아예. 안 ᄀᆞᆫ단 등록 얻어져사 제주, 한국말을 헤지는 거라?
등록 얻은 후제, 이거 ᄒᆞᆫ 삼십 년구라이(ぐらい) 뒈지 안 헴신가. 갓다왓닥 헤 가는디. 경헤 가난 질레서도 말덜이 하영 ᄀᆞᆫ는 거야. 그 전인 경 솔솔 ᄀᆞᆫ주 질레서 뎅기멍 야 야 ᄀᆞᆫ는 사름 엇곡. 등록 잇어도. 경허고 그때덜은 저 노는 할망덜 다 일허니까 질레서 봐도 그자 인서정도.
게난 이제서야 영 만낭 말덜 ᄀᆞᆫ고 허는 거라?
으, 이제 늙어가난 일도 엇고 겐디 일본 사름덜은 질레서 ᄒᆞᆫ 엇이 말덜 안 ᄀᆞᆯ아 놀지 아 허니까. 여기덜 오래덜 사난 막. 그땐이 칠십, 팔십 난 할망도 다 집이서 일허여라. 나이쇼꾸(ないしょく) 닮은 것덜. 게난 나오는, 질레 나오는 사름도 벨로 엇어. 다덜 집이서 닮은 천 월 벌이라도 오백 원 벌이라도 허멍 살앗주. 마(ま), 일본 사름덜은 집이서 밥 허곡, 이제 ᄀᆞ치 상 먹지도 안 허고 집이서덜 헹 먹으니까 허곡 헌디. 이젠 일본도 이젠 완전히 펜안허게 살암저.
큰아이 날 때 병원 갓수과?
큰아덜 산바 강 낳저.
게민 거기는 한국사름이 허는 거?
아니 일본 사름이라도 산바 가민 현금 물민 헤줘.
아, 등록 엇어도 헤 줫던 거?
어. 그땐 다 산바덜. 집이서 나는 사름도 잇곡 그디 강 나는 사름도 잇곡. 두 번채 아덜은 병원에서 낳고.
등록 엇인 때 아니?
등록 엇어도이 그런 병원이 잇어라. 가난에 저 등록 엇젠 헷주게.
게민 큰아덜 나근에 미역국 먹어지고 헷수과?
큰아덜 낭 메역쿡 안 먹엇저.
ᄆᆞ물초베기라도?
ᄆᆞ물초베기도 안 먹엇저. 우리집 아방 오코노미 상 왓어라. 하하하. 헐 충을 알아사

허주.

아이고 어떵헤.

큰아덜 난에 산바서 나난 일주일 그디서 살아 놓난 집이 오난 우리 언니가 대마도서 쪼금 놀 때난 집이 완에 메역국이영 뭐 헤줘라. 산바 이실 때 먹을 거 거기서 다 주고. 일주일 동안은 병원에서. 아기 배똥줄 털어질 때꺼장은 그디 잇게 해줘. 겐디 그 시절에 이만 얼마 물엇저. 족은 아덜은 거저 오만 원 가까이 물고. 일주일썩 살아 놓난.

그때 일허민 한 달에 얼마 벌어질 때과?

큰아덜 날 때 혼 이만 원 더 벌엇주게.

게민 한달 번 게 들엇구나.

족은아덜 날 때도 그 정도. 아니, 족은아덜 날 땐 더 벌엇주. 경헌디 그때 일이 하니까 아기 나는 아시날 ᄁᆞ장 일헷어. 일 안 헤여근에 집이 놀민 일 허는 디서 와근에 아기 나는 날꺼지 허여도 아무충도 안 헌다 헨에 간에 저 큰아덜은 혼 삼일 놀앙 아기 나신디 족은 아덜은 혼 시ᄁᆞ장 일허여근에 저냑 다섯 시에 나부난. 하하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뒈?

ᄋᆞ섯 설 차이.

애기 낭 며칠 만에 일을 헷수과?

큰아덜 난 해에 훤 백일 이상, 멧 개월, ᄋᆞ덥덜 이상 일 안 갓저. 집이서 나이쇼꾸(ないしょく)만 헷주. 나이쇼꾸(ないしょく) 가져다 주니까 그 시절에. 가져다 주니까 일 헷주. 일 안 나갓저. 족은아덜 난에 혼 백일 정도 일 안 헤신디이 일이 너미 바쁘니까 아기 지네가 봐 주크메 일 헤도렌 헹 돌아가난 그디 저 이제거트민 하꼬쯔미(はこつみ) 허는 일 그런 거 할망 둘 헤영 하꼬쯔미(はこつみ) 허여. 게민 족은아덜은 그 할망덜이 봐 줘. 족은아덜은 혼 백일 나난 일허고. 아방이 일 못 허게 허여.

큰아덜 난 후에도 하리꼬(はりこ)?

하리꼬. 그것베끼 배운 일이 엇이니까.

게민 그때 데령 간 거? 팔개월짜리를?

아니 팔 개월 넘언에 일 년 넘도록은 남안티 돈 줘에 저 메껸에 빌언 보고. 혼 일 년 넘어가니까 데령 갓주.

경 애기 봐 주는 사름이 잇어낫수과?

그때도 잇언. 자기 아기덜 데려근에 사는 사름덜은 이녁 애기 ᄀᆞ지 보믄 자기도 일 못 헹 집이 아기 보고 놈의 아기 혼디 보민 마(ま), 멧 천 원 버니까. 그 시절에도 이삼천 원썩, 혼 오천 원썩 주믄 애기 봐 주니까. 나이쇼꾸만 헹은 밥은 못 먹주게. 아방이 벌어오니까 나이쇼꾸(ないしょく) 허주만은 혼자만은 못 허주게. 난 글후제

아방 걸령 가부난 일 다녓주게. 애기 매껴던. 매껸 걸어뎅기고 허여 가난 데령 뎅겻주. 견디 큰 아덜이 겨울 들민 귀만 곳아. 베꼇디서 하도 놀아나니까. 하하하.

베꼇디 아이덜이영. 그땐이 아이덜도 경 베꼇디서 놀아라게. 놀레 가진 못 허게 헤도 베꼇디만 둘아라.

일허멍 애기 키우멍 안 힘들엇수과?

게난 이제 이추룩 병이 나는 거 닮나. 어느제도 요디 제주시 쪽이라. 이디 병원장 원장이. 어디 조천, 그쪽이렌 헤라. 학실히 몰른디. 경헌디 그 병원장이 나신더레 특별히 나쁜 딘 엇덴. 견디 이디 저 그 뭣이 엇덴 허는 거라. 엇어젼젠 이디 허는 디 이착 다리도 허리도 그만큼 나빳젠 허는 거라. 경허난 수술을 허지 맙서 허는 거라. 이디 수술허젠 허민 세 밧딜 헤산덴. 경헌디 또 하난 거세기. 몸이 전부 헐엇덴. 병원장이 허는 말이. 속이나 몸이 낫설보단 나빠졋덴 허는 거라. 경허니까 자꾸 못 젼딜 때는 덴떼끼(テンテキ)라도 맞읍센 허는디 것도 가지진 안 헌다. 게도 경 버쳐베지는 안 허고. 이디 쪼금, 쪼금 더워라 허민 열 올르고. 쪼금 뭐 허민 콧물 촐촐 나고. 그것뿐이주 그 이상은 뭣이 엇어. 허난 그것이 몸이 나빠진 거렌 허는 거라. 견디 이 동무럽도이 앚앙은 안 아픈다. 걷젠만 허민 아프주. 제주시 한라병원에 성님네 족은아덜이 거디 허는 아이주게. 작년 재작년이 간 때 경 곧더라. 이모 앚아근에 아프지 안 허건 수술허지 맙서. 앚아도 아프거덜랑 그때랑 헐 수 엇이 수술헤붑서. 게난 어떵 어떵. 이디 다리 힘이 너미 엇덴 허는 거라. 경허난 낫설보다 열 설 정도 많은 힘이엔 허는 거라. 경허난 테레비서 보난 인삼이 다리에 힘이 좋덴 허권데 인삼은 못 먹주게. 겐 홍삼 산 왓어라.

이젠이 일당이 다 내려부난 경허부난 이제덜은 거 허는 사름덜이 엇어. 엿날부터 허는 사름이나 허주. 이제사 허는 사름덜은 엇나.

신발 하나 만들젠 허민 단계가 어떵 됩니까? 본을 떵 보내는 디가 잇고.

다, 반도(バンド)영 다 만들어졍 오느녜. 그거 풀로 부찌는 거라. 가다(かた) 놔근에 쒜로 헤진 가다. 거기 놔근에 풀 멕이멍 만들언 신발을. 게난 보통 구쯔(くつ)도 그거주게. 그 가다에 끼와근에 반도는 반도대로.

그니까 신 창은 신 창대로 본 떠 오고?

다 헤영 온다.

우에 거는 우에 거대로 오고. 경허민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만들앙 그거 하꼬(はこ)에 담으민 신발 픈는 더레 가는 거주.

그럼 하리꼬(はりこ) 허는 게 마지막 작업이다예?

으, 으. 견디 이제 허는 딘 한국서 신 창 많이 온다. 보통 한국서 온다. 겨난 일본 거 쓰는 거보다 한국 것이 헐러녜. 경 곧더라. 무사 이거 한국 거, 일본 것보다 물건이 나빠. 베고, 창이. 한국 게. 경헌디 무사 이거 썸신? 허난 헐러난 썸젠 허더라.

상당히 헐런 셍이라 비행기로 그 보내 오는 셍이라라. 여기서 맞추진 못헴덴 빨리 오민 비행기로 오는 셍이라. 경 곧더라. 아메도 이딧 거보다 상당히 헐러난 한국 거 썸젠. 존 물건은 또 이디 거 쓰고. 그디도 한국 거 이디 거. 겨난 그 신 가게에 뚜 나는 거 아니. 흔 배 만들민 수십 원, 오십 원 감실 거여. 견디 나레루(なれる) 헌 사름은 하루에 이백 배 정도 허주만은 나레루(なれる) 안 헌 사름은 못 헌다.

아, 나레루(なれる) 헌 사름은 이백 배 허여.

이백 배 더 헌다. 그런 사름은 그 기술 이신 사름은 보통 만 원 벌이 헌덴 허여.

하루에?

으, 경헌디 열 시간은 헌다. 영 보민 아침부터 허는 사름 빨리덜 오주게. 빨리 오고 저냑엔 다섯 시 정도에덜 다 간다만은 그냥 빨리 와. 게난 일이 박허여. 게난 젊은 아이덜이 안 허느녜. 한국서 결혼, 국제결혼 헹 온 아이덜은 가이고(介護) 허는 일들만 배우느녜?

그게 편해?

편험보단도 시간이 자유 뒈는 거 아니. 흔 집, 하루에 두 집, 세 집 헤영 아이덜 보멍도 헐 수 있고 이건 시간을 하영, 하루종일 헤야난. 게난 보통으로 가이고 허는 사름덜 보민이 다 한국서 온 사름덜이야. 말 허는 거 보민, 일본 말 허는 것도 서툴고 허는 거 보민. 보통 일본 사름보다 하. 이디서 가이고 허레 뎅기는 거 보민. 그 공원에도 왕 말허는 거 보민, 무신 일 험디? 허민 가이고 허염수다. 돈이 많으냐 허난에 돈 흔 시간에 천 원인가 천이백 원 주덴. 경허민 하루 주물앙 안 헤도 멧 시간씩만 헤도 남편 일허민 도움 뒌덴. 흔 밧디 가민 하루 흔 시간인디 이젠 사십오 분이엔 허는 거 닮아라. 겨난 청소나 쪼금 허주, 견디 청소 왕 보민 콤콤인 안 헌다. 대충 막 영 보난. 그 시간이 그 정도베낀 안 뒈난. 마(ま), 시장 못 가는 사름은 시장도 봐다 주고. 밥, 반찬 못 만드는 사름은 것도 만들아 주고. 소지(そうじ)허는 사름은 소지도 헤 주고 그자. 그 늑신네덜 병에 똘라근에 많이 아픈 사름은 이틀에 흔 번, 매일 오는 디도 잇고. 또 일주일에 흔 번 오는 디도 잇고. 견디 일본 사름은 흔 엇이 안 쓴다. 우리 한국 사름덜 하영 쓰주.

삼춘 눈 아픈 것과?

아니여. 눈덜 다 이제 못 봐 가난 수술허는 사름덜이 하지 안 허느냐. 안적은 그건 안 헷저. 허렌은 안 헌다. 테레비 보는 건 지장 엇고. 병원에서 작년이 정돈 허여사 헌덴 허는디 올린 허렌 안 헴저. 병원에서가 기정 허느녜. 우리가 기정허는 것이 아니고. 작년이 곧으난 안적은 안 허쿠다 헤신디 요번이 간딘 안적은. 경헌디 이 눈물이 나 자꾸. 눈물 나는 것이 고칠 수가 엇덴 허여. 이 눈깍이 누려가난 더 뭐 헴신가 허연. 눈깍을 올리민. 경헌디 걸 수술헤사 헌덴 허난, 병원에 입원허영. 걸 어떵 허느니게. 경허난 이 눈깍을 올리민 권찮은덴 허는디. 돈은 안 든다. 생명보험꺼장

다 들엉 이시난 그디서 돈 나오기 때문에 이녁 돈 안 들어도 뒈는디 요자기도 아덜이 수술허민 어떵허과 허난 허고 싶지 안 허다 헷주.

여기 이시멍 제주도 음식 뭐 먹고 싶은 거나 그런 것 엇수과?

이 조선이찌바(いちば) 다 제주도 음식덜 이시네게. 엇인 거 시냐게.

지금이야 막 잇주만은?

옛날에는 다 이녁냥으로 멘들멍덜 먹엇저. 옛날엔 멜첫도 담으멍 먹어라.

삼춘도 담앙 먹어나고?

난 멜첫은 안 먹으난. 경허난 담앙 놔두민 누게 줘불엇저만은. 담아보긴 헷저. 멜, 멜이 막 헐헐 때가 잇어. 이삼백 원어치 사도 그 벵으로 하나 허난에. 누게 사와시난 지정 먹어신디 남으난 이거 어떵허코 허난 커피통에 소금헤근에 담앙 놔두민 멜첫 뒙니다 허난 ᄒᆞ룻 저냑, 그 어른 시켜준 거 ᄒᆞ룻 저냑 소금 헤여근에 담앗당 그 물 빼여둬근에 뒷날 또 쪼금만 소금헤여근에 놩 놔두렌 허는디 ᄒᆞᆫ 멧 개월 놔 두난 벌겅허게 익엇젠 허멍 그 어른이 앗아 가라. 하하하. 이거 맛좋게 뒈어수다 허멍 앗아가더라. 난 짜부난 벨로 좋아라 안 헌다. 막 자리젓덜 한국서 허여단이 막 덜 먹나만은 그자 하나 정도 먹으나 마나.

고슈진(ご主人)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사도 안 헷구나예?

아니, 시어멍 시아방 제사를 헷주게. 겐디 아방 산 때에 제주도 가난 시아주방네가 그디가 큰아덜인디 우리가 허게 뒈민 그디가 안 허켄 허난 게민 아방이 이디 아이덜은 분시 모르니까 안 허켄.

그럼 그때 여기서도 허고 제주도서도 헤난?

으, 으. 양펜이서 헷주.

아, 아이고 제사 먹으레 어디 갈지 고민헤시쿠다게.

하하하. 경헤신디 그 한국 가난 시아주방네가 여기서 허민 거기서 안 허켄 허난 거기서가 제라허게 헙서 헹.

시아주방이 위과?

우이, 우이. 큰아덜이니까. 돌아가 불엇주만은.

그럼 삼춘네가 멧 번째?

세 번째. 젤 큰성도 엿날에 이 일본 완 살아낫젠 허더라. 한국 들어간에 배 사고가 난 돌아갓젠 허더라. 그 제사도 헤낫저. 이디 살아나난 아방이이.

게민 시집와 가지고 얼마 만에 식게를 헌 것과?

시집왕 뒷해부터 허여신가. 형이 여기 살단 제주도레 들어가단 바당에서 죽어분 거닮아.

그민 해방뒌 때?

해방뒌 때산디 그건 몰라. 스물, 스물 정도에 뭐 헷덴 허드라. 그 제사를 헷주. 근데

그 제사영 시아방 제사영. 시아부진 그 후제, 후제 돌아가난. 허단에 그디서 다 헨 다 그디서.

시아방은 제주도 살단 돌아가신 거 아니?

제주도.

경헌디도 여기서도 제사헌 거?

으.

게민 제사헐 때 음식은 뭐 헤난?

음식. 젓갈 보통 세 가지. 시아주방 바당에서 죽으난 저 바당고긴 안 쓰더라. 도야지 고기, 소고기 여기서. 요샌 에비(えび)덜 헌다만은 그 시절은 상이덜 허여. 지금은 에비(えび) 헌다. 점점 제따꾸(ぜいたく) 낭이 이젠 상이덜 안 먹으난에. 늑신네덜은 먹나만은 젊은 아이덜은 안 먹어라. 생선도 올리고.

생선은 무슨 생선 올려?

오토미. 제사헐 거 다 이제 사단에 물련에 냉동헤 놔 뒀저.

일본 여기 시장에서 다 산?

으. 오토민 허고 과일 세 가지, 다섯 가지. 과일은 여기 하난. 그자 그 정도주게. 떡 조금 사단 올리고.

떡을 만들엉 올리지 안 헷수과?

엿날에 송편ᄀᆞ튼 건 만들아신디 지금은 아무도 안 만든다.

시리떡도 만들고?

시리떡은 집이서 만들어 본 도래 엇다. 송편 정도 만들엇주만은. 그 시절에도 완 보난 시리떡은 만들앙 풀암서라. 게난 보통이 시리떡 ᄀᆞ튼 거, 손 가는 건 다 사단.

어디 강 사?

여기 시장에 ᄑᆞ느녜. 엿날부터. 엿날은 더 풀앗저. 이젠 하영 아니 쓰니까 조금만 허주만은. 카스테라엔 헌 거 그런 것도 쓰는 집 잇곡이. 나도 떡 ᄒᆞᆫ 엇이 아니 사진다.

게민 음식 ᄎᆞ리민 그거 궤는 건 여자가 헷수과, 남자가 헷수과?

나가 허주게. 아덜덜은 왕 절허는 거베끼 몰라.

그거 올리는 순서덜도 있는 거 아니?

순선 적당히 올렴주 걸 누게가 아느니. 그자 사라에 놓멍 그자. 과일거튼 것도 다. 사과민 사과. 만허니까 사과민 ᄒᆞᆫ 사라에 사과만. 또 미깡은 미깡대로 올리고 이 감철 나민 감 거튼 거, 배 거튼 거 다 올렷주게.

게민 떡은 맨 밑에 시리떡 놓고.

시리떡 놓고 우이 송편 ᄀᆞ튼 거 빵도 올리고 그 센베 닮은 그 과자 닮은 그런 것도 올리고.

뭐 기름떡 같은 건?

기름떡도 올리는 딘 올리는디 요새덜은 안 먹느녜. 게난 그런 걸 아니 써 ᄒᆞᆫ 엇이. 먹는 사름덜은 잇어도 제사 넘어나민 그런 떡 ᄀᆞ튼 거 아무도 안 앚앙 간다. 카스테라 거튼 거 빵 거튼 거 허민 다 앗아가니까 그런 거 허주. 거난 아방 유골 논 디 틈틈이 가민 시리떡 사.

국은 뭐로 끓여.

국은 소고기로 끌릴 때도 잇고 바당 고기로 끌릴 때도 잇고.

바당 고기는 뭐?

오토밀 사단 끌리나. 아이덜이 바당 고기 국 끌리민 먹젠을 안 허여. 경허니까 소고기 사단 국 끌리는 것이 좋아해. 소고기 상 국 끌리는 게 헐헌다. 오토미 이디서 ᄑᆞ는 거 ᄒᆞᆫ 마리 천오백만 원, 존 걸로 사젠 허민 이천 원. 젓갈이나, 소고기 젓갈이젤 하영 헌다. 다 먹으니까 불고기덜은 식당에 강 얼마든지 먹을 수 잇주만은 젓갈은 식당에 가민 엇이난에.

손지덜도 좋아해?

좋아헌다. 큰손지쯤은 콥대사니 지시도 잘 먹나. 콥대사니 지시. 겐디 일 감 시작허난 안 먹나. 학교 뎅길 때 그거 해년마다 담아 줘신디. 직접 담아신디 이젠 안 먹쿠다.

콥대사니 지시 담아 봅서. 어떵 담앗수과?

나는 담게 뒈민 콥대사니 허여근에 장물 사다근에 그냥 ᄒᆞ룻저냑 그 장에 커. 컷당 ᄒᆞ룻저냑 크민. 컷당 뒷날은 차롱에 걸려근에 그 장물에 저 혼다시 쪼금 놓고 설탕 쪼금 놓고 술 쪼금 놓고. 겐 짜민 난 물 놔불어. 물 놩 막 꿰와. 세 번 꿰와 논다.

꿰왕 식형 다시 꿰와?

응. 식형 담앙, ᄒᆞᆫ 이틀 담앗당 또 건졍 또 그때 맛보멍 짜민 물 ᄒᆞ꼼 더 놓고 짜지 안 허민 그대로 허민덜 다 맛좋덴 헨 다 앗아 간다. 경헌디 올린 일본 콥대사니가 엇어서. 한국서 온 거베낀 엇어어. 해년마다 쪼금썩이라도 헤신디 올리는 안 담앗저.

김치는 안 담앙 먹엇수과?

김친 엿날에사 쭉 담앙 먹엇주.

김치 담아 봅서, 엿날에 김치 담아난 거.

김치 엿날엔이 조기덜이 이디 하영 나라. 그거 사단 막 세 시간 정도 딸리민 물이 헤영허여. 그거 걸려근에 그걸로 다시 헤여근에 김치도 담고 그 시절에 경헤라. 가쯔오부시 그런 거 곤부 거튼 것도 딸령도 허고. ᄀᆞ을 뒈민 뒈나마나 김치 담아사 허여. 그때는. 이거 아니 담은 거 ᄒᆞᆫ 삼십 년 뒛주.

게민 고춧ᄀᆞ루도 이디서 다 나와?

고춧ᄀᆞ루도 여기서 다 풀앗어. 겨난 이녁으로 고칫ᄀᆞ루 사단 놓고 마농도 여기 ᄑᆞ난 저 생강도 ᄀᆞᆯ아 놓고. 겐 에비(えび) ᄀᆞ튼 거, ᄆᆞᆯ른 에비(えび) 그런 거 막 ᄉᆞᆲ아근에 다시 내영 그런 것도 놓고. 겨믄 집이서 만든 건디 맛좋덴 허는 디 이제덜은 하영

안 먹어부난. 그땐 이것저것이 엇어사 헌디이 김치 하영 담아도.

몇 포기나 담아낫수과?

몰라도 대여섯 포기 더 담아. 경헤도 ᄌᆞ슬에 먹단 부족허민 또 담곡 헷주.

배추는 여기 느량 이시난?

이신디 일본 사름덜도 배추 하영 먹는디 이디 배추는 물이 하영 난다. 한국 배추 담지 안 허영. 한국 배춘 물이 하영 안 나니까 김치가 오래 놔 둬도 헌디 이디 껀 오래 놔 두민 막 물 나온다.

게민 옛날에 곧 결혼헤 가지고 막 밥 헤 먹을 때는 김치.

그런 거 다 이녁냥으로 담앙 먹엇주.

반찬 또 뭐 헹 먹엇어?

반찬 뭐 이제나 그제나 같으주만은 이제 거치 막 하질 안 허니까 이녁 냥으로 고기 ᄀᆞ튼 것도 그때 풀레 뎅기는 사름덜도 막 하라.

무슨 고기를 풀레 뎅겨?

저 고등어 ᄀᆞ튼 것도이. 생선 종류 ᄀᆞ튼 것도 다덜이, 다덜이 자전거에 시꺼가지고 풀레 뎅기는 사름덜이 잇어. 그 시절에. 겨고 시간, 날짜 정허영 오니까 다 그 시간 뒈민 덜 사레 나가. 낭푼이 거튼 거 앗앙 다 풀앗주. 또 시장도 있으니까 시장에도 가민.

처음 왔을 때 여기 살았잖아예. 시장이 영 헤낫수과?

이추룩 하지 안 허여. 하지도 안 허고 틈틈이 할망덜 저 쪼그만 것에 놔근에 쪼금썩 허영 풀앗주. 이추룩 하영 아니. 겐디 그 어른덜이 그거 풀앙 돈 벌멍 ᄎᆞᄎᆞᄎᆞ 허난 집 사멍 저추룩 크게 뒈엿주. 그땐 경 멧 집 엇언.

야채 풀고 떡 풀고 그런 집이라예?

으, 하나썩 두 개썩 잇엇주 경 하지도 안 헷주. 겨고 김친 경 하영 사 먹지도 안 헷고. 이녁냥으로덜 다 만들앙 먹엇주.

게민 김치도 헤 먹고 지시도 헤 먹고 저기서 먹어난 거 먹엇신게.

다 허여 먹엇주게. 다덜 여기 재료로. 뭐 고칫ᄀᆞ룬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거산디 한국 거산디 거 모르고 견디 그때는 바당고기 같은 거 생선 거튼 거 막 싱싱허여. 냉동을 안 시켜 오니까. 그때 그때 헤영 왕. 잡은 거 사다근에. 저 배추 ᄀᆞ튼 것덜도 다. 시장에도 잇엉, 쪼끔썩 헌 시장이 막 이디 저디 잇엇주게. 그디서 쪼끔썩 사단 먹고. 겨고 이제 거치 이것 저것 반찬덜도 헹 먹지 못 허고.

아이덜 생일날 뭐 특별허게 만들어 줘난 건 엇수과?

생일은 특별히 안 헌다. 케끼(ケーキ)나 사단덜 밥이나 헹 먹주. 지금이난 막 허주 엿날엔 경 안 헷저. 우리 아이덜은 이제도 생일 안 헌다. 저 백일이나 일 년이나. 저 손지덜도 중ᄒᆞ교 졸업허난 이젠 생일 안 허쿠다 헨 안 헤라.

아이덜 키울 때 돌 뒐 때 ᄑᆞᆺ밥 그런 것도 안 헤낫수과?

풋밥덜 허더라 옛날에. 겐디 중간에부턴 아이덜이 풋밥을 아예 안 먹지 요즘 아이덜이. 경허난 베리지도 안 허난 안 허지.

삼춘도 헤낫수과?

헤낫주게, 풋밥 거튼 거. 이제도 틈틈이 헹 먹나만은 아예 아이덜은 베리지도 안 허고 먹지도 안 헌다. 생일날 ᄀᆞ튼 때 보통 때도 풋 사다근에 밥에도 놩 먹고 죽도 쒕 먹고 허여신디.

아덜덜 키우멍 돌 상 차려주고 그런 거 헷수과?

그런 거는 집이서 이녁 식구만 허주게. 이것 저것 올려근에 헤 줘신디 손지덜ᄁᆞ장 돌 정도 헌디 이 년 넘어가난 그런 거 허지도 안 헤라. 그자 케키(ケーキ) ᄀᆞ튼 거 초밥 ᄀᆞ튼 거 만딱 집이서덜 사다근에덜 먹고 저 나베엔 헤근에 끓엉 먹는 것덜 그런 것덜 먹고정 헌 거 사단.

이디서 식게 먹으러 가고 그런 건?

전인 막 뎅겻주게. 일가덜 이시난 제서 먹으레도 가도 멩질 먹으레도 가고 헤신디 이제덜은 아무 것도.

겐 제서 먹으레 가젠 헤도 빈 손으로 안 가실 거 아니?

그땐이 술을 사 가더라. 저 이수펭으로 하나 담아진 술을 사가나 뭐 두 펭 사가는 사름도 잇고 경헌디 이제덜은 술을 먹지도 안 허고 올리지도 안 허고. 마(ま), 올려도 ᄂᆞ리민 베꼇더레 케우려 불주 아무도 안 먹나만은. 경헌디 이젠 돈으로 앗앙 가주 술은 안 앗앙 간다.

쏠 같은 거라든지 상웨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안 가졍 갓수과?

엿날에는 앗앙 가는 사름덜도 잇엇주게. 나도 아버지 제서엔 빙 만들앙도 앗아가나고 경 헷저.

아부지 제산 누구 아부지 제사?

우리 아부지 제사에. 오빠네 집이서 허니까.

게민 그 사삼 때 돌아가신 제사를 이디서?

여기 큰오빠가 이시난 큰오빠가 헷주.

언제서부터 헷수과?

나 완 보난 헴시난, 몰라.

아, 여기서 제사를 헷어?

한국서도 허고 여기서도 허고. 두 밧디서 헷주게.

두 밧디서 허여.

큰언니도 여기 이시난 처음엔 세 밧디서 헤실 거여. 큰언니넨 대마도서 사니까. 아버지 제사는.

게민 아부지 어디 먹으러 갈 거라?

몰라. 한국서 어무니가 허고.

지금은?

이제는 한국서. 이제 조케만 허는 거주. 오래비 아덜. 이디 헐 사름 엇이난. 헌디 아부지도 하도 오래 놓난 제서도 잊어분다.

게민 삼춘도 이디서 제사헐 때 빙 지졍 그거 제물로 헹.

으, 오빠네 집이서 오빠 산 때 제사 먹으레 간 때이.

몇 번이나 경 빙 지졍 가져가 보고 헤낫수과?

멧 번 헤져시디 모르켜. 모르켜만은 그거 헤난 건 ᄒᆞ쏠 기억난다.

빙 지지젠 허난 어떵 지졋어?

ᄆᆞ물ᄏᆞ루 그때도 잇어라 여기. 게난 ᄆᆞ물ᄏᆞ루 사단에 거 여긴 또 그때부터 가스가 잇으난

가스에서 후라이판 놔근에 지졋주게. 경헤신디 ᄒᆞᆫ 멧 해 허나마나 헹 글후제덜은 그 송펜을 자꾸 만들아신디 것도 멧 해 허나마나 허난 아예 사단 올리주 만들지덜 안 헤.

상웨떡도 헤 봣수과?

상웨떡은 안 헤 봔. 나 제주도서 헤 봣저. 여긴 게난 엿날에 제주도식이 지금도 남은 디가 하주게. 이제도.

고슈진(ご主人) 돌아가신 게 몇 년 뒛수과?

ᄒᆞᆫ 이십 년 뒘저.

게민 그때 장서는 어떤 지내서? 제주식으로?

이딘 저 죽으민 ᄒᆞ루 정도베끼 안 놔준다. 놩 술아 부느녜. 술고 또 사십구젠 그 논디서 일본 절간에서 허고. 집이서 일 년 동안 상 놧저 나가.

여기서 일년 동안 상 놘?

으. 상 놓난에 소상도 허고 삭망도 허고.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

삭망도 허고? 이십 년 전에?

으. 이십 년 전에. 정확히 십구 년 뒛저.

십구 년 전이면 1998년도네?

99년도에 돌아갓저.

경헌디도 삭망도 허고?

삭망허고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 삭망허고 일 년 동안 상 놓고. 구양풀이도 허고.

그럼 상 놧을 때 매끼 밥 올리는 것도 허고?

밥은 허영 올렷주게. 아침에는 나가, 커피허고 빵허고 올렷단 나 먹고. 점심에는 일가부는 따문에 올리지 못 허주게. 경허고 저냑에는 밥 헹 올리고.

아이고 게난 상시를 헷구나.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 삭망허민 아이덜 다 와근에 삭망 먹고.

게민 삭망헐 때도 음식헤영?

으, 제서허는 거추룩 많인 안 헤도. 조금 상에 올령 ᄂᆞ류왕 먹게꾸름.

식게는 멧 시에 지내낫수과?

식게는 이제도 빨른다. 이디선. 아홉 시 뒈가민, 옛날에도 열 시 뒈가민 다 허고.

삭망은 언제 지냇어?

삭망은 쳇 공일날 삭망헷저. 저 ᄒᆞᆫ 덜이민 초승에 쳇 번채 일요일날. 다 일허기 때문에 초ᄒᆞ루날 못 허고 보통 경헷저 이디덜은. 견디 상 안 논 디가 ᄒᆞᆫ 십 년도 안 뒈실 거여. 그때꺼장 놔실 거여. 이제도 사십구제꺼장 놓는 사름은 놔.

게난 옛날 사진들 보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상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데 다 제주식을 옷을 입어십디다. 영덜?

견디이 우리집 아방네 죽을 때ᄁᆞ장은 아니라. 우리 큰언니네 돌아갈 때ᄁᆞ장은 이 옷덜 다 입엇주게. 우리 큰언니가 돌아간 게 거저 사십 년쯤 뒈염저.

사십년이민 칠십년대 맞수다. 칠십년대, 팔십년대까지 이런 옷덜 입엉 헤선게.

그땐 입언이 저 ᄒᆞᆫ 덜에 두 번 삭망 헷저. 초ᄒᆞ루허고 보름날. 두 번 헤신디 글후제ᄎᆞ ᄎᆞ ᄎᆞ ᄎᆞ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씩만 허고 그런 옷덜토 안 입고.

삼춘 여기 이시멍 여기 사름덜 굿허는 것도 봐 낫수과?

으. 굿덜도 크게 이제도 허는 딘 크게 헌다.

이제도 허여.

허는 디가 잇어. **허는 집덜이 잘 헌덴 허더라.

삼춘은 안 헤 보고.

나도 굿 하영 헷저.

굿 하영 헨. 어떤 굿덜.

휴~.

아이고 한숨이 먼저 나왐수다.

난 그런 거 ᄒᆞᆫ 엇이 모르는디이. 그 젤 처음에는 언니덜도 잇고 고모덜도 이시난 마(ま), 모든 것이 집이 펜안헤 가민 굿이라도 헤시민 허영 헌디 헌 십 년 넘어신가 어디 절간에 책 보는 디 갓어. 십이삼 년, 십오 년 뒈실 거라. 가난에 이제랑 아무것도 허지 말렌 너미 많이 헷덴. 게난 허지도 말고 보레 뎅기지도 말렌 헤여부난. 글후젠 절간에는 간다. 일 년에 ᄒᆞᆫ 번베끼 안 가주만은.

허지 말렌 허난 후련허쿠다.

이제도록 헌 것이 만허니까 헐 필요가 엇덴 헹 글후젠이 그런 거 허지도 안 허고 가지도 안 허는디 절간에만 그자.

언제 굿 헤낫수과?

보통으로 음력 정월 아니민 삼 월에가 하영 헤라.

그럼 그 굿을 매년 헷던 거?

그땐이, 엿날엔이 틈틈이 헤여신디 말째엔 삼 년을 부쪄 놩 허엿주게. 그때에 그 심방 허는 말이. 삼 년만 부쪄 놩 허민 언니 이젠 안 헤도 뒈 헨 헤여신디 그 어른도 죽어 불고 헨에 십 멧 년 전이 보레 가난 아예 허지 말렌 경 곧더라.

게난 누구 특별허게 아프거난 헌 거 아닌데도 집안 좋으렌 헌 거구나.

그런 거주게. 초상덜 헤여 놔근에. 이제도 이디 그런 미신 막 한다. 매해에 허는 집덜 막 한다.

지금도 매해에 헤마씨?

으. 돈 하영 드나 족영 드나 곱엇이 다 헌다.

굿 허젠 허민 영 집이 왕 허는 거 아니?

산에 강 허는 사름덜이 한다.

집이 불렁은 안 헤?

옛날에 난 집이서만 헌디 저 사꾸라노미야엔 헤근에 그디서도 허고.

이거, 이거. 사꾸라노미야, 용왕궁. 영 생긴 거?

으, 으. 경헌디 이제는 그디 엇다. 엿날에는 그디 강덜 헤낫저.

그럼 사꾸라노미야는 굿 헐 때만 가는 것과 아니민?

으, 그냥은 안 간다.

그럼 책 보러 간덴 허는 거는 어디 강 책 보는 거라?

이 무을에 시님덜 막 이디 저디 부쪄지지 안 헤시냐. 그런 디주게. 견디 이젠 늙어 가난 것산디 할망덜도 보레덜 안 가. 젊은 때덜은 경 하영 가신디.

게민 여기 사꾸라노미야는 굿 헐 때만 가는 거구나.

굿 헐 때. 이젠 못 허게 헨 안 허느녜. 전인 그디 일본 사름이 집 직허는 사름이 잇어. 저 째그만헌 막거튼 집을 만들앙이 경허영 굿 허레 간 사름안테 돈 받앙 빌려. 경 그 사름덜은 그디 막에 강. 그디서 허단 것도 다 엇어져불어신디. 그디 가민 돈 얼마 주민 거 방 빌려주느녜. 겐 그디 빌언 나 그디 올려난 것도 주곡 허민 그 사름은 그거 먹곡 그 돈 받아근에 그디서 생활허는 거야. 견디 중간에 엇어져 불엇주.

게민 굿 허젠 허민 굿 헤주는 심방안티도 돈 주고.

으.

여기는 집 빌리는 값으로 또 돈 주고?

집 빌리는 건 얼마 안 허난. 견디 심방은 둘앙 가사주게.

게민 심방 둘앙 훈 번 굿 허젠 허민?

훈 번 굿 허젠 허민 아멩 못 헤도 십만 원은 들엇사 굿 허주게. 그냥 용왕 멕이로 가는 딘 경 하영 안 들고. 요왕 멕이 가는 디 할망 둘앙 가믄 차비 허고 그자 돈 일이만 원, 이삼만 원 주민 뒈는 건디.

용왕 멕이 허는 게 무슨 것과?
제 지내는 거야. 제 지내고 또 그디서 굿도 허느녜? 그 심방덜 데령 가민.
왜 굿 허게 뒈민 막 뀅과리 막 치멍?
으, 게난 그디 가민 그걸 허여도 먼 디선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헤나신디 막 테우고 막 헤가난 막 소방소 오고 헤가난 이젠 못 헴주.
게민 삼춘 집에서도 불렁 헤낫잖아예?
허여도 그 텝는 건 앗앙 간다. 집이서 안 헌다. 텝는 건 어디 산에 강 어디 강 허주.
집이서 헐 때는 그냥 조용히 제 지내는 것만?
아니, 대왕 풀이도 헤도 이 ᄉᆞ방엔 뭣 안 헌다. 다 허니까. 이 집이 무신 일이 잇엉 허염구나 헤영 그자. 알아도 모른 척 헌다.
시끄럽덴 뭐 항의하거나는?
아니, 아니.
아멩헤도 일 월에서 삼 월, 정월에서 새해 뒐 때 액막이 허는 거?
으, 액막이ᄀᆞ치. 겐디 이제덜은 절간에 강 액막이 헤부는녜. 절간에 가민 얼마 주민 다 액막이 헤주니까. 보통 이제도 식구 다 액막이 허젠 허민 돈이 많이 든다. 이름 썽, 저 사라시(さらし) 거튼 거 그디서 다 헤주고 헌다. 이만 원만 들이민 다 헤준다. 겨고 일본 절간에 하영 뎅기고이. 이, 이디 진자 잇잖아. 그딜 하영 뎅긴다. 그디가 이디 터 신이 잇는 디녜. 그디가 이 ᄉᆞ방에 터 신.
이 미우끼모리 진자?
으, 저디 관음사도 잇저만은 건 한국 절간니까 일본 사름 안 뎅기주게. 이 미유키모리 진자에서 일 년에 두 번, 두 번인가 여름허고 ᄀᆞ을에 허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막 돌아뎅기멍 굿 허느녜 이디서. 이 땅 펜안허게 헤 도렌 허멍이. 견디 그때 일허는 집인 들어강 얼마썩 돈 받아간다. 게난 얼마 그건 기정 안 뒌 거.
주고 싶은 만큼.
으, 이녁 주고 싶은 만큼 보통 준다.
그거랑 똑같은 건게게. 우리 촌에서 정월에 집집마다 돌아뎅기멍 걸궁허는 거나.
이디도 거 헌다. 가을 들민 허고 팔월, 칠월, 양력 칠월 뒈민 헌다. 훈 이틀 헌다. 다 돌아뎅기멍. 경허민 그 일허는 공장에 들어가민 무시거 거 준다 뭐 부찌렌. 주곡, 돈 봉투에 담앙 그자 이녁 몸에 이신 거, 하든 족든.
<사진 보면서>
이거 용왕궁 철거허는 거우다.
이디가 엿날식이라. 이번 한국, 언니 돌아강 간 보난이 그 날 저냑 상도 아무것도 안 논디 이딘 경은 안 허주게. 아무래도 사십구제 정도 노는 사름이 하주게. 아니 노는 사름도 잇나만은.

집이 상시허는 상을 사십구제까지?
사십구제까지 보통 논다. 이딘.
아, 한국 안 논 지 오래뒀수다.
으, 경허난 이디 늑신네덜은 이제랑 만약에 돌아가도 허지 말라, 허지 말라 허는디 경허는디 저 거세기 이제덜은 보통으로 다 놔. 이제도 일 년 놓는 사름도 잇고 사십구제꺼지.
일 년 놓는 사름 잇수과?
작년 재작년 우리 삼춘도 돌아가신디 일 년 동안 상 놔라.
아이고 여기가 더 옛날 식이라.
으, 제사든 뭐든 여기가 옛날식이야. 경허난 한국서 시집 온 사름덜은 막 웃어. 이거 엿날식이엔. 뭐 헴수과 허영. 죽어불민 메기주게.
게도 어른덜 생각은 제사를 잘 지내야 자손덜이 펜안허덴 생각을 허난.
게메 말이여, 그것이 존 것 산디. 그자 제사도 안 헤도 뒈는디. 제줏 사름덜이 생일은 안 출려도 제서 멩질은 잘 출렷어. 경허난 나도 우리 집 제사가 일 년에 열 번 정도 잇엇어. 큰아덜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사대로 내려온 아버지고 이디, 이디 조케가 육대 내려온 디라. 경헌디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동네, 우리 친척덜이 막 핫주게. 겨난 제사 먹으레 오는 사름이 하. 게난 떡을 막 하영 허여. 게난 제삿날은 지꺼져근에 먹을 것이 하니까. 헷주게. 겐 일본에 완 또 아부지 제서는 오빠 산 때까정은 제서 먹으레이 친척덜 와라. 견디 아부지, 오빠 돌아간 후젠. 한국서 허난.
오라방이 먼저 돌아가신 것과 한국에 잇는 친정 어무니가 먼저 돌아가신 것과?
이디 큰오빠가 먼저 죽은 거. 어무니는 여든훈 설에 돌아가고. 큰오빠는 마흔하나에 죽엇어. 아판. 허니까 오빠 돌아간 훈 이십년 살안 돌아가신가 어무니가. 어머니 돌아간디 삼십 년 안 뒈실 거라.
어무니 돌아가실 때 제주도 가 봔?
가왓저. 저 돌아간, 돌아갓젠 헨 가고이 또 일 년 소상헐 때 가고. 하영 가 왓저. 또 시어멍 아팟젠 헨 가고. 어머니도 아팟젠 헨 두 번 가오고. 죽언 두 번 가오고. 시어멍도 아팟젠 헨 가오고 죽엉 가고 소상 가고. 견디 시어멍 소상은 안 허더라. 그때 뒈난. 이녁 식구만 제서거치만 출련에. 우리 어무니넨 소상을 크게 헤신디. 우리 어무니가 ᄆᆞ녀 돌아갓주게. 멧 년 차이 이시난.
어디 돌아뎅기멍 놈의 숟구락 엎어진 거 가리차진 거 다 안다. 경허난 난 어떵 정 잘 알암신고 허멍.
게난 그거 다 사람 성격, 사람 성격인 거라. 게난 이 동네가 다 제주도 사름인게.
제주도 사름인디 그 집 주인허고 이짝에 할망 부부만 민생을 안 탕 다 탄덴. 경허난 그 집 주인 할망이 그 민생 탐젠 그 기숙이 어른네영 그 어른 내무린덴게. 내무련

경 말 무시거 허는 따문 그디서 뭣이엔 굴민 또 그 주인이 경 뭣이엔 허는 셍이라.
게난 앞집이 다 제주도 사름덜인디 경 사이덜이 좋지 안 헌 거 같아.
좋지 안 허여. 경허난 그자 뭐 허영 좋게 허영 살암시민 허주만은 ᄒᆞ쏠 허민 슝 허고 ᄒᆞ쏠 허민 쌉곡 뭐 이거, 나 이거 ᄒᆞᆫ 멧 해 알앙 뎅기는디 사흘에 ᄒᆞᆫ 번썩 쌈나 그 어른, 그 동네덜은. 무시걸 ᄃᆞ퇀 싸웜신고, 나 ᄆᆞ녀 굴앗주. 무시거로 싸왐수과. 말 곧는 거 하나에 쌉는 거라. 게난 그런 거 가졍. 늑신네가 사이좋게 헹 살민 뒐 건디 경덜. 이상허게 생각헹 나만. 이상허다 헷주. 이디 들어온디 이 만션(マンション)에덜은 돌팔이로 왕 사는 사름 잇어도 이딘 다 여기서 낭 큰 사름덜이여. 겨난 조용헌다 이딘. 나 ᄒᆞ나만 뭐 헹. 우리집이만 ㅇㅇㅇ이엔 헌 어른 왕 웨는 거뿐이주. 그 동네선이 사름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경덜 조살 허여. 겨난 못 살아 헐 정도. 게난 그 ㅇㅇ이엔 헌 어른이 어디 가도 놈아피 환영을 못 받나. 성질이 저추룩 허여부난. 어떤 때 풀쌍도 허곡이. 오널도 나 일허는 디 강 앚앗단에 강 앚고 뒈나 속속허민 뒈주만은 무신 일허는 사름덜안티 뭣이엔 굴아부난 그 사름덜은 들은 척도 안 허는 거라. 경허민 능청엇일 건디 무사 와신고 나만 속으로 허멍. 그자 아는 동네난 가기사 헷주만은 경허난. 어디 강 이제랑 늙어가거들랑, ᄆᆞ녀도 ᄒᆞᆫ 번 와시난 네상(姉さん) 이제랑 나 하 감시난 어디 강 절대 무신 말 허지 안 헙니다. 네상(姉さん) 우터레 베리주 알러레 베리지 안 헙니덴. 조용히 삽서 허난. 누게안티 ᄒᆞᆫ 번 굴은 거 들으민 부에가 난덴 허는 거라.
하하하. 게난 삼춘은 그런 거 때문에 속상헌 거라예?
속상헌 거 아니라 난 간섭 안 허느녜. 간섭 일절 안 허여. 왕 굴아도 기과 허는 거뿐. 왕 굴은 후제 또 영 허믄 굴아난 말 굴아도 예, 기과 경헷수과 허멍 어떤 땐 왕 굴아도 예, 예 따문 어떵 심심허는 거 아니. 게민 곧당 가분다.
고슈진(ご主人)은 동네가 어디렌 헷수과?
중문면 대포엔 헌 디.
거기서 온 사름끼리 친목회나 그런 건 안 헤낫수과?
동네 동네로 친목회 헷주게. 대포민, 대포. 난드르민 난드르. 다 친목 잇어저 엿날은.
그럼 그 고슈진(ご主人) 친목회도 ᄠᅳ라 다니고 헤난?
대포도 친목 잇엉 ᄠᅳ라다니고 헷주게. 건 등록 이신 사름 엇인 사름 관계 엇고. 다 ᄀᆞ치덜 허여근에 ᄒᆞᆫ 동네 어른덜은 다 친목회 들민 ᄒᆞᆫ 덜에 얼마썩. 일 년에 얼마 ᄒᆞᆫ 덜에 얼마 훼비 내영이 일 년에 ᄒᆞᆫ 번 두 번 모영덜 밥도 먹고 봄 나민 꽃 구경도 가고 허연게 그 대포엔 헌 동네 사름덜은 경 정 빠져 부난 오래 안 가고. ᄒᆞᆫ 이삼 년, 나 결혼헹 이삼 년 허난 친목회가 헐어져 불어라. 사름이 벨로 엇엉. 겨고 우리 친정에는 ᄒᆞᆫ, ᄒᆞᆫ 이제부터 ᄒᆞᆫ 이십오 년 정도 전이ᄁᆞ장은 친목회 헷저. 사름은 하지 안헤도. 경허난 일 년에 얼마썩 훼비 물엉, 일 년에 ᄒᆞᆫ 번, 전이 ᄀᆞ찌 놀레 가

곡은 안 허고 일 년에 흔 번썩 모여근에이 저 밥덜 먹고 허여신디 우리 집 아방 죽어분 때 ᄁᆞ장 친목회 헤신가 헌디. 겐디 그 휏돈은 메왕 놔 두난 누게가 오꼿 먹엉 안 준 거라. 경허난 그때부떠 헤산뒈실 거여. 몰라도.

경 친목회에서 마을에 뭐 기증헌다 허는 것도 옛날에는 헤나지 안 헨?

저 거세기 친목회엔 헤도 경 특별헌 건 안 헌다. 그자 흔 동네난 모여근에 어디 놀레나 가고. 뭐 놀레 감도 이제 거치 가라오케 그런 건 엇이난. 저 온천을 가나 일 년에 흔 번 멧 해에 흔 번. 또 일 년에 흔 번썩 밥덜 모영이 어디 불고기칩을 가나 초밥칩을 가나 허영 밥을 먹나 그 정도. 경허민 얼마썩, 흔 덜에 얼마허영 일 년에 얼마 훼비 물어 놔두민 그 돈으로 뭐 허고 돈 한 사름은 기부도 허는디 흔 사름, 두 사름 죽어 가난이, 흔 이십오 년 전 뒈 가난 사름이 멧 개 안 남아라. 경허난 친목이 설러져 불엇주. 돈도 멕영 못 받고, 다 죽어 불고. 우리 동네 저 막 부제로 살아난 어른이 잇저. 저 우리 동네 큰ᄀᆞ지엔 헌디가 저 무시거 등대가 뭣도 세운 어른이주게. 겐디 그 어른도 흔 십 년 정도 전이 돌아간. 저 모리구찌서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헤낫저. 막 크게 헨 막 그 어른 돈 벌엇저.

삼춘네도 플라스틱 헷주만은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한창 돈 벌 때가 언제과?

엿날이주게. 우리집이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출릴 땐 돈 벌 때가 넘어분 거야.

멧 설에 출렷덴 헷수과?

나가 쉰 정도. 쉰 하나에 헤신가. 글후에 헌 사름도 마(ま), 재수 존 사름덜은 벌고 헌 사름도 이신디 그자 글후제 일이 점점 엇어가난이 막 망헹 문 더꺼분 사름덜이 하라. 설런.

게난 쉰살이나 구십년 대 뒈사 플라스틱을 헷구나.

구십 년도 넘엉 헷주게.

넘엉.

다른 사름덜도 벌고 글 후제도 우리 조케덜은 돈 많이 벌엉 이제도 완전히 부제여만은 그 도야를 잘 만나사 허는 거라. 원 일 터 오는디. 겐디 우린 우리 언니네 아덜네 집이가 그디가 일을 주느녜. 우린 그디 강 일을 터 오느녜. ᄉᆞ춘끼리 일 트멍 헴주게. 겨난 작년이부터가 그디가 히마(ひま) 헷젠. 히마(ひま)여도 밥은 먹어갈 거여. 큰, 큰 훼사난에 일본 봉 무슨 저 이 한국 사름덜은 이녁냥으로 허는, 헤염젠 헤도이 저 우이서 주는 그거로 허는 거난에 이녁이 가다(かた) ᄀᆞ튼 거, 쒜로 멘드는 거, 그런 건이 허젠 허민 가다 ᄒᆞ나에 삼백만 원 오백만 원 가느녜. 그런 거 이녁냥으로 허는 사름이 요즘이. 다 일본 사름덜이 허여근에 허는디 요즘덜은 중국 웨국덜 강 헤여와부난 이 일덜이 일본에선 엇어졈주게. 저 풀긴 ᄑᆞ는디 멘드는 건 웨국 강 멘들아 왐주. 다 만들어진 거. 웨국 강 만들앙 와부난 이디서 멘들엉 허는 사름덜이 점점 줄어 들엄주. 막 설러 부는 디가 한다. 이 동네서도, 이 집이서도 우리

오기 전인 ᄆᆞ녀 우리신디 풀아분 사름네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헤낫저.

삼춘 이 집이 이사온 게 삼춘 멧 살 때과?

서른아홉에 와신지, 서른여덥에 와신지 허난 거자 ᄉᆞ십년 뒘저. 완 보난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헤낫어라. 완에 튿어 불언 헌디 우린, 난 완 신발 헤나신디 고쪈에 ᄒᆞᆫ, 이 집 고쪈 ᄒᆞᆫ 구 년베끼 안 뒛저. 막 우이로 비 새고 헤가난 큰아덜은 공장 엠에 만숀(マンション)에 왕 삽서, 삽서 허권데. 그디이 다 일본 사름만 이신 디라. 경허난 나 가고정 아니헨 아니 가켄. 이디서 집 헐어도 살켄. 족은 아덜도 집 빌어 갑서 허권데 집 빌엉 갈 돈으로 고쪄주민 좋지 안 허난 허난에 고쪄 준 거라. 목시덜이 ᄂᆞ시 아니 고쪄 주켄 헌 거라. 이 집 고찌민 멜라진덴 허멍. 헌디 목시 ᄒᆞ나가 고쪄 줘신디 그 목시가 죽어불엇저. 암 걸령. 우리집 고쪙 삼년 쯤 뒝 죽어신가.

게민 이거 고찐 지 구 년 뒌 거?

으. 일본 살름인디 경 술도 하영 먹고 지도 젊은 때 놀아나궈렌. 겐 줴 받안 이추룩 헴신가. 암 걸려신디 약을 못 쓰는 사름이라. 퍼져 불언 약 쓰지 못허연. 게난 그 아시가 완에 곧는 말이 약을 썸시민 낫을 건디 약을 못 써부난 병원에 입원헤도 고치지 못 헴수다. 병원에 입원헹 ᄒᆞᆫ 일 년 반쯤 뒈난에 돌아갓젠 허더라.

이 동네 한창 총련 사름덜이 핫잖아예?

총련 사름덜이 핫저. 경허난 우리 한국서 온 사름덜은 곱앙 살아도 이 총련 사름덜은 밀고 안 헌다. 그거는 알아야. 옛날에도 총련 사름은이 살려주젠 허주게. 민단 사름덜은 밀고허젠 허고. 경허난 민단에 나사지 못 헌 사름은 밀항으로 온 사름덜은 ᄆᆞᄉᆞ왕 민단에 나사지 못 허주게. 총련 사름덜은 저 사름 한국서 온 사름이엔 헤도 곱져줘. 그건 잇어저 엿날부터. 경허난 이 민단, 저 총련 막 싫어허는 사름덜토이 감춰주니까 그디 좋아허지도 아무것도 안 헴주만은 감춰주니까 그 사름덜 의지헹 산 사름덜 핫주게. 경허더라. 이 골목 골목에서 그 시절엔 영화도 다 허고이, 총련 영화 질레서. 저 무시거 쳥이 질레서덜 막, 북선 영화덜 막 허더라. 경허난 우린 가 보지도 안 헤영.

총련 사름덜 많이 잇어나시민 총련 들렌 막 허지 안 헙니까?

그런 건 안 허여. 그런 건 안 헌다. 같은 한국 사름이니까 그자 경찰에로 걸리지 말게꾸름 헤주주 허는 식이로 헤엿주. 저 사름은 한국 사름이난 등록 엇다 뭐 찔러 불거난 허진.

그런 거 말앙, 우리 총련에 오라, 총련에 오라?

그런 걸 안 헌다. 무산고 허난 구경 오랑 허여도 등록 엇인 때문에 둘아다니당 걸림이라도 허카부덴 오랑은 안 허여.

한창 북송갈 때가 잇어신디 그때 막 가자, 가자?

경은 안 허여, 안 헤라. 총련 사름덜끼리 총련덜, 그런 훼장허는 사름 막 하난 그

사름덜끼리 허여도 이 한국서 온 사름덜은 그레 가정도 안 허고 가는 사름도 틈틈이 잇어도 구경이나 가주, 뭐 북선이 좋아 가젠 허는 사름도 엇어신디. 그 가는 사름도 잇엇긴 잇어실 거여. 그런 거 이디서 뭐 허난 그런 거 안 헌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고향에 어무니도 잇고, 동생도 잇고 헷잖아에? 게민 고향에 뭐 보내고도 헷수과?

처음에는 완에 살아도 흔 멧 해 살아도, 오사카 완에 일허영 그때 가는 사름이 엇어. 갓다 왓다 허는 사름이. 겨고 등록이 엇어 부난 나가 어디 사는 거를 어머니도 몰라, 연락을 헐 수가 엇어. 여기서는 편지 헐 수 있는데 거기서는 올 수가 엇어. 겐 흔 삼사년 정도 사난 동네 할망이 한국 간덴 허는 거라. 그때 가는 사름이 경 엇어라. 견디 그 어른이 가켄 허난 그 어른신디 나 돈, 일본 돈으로 십만 원 보냉 놔두난. 그때는 소식 모르고 보내도 줘신디 말아신디 모르고. 글후제 가난에 보낸 돈 받아젠 허더라. 겨고 중간에 또 우리 고모가 한국 장서를 헷주게.

무슨 장사?

옷 장서. 한국 강 옷 헤당 이디서 풀고. 또 이디서 뭣 허여낭 한국 강 풀고. 보따리 장서 비행기 탕 다니멍. 고모안티 보내난 어무니안티 하나토 안 줫젠 헤라. 하하하. 게난 어느 말이 맞은 건 몰라.

어무니가 받앙 안 받앗젠 거짓말 헙니까게.

겨난 어머니안티 ᄀᆞ난 돈을 안 받앗젠 허는디 오래비가 죽엇잖아. 경허난 어무니안티 보낸 걸 오래비가 써 불어신디 그걸 모르주게. 게난 고몬 주궈렌 헌디, 또 고모도 고모가 준 것이 아니고 고모부가 부산 이시니까 남편안티 주니까 남편이 보내신디 말아신디 다 양펜이 사름 죽어부난. 어머님 살아 잇고 고모님 살아 잇엇주만은. 우리 집 아방은 우리 집이가 부제칩이랏주 엿날에. 돈은 엇어도 밧 ᄀᆞ튼 거 하난. 부제칩이 똘이 밧 하나 물려오카 부덴 허난 웨 돈 보내냐 허민 싸움이 뒐 거난 아방 산 땐 일절 뭐 못 헷어. 몰로로 보냈으니까. 보내신디 아방 죽어분 후제사 고모님신디 경 ᄀᆞᆯ앗주게. 돈을 어머니 안 줍디과 허니까 보냇덴 허는 거라. 게난 고모도 남편 강 줜에 강 올 적마다 어머니ᄀᆞ라 돈 주궈렌 영수증을 받아왕. 어머니 일름 쓴 거. 어무니 글도 몰르디 무신 놈의 일름 쓰느니. 거난 그자. 난 아방 알민 뭐 허카부덴 버려 불고, 버려 불고 헷주. 게난 어느 말이 진짜산디 몰라. 경허고 큰언니도 산 때난 우리 큰언니는 총련이랏주게. 게난 나영 관계 안 헌디 형제 간이난 뎅겨신디 보낸 때 쪼금썩 ᄀᆞ치 허영 보냈어. 게난 언니도 죽어 부난 몰르고. 언니는 나신디 앗아왕 난 고모 줘주만은 글후제 언니 죽어분 후제사 그말 ᄀᆞᆯ아시난.

언닌 총련이고 삼춘은 민단이고 허민 영 만났을 때 싸움 나고 허지는?

그런 건 엇나. 그 총련 헷젠 그런 건 관계 엇고. 그자 등록 엇엉 살아부난 그자 멩심허다. 아이덜이라도 풀쌍허다 허여근에.

제주도 살단 오사카 오난 뭐가 젤 ᄐᆞ납디가?
다른 건이 저 ᄐᆞ난 것도 아무 것도 엇인디 그땐 일이 하라게. 아무 딜 가도 일은 허여지난 헌디이 너미 너미 힘들어라. 이디 오사카 오난.
아니 집도 이층집도 잇고 길도 반듯허고 허난?
반득반득 안 헷저. 이디 만딱 흑으로 뒈난 길이여. 이제난 헴주. 겨고 밥도이 프로판 가스 정도 저, 낭불 짓는 디도 틈틈이 잇고. 우린 놈의 집 빌언 방 하나 산 따문 그런 건 못 허고 간데기에서도 불 살뢍 먹고. 간데기에 불 살뢍 반찬도 헹 먹고 허는 사름덜이 하라.
게민 삼춘도 간데기 써난?
간데긴 안 쓰고 저 프로판 가스 썻저. 게난 우리 큰오빠가 놈의 집 이층 방 하나 빌엉 사난 방 안에서 반찬은 헹 먹어사주 베꼇디서 위험허덴 허영. 그 프로판이 일본 사름안티 부탁허민 건 옛날에 일본 사름베끼 안 헤라 그런 건. 겐 부탁허민 앗아다 주느녜. 겐 방 안에서 그자 그거 헹.
게민 나머지 조선 사름덜은 간데기 쓰는 거라?
간데기 쓰는 사름도 잇고. 요디 **엔 헌 어른도 간데기에서 헹 먹엇젠 허더라. 간데기 숫도 살 돈 엇어낫수다 허멍. 남편 걸령 가부난에 지 ᄒᆞ나에 아기 두 개가 이신 때에 허난 어디 일허레도 나가지 못 허고 허난게. 난 아방 걸령 가불어도 큰오빠가 저끗디 잇어부난 저 돈으로나 뭣으로 도웨여 주진 안 헤도 아기라도 ᄒᆞᆫ 번씩 심어 주고 허난 그런 걸로 살고. 고모덜도 이시난. 큰언니넨 대마도 살아 부난 이디 오지도 안 허고. 막 후제사 왓주. 우리 족은 아덜도 온 후제사.
삼춘 아기 날 때는 병원 강 낳덴 헷지예?
족은 아덜은 병원 강 나고, 큰아덜은 산바 강 나고.
등록을 얻엉 처음 제주도 간 게 삼춘 멧 살 때과?
마흔여덥 정돈가 마흔일곱 정돈가 확실히 몰르켜.
게민 올림픽 헐 때 쯤인게.
한국 올림픽. 그거 허기 전이 갓저.
게민 부산 거쳥 간 거, 바로 가는 거 간 거?
서울로 갓저.
그때 제주도 가난 삼춘 나올 때랑 틀려십디가?
완전이 틀렷주게. 경헌디 우리 동넨 경 변헤지 안 헤서라. 제주시는 난 아예 모르고 안 건 모실포. 서귀폰 어무니 ᄉᆞ춘덜이 이시난 여관 허난에 그디 멧 번 가오고 모실폰 이모덜이 가파도 사니까 모실포로 가사 가파도 가고 모실포 가민 웨ᄉᆞ춘덜이 이시난 겨난 그딘 틈틈이 뎅겻주만은 저 우리 동네베끼 몰라. 다른 디 가보지 안 허난.
게난 집도 막 새로 짓고 헤십디가? 고향집덜?

간 보난 만딱덜이, 새 집 헌 집은 엇어라. 도당 만딱 올령. 우리 집도 도당 올령. 초가집이라신디. 경헤신디 글후제는 멧 번 갓다왓다 헷주만은 간에 흔 이삼 일베끼 안 살안 와부난 어무니가 똘 보난 환장헹 다 죽어가는 거라. 아판에. 막 설사난에 살지 안 험직 허다. 여름에 갓다 와서. 겐 겨울에 또 갓주게. 간 보난에 그때 간에 어무니 허난에 마(ま), 괜찮허다 허연에 흔 열흘 살안 와신가. 쵸도(ちょうど) 아버지 제사가 그때야. 경허난 제서 먹고 헨. 그때 간에 어무니영 그런 말 저런 말. 그때사 돈 보낸 말도 다 들은 거라. 어무니 고모님 돈 보낸 거 받읍디가 허난 안 받아봣젠 허는 거라. 겐 글후제 갓다 왓다 허연 그자 갓다 왓다 헤신디.

게난 오기 전에는 고향집이 통시도 잇고 굴묵도 짇어난 그런 집이잖아예?

으, 그런 집. 구시락 헤가지고.

겐디 갔을 때도 굴묵 짇엄십디가?

처음 갔을 땐 낭으로 헴서라. 아, 낭 아니고 연탄. 구시락이 아니고. 처음 간 땐 연탄. 처음 간 땐 여름이난 그거 허는 중 모르고 다음에 간 때 겨울에 가니까 연탄 헴젠 허더라. 저 시집이도 간 보난 연탄 헴고. 시어멍신도이. 겨난에 연탄, 시어멍 허는 말이 연탄 꺼져가민 추우난 제기 골아사켄 허난 시누이가 완 골아주더라. 어무니도 연탄, 이 냉방이 난 이시난 익모초 사단, 사와신디 빌어와신디, 것으로 엿 헤주더라. 고히(コーヒー)펭으로 ᄒᆞ나 앗아왕 먹엇주만은 그거 흔 번 먹엉 좋느냐? 겐디 이 일허멍 뭐 헌 병이난 좋진 안 헌다. 이제 더만 허지 못허게 허젠. 걷는 것이. 이젠 처음보다는 낫아뵌다게. 경허도 병원에 가민 힘이 너미 엇덴 허여.

3. 장수종
1943년생, 삼양 출신, 1961년 밀항

삼춘 성함이?
장수종.
몇 년생이시과?
1943년생.
고향은마씨?
고향은 삼양.
일본 오신 건 언제 오신 것과?
고등학교 졸업헹 곧 오난, 에또(えと) 열아홉에 오난 지금 나나쥬(ななじゅう), 칠십, 한국 나이론 칠십육 세 뒈엿주만은 만으로는 칠십오 세.
음. 칠십오 세. 그럼 고등학교 졸업헤영 곧 온 거?
바로 온 거.
몇 월달쯤 와진 거 같으우과?
나 4월 11일 날.
날짜 어떵 경 하하. 몇 년 4월 11일?
에또네(えとね). 사일구혁명 터졍 그 둣해 나왔으니까. 사일구혁명이 천구백, 에또(えと), 뒷해니까 사일구 터진 뒷해니까 로꾸쥬이찌넨(ろくじゅういちねん).
4월 11일. 어떵 날짜를 영 기억헴수과?
나 오는 날게 기억을 해 두는 거지.
게민 고등학교 졸업헹?
졸업헹, 졸업헹. 에이 졸업도 저, 나 영 골믄. 저 고등흑교 졸업 시험을 치젠 허난 우리 어무니가 돈 엇엉 훼빌 안 주난 그 훼비로 이제 서울을 가출헷주게. 그 돈 가젼. 훼비 낼 거 시험도 못 추고 허난 졸업은 안 뒐 거고 그 돈 주난 이젠 서울로 가출허연 서울 명동에서 명동에서 흔 열흘 살단 또 우리 고모 아덜이 미아리 거기서 저 방직훼사에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 저 옷, 기지에 그림 그리는 거 거기 한 덜쯤 잇단 일본 나와 불엇주게.
그럼 제주도서 나온 게 아니고 서울 갓단?
아니, 아니 경허연 또시 제주 들어완. 우리 이모가 제주, 저 서울까지 완 이젠 삼양 잇다가 이제 나왓주.
게민 제주도서 나오젠 허민 그냥 무작정 나오는 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아니?
나올 땐 부산서 와가지고 그 부산 선원네 집, 거기 잇잖아. 거기가 동래동이엔 헤냐. 거기서 한 일주일 살아져실 거라.

제주도서 나오멍 영 연결시켜주는, 소개해 주는 사람덜이 제주도에서가 잇어낫수과?
그땐 우리 팔촌누님 남편이 일본 무역선을 탄 뎅겻주게. 게난 그 사름이, 우리 웨삼춘이 일본 나오면서 작은아부지아피 차빌 받으니까 그 차빌 고향에 앗다도렌 헤난 그 사름은 물건 사가지고 부산에 들어가니까 그 세관에서 압수 당허연. 게난 돈을 물지 못헐 거니까 사름으로 보내믄 우리가 일본 데려다 주켄 헨 나가 여기 와서 일 년 동안 벌면서 거 우리 웨할머님신디 돈 갚앗주게. 그게 일본 돈으로 칠만 원. 아, 삼만 오천 원. 그때 삼만 오천 원도 큰 돈이라.
3만 5천 원이면 61년도에 다른 사름덜에 비하면 대개 싸게 온 건데?
어, 우린 싸게 와서.
보통 칠만 원 허던데.
으, 칠만 엔. 한국에서 안 주고 여기 왕 돈 줘가지고. 겐 동경.
오는 과정을, 제주도서 부산 거쳥 오는 과정을 생각나는 거 다 굴아줍서.
게난 부산 와가지고, 우리 부산에 원 친척도 엇고 아무것도 엇주게. 게난 그 선원네 집이서 그 동래동. 그 사름이 육지 사름이대. 그 기관장인가 허대. 거제돈가 어디. 겐디 배 선원인디 그디서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서 밥 먹고 헨 거기서 배가 뜨게 뒈니까 거기서 밥인 뭐 헷주게. 저 그때 우리 한 다섯 명 그 집이서 살앗구나. 겐 그 다섯 명이 자동차로 그 부산 육부두. 헌디 그 배는 흔 사천 톤 배이데, 배가. 견디 그건 광석을, 어딜로 모르지만은 광석을 실러 가지고 일본 보내오는 모양이데 보니까. 겐 거기서 동경, 동경에서 내려가지고. 동경 미나도, 미나도. 포구에 항구, 항구. 화물선 광석 푸는 부두가 있데. 거기서 우린 낮이, 낮이 한 멧 시에, 열두시에 내렷어, 열두시에.
게민 그 다섯 사름이 다 제주도 사름이라?
다 제주도 사람. 다 우리 동네 사름, 삼양 사름.
게민 그 선원네 집이 간 것도 미릇 다 약속허고?
다 약속허고.
그 약속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그 제주 부부 남편이 배 선원이주게. 같은 배. 겐 그 부인이 사름 모집헤가지고 부산더레, 그 사름네 집더레 보내는 거라.
게민 부산 육부두에서 배 탕 동경까지 가젠 허난 얼마나 걸린 거라?
우리 그땐 파도가 상당히 쎄거든. 게니까 배로 헤가지고 한 도오까(とおか), 열흘 동안 걸려실 거라, 열흘 동안. 뭐 배가 이레.
게민 배 탈 때 뭐 먹을 것도 챙기고?
챙기지 안 허고 거기서 밥 다 주데. 배 밑에 숨어가지고, 밑에 숨어가지고 그 밥이엔 헌 건 식당에 뭐 헤난 뭣고, 그 먹단 남은 거 그거 허영 줘 가지고 우리 ᄒᆞ꼼씩.

게난 밥 먹는 것이 한 건, 한 끼. 그것도 밤에. 그 선원이 한 이십오 명쯤 선원인 거라. 거기서 세 사름베낀 몰르거든. 거니까 알면은 또시 그 돈을 갈라먹젠 허면 돈이 족아지는 거잖아.

그럼 배를 타신디 그 배를 탄 선원도 다 몰라?

몰라, 몰라. 세 사름만 알아. 경허연 한 사름이 우리가 숨은 디, 우린 그때 연령이 열아홉이니까 그때 담배를 피웁지 말렌 허니까 담배 피와 불엇거든. 게니까 담배 연기에 누구냐고 허니까 영영헌 사름이라고. 어떵헤서 배에 탓냐 허니까 영영 헨 기관장 뭐로 헷덴 헨 ᄀᆞ만이 이시렌 헹 여기 잇다. 게민 알앗다 헨. 게니까 알앗덴. 게난 그 기관장이 말허데 배 내릴 때. 그렇게 주의시켰는데 그렇게 헷덴 헹. 그렇게 우리가 걸린 것이 다섯 명쯤. 그 때 열 명 왓서든, 열 명. 게난 그 사름에게는 다섯 명만. 한꺼번에 한 방에 자지 못허고 막 여기저기 숨겨가지고.

게민 배 안에도 숨는 구멍이?

소우소(そうそう). 여러 구멍.

그 배는 큰 배니까 선원은 몇 명이나 뒈낫어?

그러니까 한 이십 명쯤 선원이 잇어낫거든. 게난 사천 톤이니까 배가 상당히 큰 배지.

그 배에 비하면 숨은 사름은 얼마 안 뒛다예?

많이 태웁지도 안 허고 완전히 밀항은 ᄒᆞᆫ 삼십 명이여 오십 명이여 태웁잖아. 겐디 우리는 옛날엔 한 명, 두 명 태와난 모양이라. 게난 그게 이제 사람이 돈을 버니까, 성공을 허니까 욕심 생겨 가지고. 우리가 그때 십 명. 처음으로 십 명이라고 허대. 게난 그 후부떤 그 배로 사름이 뭐 헷는지 안 헷는지 건 몰라.

겐 동경 오난 낮에 내령 그 다음은 어떵헷수과?

내려가지고 우리 넛하르부지네 집이 가가지고, 그때 우리 웨삼춘이 나보다 한 일년 전이 왓거든. 게니까 그 집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빠찡코. 거기서 한 일 개월 동안 허다가 아무리, 일본 사름 바까리(ばかり) 허고 나 허고 우리 삼춘은 우리 한국말베낀 모르고 일본말은 모르거든. 게니까 나신더레 대판 가렌 헤가지고, 대판에 우리 고모가 잇어낫거든 겐 고모네 집이 와가지고 그냥 프라찌쿠(プラスチック) 공장에 일 헷거든.

동경에서는 얼마나 지냈던 거?

한 덜, 한 덜. 한 덜 허는데 하루에 오백 원. 일당이. 하루에 오백 원이지만 것도 큰 돈이라. 그 넛하르부지네 집이가. 우리 대판 내려오니까 프라찌쿠(プラスチック)가 하루에 사백오십 원.

삼춘 넛하르부지가 뭐를 넛하르부지렌 헙니까?

넛하르부지가 우리 웨하르부지 형, 아, 아시, 아시.

아, 웨하르부지에 아시를 넛하르부지렌 허는 것과?

경허난 우리 어머니, 어머니안티는 작은아버지주. 여기 완 그 공장에서 쭉 한 십 년 동안을 그 공장에서 일헤 가지고.

그 공장은 오사카 어디 잇어낫수과?

아노(あの) 조선이찌바(いちば). 마고또 병원 알아? 글로 조금 가민 거기 잇어나신디 그거 다 풀아 불어가지고 저 히가시오사카, 동대판 기스리헌 디 거기 갓어. 공장 막 크거든. 나 것 헐 때 집이 한 이십 평짜리 집에서 이층에 사름 살고 아노(あの) 잠안 자. 이층에 엇고 알층에 한 방 자그만헌 거 기계 두 개 놔 가지고 일허면서 아이덜도 부부간이 잇고 그거 뭐 허면은 방 안에가 작업방이주게. 경허민 이제 밤엔 이젠 거 문딱 치와 가지고 그디서 이불 페와 가지고 사장덜도 거기서 잠자고 부부간에. 아이덜도. 겐 나가 거기에 오래 헌 건 나가 일 년 동안 잇다가 우리 어무니가, 나가 독자거든 우리 어머님 스무 설에, 스물세 설에 홀로 뒈가지고 그니까 내가 어머님을 불럿거든. 게니까 우리 친척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님 규슈에 도착헌 모양이라. 겐디 갈 사름 엇이니까 우리 사장신디 나가 사정헤 가지고 어머님 데려다 주면은 나 여기서 한 십 년 동안 일허켄 헤가지고. 겐 어머님 데려다 주니까 꼭 십 년 일 헤 가지고 나 결혼헤 가지고 나가 공장을 나왔지.

삼춘은 등록 엇어부난 데리러 못 가고.

겐 남저 어른이 가야지. 우린 고모가, 고모라부니까 가질 못 허고.

어무니 올 때는 뱃삯을 얼마 줫수과?

그때 칠만 원. 일 년 후에가 칠만 원. 우리 싸게 온 게 무산고 허면은 그 사름이 그 선원이 그 우리 돈 무신 거 헌 것에 물건 산 것에 잡혓거든 그러니까 그 이자로 이자로 포감 포감 헤 가지고 그, 그렇게 헐허게.

아, 기구나. 어무니도 오시면서 걸리지 않앙?

걸리지 안 헹 무사히 왓지.

겐디 걸리지 않은 사람덜 잘도 많다예? 단번에 온 사람들.

으, 단번에 온 사람덜 많아. 것도 다 재수지, 재수.

재수라예?

우리 어머니 올 때도 선원이 아, 선원 아니고 이 오는 사름이 몇 명이 없거든. 뭐 한 삼십 명, 이십 명 오는 사람덜은 보통 많이 걸려.

어무니는 그럼 밀항 배 아니었고 어떤 배 탕 온 거? 몰라?

뭐 무역선 아니고, 뭐 밀항선 아닌가? 어디 배런진 모르지만은.

그믄 어무니 오시난 그 쯔루하시에 불런?

응, 경헤가지고 우리 사는 디, 나 고모영 같이 사니까. 이젠 고모가 이젠 여기서 오래 살고 허니까 이젠. 또시 우린 어무니 오니까, 고모하고 나는 같이 자지 못하거든 방 쪽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허고 난 방 빌어가지고, 방 빌어 봣자 뭐 2층에 방

하나에 살면은 부엌은 다 공동 부엌이고 화장실도 다 공동으로 쓰거

거 조선이찌바(いちば)에 있는?

소 소.

예, 거기 빌령. 어머니는 왕 무슨 일 헷수과?

어머님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이 한복도 잘 만들주게. 이 솜씨가. 뭣고 그거 헤가지고 이제 친척네 집에 가가지고 저 무신 것고 미싱, 신발 미싱. 거기서 허다가.

하리꼬 말고 신발 미싱?

미싱. 하리꼬 말고 신발 미싱, 미싱꼬

게믄 신발 만들젠 허면 단계가 어떵 돼?

신발을 만들젠 허믄 이걸로 미싱을 다 주워 가지고.

본 떵, 본 떵 이거 다 주엉?

사이단(裁断), 사이단 헹 끊엉 미싱 주는 집에 가져 강, 가져다 주민 이제 하리.

아.

게민 풀 무쳐 가지고 하리.

내가 한 어른한테 물어볼 때는 자기는 뭐 헷냐면, 자기는 사이단(裁断) 한 걸 본뜬 거를 안에 가운데에 영 스폰지 붙이는 일을 헷덴 헙디다.

아, 그건 덴마끼. 게난 덴마끼렌 헌 거는 이거주게 이게.

어느 거? 이 깔창?

아니. 이건 저 구쯔니까 허주만은, 이 헵부.

헵부.

이 덴마끼렌 헌 건 이것이 덴마끼에 헌 거 본따 가지고 풀칠허면 이것이 일로 미싱으로 박주게. 게믄 거 하리바 가면 거기에다가 풀칠해 가지고 이거 이레 영 부쪄가지고, 아노, 저 손으로 부쪄야주게. 게믄 거 다 끝나면 앗짜기로 바람허는 걸로 저 아쯔료꾸가께떼(あつりょくかけて) 저 뭐 허주게.

아. 게민 신발하나 나오젠 허믄 집을 몇 개의 집을 거쳐야 되는 거라?

다 허게 되면 한 열 멧 밧디 거치는 거 아니? 기지 헤다가 노리비끼 헤가지고 노리 부쪄. 그 다음에 사이당에 와가지고 재단헤가지고 그 다음 나이쇼쿠 가가지고 이제 이걸 문딱 이런 걸 다 부쪄야 뒈지. 이거. 우라오모떼(裏表) 문딱 부쪄가지고 이제 미싱 가지. 게 경허믄 이젠 남으민 이찌끼리.

이찌끼리는 뭐과?

거 신발 이제 뭐 허게 뒈믄 기리야스꾸아루네(きりやすくあるね). 이제 이찌기리를 헤가지고 그 다음은 그걸 헤가지고 이제 하리바 가가지고, 하리바 가서 풀 멕여 가지고 그걸 이제 부쪄 가지고 앗짝 헤가지고 그 다음은 하꼬스메(はこ詰め). 한 열 멧 밧딘 걸쳐야 뒌다고?

하하하. 어쨋든 하리꼬(はりこ) 허는 게 맨 마지막 단계다예.
질 마지막. 경헨에 하리꼬 허는 사람은, 여자들은 이 손이다 이거 데와진. 아레와 교포들 하리허는 사름은 문딱 저 뭐이지게. 저 뭐고, 남자 노가다, 노가다.
하리꼬(はりこ)랑 스까께(つっかけ)는 같은 거과?
스까게가 아노 쓰까께 허는 사름덜이 하리 허주게. 이마 쿠스는 기계로 문딱 부쪄주니까 쉽주마는, 옛날에 스까게 하는 사람들은 문딱 손으로, 손으로.
돈도 하리꼬(はりこ) 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겠다.
많이 받주만은, 시간이 12시간, 15시간씩 일헹 마치젠 허믄 힘들어, 힘들어. 게니까 남자 노가다 일인 거라.
게난 어머님은 미싱 하는 거? 신발 미싱?
응, 우리 어머님은 미싱, 미싱.
삼춘 플라스틱 일은 뭐 만드는 플라스틱 이랏수과?
우리는 중공, 중공 성형 프라찌꾸라(プラスチック) 헤가지고. 원료를 따뜻허게 내려가지고
여기 적어 줍서. 회사이름.
중공성형프라찌꾸나. 겐디 그건 바람으로 마호빈 소레데(まほうびんそれで) 무시 펭가튼 것덜 만들지.
지금 우리 음료수펭 같은 것들예?
소우소(そうそう). 그런데 지금은 완전 자동식으로 뒈니까 그렇지만는, 우리 그땐 손으로 이 가딸(がた) 시메(しめ) 허영 그 프라찌꾸(プラスチック) 원료로 헤영 따뜻허게 내려오면 그 가따(がた)쯤 내려 오면 거 시메(しめ) 헤가지고 바람. 지금은 자동식으로 문딱 허니까.
그 플라스틱 공장에 가게된 거는 누게가 소개헤 주난?
나 코리아타운 오난 거기 오면은 그 무신 일 걸 거 허면은. 거기 공장에 강 봐가지고 일 헤 짐직 허면은 나 집에서는 저 뭐고 방학 땐 밧디나 일 가고 학교 갔다오면은 저녁밥, 보리낭불로 밥이나 허곡, 어머님 우리어머님 고향에서 양태 헤낫주게, 양태.
양태헤난마씸?
삼양2동에 양태허믄 뭐 유명하잖아.
맞아마씨, 맞아마씨.
견디 그거 허니까 우린 원 놀 시간 없어나서. 학교 오믄. 게난 학교 올 때 제라허게, 막 질레서 놀다가.
공부할 시간이 어신게.
공분 뭐, 공부 공분 저리 가라. 노는 것이 바쁘지
게믄 플라스틱 오난 그 동네사람들이 알앙 소개시켜 준 거?

알앙 소개시켜 주난 거기서 일허연 꼭 십 년 일헤서 십 년.

십 년 일헌 거라예. 그 플라스틱 공장, 일헷던 디서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랏수과?

다 한국사람. 저 거기서 시아게(しあげ) 허는 사람이나, 옛날에 걸 거라 그 옛날에 학생들 소풍가잖아. 마호빙(まほうびん) 있잖아, 지금은 마호빙(まほうびん) 근사허게 나오주만은 그땐 우리가 만든 마호빙(まほうびん)이라.

아.

그거 허믄 시아게 헤야주게. 끈 거튼 것도 이제 뭐 허고 우리 공장에서. 그거 헌 거 문딱 우리 한국 사람들.

게민 플라스틱 허는 건, 삼춘 일헤난 공장에선 아예 완성본이 딱 나오는 공장이라나 신게예?

응. 그거 허면은 그거 도야 가주게 회사에. 거기 가면은 거기선 또 하꼬쓰메(はこ詰め), 자기네 공장에 상표 붙여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어떤 거 쓰잖아. 무신 거 신발도 옷이라도 허젠 허면 아노 아노(あの、あの) 뒈도록 난파센토 난파센토나(何パーセント、何パーセント) 그 식으로 허면 거기는 거기대로 문딱 또 헤가지고 직접 우리 공장에서 그 회사에 가도, 회사에서 또 손을 본다고.

으, 상표 붙이고 내용 물질 성분 상자 넣고 그런 것들 헹 예. 게민 여기서 공장 다니멍 다 한국 사람이난 뭐 차별 같은 건 엇어낫다예?

응, 차별은 우린 벨로 받아보지도 못 허고, 우리가 한국에서 자이니치네 공장에서 일허믄 일본 사람들이 흔 멧 들어오주게. 게민 우리 한국말로 허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녁네 나쁜 말 헴시카부덴 에이고로 말허지 말앙 일본말로 말허라고.

아,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더?

소우소(そうそう).

경 느꼇겠구나.

소우소우(そうそう).

일본에 오기 전엔 일본말 몰랐지예?

원 몰란. 우린 독학이, 글 쓰는 것도, 우린 한자도 우리 중학교 1학년, 한자 폐지된 것이 여름방학 헤가지고 들어가니까 폐지시켜 불고, 우린 한잔 일본 와가지고 공부헷거든. 일본에서 공부하니까. 요즘은 나이가 하노니까 일본말 글 쓰는 것도 이젠 다 잊어불언 안 뒈크라. 이 그 결혼허기 전엔 그저 노는 시간이면 만화책 보고 한자 공부헐려고 허단 이젠 나이 하가니까 다 이젠 공부헌 것도 다 잊어 불고.

맞수다, 맞수다.

게니까 우린 이제 한국 강, 제주 가믄 테레비(テレビ) 보는 것도 원 의미 몰라. 뭐 아노 아노 찬네루(あのあのチャンネル)도 맞추도 못 허고. 우린 가믄 여관 주인에게

<부록> 구술 전사 자료

신디 왕 테레비(テレビ) 거 찬네루(チャンネル) 헌 거 잘 헤도렌 헤가지고.

경 와가지고 어쨌든 밖에 나가민 일본말 써야될 거 아니꽈예?

아, 그땐 우리 코리아타운에서, 이마 코리아타운 있잖아.

예.

거긴 우린 혼 대여섯 시 밤이믄 한국말로 거 미세(みせ)에 가가지고 한국말로, 보통 알아도 그땐 뭐 뭐 말 안 해.

게믄 경찰관 지나가도?

경찰관 지나갈 땐 말 안 허고 일본말로 허고. 경헌디 경찰도 대겐 알주. 아노 나마리(あの、なまり), 나마리(なまり)가 뒈잖아 우리가. 게믄 일본 사람들 뭐 허믄 고향 어디녠 허믄 우린 규수렌 골주게.

일본어 써도 나마리(なまり)가 이시난 규수렌 골아불어?

규수 사름들이 나마리(なまり) 많이 허니까, 규수 어디녠 허면 규슈 고향 잘 모르켄, 우린 어릴 때 여기 나와부난 모르켄 헤영, 게난 그 지방을 말허렌 허주게.

규슈노 도꼬데스까(九州のどこですか)?

도꼬데쓰까(どこですか)? 우리의 고향 허믄 제주도면 제주도 어디? 이렇게.

그믄 말 때문에 몰랑 불편 하거나?

불편헌 건 없고

엇엇고예. 게난 얼마나 지나난 일본어 자연스럽게 들립디까?

아, 그건 테레비 보고 허난 우리 혼 3개월 4개월 뒈난 보통 말하는 건 알아지데. 저 테레비 방구미(番組)도 한자로 많이 쓰잖아?

예, 예.

게난 그 한자 공부허니까 대게 의미는 좀 틀리지만은, 그 한국 의미허고 일본 한자 의미는 틀리지 만은.

3개월이난 알아져시난 금방 익혀신게.

으, 그땐 경.

젊은 때난, 어릴 때난예?

어린 때고 경허니까. 또 여기서 난 아이가 내가 일을 가젠 허면 공장에서 아침 점심 먹어낫주게. 경허믄 아침밥은 일 년 전에 어머님 오기 전엔 고모영 살게뒈니까 아침밥을 안 헤주니까 아침밥을 먹으레 공장에 가거든. 경허믄 열시 시에도 아침밥 안 줘, 경허믄 혼 여섯 살 난 아이신디 오나까 스이따 잇떼나(お腹すいた言ってな), 오나까 스이따(お腹すいた) 헹 가믄 어멍신디 가믄 저 니짱(兄ちゃん) 일허멍 배아프덴 골암쩬 허난.

하하하.

오나까 스이따(お腹すいた) 헌 걸 말을 잘 통을 못 헤가지고 배 아프덴 헴저 허믄

공장 주인 사모님이 와가지고 밥 안 먹엉 배고팡 꼭 죽어지쿠다 허면 그때 밥 먹어.
하하. 그때 한 달에 월급은 처음 일헐 때 얼마나 받아졋수과?
게난 하루에 450원이니까 한 달에 한 이천 얼마주만은, 우린 고향에서 막 용돈도 안 써보고 어머님 홀로 양태 허면서 나 공부시켜주니까 뭐 돈에 돈에 허니까. 우리 한 달에 작업 시간이 우리 이실 땐 한 덜에 다이이찌 니찌요우또 다이산 니찌요우(第一日曜と第三日曜)만 놀앗주게. 공장. 밤, 밤일은 뭐 하루에 뭐 혼마니(ほんまに) 한 달에 백 멧, 백열 시간씩 일했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 거?
아침 8시부터 밤 9시.
아홉 시까지.
어, 다섯 시에 일 끝나면 잔교(ざんぎょう)거든 그때 일을 많이 허니까. 게민 우리는 잔교(ざんぎょう) 헌 걸로 그 돈으로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입고. 월급은 어머님 오니까 어머니안티 메꼇주마는 나오기 전엔 우리 고모가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어가지고.
완전 착헌 아들이라신게
착헌게 아니고 다 경 헷다고.
다 경헤서?
그 당시엔.
예, 예. 이천 원 받아진 거는 다 어머니안티.
으, 월급 탄 거는 어머님신디 안네고. 밤일 헌 건 이녁 용돈 쓰곡. 뭐 신발 사고 옷 사 입고.
집도 빌엉 살아실 거 아니? 집세는 얼마 줫수과 한 달에?
그때는 집세는 비싸지 안 헷어, 그때는. 게난 스이도(すいど)세 가스세는 문딱 공동으로 쓰니까 분할시켜가지고.
공동이렌 허면은 그 아파트에 한 멧 사람이나 ᄀᆞ치 산 거?
거 아파트가 아니주게. 개인집인데, 밑에는 주인 살고 2층에는 방이 한 2개 3개 있으면은 방 ᄒᆞ나씩 문딱 빌려줘.
아, 개인집에.
으, 개인집. 게믄 거기서 부부간이 살고 아노(あの)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엔 고향에서 등록 엇인 사람은 결혼허면은 그런 방에 자. 돈이 없으니까, 또 아파트 빌젠 허믄 문패를 붙여야 되잖아, 게믄 경찰이 인구 조사 오게 되면은 잡히지 그러니까.
기민 어머님 오기 전에는 고모영?
고모영 살면서.

게고 어머님 오난 어머님이랑 ᄀᆞ치 살고?

우리가 고향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 게니까 일허게 뒈믄 우리 고모가 돼지고길 머리빡 돼지고길 사오거든 고모가. 나 그때 밥값이 고모신디 얼마 물어져신고 한 달에? 월급은 반을 물어야. 게믄 돼지고기 사오믄 문딱 먹어 불믄 밥장시 아니 뒈켄 허멍 나보고 공장에 강 밥 먹으렌.

다 먹어부난?

돼지고기 먹어봤나. 고향에서.

무사 돼지고기 못 먹어봔마씸?

에고, 우린 돼지고기 못 먹어봐서. 아노 어머니가 사오지 안 헤연. 어디 제사칩이나 가나 잔치칩이 가면 그 돼지고기 받아가지고 나 주지. 어머니는 아니 먹어.

게난 막 맛 좋읍디까? 여기 왕 돼지고기 먹으난?

응, 맨날 먹어난. 우리 저 선밴 돼지고기, 코리아타운에서 사 가지고 보겟토(ボケッと)에 담아서 걸어뎅기면서 먹은 사람도 있어.

하하하.

그런 사름도 잇어.

그때 여기 오난 61년도에 온 거잖아예. 제주도랑 여기랑 뭐가 다릅디까?

먹는 것도 틀리고, 처음엔 제주도는 질이 없잖아. 여기 오니까 질이 넓고. 견디 우리 화장실, 우리 제주도는 돼지, 돼지주만은 여긴 그것이 없고.

통시라예? 돼지 키우는 통시?

경허고 질 헌 건 우리, 우리도 고향에서는 목욕을 안 해봣거든 여름엔 삼양에서 해수욕 허주마는. 목욕. 음식. 음식이 그때 헐했어. 그때 라면 하나에 오 원 헤나신가?

아, 여기가 음식이 헐 헨?

응, 그땐 막 헐했어, 헐했어. 지금은 막 빗낫주만은.

목욕은 여기 후로(ふろ)가 있다는 얘기?

응, 후로(ふろ). 목욕탕, 목욕탕.

어쨌든 일본에 와시난 목욕탕 가는 것도 좀 걸리카 부덴 조마조마 허지 안 헨?

아니 아니. 우리 혼 우리 그때 코리아타운서 걸믄 혼, 혼 50보? 게믄 그거 후로(ふろ) 박세기 찬또(ちゃんと) 후로(ふろ) 그 아노, 아노, 프라치꾸(あの、あの、プラスチック)으로 만든 거 있잖아?

으.

저 옷 놓고.

바구니, 바구니.

으, 바구니 그거 들러가지고 후로(ふろ)에 가면 뭐, 후로(ふろ) 뭐 후로(ふろ)에 가면은 뭣이 이것 저것 허여. 잘못허면은 스미마셍, 스미마셍(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만

허민 뒈. 하하.

걸릴 위험은 엇어난 거군아?

없고. 지일 저 뭐 헌 건, 공장에. 나도 결혼헤 가지고 공장에 남이 심으러 와가지고 나는 피헷거든. 경헌디 딴 디 또 집 빌레 뎅기다가 걸려 가지구.

삼춘도 걸려난 거?

걸련. 나가 13년 만에 걸련.

13년 만에 걸리난 어떵 헷수과?

걸련 부다바꼬(ぶたばこ)에.

부다바꼬(ぶたばこ)? 부다바꼬(ぶたばこ)는 뭐라?

부다바꼬(ぶたばこ)?

어.

형무소 닮은 디 감빵에 담앙.

아, 그걸 부다바꼬(ぶたばこ)렌 해?

으, 이디선 부다바꼬(ぶたばこ)라고.

우선 처음에 잡히면, 잡히면 경찰서에 강?

아니 경찰 거 안 가.

안 가.

경찰에 걸리면 경찰서에 가지.

응. 입관에 걸리면?

입관에 걸리면 직접 입관 이고꾸관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가, 이고꾸관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 심어 가믄 그디서 막 서류를 꾸미주게. 경허믄 나가 이제.

그니까 심사 받는 기간은 거기 잡혀있는 거잖아예?

어, 다 잇어. 다이찌 다이니 다이산(第一、第に、第三)까지 잇주게. 거기서 심사 받당 법무청 호무교꾸(法務局) 보내주게. 게믄 거기서. 난 나 걸렷지.

예.

그러믄 우리 각시도 엇지, 우리 어머니도 엇지, 아이가 서이 잇지. 그때 일본 돈으로 백만 원.

그럼 입관에 걸령 입관에서 며칠을 살앗수과?

스무날. 나가 제기 나올 거지만은 나 혼자였으면 난 고향에 가 가지구 또시 나왕 나갈 생각했거든.

으.

견디 나중에 한 일주일, 아니 한 삼일 사니까 면훼 왓대.

누게가? 각시가?

아니 아니. 각시도 못 오지. 저 변호사.

으, 변호사 상?

으. 그 사람은 유명헌 사람이주게. 저 각시도 국회의원이고 아덜도 그때 문딱 국회의원이고. 도로꾸(登録) 요지깐(領事館)이야. 가쓰야마, 가쓰야마노 고엥.

어쨌든 제주도 사람들 등록 만들어 주는?

경 헨 거기 도로꾸(登録)는 영사관에서 우리 아는 사름신디 부쪄 가지고 게민 이녁이 간다고. 그 영사관 구루마로 류고꾸간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 가난 나신더레 아나따와 안나 에라이상 이쯔까라 쯔끼요떼(あなたはあんな偉いさんいつからつきよって), 겐 거기서 이제 멘까이(めんかい) 시켜가지고 그때 나가 뭐고, 보석금 나올 때 꼭 백만 원 걸엇주게. 백만 원 걸면 웨냐면은 거 도망가면은 그 백만 원 돈이 없어. 찾지 못 하주게.

아, 그거는 보석금으로 백만 원을 걸었다는 얘기?

소우소(そうそう). 도망가면 그 경헌디.

게민 보석금을 많이 걸수록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

거 사름으로, 사름으로. 인수로. 한 사람이 얼마씩 헤 가지고 난 다 헤 가지고 다섯, 여섯 식구니까.

한 사람이 얼마꼴 되는 거과 그럼?

그 당시에 삼십만 원씩 걸엇어, 한 사람에. 경허난 나허고 우리 어머님허고 우리 마누라허고 허니까 구십만 원이고 아이 서인 십만 원 헤 가지고 백만 원 걸어 가지고. 게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노 조사허는 것도 문딱 뭐 허거든. 게난 이 사람은 이제 조사 다 끝나가지고. 나가 조사, 조사헐 때 두 번 받앗거든. 웨냐허면 거짓말 헤부니깐.

예. 혼자렌 거짓말헌 거?

응. 경 허니까 그걸 헤 가지고. 게고 난 나 조건은 우리 아버지가 나가 출생지가 어디거든 저 가라후도(樺太).

예, 화태.

어, 화태. 그러니까 그 고세끼(戸籍) 도움을 다 접수시키니까 겐 니가 어떵 뒌 거냐 허니까 다 말헷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거기서 있었고 난 찾으러 왓덴, 난 말헷거든 아버지만 찾아주면 고향에 간다고, 난 일본 안 산다고. 게니까 거기서 쩔쩔메거든. 게가지고 이젠 영사관 나 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날 때 저 무시게, 저 생명보험(生命保険). 그때 일 원을 물엇더라 일 원. 당시에. 그 당시에 일 원.

그런 거 다 남아 잇어?

나가 다 우리가 어머니가 문딱 갈 때 다 가져 가가지고, 이제 또시 나가 이모에게

전화헤 가지고, 아니 편지헤 가지고 그걸 또시 고향더레, 아니 일본더레 보내 달렌 헨, 나가 등록을 만들라고 다 헷거든 그거 내니까 류코쿠간리지무쇼데나(入国管理事務所でな)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이런 거 허면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아.

그렇게 말허데.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고, 그니까 그 일본 사람신디 그거 다 보내니까 그 사람 아 이거 지금 회사가 있다고, 있으니까 찾으켄 헨 등록헌 후제 거도렌 허난 이녁 안 받아. 그거 문딱 춪아 먹어분 거.

못 돌려 받안 마씸? 그 서류를?

할 수 없지예. 그 등록 만들어 주니까. 나에게 그 사람이 말헷주게. 너네 한국사람들은 이제 등록 뒈면은 이제 아이덜이 공부시키면 다 의무교육이니까 돈도 벌고 질 나쁜 행실허지 말라고. 웨냐허면 너네 한국 사람덜은 강에 씨레기 문딱 강 던져버리고 뭐 허니까 그런 것도 허지 말고 잘 허믄 이젠 등록 나온다고 허니까 자신 잇게 말 하주게. 등록을 만들어 줄때 그 백만 원 돈은 내가 갖는다고. 게믄 좋덴, 경 헷주게. 게니까 동경 흔 번 가켄 허데.

내가 갖는다는 건 누게가 갖는다는 거?

그.

변호사?

변호사가.

아. 수수료를?

그 자기가 수수료로 받는다고. 게믄 저디 가면은 법무성에 가게 되면은 저 뭣고 밑에 사람신디, 술 한잔도 먹고 돈 ᄒᆞ끔 줘야 거.

아, 게믄 만약에 거기서 유관에서 법무성으로 넘어간다는 건 오무라 수용소 간다는 얘기?

아니. 동경 법무청. 아노 호무교꾸(あの、法務局). 그때 우리가 등록 만들 땐 호무교꾸와 아노 이나바 이나바 호무교꾸또 오모우와(法務局はあの、いなば、いなば法務局と思うわ). 겐디 간다고, 저기 만나레 간다고 허니까 그때 차비 흔, 차비 헤가지고 돈 10만 원 줘가지고 거기 가서 요리도 먹고 셋따이(接待) 허라고 경 헤가지고 나중엔 또시 간다고 허니까 등록을 내렷다고 헐 때 모양이라. 겡 헤영 그거 가지레 간다고 헤가지고 아노 돈 십만 원 주니까. 등록은 한 달 전에 나왓주마는 너 젊으니까 등록 나왓다고 나팔 분다고 헤가지고 아노 한 달 후에 내게, 우리 그때 팔촌 형님신디 영 영 헹 등록나왓덴 말허니까 유코꾸간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서 하가끼(はがき) 왓더라고 영 헤영 등록 나왓다 허니까 그거 갖고 이제 이코노 규약소(区役所)에 붉은 도장 헤가지고 가리호멘 한꼬꾸 잇잖아. 그걸 개시허게시리. 그때 가리호멘이니까 가니까 그거 이제 붉은 도장헐 걸 쌀을 딱 치데.

그러면 잡형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심사 받는 내내 입관에 잡혀있었던 건 아니고?
우린 류코꾸지무소에서 심엇주게. 거기서 잡으러 왓데 공장에.
거난 게니깐 백만 원 보증금 내난 밖에 나왕 잇엇던 거?
으, 나와.
나올 때 가리(かり) 등록을 받앗다는 얘기과? 도장을?
아니 그걸 이제 나오게 뒈믄 그 가미(紙)하나 주주게. 그거 가지고 이쿠노쿠약소(区役所)에 가가지고 영 영 헹 나왓덴 허믄 그디서 가리노 등록을 만들어 줘.
으, 으.
아노 규약소(区役所)에서 그믄 거기서 한꼬(はんこ) 놩 도장 찍어 불주게. 게믄 그때부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류고꾸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야지.
아, 가리(かり)로 나왔을 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경허영 삼 개월 뒈면은 석 달에 한 번.
예.
이제 쫌 성적 좋아 가면 육 개월에 한 번, 다음엔 또 일 년에 한 번. 그때 일 년에 한 번 헤영 삼 년. 삼 년에 흔 번 간 때 허니까 아노 아노 무신 거. 제라허게시리 아노 것도 넨수가 걸렷거든.
그니까. 그 가리 나오고 나서 진짜 등록 나오기 전까지 한 사 년 오 년 걸린 거다 예?
응 응. 경 헹 거기서 이젠 나오니까 가니까 이젠 에이쥬껜 신세이(永住権申請) 허라고 하데. 게난 이제 에이쥬껜 신세이 헤불엇주게. 우린 웨냐면 사십 세, 그때가 나가 멧 설? 흔 삼십, 그때니까 우린 이제 마다(まだ) 적십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주게. 병이 있는가 없는가.
아, 그것도 헙니까?
등록 엇인 사람들 그때 돈 참 많이 썬. 그 심사받고 그거 허믄은 이제 유꼬쿠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 강 그거 바치면은 거 이제 에이쥬껜(永住権) 나완. 그것도 이제 에이쥬껜(永住権) 삼 년 동안 이제 잘못하면 에이쥬껜(永住権) 나온 것도 1년에 내려와 불지. 우린 이제 거주자로 뒈부니까 이제 그런 건 관계 엇고
게민 영주권 나오면 삼 년에 한 번씩 다시?
아니 아니. 영주권만 받으면 유코쿠간리쇼(入国管理事務所) 아니 가도 뒈.
안 가도 뒈. 어 기민 이제 그럼 완성된 거예.
완성된 거.
게민 돈 든 거 보난에 보석금 백 만 원 들었고?
어, 차비 뭐 헌 거 이십만 원 들고.
이십만 원.

게민 우리 팔촌 형님이지만은, 소개헤 주니까 등록 나오니까 양복 흔 벌 헤 주니까 흔 삼만 원 들어실 거여.

으, 또 건강 검진 받젠 허난.

어, 그런 건 병원빈 뭐 허주만은, 그 후에 조조헌 거 뭐 돈 많이 들엇어.

어쨌든 고정으로 든 거는 백이십만 원.

고정은 그것주만은 그것도 백이십만 원은 헐헌 거. 지금으로 생각하면 헐헌 거. 거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 뎅기멍 의무교육이지. 중학교 고등학교꺼지.

게민 밀항 왕 여기 왕 61년도에 왕 그렇게 딱 영주권 받은 게 몇 년 걸린 거과?

에또(えと) 밀항으로 와가지고 십삼 년, 십삼 년에 걸려가지고 한 오 년, 육 년 뒈가지고. 육 년 뒈니까 아노(あの) 나왔지.

게믄 19년?

십구 년 뭐 이십 년. 아노(あの) 등록 나온 거, 고향에서 왕 에이쥬껜(永住権) 받을 때꺼지 허믄 십구 년 이십 년. 겨고 가다뽀(片方)가, 여자가 재일교포허고 일본 사람허고 결혼허게 되면 등록이 빨라. 우린 양쪽이 밀항으로 와부니까.

여자도 그것도 다릅디다.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영주권인지에 따라서 또 다릅디다.

달라 달라. 우리도 특별영주권 아니라. 도꾸베쯔 에이쥬껜와 고꼬데 우마레따 히또(特別永住権はここで生まれた人). 아노(あの)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맺을 때,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이제 허믄 그 자식들은 다 도꾸베쯔 에쥬껜(特別永住権)이야. 게난 그 사람들은 등록 기리가에(きりかえ) 헐 때도 규약쇼(区役所)에서 허거든. 우리는 낭꼬(南港)에 가야지. 아노 유코꾸간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 낭꼬(南港)에. 게니까 뭐 이제 칠 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 건 걱정 엇주만은 저 번엔 삼 년에 한 번.

삼 년에 한 번씩 허당 이제?

오 년에 한 번씩 허당 칠 년에 한 번.

삼 년 오 년 칠 년 경 늘어나는 거예?

경허난 여기서 밀항으로 온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헷어.

게난 아까 그 뭐 헐 때 본적지가 화태로 뒈엉 잇어난 거과?

어, 우린 본적지, 아니 출생지가 화태.

출생지가 화태로 뒈엉 잇어난 거?

뒈서.

지금도 서류 떼면 화태로 나옵니까?

으, 화태로 나오는디 이번에 아노 외국인 등록을 그걸 카드로 허거든. 카드식으로 헷어. 게니까 이번에 카도(カード)로 작년에 헐 때 보니까 카도(カード)가 출생지가 제주시로 뒈불엇데. 일본 놈덜이 차별허는 것이. 나는 가라후도(樺太)주만은. 게난

그 가라후또(樺太) 치와 가지고 게니까 아노 고세끼(戸籍) 한자로 쓴 거 지금은 다 한글이주만은 그거 지금 다 보관헹 놔두고 잇어. 그건 가라후도(樺太)로 다 나완 번지까지.

서류 그런 것들 버리지 맙서예. 그거 아깝수다. 생명보험 들엇다는 그거.

그거 무신 것고 그거 단간죠(嘆願書). 그거 타이프로 친 거 그냥 집이 잇어.

그거 사진 찍엉 가면 안 뒈쿠과?

사진?

말 좀 더 들으쿠다.

우리 어머님 지금 노후로 헤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 없지. 게난 딴 집에 가도 뒈긴. 거 이실 거라 ᄀᆞ만 이서 봐 사진.

어쨌든 여기서 말은 좀 더 들엉예. 기민 삼춘이 플라스틱 십년을 헤잖아예. 그 다음에 무슨 일 헷수과?

그 다음에 거기서 허당 장게, 내가 장게를 두 번 갓주게. 한 번은 간 1년을 못 살아 가지고 마누라가 죽어불언, 죽어불언.

그건은 언제 헌 거? 멧 설에 헌 거, 그 장게는?

스물세 설 쥬니가쯔 난니찌니(十二月何日) 결혼헤서 스물넷에 쥬가쯔(十月)난 일 년도 못 살았어. 경헨 병으로 죽어부니까 이젠 쭉 거기서 스미꼬미(すみこみ)로 살면서 내가 또시 지금 마누라가 절간에 미쳐가지고 절간에 지금.

예, 지난 번에 굴아난 거 생각남수다.

십육 년 헤서 별거 생활이. 십육 년. 헹 그거 만나가지고 경헌디 생활이 안 뒈겟더라. 마누라 헤가지고 허니까 이제 거 뭣고 고무 일허난 우께도리(うけとり). 좀 돈을 많이 받는 거 그거 헤가지고 그거 이제 헤가지고 허다도 이젠 아이덜도 많이 잇고 놈의 아파토(アパート)에 살지 못 해. 아이덜이 조용허게 놀렌 허믄 놀지 안 헤. 그땐 그 어린 것덜이 막.

아들이꽈 딸이과?

아들 넷에 딸 하나주마는. 그 당시엔 아들 서이 있어낫구나. 그믄 이것덜이 막 시끄럽다 헤가지고 집이 빨리 나가라고 헤노난. 또 아이덜 하민 저 아파트 빌젠 헤도 집도 우리 한국 사람안티 빌려주지 안 헤. 집 제기 헌다고. 겐 이제는 론(ろん)으로 그 집을 삿거든. 게가지고 나도 이제 공장을 두어 가지고 나가 미싱을. 우리 어머니가 미싱 베테랑이니까. 겐 우리 마누라도 하리꼬(はりこ) 헤낫주게. 겐 그것도 이제 아기들 낳멍 못 허니까 어무니영 시어무니영 미싱허당 아메도 나가 이제 들어가지고 미싱허면서 집값 갚고 허단 보니까 고향에 이신 질이 제주도 거 뭣고 구역 정릴 헤가지고 밧을, 밧을 잘라 가는 거라. 게믄 그거 보상금 받으민 그걸로 돈 물고.

아, 집에, 집에 밧은 잇어낫구나?
시골에 밧이엔 헌 거 우리.
살아난 집?
살아난 집인디. 내가 전쟁에 나니까 어디 갓주게. 어머님허고 난 미리 아부나이(あぶない) 허난 제주도 들어가렌 헤가지고 어머니허고 나허고 제주도 들어왓거든.
게난 아버지가 화태 강 일할 때 어머니까지 같이 데령 화태 강 살아난 거?
소우소(そうそう). 아노 신꼰노 도끼 소노마마(あの新婚の時そのまま) 장게간 소노마마(そのまま) 살앗주게. 거기에 우리가 큰아버지가 잇어낫주게. 우리 아버지 형이 거기서 한 이백 명 쯤 밥헤 주는 한바(はんば), 한바(はんば)집 헤가지고 밥을 멕이면서 노동자들 밥 멕여 줘낫주게. 게난 형 따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나낳가지고 게니까 우리, 나가 어머님허고 나가 제주에 들어올 때 우리 큰 아버지가 제주에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여기서 살아야 뒌다고 헤가지고.
몇 살 때 제주에?
세 살에. 세 살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헹 또 아버지도 위험허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나 아버지 얼굴 몰라. 게난 우리어머님 말허는 거 보니까 나 다섯 설에 일본 나왓다고 허데. 게난 다섯 설에 일본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나와부니까 우리 어머님네 부모네 집인 삼양이라. 삼양에서 좀 갑부로 잇어낫거든. 게난 거기서 쭉 밥 얻어먹어주게. 우리 아버지나 나나 우리 어머니나. 게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멩헤도 안 뒌다 헤가지고 남편이 일본 가가지고 돈 ᄒᆞ끔 버니까 친촉이 무역선 뎅기고 허니까 돈 좀 번 거 보내렌 헤가지고 밧 사백오십 평짜리 밧 하나 사고, 집 백오십 평짜리 초가집 하나 산 그거, 그거 남은 거.
게난 아버지도 화태에서 일허단 다섯 살 때 제주도 들어왕?
아노(あの) 나 다섯 설에 제주도 들어왓거든. 나중에. 겐 또시 제주에서 살질 못허니까 일본 나와가지고 어디 센다이로 어디로 여기저기로 막 돌아뎅긴 모양이라.
게믄 삼춘은 밀항 와가지고 아버지 못 만난?
못 만난. 나 아버지 얼굴 몰라.
게민 아버지도 삼춘 다섯 살 때 오사카 나왕 집이 연락을?
아니, 다섯 설에, 나 다섯 설에 일본 나왓주만은 연락이 그땐 편지 연락도 못 허고 허니까 아버지도 나 얼굴도 모르거든.
경헤도 돈은 보내준 거라예?
응, 그건 게 마누라가 허고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노동허면서, 돈 보내 도렌 허니까 집하나 사고 그 밧 하나 산 그걸로 문딱 질 들어간다 무신 거 헌다 허멍. 삼양 파출소 싯잖아.
예, 예.

그 밧 그 저 큰길 그 어디 들어간디 한일발전소 화력발전소 들어간 질. 거 우리 밧이라. 그거 밧이 정말론 천사백 평짜리 밧이라. 거 멧 번. 에이 나 이번 그것 때문에 싸움 첨.

싸와낫구나.

시청에 강 뭐?

겡 아부지 언제 돌아가시고 그런 것도 몰라?

몰라 몰라. 지금 살았으면은 우리 어무니가 동갑인디, 우리 어무니가 지금 96세 한 국나이론. 1922년. 지금 이덜부떠 이제 자기대로 화장실 못가가지고 나가 이제 똥 오줌 다 치웜주.

말도 못 허고?

아, 말 못 허고. 귀도 막아불고 눈도 어둡고.

고생헴신게 삼춘이.

고생은 뭐 편안허지. 일허는 거보다 편안허지.

아이구게.

밥도 나가 다 멕이고.

헬파(ヘルパ)는 오는 거 아니마씸?

아, 헬파(ヘルパ) 그거 나 돈 안 물거든. 그 돈 안 문 이유도 잇어. 웨냐허면은 우리 어머니가 일을 안 헷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칠천 얼마 나왓더라. 아노 가이고호껜노(あの、介護保険の) 요금이. 게사(今朝) 나가 구약쿠쇼(区役所) 가가지고 이거 넨낀(ねんきん)도 엇은 사름이고 무쇼꾸야노니(むしょくやのに) 왜 이거 이렇게 나오냐 허니까, 그거 다 시라베(しらべ) 헤 보니까 그때 손지가 서이 우리 ᄀᆞ치 살앗거든. 그러니까 이거 손지 월급으로 허니까 돈이 너무 많이 허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거 안 뒌다고 나 게믄 못 문다고. 나 흔 육 년 동안 물어져실 거라. 못 물겟다고. 게니까 또시 흔 번 구야큐쇼(区役所)에서 전화왓데. 이거 물어야 이제 뭐 헌다고 허니까. 게난 나 말헷주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모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관리헐 거니까 걱정허지 말라고.

먹혓구나, 그게.

경허니까 거기서부턴 안 헷주게. 나는 나는 물고 잇지. 나는 노동도 안 하고 아이들도 다 결혼시켜 가지고 뭐 허니까.

결혼은 누게 소개시켜 줭 만낫수과?

여기서 누게가 결혼헤연 여기 아방 찾아온 사름 이시메 흔 번 미아이(みあい) 허렌 헨 미아이(みあい) 허난 결혼허켄 허난 그건 육년 만에 등록 뒛어. 일본 와가지고 나 덕분에, 나영 결혼허니까.

아, 온 지 얼마 안 뒈가지고 바로, 바로. 게민 그때 삼춘은 플라스틱 일헐 때라?

결혼헌 게?

소우소(そうそう). 플라스틱 일헐 때.

처음에는 어머니랑 살당, 결혼허난, 그니깐 첫 번째 결혼허난 와이프랑 집 빌엉 살당, 갈라성 얼마 만에 두 번째 결혼을 헌 거과? 아, 돌아가셩 얼마 만에?

한 에또(えと) 나가 스물일곱에 결혼을 허니까 돌아간 지가 스무넷에 쥬가쯔(十月), 에에 말허지 안 허켜. 게난 여기서 산소 나가 호적에 안 나와도 산에 다 나가 산소에 아버지 산에 일본식은 다 그레 다 같이 다 놔줬어.

아버지 제사도 헴수과?

나가 이 년 전까진 내가 헷거든. 나가 음식 사다가 나냥으로. 어머니도 그때 뭐 헐 때니까, 나냥으로 고기 거튼 거나 두부 사가지고 뭐 헷주마는 어머니가 못 허니까 나도 작년부터 산소에 가서 제서, 멩질헌다만은. 한국에도 그렇게 한다네.

이제는 아이들이랑 ᄀᆞ치 안 살고?

지금? 안살아. 다 결혼헤가지고. 큰아들만 장게 안 가니까 큰아들은 이신디 장가 안 가고 우리 족은 아덜이 작년 십이월덜에 결혼하니까 지금 집 짓엄주게. 아노(あの) 이번 칠 월덜에 완성 시킨다고. 거기 족은 아들이 지금 거기 짐 있으니까 거 히꼬시(ひっこし)허믄 나허고 우리 큰아들허고 어머니는 거기가 있고, 거기가 집이 한 건물만 한 십칠 평이니까 집이 크주게. 허니까 이층에도 방 세 개 잇고 시따(した)도 방 세 개 잇고. 지금은 나가 지금 사는 덴 집 잇어낫는데 일본은 주차장 없으면 안 되잖아. 경허니까 셋아들이 우리 집 도나리 도나리(となりとなり) 살주게. 게니까 주차장 손지가 우리 아버진 차도 없고 막 헤가난 나가 한 백사십만 원 들여놔가지고 주차장 만들안. 나 혼자만 살려고 헤신디 어머니 오니까 방이 좁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 칠월달에 족은아들이 짐은 없주마는 거 이제 완성허믄 거기 가야주게.

아이들은 몇 살 때 난 거라? 큰아이는 27에 결혼헹?

27이니까, あれ、1970넨도(年度) 반바꾸(萬博) 올림피쿠 헐 때 반바꾸(萬博) 헐 때 나고, 두 번째는 아레 나나쥬니까 이찌넹(あれ 七十二年か一年)이야. 산방메와 아라와 후따쯔까 미쯔구라이 하나레떼루와(三番目はあれは二つか三つくらい離れてるわ).

으, 게민 칠십사 아니면 칠십오다예.

경허니까 아노 그 다음엔 아들 시 성제 나가지고 나도 애기 이제 나지 말젠 뭐 헷주게. 게난 우리 사름이 그렇게 형제간에 많은 집들, 임신헷다고. 경허니까 나가 돈 3만 원 줭 유산시켱 오라고 돈 줭 놔두난 그냥 가졍 왕 안 된다고. 경헨 이제 난 거 보난 똘이라. 이 똘에미 공부 잘허여. 고등학교 때 장학금으로 받아가지고 공부 헷주만은 사름이 결혼허믄 사름이 남자를 잘 만나야 뒈여.

아, 똘 결혼헤신디 잘못 만낫구나.

못 만나가지고 이 개월, 이 개월 만에 이혼헤가지고 경상도 사름, 부제라. 갑부집이. 그걸 만나가지고 2개월 만에 이혼헤가지고 뭐 이젠 이녁 혼자만 살다가 같은 회사에서 일본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헷주마는 결혼헤가지고 흔 9년 다 뒈가는데 아기도 없고. 뭐 이젠 아긴 다 뒈엇지 지금 마흔 하난가 둘인가 될 걸. 지금 족은 아들은 지금 연상 애인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 작년 시월 덜에 헤가지고 돈 나가 이천이백만 원 줘가지고 집 사렌 허니까 이제 집은 사지 안하고 이젠 짓는다고 게난 천삼백만 원 자기가 월급으로 문다고 헤가지고. 느 몸냥으로 허라, 아이 나 원.

게믄 고무일을 헷덴 헷잖아예. 아까 플라스틱 끝나가지고.

아노(あの) 무신 거, 아라이고무데(あらいゴムで) 무시 거, 물안경.

물안경 만드는 거?

그 사람이 오라리 사름이주게 사장이.

나 알아지쿠다게.

이까리마크. 박 누게라.

그 회사에 다녀난 거?

그 회사에 고무 회사에. 이까리마크엔 헌 거 물안경이주만은 저 닷 잇잖아 그 마크. 일본에서도 알아줘. 지금은 큰아들도 죽어불고 셋아들도.

그 할머니 살아 잇수과?

살아 이실 거라.

이, 삼 년 전에 만나낫수다.

응, 저번에 나 만날 때 보니까 아노 이스 구루마데 가이고(椅子車で介護) 뭐 헴데. 야 그 사장 사몬 애기 읏덥개 낫주마는 일허는 거 보면. 나가이 우께도리(うけとり)니까 아침 여섯 시에 가주게. 공장에 들어가. 일 다 끝나가지고.

나 그 얘길 들어수다게. 고생헤난 얘기. 그 전쟁터에 와가지고.

지레 조금만 헌 어른, 일허는 거 보면 기가 멕혀.

어제 삼춘 얘기헐 때는 그 등록 만들 때 보증금이렌 합니까 그거 백만 원 들엇덴 헷잖아예. 또 어제 다른 분한테 강 들으난 그 분은 한 사람이 백만 원 들엇덴. 어멍이랑 아들이랑 둘이가 백만 원씩 행 이백만 원. 근데 그 분은 변호사 쓰지 안허난 돌려 받는 거렌. 변호사 안 쓰면 돌려받는 거에?

응,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인이 등록이 아노 나니 아노 자이류시까꾸가 찌가우까(あの、なにあの、在留資格在日違うか).

아니 아니. 자이니찌 아니라난.

문딱 등록 왓다고? 아노 등록 없이 등록 만들엇다고? 아 우린 등록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예. 삼춘이 고무일을 헷엇덴 헷잖아. 그 고무는 어떤 작업을 거치는 거과?
그거는 프레스(プレス)로 그 고무허게 뒈면은 그 원료로 헤가지고 네리 네리(練り、練り) 헤가지고 고물 만들지. 가루로 헌 거. 그 고무 가루가 잇어. 원료.
그믄 원료로 들어올 때는 고무가 가루랏수까?
가루 가루. 가루에 생 고무 허고. 가루로 헤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헤연 만들어가지고 고무를 만들지. 고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되면 그 재단을 허지. 공장안에서. 우리 아라이고무(あらいゴム) 고무를 만들어 공장 안에서 헤가지고 자율을 헤가지고 그걸 재단허게 되면은 이 메가네(めがね) 큰 거 작은 거에 메가네(めがね) 하나에 멧 그람을 들어가느냐 그걸 헤가지고 딱 지정을 허게 되면은 그걸 다 잘라야지.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무게 재멍? 몇 그람씩 재멍?
으, 허니까 그디서 잘라가지고 허면은 정확하진 안 허지. 그믄 우리가 또 고무 하가리에서 계량헤가지고 너무 하면은 고무 잘르고 작으면은 좀 더 보태주고 그래가지고 고물, 아니 저 스이쥬메가네(水中ねがね)를 만들지. 게믄 한 사람이 기계가 한 여섯 대. 아니 하나 둘, 다섯 대 같거든 그믄 이제 왓다가 갓다가 헤가지고 시간이 정해져. 너무 메가네(めがね)가, 그 고물 너미 열을 너미 많이 온도가 너미 많이 높으면은 그 고무가 품질이 나빠지지.
게민 그 온도를 다 정확허게?
정확허게 맞춰야 돼. 게믄 그 다섯 대 기계 가지며는 일로 시작헤 가지고 저레 가면은 또 이레 오면은 시간이 꼭 맞아.
한 사람이 맡앙 하는 게 다섯 대.
아라이 고무에서는 그렇게 헷지. 겐디 지금은 그 인제 자동화가 되니까 건 몰라. 우리 이실 땐 자동화가 안 되가지고
아라이 고무가 이 근처에 잇어낫수까?
우리 집 있잖아. 우리 집 그 앞에 잇어낫주게. 게난 거기 잇다가 저디 또시 집 사가지고 저 안에서는 제품을 다 만들면 거기서 시야게 하쿠스메(しあげはこつめ) 걸 만들엇주게. 게난 거기 가서 앞이 공장이 헌 디가 지금 아들 형제죽고 아버지 죽고 사장 죽고 옛날 공장헤난 디 집을 다 튿어가지고 만숀(マンション) 짓엄실 거라.
지금은 아직도 있는 거 아니?
있긴 있어.
막내가 허는 거, 막내 아들이?
막내가 헴신가 잘 모르주마는 지금 다 어디 공장에서 안 헤가지고 어디 시따우께(したうけ) 내치는 거 같더라고 말 영 들어보니까. 게난 인제 자기네 집에선 안 허고 이젠 사람들도 종업원도. 우리 이실 때는 종업원이 한 삼십 명 잇어낫주게.

게민 그거를 아까 삼춘이 수중메가네(めがね) 안경이라는 뜻이구나.
물안경. 한국에서는 저 아마상(海女さん) 있잖아 해녀. 그 물건을 뭐 허주게. 게민 거 스노커로도 만들고 물에 물어가지고 잠수할 때 그것도 만들고.
그민 그 고무공장에서 몇 년 일해서?
나 훈 칠 년 반쯤 헤져신가.
칠 년 반쯤. 게민 맨 처음 플라스틱 일을 십 년 했고 그 공장에서 칠 년반 하고.
거기서 월급이 생활을 못 허겠더라고. 그 아라이고무 공장 이층에서 살앗주게 방 두 개 빌어가지고. 거기서 도우세(どうせ) 아이가 서이가 되니까, 살 정도 되니까 거기서 여기 지금 사는 집 론(ろん)으로 집을 사가지고 팔년 론(ろん) 헤가지고 일하면서, 나도 이제 아라이고무 그만두고 집에서 신발 만드는 미싱 있잖아. 그 일을 시작헷주게.
아, 집에 미싱 놔가지고?
소우소우(そうそう).
게민 삼춘이 했던 신발 일은 어느 단계과? 이거 붙이는 거?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반도 반도(バンド、バンド) 헤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여기 영 반도(バンド가) 잇주게. 그걸 만들엇주게. 게믄 그걸 가져가면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가져가면 회사에서 하리꼬(はりこ) 허는 디 들어가주게. 거기선 이제 신발을 만들어.
그럼 밴드라고 하는 건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라면 이게 밑창이면 이 위에?
소우소(そうそう).
우에 더프는 부분예?
으, 우에 더프는.
그럼, 그걸 미싱을 한 거라?
응응. 우리가 미싱을 헷거든. 나가 거 미싱을 헤가지고 한 삼십 멧 년 헤져신가. 그거 허니까, 그거 허니까 좀 월급도 하고 또 일도 헐려면은 그 당시에는 일은 뭐 시간이 없지 일은 얼마든지 잇어서.
게난 한 삼춘이 그 밴드 일을 시작한 게 한 1979년 80년쯤 됏다예?
나가 우리 아덜이, 우리 아덜이 국민학교 일 학년 입학헐 때 나가, 우리 큰아들 들어갈 때 나가 거기 야메루(やめる) 헤가지고. 거기서 쪼끔, 국민학교 한 일 학년까지 나가 공장에서 일헤가지고 이젠 그걸 야메(やめ) 헤가지고 지금 우리 아덜이 지금 마흔넷인가 다섯인가 됐을 거라. 그니까 우리 아덜이, 이 큰아덜이 이 집에 와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갔거든.
예, 예. 그믄 어쨌든 그게 한 80년대우다. 80년대 초반정도 될 거우다.
어쨌건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가 이거 일 끝난 지가 이거 69세에 끝났거든.

예. 게민 게민 그 고무할 때는 아라이고무에서는 월급으로 받은 거잖아예?
아니 월급이 아니고 우께도리 우께도리(うけとり、うけとり). 자기가 일 많이 하면은.
아 공장에서도 우께도리(うけとり) 잇어낫수과?
우께도리(うけとり) 잇어낫어. 우께도리(うけとり). 우리 아라이고무는 그 프레스(プレス) 허는 사름은 다 우께도리(うけとり). 딴 사람들은 다 일급으로, 일급. 월급이 아니고 일급.
아.
그날에 나와가지고 일급이고 경 안 헐 때는 돈 안 줘. 경헨 일급.
게민 삼춘이 거기서 그 프레스 하는 사람들 아라이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총 얼마나 뒈낫수과?
에또(えーと) 저기 하나 둘 셋 넷, 네 명에 막 일 바쁠 때는 허게 뒈믄 니고우다이(二交代) 허거든. 낮이 일허고 밤이 일허고. 막 일 바쁠 땐.
기계를 안 쉬게 돌렸구나?
기계는 놀긴 놀주마는 그 열이 그, 그 저 뭐고 프레스(プレス) 일 허게 뒈면은 그것이 기계가 저 전기로 스위치 허면은 한 시간쯤은 걸리주게. 그 기계 따뜻허게 만들려고 허면은.
예, 열 가열시킬 때. 게민 거기에서 프레스(プレス) 하는 사람들이 게도 여럿 잇엇잖아예, 몇 명예. 삼춘은 거기서 돈을 하영 받는 편이연?
아니야, 나가 제일 족게 받안.
일 못했구나?
못 헌 것이 아니고 나가 제일 신마이(しんまい)고, 제일 신마이(しんまい)고 나가 제일 헐런 거 허고 딴 사람들은 고급품을 헷주게. 웨냐면은 나이도 하고 베테랑이니까 우린 신마이(しんまい)는 고급품을 만들질 못 허주게.
신마이(しんまい)라부난. 게민 그럼 그거 결혼헹 살멍 계속 그 일헷잖아예?
그거 한 멧 년 헤신가?
칠 년 반 정도.
으, 칠 년 반, 도니까꾸(とにかく) 팔 년쯤.
그민 그때 결혼헹도 어머니랑도 같이 살앗수과?
응,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도 같이 미싱 헷주게. 어머니가 미싱이 베테랑이니까.
아, 그거는 미싱 차령 할 때고, 삼춘이 아라이고무 다닐 때는?
응 그때는 우리 공장에 나가 2층에 살아낫주게. 게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제 나이쇼쿠(ないしょく) 일을 헤낫주게. 게니까 그것이 안 뒈니까 이제 자기도 미싱을 배우겠다고 헤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미싱 두 대 놔가지고 조금 일했어.
집에서 나이쇼쿠(ないしょく)로?

어, 나이쇼쿠(ないしょく)로 미싱을 조금 허니까 거 자기 혼자 나이쇼쿠(ないしょく) 허는 거 보당도 시어머니허고 일허는 것이 아멩헤도 돈이 많지.

그니까 말도 곧고, 일도 ᄀᆞ치 하고. 경헹 그거 사당 이사헹 집에서 미싱을 차리게 뒈난.

그니까 미싱을 차리게 되니까 그때부떤 콤퓨타 미싱 있잖아. 자동적으로 허는 미싱. 그거 한 대에 한 사십만 원짜리 처음 나올 때. 그거 월부로 사가지고, 그 미싱 놓면은 아메도 일이 깨끗하고 미싱이, 신발이 메가 있잖아, 깨끗하고 힘도 안 들고.

그때 일한 사람은 가족, 식구들만?

가족, 식구만. 나허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게고 그 시따바리(したばり) 허는 사름. 그 거기서 우리가 일헤 가지고 미싱 알더레 털어지면 그거 정리해 주고 해주는 사람이 한 사름. 그런 사람은 한 시간에 한 월급이 뭐 한 그 당시에 한 700원. 게고 또 너미 일 바쁘니까 고향에서 온 젊은 여자덜 고향에서 오주게. 게믄 부산에서들 신발헤난 아이덜.

공장 다녔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오믄 미싱 잘허주게. 게믄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첫 해는 한 칠빅오십 원 주고 허면은 노릿수가 많이 오르주게. 게가믄 또 오십 원씩 올려줘. 어떤 때는 한 시간에 한 구백 원 갈 때도 있고 천 원 갈 때도 잇어.

그때도 시급으로 줬던 거라 가이네는?

그럼 그럼 시간으로.

그게 80년대우다예. 80년대말 정도?

아니, 80 ᄒᆞ끔 넘었을 거라. 그때에 구백 원씩 허면은 그런 아이들도 한 어떤 때는 이십오 만 원씩 타.

게난 게난 경 뒈크라. 돈 벌엉 가시큰게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 젊은 아이덜도 여기서 허믄 또 교포들이영 결혼허믄 여기서 등록 만들어 가지고 애기 낳으면 등록 만들어가지고. 게난 등록 이신 사람들이영 결혼허게 되믄 등록이 쉽고. 저기서 온 사람이영 만나면은 등록 만들기가 어렵고, 집이 또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응, 잡형 들어가는 사람들?

소우소우(そうそう). 잡혀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삼춘 근처에 잇어난 사람들 중에 잡형 들어간 사람들이 잇어나수과?

많이 있어.

많이 잇어? 오무라수용소도 들어가 보고?

그때 오무라수용소는 아니 가고, 직접 아노 유고쿠관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서 살

다가 강제송환 시켜불주게. 게믄 자기 차비로.

자비 출국?

자비 출국 허고 짐 ᄀᆞ튼 건 자기대로 가져가고. 뭐 테레비(テレビ) 거튼 거나 무신 그런 거 많이 가져가지. 경허고 오무라수용소 가게 되면 자기 입던 옷이나 그런 거 가져가지 다른 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비 출국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무라수용소 강 기다린 거과?

그런 사람들은 누구 두에서 저 뭐고 아노 보증자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주게. 오무라수용소더레. 여기가 보증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가 책임진다고 헤가지고 보증금 백만 원 게 내가 한 사람에 백만 원 주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은 도망갈 저 뭐고?

그게 높은 거?

어, 높은 거고.

아, 아 보증인 엇어가지고 그럼 보증금을 못내면?

아니 아니. 보증금이 아니고 뒷받침이 없으면은 또 그렇지. 지금은 한 십오 년 전부터는 오무라로 아니 넘어가지고 구치소 살주게. 유고쿠관리지무쇼(入国管理事務所), 미나도꾸. 거기서 이제 허게 되면 조사 헤가지고 아니 되면 거기서 또 자기가 아니 간다고 헤가지고 뒷받침을 이제 지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게믄 돈 없으면은 그 뒷받침도 안 뒈주게. 게니까 돈 있는 사람은 뒷받침을 허게 뒈면은. 작년에도 ᄒᆞᆫ 삼 월덜에 걸려가지고 간 사름 잇어. 독신, 장게도 아니 가가지고 일본 와가지고 한 이십 년 살안. 고향에 가난 지금 무시거 가도망(かどもん) 한다고 하데? 65세 난 사름이.

가도망(かどもん)이 뭐과?

가도망(かどもん) 허믄 밤이, 무사 한국은 엇나? 밤이 저 회사에 저 순경 닮은 옷 입어가지고 회사에 빙빙 도는.

아, 경비원.

응 경비원.

그거 헌덴마씸? 삼춘 두 번째 결혼헐 때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줍서. 누게가 소개시켜 줜 그 안덕면 옷상(奥さん)을 만낫수과?

아, 그건, 그건 우리 어머님이영 같이 밀항으로 온 사람이 어떵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가 알주게, 그 사람도 또 나영 같이 일도 헤낫주게 또 부인이. 그 나이가 많이 있어. 지금 죽어신가 살아신가 몰라? 그 사람이 영 영 헨 자기 동네 사람이 결혼헤 가지고 지금 이혼헤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고 헤가지고. 그 사람도 또 나 부인된 사람네 같은 개인집에서 같은 도나리(となり) 방에서 살아난 모양이라. 헤가지구 거기서 만났지.

소개시켜 주난?

으, 경헨 결혼헌 거야.

마음에 들엉?

마음에 들고 게고 그때 도니까꾸(とにかく) 단 아들이니까 결혼헤가지고.

어머니 마음에 드난 그냥 결혼허게 된 거과? 삼춘마음에 들언 결혼허게 된 거과?

아니 아니. 난 뭐 난 우리 가시아방 되는 사람이 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딸신디 결혼허라고 헤가지고.

그럼 가시아방도 여기 일본 살아난?

응, 밀항으로 와가지고 살안 여기서 살다가 고향에 들어갓주게. 겐 고향에 들어가난 한 일년되니까 저 세상에 간에.

그럼 그 옷상(奥さん)이 먼저 온 거과? 가시아방이 먼저 온 거과?

가시아방이 혼 일본 와가지고 혼 삼십 년 살안. 제국시대에서 살다가 고향에 들어가지고 고향에서 생활을 못하니까 또 일본에 나온 거주게.

경헹 그 어른은 등록 못 얻엉.

아니 등록 만들지 안 허고 또 한국사람 같이 폼을 안내. 옛날에 일본 살아난 사람이고 허니까 회사에서도 쭉 허니까. 겐 자수헹 들어갓주게.

자수헹 들어간 거. 그럼 그분은 아예 들어갈 걸로 헹 자수헹 들어간 거게?

소우소(そうそう). 자수헹 들어가니까 빨리 갓주게.

기믄 옷상(奥さん)네는 안덕 고향에 친척들이랑 다 잇어낫수과?

친척도 있고 형제간도 많이 있지 뭐. 안덕면 사계린 몰라, 나 요즘 한 십오 년 동안 안덕 안 갓다 왔으니까. 마누라가 저 어디고 절에 들어가부니까 나도 일절 처갓집에 안 뎅기고, 처남들도 처남도, 처제는 제주시에 하나 있고 한 사름은 안덕면에 있고.

겡 그 등록을 한 80년 경에 얻어신디 제주도 처음 들어간 게 언제과? 나왕?

제주도 들어간디 울 어머니가 등록 되어가지고 이 년 만에 고향에 들어가실 거라고. 혼 번 고향에 갔다 오라고 헤가지고 우리가 고향에 보내영.

등록은 다 같이 된 거 아니?

응응. 다 같이 뒌 거주게. 뒈여가지고 그 후에 내도 아니 갈려고 했지만, 아, 소우소우 저 어디 박정희 저 세상에 가가지고 저 누구 전두환 저 무슨 혁명 잇엇지. 그때 나가 들어갓주게. 그때 웨냐면은, 그때 나가 들어갈 때 나가 왜 들어갔냐면 아가씨도 알런지만은 그 삼양에 빠스(バス) 저끗디 질 빤 것이 우리 밧이라. 글로 저 한일발전소 들어간데 그 보상금 받으라고 오라고 허데. 오라고 하니까 난 군인 안 갓다 오고 허니까 이거 또 어떵 헐 건가 헤가지고 저 어디 영사관에 가가지고 영사에게 얘길 들으니까 아, 괜찮다고 가도 어떵 안 헌다고 헤가지고 군인 무시거

안 허고 가라고 허니까 우리 어머니허고 나하고 같이 갓주. 야 그땐 무섭더라.

잡혀 가카부덴?

아노, 부산, 김해공항에 내려오난 저 무시거 칼 비치허고 총 들러가지고.

아, 그때 쿠테타 나부난?

쿠테타 쿠테타. 그 저 또 어디 저 제주 가니까 제주 그 방송국.

게난 처음 들어갔을 때 부산으로 행 들어간 거과?

그난 김해 김해. 그때 김해 들어가 가지고 그때 직행 엇이난 김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탕 갓지. 그땐 보니까 저 해병대들 그 저 방송국에도 그냥.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도끼도끼(ときとき) 뎅기질 못 헤나서. 겐 그때 돈을 그 당시에 얼마 받아신고? 한 천만 원, 천만 원씩 받아실 거라.

한국 강 보상금을 받앙 오는 거? 들어올 거 가졍간 거?

아니 아니. 보상금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허니까 거기서 이제 은행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이녁 은행에 돈 놓렌 하난 우리 저 팔촌 형님 아들이 저 어디고 동문통에 농협 있더라. 거기 아이고 삼춘 저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 헹 거기 매껑 놧당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졍왕 여기 집 론(ろん)으로 산 거 월부로 산 거 남은 거 흔 삼만 원 흠치 다 물어불엇주게.

잘헷수다 잘헷수다. 게난 그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 집이랑 밧은 다 누게가 관리헤 준 거?

관리헌 건 우리가 와보니까 우리 작은아부지신디도 관리허렌 허난 우리 작은아부진 농사 안 허는 사람이난 그 사돈칩이 매껸. 막 이것저것 허난 우리 큰 밧은 저 뭐고, 관리가 누가, 지서 옆이 천사백 평이주게. 건디 거 관리가 그때 아 우리 웨할머님, 웨할머님이 관리헙서 헨 우리 웨할머니하고 우리 작은아버지네 한림 강 살멍 잘 살질 못 허주게. 게니까 거기서 관리헹 농사허면은 이제 반씩 반씩 갈라먹기 헨 경 헷주게.

아, 기믄 반씩 반씩 갈라먹는 건 밧 삯을 ᄒᆞ끔을 보내줍디가?

아니 아니. 우리 그땐 받지도 안 허고.

누게랑 누게랑 반씩 반씩 갈라먹엇수과?

게난, 게난 우리 웨할머님허고 작은아버지네신디. 그니까 나가 그거 큰마누라가 죽어분 때 그 밧을 삿주게. 그 밧을 고향에 들어가켄 허영. 경헹 허단 보니까 어떵 어떵 장게도 가고 등록도 되고 보니까 그 밧도 흔 펭에.

아, 그 밧은 여기서 벌엉?

여기서 번 거 나가.

게민 삼춘 여기 큰각시 먼저 첫 번째 결혼했었던 각시 죽을 때 경 헹 그 밧을 삿덴 헷잖아?

아니 아니, 그 죽은 후에.

후에. 게민 돈은 누게한테 보냉? 못 들어갔잖아, 누게가 산 거라?

못 들어가니까 그건 우리 삼춘네 밧을 삿주만은 그것을 우리 웨할머님네 이제 그때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어가지고 한 백 얼마쯤 헤가지고 헹 보낸 백 삼십만 원인가 보내실 거라 일본 돈으로. 게니까 거 야미(やみ)로 보냈거든. 야미(やみ)로.

아는 사람 통헹?

아는 사람 통헹 야미(やみ)로 보내가지고 아노(あの) 우리 할머님허고 우리 이모가 그 돈을 그때.

아, 게난 원래 그 밧은 놈의 밧이 아니고 웨삼춘네 밧이라난?

아니 아니 우리 삼춘네 밧. 친척, 친척.

친척 밧. 그 밧이 어느 밧이라는 건 알아났구나?

응, 우리 어머니가 잘 알고 게니까 우리 삼양에서 일등 가는 밧이주게. 경헤 가지고 그 저 박정희 대통령 헐 때 그 한질 잇잖아. 거 좁다 헤가지고 이백오십 평 끈어 먹어불엇지. 그건 보상금 없이. 겨고 이번 또 한전허고 아노 나라에서 길 빠는 것이 한 삼백오십 평 끈어 먹엇어. 그때 한 돈 천만 원쯤 나왔지, 한국 돈으로. 그때 상당히 큰돈이어서 돈 천만 원. 그리고 나중에 구역 정리헌데 헤가지고 옆에 밧이 벡케니까 우리 밧으로 끈어가지고 천사백 평 남은 것이, 남은 것이 멧 평, 삼백 평에 사백 평 한 칠백 평 남안.

지금도 가지고 잇는 거과?

아니, 그거 반착은 우리 처남이 사가지고 집 짓는다고 하니까 나가 그걸, 험 영헐 줄 알아시믄. 처남이나 무신 거나 필요 없어. 헤 가지고 나가 사십만 원에 팔아줫주게 형제간이니까. 평당?

평당.

몇 년 도에?

멧 년 돈고 한 이십오 년쯤 넘어실 거라. 겡 그걸 팔아가지고 그 농지라, 농지. 주택지가 아니고 농지가 뒈어 가지고 그걸 허니까 이제 우리 큰 차남이 해군으로 나와 가지고 제대 헤 가지고 이제 거기 집 짓으겠다고. 나가 걸 속앗주게. 그러니까 이제 농사 아닌 사람은 거기 짓지 못 헌다고 헤 가지고 우리 처남은 이제 또시 한 펭에, 이 개월 후에 나아피 사십만 원씩 산 밧을 육십만 원에 팔았거든. 에이고 이 형제간도 게니까 나가 그때 그렇게 말했거든 만약에 팔게 뒈믄 밑에 막내가 우리 족은 처남이 나보다 열두 살도 아래라. 그 아이가 잘 못사니까 허게 뒈면은 돈 천만 원이라도 주라고. 주지도 안 허고. 게니까 그때 나 막 쪼끔 마누라허고 쪼끔 또 뭐 허고 이것저것 쪼끔 시끄러워가지고. 경헤영 이제 남은 밧은 삼백칠십 평? 그것이 나가 백오십만 원 주언. 아, 백이십만 원 주언, 그때 얼마에 팔아신고. 에또

(えーと) 멧 년고? 칠 년, 팔 년, 팔 년 넘었구나 그거 팔아가지고 일본 돈으로 한 오천만 원 담아가지고

오천만 엔?

엔 엔. 에이와 은행 담아가지고 걸로 헤가지고.

막 부자되신게. 처남안티 그거 안 풀아시믄 그거 세 배에 풀 건디.

경허니까 나가 거 한 평에 육백구십 원에 산 밧이주게. 나도 흔 삼십년 동안 그 밧 운영헨. 나가 그때도 우리 웨할머님이 그걸 헤가지고 이제 밧을 사니까 우리 이름으로 못 허거든. 일본 나왕 잇이니까. 게난 우리 할머니가 그때 동장이 삼양이동 동장이 우리 팔촌형님이라. 게난 우리 형님이 나 이름으로 어떻게 허켄 헨 나 이름으로 헤놓니까 세금도 덜 나왓주게. 경 안헤시믄 세금 많이 나와실 거라.

아니, 여기 나왕 잇인디 삼춘 이름으로 그게 뒛수과? 밧이?

아니 뒈언 나 등록된 후에 그때 무신 난까(なんか) 무신 거 헐 때 뒈였거든.

토지 정리할 때.

그러니까 그 집 그 밧 풀고 뭐 헐 때 보니까 우리 웨할머님네, 우리 웨할머님 덕분에 일본 나오니까. 웨할머님 돌아가시니까 저 뭣고 소상 때 나가 상 나가 다 출리고 비석도 할망 하루방 비석 다 나가 세우고, 돈 백만 원 내가지고 비석 세와주고. 또 우리 초상에 할망 하루방 비석 다 나가 다 세왓주. 경허고 또 삼양이동 임동장씨 묘지 헐 때도 나도 그때 돈 한 이백만 원 들 때 한국 돈으로, 아 백만 원 들 때 백만 원. 한국 돈. 크지 안 허지만 경헤도 한 참가하는 데도 한 이백 명 참가했더라? 그거 다 흔 번하고 경허고 초상굿 허렌 허난 조상굿 하나 하고, 에이구 첨.

게민 등록 나왕 어머니가 먼저 이 년 후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부턴 나가 이제 자주 뎅기기 시작헷주.

두 번째는 어머니랑 둘이 ᄀᆞ치 들어가고 부산 경유?

부산 경유해서 나 두 번쯤 가왔을 거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힌게스 힌게스(ひんけつ、ひんけつ) 무신 저 머리 영 저.

빈혈.

빈혈, 그거 허니까 우리 이모가 와가지고 염소 피 먹으면 낫는다고 헤가지고 정월달에 나가 사라봉에 ᄀᆞ치 가가지고 사라봉에 가서. 그거 먹은 후엔 경 안 허더라? 검은 염소 있잖아 사라봉에.

예 예. 흑염소.

응, 그거 먹으니까 안 허더라? 여기서는 ** 일 년에 한 번씩 먹어도 빈혈증 걸리는디.

아 아, 흑염소 먹으난 괜찮아 빈혈에?

응, 우리 어머니가 그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게난 삼춘이 처음 나올 때 제주도는 막 초가집에.

초가집이지 문딱 초가집. 우리 삼양이동에서 우리 친척분이 기와집 하나 있어. 근데 우리 나온 후에 박정희 대통령된 후에 생활 운동 헤가지고 문딱 그 쓰레트로 올리라고 헤가지고 그렇게 헤서.

게난 일본 처음 나와 보난 틀린 게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먹는 거 말고 일본이랑 제주도랑 아, 일본이구나 한 게 뭐 이십디까?

집안에 가정 공업. 가나이공요(家内工業) 아노(あの) 어느 집안에서도 프라스치쿠(プラスチック)도 우리 한국 사름은 어느 집이나. 지금은 없지만은 어느 집이라도 신발 만드는 그 미싱 있잖아? 그러고 신발 만드는 그 집. 어느 집이라도 다 그 집에서 일허여.

공장하고 잇어?

그리고 남편이 회사 가면은 부인이 집이서 일을 하고 잇어. 미싱 하나 놔가지고 일을. 나이쇼꾸(ないしょく), 내직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노(あの) 그땐 보통 우리 제주사람은 그래 허니까 제주 사람은 일본 가면 뭔 사람이라도 조금 뭐 하면 다 집을 월부로 사가지고 괜찮지 살지. 육지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일할 때도 확실히 틀린가?

틀려, 틀려. 게고 우린 또시 고향에서 고생허니까 어떻게든 일 헤가지고 뭐 헐랴고 그것만 생각했지 돈 돈 돈 돈이라고 돈.

일본 오난 초가집만 보당 2층 집도 있고 막 경 헐 거 아니?

일본? 보통 이층집이대. 저 단층집은 없어. 없더라고. 경허고 우리 학교 뎅길 때 보난 관덕정이나 질이 널르지 어딘 경 허지 안 허여. 아노(あの) 오이께바시로 저 쿠다라 질이 롯샤센까(六車線か) 게니까 야.

길 널다.

널다 허고, 어느 집안에도 다 공장이 있고, 그니까 이 생활들이 풍부하지. 우리도 뭐 게믄 찻점도 저 하리 허는 사람은 노리(のり) 부쪄가지고 노리(のり) 좀 물를 때 동안은 찻점에 가가지고 커피 먹잖아. 경허고 우리도 뭐 허믄 아이들 데려가지고 노는 날은, 공일날은 아이들 데려가지고 찻점에 가가지고 산도이찌(サンドイッチ) 멕여주고 음료수, 주스 멕여주고 뭐 헷지.

몇 살에 장게 보낸 거과 족은 아들을?

작년 십이월덜에 보냇주게. 족은 아덜이.

그니까 그게 몇 살이라?

그거 지금 서른넷인가 이제.

좋을 때 보내신게.

그니까 그 아이 장게 아노 어디냐 돈 이백만 원 주고 이거 허고 돈 이천만 원 줭 이걸로 헹 집 사렌 헹 한국서 가져온 돈. 게고 메느리신더레 돈 10만 원 주면서

옷 상 입으렌. 족은아들신디 양복 사렌 돈 오만 원 주고. 우리 어머님도 작년, 작년꺼진 경 안헷주게 금년 이거 오월덜부터. 겐 돈 오만 원 주데 족은손지신디 이거 옷 상 입으렌 허영.

응, 할머니가. 게민 어머니는 여기 왕 죽장 삼춘이랑 ᄀᆞ치 살앗구나?

ᄀᆞ치 안 살주마는 저 무신 거. 따로 따로 집은 따로 살고 밥 ᄀᆞ튼 것도 우리 집이서 일 허난 점심허고 저녁밥은 우리 집에서 먹고 경헹 집에 가서 자기 잠만 자고.

아아, 혼자 집은 빌려가지고. 경 한국 다니기 시작허난 벌초하거나 그럴 땐 갑니까?

벌초는 안 가고, 나도 벌초엔 참가 못 허주만은 벌초에 못가는 대신에 고향에 갈 때마다 한 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묘제가 잇주게. 우리 형제간만 허는 거. 나가 돈 백만 원 내놓고 우리 아이덜이, 나 ᄀᆞᆯ앗주게 너네도 고향에서는 벌초 헤야 뒈난 돈 다 만 원씩 다 내노렌. 그믄 나가 그거 보태가지고 돈 백만 원을 채울 거니까 그때 돈 만 원이면 십만 원 돈이라. 너이가 이제 돈 만원씩 내놩 나 고향에 간 이거 우리 아이들 이제 돈 백만 원이렌 해 놓고 나 돈백만 원.

경헹 고향 안 간 게 몇 년이라?

사 년. 이제 오 년째. 사 년 반쯤 뒈감서. 또 어머니도 정허난 가지도 못 허고.

게난 그 사이에는 가끔 왔다갔다는 헷던 거라예?

누가?

삼춘이.

아, 그 전엔 밧 풀 땐 일 년에 한 네 번도 가고. 우리 이모가 신디 우리 이모가 나보다 세 살 우니까. 지금 나나주(七十) 멧고? 나나주하찌(七十八). 게난 할망 뒘주.

이모가 세 살 위라?

나영 고향에 이실 땐 형제, 형제 간이엔 허멍 헤낫주게. 질 막내.

막내 이모. 게민 삼춘 여기서 살멍 삼양 친목회라던지 그런 데를 가입헤낫수과?

응, 옛날엔 잇어낫주게. 겐디 총련이여 민단이여 싸움헤영 폐지뒈불언.

친목회도 ᄀᆞ치들 놀러 다니고?

응, ᄀᆞ치 뭐 헷주만은 그 후땐 그땐 민단이고 총련이주만은 나중엔 막 저 친목회, 삼양 친목회 허면 젊은 사람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은 다 민단 아니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총련이고 게믄 싸움을 허주게. 경허믄 고향에서 온 젊은 아이덜은 말이 좋으니까 그걸 허믄 여기 하르방덜은 안 된다고 헤근에 ᄆᆞᆫ딱 폐지시키고.

경 없어진 지가 얼마나 뒘수과?

이거 ᄒᆞᆫ 삼십 년, 사십 년 뒈지 안헤신가.

아, 막 오래됐구나?

경헹 삼양국민학교 총 동창회가 잇어낫주게. 그것도 돈 내난 다 돈덜 들러먹엉 폐지시키불고.

게믄 오현중학교 동창회는? 그건 엇어?
여긴 엇어. 오현고등학교 동창회는 잇덴 허데.
그믄 친목회 활동허면 ᄀᆞ치들 막 놀러다니고들 많이 헤낫수과?
응, 야유회. 일 년에 한 번. 경허고 신년회 한 번. 우린 또 장칩이 친목회 허다가 그, 거기도 돈 내낭 허당 보난 돈 엇이난 것 뿐. 친목회는 돈이 없으면 되질 안 헤여. 게니까 친척이 돈을 꿔가지고 사업이 안 뒈믄 돈을 내놓질 못 허거든. 나도 친척 뭐 헌 아이한테 돈 백만 원 돈을 받지 못 헷어. 이거 뭐 한 이십 년 뒛어.
도민회는 가입 안 헤봣수과?
아, 우리 제주 도민은 돈 잇인 사름이 도민회 허지. 돈 어신 사름 우리 같은 사름은 뭐. 그러고 이 부인회도 도민회 들어가믄 돈 어신 사름은, 이 옷 입엉 가는 거 보믄 미나 사장 부인, 회장 부인들이난.
삼춘도 사장이랏수게, 여기.
에, 우린 무신 사장. 일본은 다 사장이라 다 일허는 사장. 나 질 하나 고향에 들어강 놀랜 건 거지. 옛날 거 로타리 있잖아. 옛날 동문시장 거기 가가지고 사층집인가 몇 층집인가 아래 들어간, 지하실에 들어가보니까 거 누게가 지하실에 오라고 헨 강 보난 남자 하나 앚으고 아가씨 한 다섯 명 모여 있더라.
가라오케 갔구나?
가라오케 아니고 찻집이데, 찻집. 게난 나 말을 저 사름은 사장이난 아가씨가 막 모영 한국서 사장은 일 안 헹 정 왕 아가씨영 놀당 집에 간다고. 그말 들엉 아이고 아이고. 일본에선 사장이나 무시거나 이 작업복 입고이 낮에부떠 술 안 먹어. 이 한국 강 보난 아침 해장국 먹는데 강 봐도 술. 에으 나라가 뒈질 안 헤여.
만약 그럼 삼춘은 영 일허멍 놀 때 친구들 만낭 가게 되면 어떵 놀아낫수과?
우리 가게 되면 저 뭐고 등록 엇인 것만 흔 열 명쯤 모이면은 저 전차 타가지고 아노 미깡 그러게 돈소크(豚足) 한 삼십 개 상. 돼지발 사가지고 거기 강, 그것이 제일 헐허주게. 그거 상 이제 그걸로 술 안주 빌어먹고.
어디 강 먹어서?
그 저 도오이(とおい)네 다께(たけ) 내리는 디, 거 거 물 내리는 디. 거기서 술 먹고.
계곡?
계곡. 헤믄 오렌 허믄 일본 지집아이덜도 술 잘 먹어. 경헨 돈소쿠(豚足) 내놓민 이거 손 닮주게 경허민 막 겁낭, 겁낭. 겡 우리 먹어가민 맛 좋녠 헤. 이거 부따노 아시노 호우야 이따라(豚の足のほうや言ったら). 일본 아이덜도 참 잘 먹어.
그게 아무래도 돈소크(豚足)가 코리아타운, 조선이치바(いちば)에 막 팔았던 거 아니?
그래 그래. 그때 하나에 삼십 원인가 이십오 원쯤 헐 때 거라. 지금은 백오십 원이여 백칠십 원여 허주만은.

아, 지금도 경 쌉니까?
거 뭐가 싸나 것도 빈나지. 옛날엔 돈소크(豚足) 한국서 온 거 영 양념허 거 이만이 헌 거 그거 막 와난게 요즘은 그거 막 팔지 못하는 모양이라.
경 아는 사람 집에 식게 먹으러도 뎅기고?
응, 우리 친척에 뎅기고. 요즘은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안 헤도. 우리도 어떤 땐 제사 땐 ᄉᆞ못 대소상 닮아 흔 오십 명씩 들어와.
빈손으로 가진 않은 거 아니?
안 가지. 게믄 그 비용은 나오메.
그럼 그때부터 부주를 헷수과?
응, 부주 암만 못 헤도 오천 원. 술 가져가는 사람 엇어. 게도 술 가게 뒈믄 비루(ビール) 한 박스.
아니 게도 요즘 들어사 오천 원 헹 돈 주는 거주 처음 왔을 때.
아, 우리 처음에 왔을 땐 일 안 허고 허난 삼천 원, 그땐 삼천 원.
아, 그때도 돈 가져갓수과?
응, 그때도 돈 가져간. 우리가 일당, 일당 나가 아라이고무 헐 때 일허민 일당이 하루에 육천 원, 칠천 원 받주게.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그 때도 흔 삼천 원씩은 가져가야주.
아, 육천 원 받을 때 반일치 일당은 가졍 가는 거라.
거 뭐 일 년에 한 번이니까.
플라스틱 헐 때는?
플라스틱 헐 땐 나 고향에 뭐 허니까 어떤 때는 제삿날하고 따로 거기서 스미꼬미(すみこみ) 살앗주 공장 이층에서. 게믄 우리 어머님 연락 안 허믄 나가 식게 먹으레 안 뎅기주. 게난 장게 가게 뒈믄 아무래도 이 저 뭣고 세대주가 뒈믄 그래도 사람 도리를 해야잖아.
게난 식게 먹으러 가는 거고 총각 때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예.
친족 집에 갈 때는 어떤 땐 부주 안 헤영 오렌 헤 가지고 왕 밥이라도 먹으헨 허믄.
아까예 왜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 비석도 세우고 성묘할 때 돈 얼마들도 주고 조케가 미깡 밧 뭐헐 때도?
에이, 뭐 그런 건 뭐 자기 형제간이니까 흉헐 건 없지게. 그렇다 나가 성질이 뭐.
따로 고향에 들어가젠 허면 친척들 주젠 뭐 상 가고 그런 거 잇어낫수과?
옛날에 거 헷주마는 나중엔 우리 이모네가 그런 거 가져오지 말렌.
뭐 상 가낫수과? 처음에 갈 땐?
처음에 갈 땐 기름이나 저 무신 거고 저 고마(ごま) 아노(あの) 꿰?

꿰, 참기름.

참기름, 고마(ごま). 경허고 저 우동다시. 우동다신 저디 막 요로꼬부네(よろこぶね).

예, 좋아해.

그거 그냥 그리허면 뭐 허고 저 무신거고 아노(あの) 이노찌방?

이노찌방이 뭐과?

이노찌방은 그 저 지금 그거 안 나와. 뭐 허면 상당히 다시가 잘 나주게. 다시. 우리 어머니가 그거 보내난 이거 뭔지 몰라 가지고. 그거 이제 나중에 보난 그거 영 김치 만들 때 하면 상당히 다시가 잘 나와.

아、 다시 내는 거여수과? 이노찌방?

엉. 그것도 혼다시도 가져가고. 우리는 혼다시 사게 뒈면 하꾸(はこ)로 사다가 안네 주게. 그리고 최근에나 뎅길 땐 우리 어머님네 이모네 미깡 밧데 가니까 호까오깐.

호까오깐이 뭐과?

이거 붙이는 거. 따뜻허게 붙이는 거. 한국도 잇주마는 한국 껀 오래 안 간다고 허데. 여기 건 열네 시간을 가주만은 또 그거 가졍 가믄 베여가지고이 한 삼십 개 쯤 든 거 가져가주게. 게난 이모 둘이 이시난 꼭 그걸 반씩 갈랑 가져가야주. 경 안 허민 싸움 나. 그거 이제 아이고 무거워 가지고. 겐 이모네신디 가믄 아멩헤도 술은 먹지 못헤도 이모신디 그러게 좀 뭐 헤도 용돈은 줘야지. 게믄 또 거기서 혼자만 오주마는 새끼들도 데령 오잖아. 게난 나가 삼양하고 우리 이몬 화북 살주게. 게민 집에 왕 저녁에라도 갈치국 허크메 오라 허민. 난양 그 갈치국 먹으러 가젠 허민 왕복 차비 손지들 돈만 원씩 주면 흔 사만 원 듭니다. 여기서 만 원어치 술 먹고 밥 먹으믄 것이 편안하우다 허난. 아, 그말도 맞다 오지 말라. 돈 오천 원은 주지 못 허지. 국민학교 아니고 유치원 뎅겨도.

이모 두분 다 살아 계신 거고?

한 사람은 북촌에 있고, 그 이몬 나가 뭐 헌디 그 이모도 우리 덕분에 집 살아나고 그 아들이 제주대학인가 어디 전문대학 뎅기멍 위원장으로 막 돈 쳐쓰멍 밧 팔아먹었거든. 위원장으로 뎅기면 돈 들잖아. 그 놈의 새끼 그걸로 헹 막 재산 풀아먹으난 우리 이모가 빚 졍 살단 나가 십 년 동안 쭉 초대했거든. 경 헹 고생 많이 했어.

아 일허레 초대한 거?

초대한 거 나가. 게믄 삼개 월 뒈면은 또시 나가 연장 시켜가지고 삼 개월 삼 개월 헹 육 년씩 팔 년씩 허멍 헨, 우리 이모 옛날에 북촌에서 제일 빚쟁이랏주마는 이제는 농협에서 돈 ᄉᆞ오천만 원 저금한 선 우리 이모베끼 없다고. 빚 엇이 저금한 사람은. 일본 오면서 그거.

게민 그 친척들 중에 이모 말고 누구 불러줘낫수과?

아무도 안 불런.

이모만?

이모. 우리 저 장칩인 삼양이동 장칩은 생활덜이 다 풍부해. 그 삼양이동에 그 저 신장로에 그 이층, 삼층인가? 삼양 인동장시 회관 있잖아. 그것도 재일교포 후따리(ふたり)가 돈 많이 내놧지. 장학금 보내 놔두난 고향에서 질투 헤가지고 김일성이 보내준 돈으로 장학금 받암젠 거 상당히 애를 먹어서.

여기 장씨들이 모아가지고?

아니 여기 장씨 아니고.

누가 보내줘난?

돈이 상당히 가진 사람이 잇어낫주게. 오병사 헤가지고, 그 아버진 옛날에 삼양이동 하고 삼양삼동에 그 내창이 있어낫어. 게난 그거 밤에 뎅기젠 허믄 물 내리니까 돌 놔가지고 하니까 밤에 위험허니까 거기 다리를 놔줫주게. 그거 부모는 또 그렇게 한 사람이라. 거기서 삼양삼동 사람이 거기서 죽으난 거기서 꽃놀이도 허곡이 겐디 이 아들도 돈이 상당히 부잔디 그거 이제 장학금 헤가지고 의학 뎅기는 사람은 다 장학금 헤 주켄 헌디 의학 뎅기는 사름이 하나도 엇어 다 멍청헨.

그니까 어쨌든 여기 왕 장씨들 중에 의학 다니는 사람들 장학금 다 주켄 한 거라?

응. 고향에서. 헤가지고 장학금 헤가지고 겡 그 사람이 밧 산 것도 문딱 기부헷주게. 그거 이제 풀아가지고 그걸로 뭐 헹 돈 다 헹 장학금을 허니까 그 다음에 그 성적표는 일본들에 다 보내라고 학교마다. 게난 그 개인으로 돈 주지 안하고 우리 삼양이동 장씨 장학회에서 학교에 다 월사금을 다 주는 거라. 게믄 문딱 이 뭐 성적표를 다 이레 보내가지고 질 근디 그 아이가 오현중학교를 졸업헤가지고, 상고를 졸업헤가지고 그 저 농협 거에 그때 그 아이가 질 성적 좋앗주게. 그때 그 아이가 과장으로 있대. 아노 괜찮아실 거라. 나 강 보니까 직원 있는디 가운데 높으게시리 헤가지고 걸상 놔가지고 거기 앉았데.

지점장 정도 되신게, 지점장.

어떵사 된 줄 모르주만은.

그 삼춘이 여기 오는 시기가 61년도면 한참 이 동네는 총련들이 많앗수과?

총련들이 쎄가지고 또 우리 민단도 까불도 못 허지. 게니까 우리가 걸려가지고 저 영사관 아노(あの) 신사이바시 영사관 그 영사관 지을 때 우리가 걸려가지고 남지부 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등록을 만들려고 헷주게. 그거 허믄 그거 만들레 가니까 이제 기부 허렌 허더라, 사무장이. 나 그 만들젠 허믄 할 수 없잖아. 게믄 얼마 하니까 오천 원 이상 기부라고 헹 나도 ᄒᆞ루 일헌 거 오천 원 기부했어. 게난 그 영사관 지실 때 우리도 책에 우리 이름 다 놘 잇어. 저건 참 그때 참 돈 많이 들었지. 육지 사람들 돈 이신 사람들은 돈 내노렌 하면 일억씩 탁탁 나와.

아니, 그 왜 이 동네에 거의 총련 사람들이 많으난 총련 나오렌 하는 사람들이 엇

어낫수과?

무사 잇어낫주게. 게난 여기서 일본서 밀항으로 와가지고 아이들 학교 뎅기젠 허믄 조선학교 아니믄 저 금강학교주게. 금강학굔 머니까 조선학굔 요 근처에 있으니까 그거 헹 보냇주게. 경허영 이제 또 등록 뒈믄 거 빼젠 허믄 빼지 못 헹 막 야단이라. 헤 낫주게 우리도 등록 헤가지고 나도 남지부에서도 나도 한 이십 일 동안 간부로 헤연 에이구.

아, 남지부에서 간부로 헤낫수과?

우리 88올림픽 헐 때 우리 난 국제, 국제 차장으로 이시멍 밤이 낮인 일허고 밤인 그 아홉 시 간파 받으레. 게난 지금 한국엔 그거 몰람실 거여 그 재일교포 백억 돈 들어간 거. 여기서 민단에서 그때 칠십억을 보내기로 헷주게. 게난 돈이 칠십억을 달성을 빨리 됐어. 게니까 그때 일본 정부에서도 칠십억은 보내는 걸 보내주켄 헤가지고 돈이 넘으니까 그때 백억 보내실 거라, 백억.

게난 올림픽 개최하는데 지원금으로 보낸 거라 여기서 모앙 민단에서?

민단에서 돈 모여가지고. 일본 돈으로 백억이면 얼마, 십억 넘은 거지뭐

십억 엔예, 백억 원예?

야야, 일본 돈으로 백억.

일본 돈으로 백억 엔?

백억을 한국을 보냈거든 한 백억 넘은 거주게.

그 62년도 허게 되면 한참 59년도서부터 막 북송선이 다닐 때라.

우리 왕 보니까 북송, 저 니가타에서 뎅길 때. 경허난 나신디도 공휴일날 뒈면 저 코리아타운 뒷길에 산 뎅기지 못헤여, 니모쯔(にもつ) 정리헌다고. 고향에 간다고 헹 우리신디도 고향에 가자고, 저 조국 가자 공화국에 가자 조국 아니고 공화국에 가자 경허여. 우리 고모아들도 나 그때 열아홉일 때, 열아홉에선 공부하지 노동하지 않는다고 공화국에 가면 공부할 수 다 있다고, 집도 주고.

경허난 그 말 들으니까 혹하지 않읍디까?

에이 뭐.

전혀? 귓등으로도 안 들언? 아는 사람들 중에 경 헹 간 사람들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이 동네에?

이 동네는 아니고 코리아타운에서 많아. 헹 요즘 안 가지 다 알기 때문에.

기지, 기지. 한 60년대 초반까지고 60년대 중반 뒈난 알려졋수게. 거기서 어떵 살암젠?

소우소우(そうそう). 다 알아가지고. 게고 여기서 고등학교 뎅기는 아이들 수학여행 가게 되면은 선생이 고향에 가거나 일본 가면 절대 이말 하지 말라고.

무슨 말 허지 말렌 헨?

나쁜 말을 허질 말라고. 어저께 여기서 만난 남자어른 있었지? 나이 한 살 많은 저 아메다 맞춘 사람. 그 사름, 그 사름 메느리가 기따쬬센(北朝鮮계)야. 게난 그 큰아덜이 결혼헷주만은. 그 아이가 메누리가 공부를 잘 헤난 모양이라. 경헤가지고 학교에서도 경헌디 화장실에 가난 화장 똥이 나오질 못 허커라렌. 너무 추접헤가지고.

갔다 와신디?

응응. 갔다 완. 겡 문딱 국적 한국 국적 이번에 일본 국적으로 다 바꿔 불어실 거라. 우리 아이들도 너이 다 일본 국적으로 바꿔 불언.

아이들 학교는 일본학교?

일본학교. 일본학교주마는 국민학교 때 우리학교 보내가지고 학교 뎅길 땐 또 한국말로도 곧곡 뭐 허는디 중학교, 중학교 들어강 일본 아이덜이영 뭐 헤가난 이제 한국말도 이젠 다 잊어불고. 지금 우리 손지들도 우리 저 어디 뎅겨.

우리학교?

응, 우리학교. 이녁 이름도 다 써. 한국말로.

게믄 손지도 다 국적은 일본인디.

이제 일본 사람으로 뒈불 거라고. 어멍이 일본 사름이난 일본은 자식은 부모에 따라가지고 어머니에 따라가지고 뭐 헤불주게.

여기 왕 살멍 집에서 옷상(奥さん)이영 집에서 살멍 말은 한국말 골은 거과?

으, 집에서 한국말도 곧고 일본말도 곧고. 게고 아이덜도 학교 갔다오면 일 바쁘면은 데쯔다이(てつだい) 시켜 돈 십 원주고. 용돈 줘야주게.

백 원 줘야지 무사 십 원?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일 학년 때 용돈이 한 달에 오십 원. 학교에서 경 시키주게. 그 당시에. 학교 올 때 아침에는 주스는 절대 멕이지 말라고. 우유 멕이라고. 주스를 멕이면은 단 걸 먹으니까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좋지 안 허는 모양이라. 게난 주스덜은 멕이지 말렌 게난 한 달에 용돈은 오십 원 주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뎅길 땐 문딱 중학교 땐 삼천 원 고등학교 땐 오천 원 허난. 이녁네 무신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여름방학에 문딱 저 뭐꼬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 자기대로 헤가지고 돈 모여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자기대로 우리가 돌보지 못하니까 생활이.

게난 아이들 키울 때야 일본말 썻주만은 그 전이는?

그 전에는 각시영이나 어머니랑 말 골을 때는 일본말도 곧고 한국말도 곧고 뭐 보통 반 반.

어머닌 그래도 여기 왕 일본말 쓰는 게 어렵지 않아낫수과?

어렵지 않아.

어머니도? 일본말 쉽게?

응.

삼춘 얼마 지나난 일본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허게 일본말 헷지예?

응, 우린 와가지고 자기대로 그자 뭐 공부하면서 일을 말을, 자기다 배워야 뒌다고 헤가지고.

어머니도 와가지고 계속 삼춘네 도왕 일헌 거난 따로 가가지고 막 어디서 일헤 본 건 많지 않다예?

많지 안 헤여. 우리 저 곧 온 때, 우리 어머니가 한 사십대 쯤 와신가?

삼춘을 몇 살에 낳은 거과?

스물 두 살에 나실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규쥬 가조에데 규쥬로꾸다까라(九十、数えで九十だから).

마흔 살, 마흔 두 살에 와신게.

마흔 두 살에 와신가? 경헤가지고 나이 하가지고 어디 공장에 갈 디도 엇고.

아아, 그믄 어머니가 몇 년생이신 거과?

1922년 5월 17일.

게믄 5월 17일, 게믄 어머니는 62년 여름에 왓수과 겨울에 왓수과?

에또, 소노도끼나(えと、そのときな) 봄에 와실 거라, 봄에.

봄에. 62년 봄에 온 거예?

봄에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이제 생활을 허젠 허믄 돈이 없잖아. 경허난 나가 넛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동경에 잘 사니까. 아이고 거기 가난 돈이영 많이 모라이(もらい) 헹 왓더라.

누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작은아버지신디. 우리 어머님 작은아버지가 빠칭코 헷주게. 경허난 하루에 수입이 그 하루에 올라오는 돈이 흔 천만 원이렌 허데 흔 천만 원. 경헨 이놈의 새끼 나신더레 오렌 헤영 나 앞에 오면 돈 번덴. 술 먹으면서 이샤(いしゃ), 병원장 원장 불르멍 덴떼끼(てんてき) 맞으멍 술 먹는 어른이라.

게메 삼춘 처음 왔을 때 그 빠찡꼬에서 쪼금 일했잖아예.

흔 덜, 흔 덜 일헤연 ᄒᆞ루에 오백 원씩 받앙 그때 밥값은 안 받는다고 헤가지고 에이고 뭐.

그때 거기서 일헤시믄 돈 더 하영 벌어실 건디.

에에, 거기선 돈 안 돼. 돈이 안 뒈니까 나가 대판 내려왓지.

이제랑예, 아버지에 관한 거 좀 골아줍서.

아버지, 난 아버지 생각 하나도 없다.

들어난 말들 어떵 헹 화태에 올라간 건지도 모르고?

화태에 올라간 건 형 따라가지고 간 거지. 형 거기서 결혼허니까 이제 일 없으니까

돈도 엇고 밧도 아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형 밑에서 일허면서 거기서 산 거주.

결혼헹 어머니랑 화태로 간 거예.

거기 우리 사촌 형님도 지금 아노(あの) 나 그때 우리 사촌 형님이 화태서 공부를 많이 허난 모스크바 대학 가서 공학과를 졸업헷주게. 겡 세계일주를 허는디 우리 한국 사람이서는 한 사람 뿐. 경헌디 거기 산 사람이 영 영 헤연 삼양에 사람이 이제 세계일주를 허면서 이제 대판을 간다고 겅허니까 만나라고 하니깐 게난 그 연락을 헤도렌 허난 우린 몰라가지고 그 어디서 연락을 왔대 영영 한 사람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말허덴. 겐 기엔 허난 메칠 날 저 덴노상 아노(あの) 요렇게 말했지 거기 이제 배 온다고 거기 이제 밤이 갓주게. 난 등록 엇고 우리 어머니도 없고 경헤도 도니까꾸(とにかく) 갔어. 경허난 거기서 만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사촌형님이 우리 어머님은 알데. 난 몰랏주만은. 게 나신더레 영 영 헷젠 허난 왜 일본서 살면서 등록이 없나 허니까? 에이고 고향에 갓당 와부난 밀항자로 뒌. 이녁넨 다 소비에토진니 낫따(ソビエト人になった) 허는 거라. 겐디 한국말 잘 허데. 경헤연 그 사촌 형님 뵈연 식사를 못 허고 밤이 츠루하시 이마 혼도리 거기 와가지고 유미쿠라 그때 밤 열한 시, 열 시 반쯤에 와져신가.

유미쿠라가 가게 이름?

응, 가게 이름. 저 도께이 아노 만년필 같은 거 팔주게. 거기서 우리 이실 땐 결혼헐 땐 한국 사람들 보통 그 유미쿠라에 가가지고 반지 같은 거.

예물?

예물을 거기서 삿주게. 그니까 만년필이 거기에 허니까 만년필 사 주켄 허니까 만년필은 안 된다고 잉크가 얼려가지고 쓰질 못 헌덴. 하도 추워 놓니까. 경허믄 무신 것이 필요허녠 허니까, 네쿠다이(ネクタイ)핀 허고 가쓰오 보단. 그 와이샤츠 위에. 그거 하나 사고. 그 노시아징은 무신 거옌 허난 우리 형님이 통역하데. 고히(ユーヒー) 세트, 그 사라(さら)에 고뿌(ユップ) 그거 필요허덴 헨 그거 산.

경헹 삼춘이 사준 거?

우리가 사 줘야주 누가 사 주나. 겐 나가 또 이제 사촌 형님신디 편지헷주게 경허니까 거기서 대한 적십자로 초청헹 제주까지 갔다 왔을 거라. 지금은 돌아가실 거라 건디. 또 밑에 동생은 거기서 학교 선생헌다고.

게민 삼춘은 43년도에 가라후토(樺太)에서 태어낭 해방뒈난 아니면 해방되기 전 전쟁 때?

전쟁 때주게. 경헹 들어갓주게, 제주에, 제주에.

해방되기 전에예?

응, 그때 들어가실 거라. 게난 우리도 알아져 그 육이오 동란 도끼니(ときに) 어멍

등에 업엉 학교에 강 ᄀᆞ치 가난 거. 거 내창으로 산덜에 올라가난 것도 기억나.

그니까 그거는 사삼사건 때?

사삼사건 땔 거라. 게난 우리 아버지 기억은 하나도 없어.

아버지도 제주도에 와낫덴 헷잖아

아버지도 그때 와가지고 ᄒᆞᆫ, 아부나이(あぶない) 허난 전쟁이 막 크게 허니까 고향에 와가지고 나 셋에 들어완 이 년도 못 살아가지고 또시 나 다섯 살에, 우리 어머님 말하는 거 보난 나 다섯 설에 일본에 나와가지고 그 후부턴 얼굴 난 몰라. 게난 우리 아버지 헌 건 나 말헷주만은 사백오십 평짜리 밧 하나 허고 백오십 평짜리 집 하나 사준 거. 그것뿐.

삼양에서?

삼양에서.

게난 아버지가 다섯 살 때 나온 거난 사삼 일어나기 전이 나와분 건게.

응, 그때 뭐 허난 나와가지고 고향엔 일도 없고 뭐허니까 사삼사건에 우리 아버지는 나온지 뭐 헌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생각은 알아져. 어머님이영 같이 학교 마당에 나가가지고 경허민 뒤에서 총으로 팡팡 쏘아서 죽이는 거. 그거 사름 죽이는 거주게. 경허고 또시 그 저 삼양에 둠벵이다리라고 있어 저 하시. 그 우로 헨 동네사람들 그 산더레 올르는 거. 나 어머님 등땡이에 업엉 산으로 올라간 거 건 알아지지.

게민 집이랑 그 사백오십 평짜리 밧 사줫단 건 아버지가 그 후에 일본 나왕 보내준 걸로 산 거?

어, 보내준 걸로 산 거주게.

거면 당분간은 어머니랑 어떵 어떵 연락을 헤낫수다예. 아버지도?

아니, 연락 엇어, 엇어. 원 일본 나오난 뭐 소레데 오와리(それでおわり).

게믄 돈은 금방 보내준 거?

돈은 보냇주만은, 저 우리 삼춘이, 친척 삼춘이 무역선을 탓주게. 그 삼춘을 자꾸 만나니까 도니까꾸(とにかく) 월급을 부족헤도 그 삼춘 돈 이시니까 돈을 놔둬, 놓아 둬 이제 일본 강 우리 아방신디 돈 받으렌 헹 경헤영. 아방신디 돈 받지 안 헌 거주게. 우리 친척분이 무역선 이녁냥으로 배 허니까 돈 놔둬가지고 그거 허는 거난 돈을 물어신지 안 물어신지 그건 모르주.

게믄 이제 고향에서 살아난 것들 좀 물어보쿠다. 고향에서?

고향에서 무신, 저녁엔 보리낭불로 밥허고 학교 갈 땐 ᄌᆞ베기 먹엉 학교 갓주게. 공휴일 날은 통새에 간 거름 내고 아이고 첨. 경허난 우리 어머님신디 나 ᄀᆞᆯ앗주게. 독새기 하나, ᄒᆞ루에 하나 먹으면 좋넨 허난 독 질롱, 암ᄐᆞᆨ 질롱 저 독새기 먹켄 허난 니 에비, 니 에비 벌어와 주건 먹으렌, 그런 말꺼지 나 들어낫어. 게난 우리

돼지고기도 먹는 것도 제사 때나 얻어 먹주. 고등학교 뎅길 땐 우리 웨할아버지가 밧에 밧을 갈주게. 게믄 우리어머님 그 돼지고기에 둠비에 지졍 그 고기 반찬 허주게. 겡 나 그거 얻어 먹젠 나도 학교 아니 간 저 쉐촐 허켄 허영.

고향에서 헤난 거 기억나는 일?

나 한 번양 소낭 밧디 밑에 밧이 잇어낫주게. 근디 이놈의 쉐가 그 밧디 걸 먹어부난 그 밧 임젠 쉘 심엉 주질 안 허는 거라. 나 울멍 그냥 집이 완 할망신디, 할머니 저 쉐 지금 놈안티 빼꼇 재기 걸읍센 헹 강 보난 아이고 참.

밧 주인이 쉐가 먹어불엇덴?

밧 주인이 쉐, 아이고 나 원 참.

그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소학교 때?

아니 아니, 그때 중학교 때

게난 그거 말고 다른 거 기억나는 건 뭐 잇수과?

기억나는 건 여름방학이면 아침이 바당에 강 점심을 저 보말, 보말 거 잡앙 구젱기 껍데기 잇잖아? 나 질 오모니다스 허는 건예, 지금도 잊어불지 안 허여. 국민학교 때 점심시간에 집에 강 밥 먹으렌 허주게. 집에 오믄 밥이 없주게. 경허믄 봄에 감자 뽑앙, 우영팟디 거의 다 놓지 안 헙니까. 경허믄 그거 하나 팡 끈엉 먹엉 반은 묻주게. 그러믄 우리 어멍은 봄 난 그거 나와 가가면 이거 감자 하나 묻은디 이거 반밖에 무시거 안 나왐저. 문딱 반씩. 아, 집이 오면 밥이 없어.

아오야, 어떵해. 게난 감자 영 놔둔 걸 그걸 팡.

묻어 놔둔 거 집에 오믄 배고프난게 먹어야지. 사름 살젠 허민. 겨고 그거 제일 생각나고 학교 뎅길 땐 뻰또가 엇주게. 게믄 ᄌᆞ베기 먹으민 소화가 불량둼니까 게믄 또 집더레 올 때믄 입들이 시커멍 허주게. 게믄 놈의 밧 거 감저 밧 들엉 막 감저 파 먹어낫지.

게믄 거기 보리방학 헐 때.

보리 방학은 우리 이실 때 엇어낫고 방학이 여름방학 허믄 도니까꾸(とにかく) 바당에 강 그 구젱기 거 무신건고 군붓 잇지 안 허여, 군붓 그거 떼멍 그자 바당에서만 살앗주. 점심도 못 먹고.

어머니 양태일은 집에서 헤난 거과?

집에서 집에서. 또 우리 웨할아버지가 그 양태 그 쌀을 만들주게. 그걸로 돈 많이 벌엇주게.

학교는 농고 나온 거과?

고등학교는 농고.

이학년까지 다니고.

찌가우찌가우(ちがうちがう). 삼학년ᄁᆞ지 뎅기고 졸업시험 보젠 허니까 회비 안

내니까 졸업시험을 보질 못 헷주게. 아 경헹 졸업 다 끝나난 돈을 주난 그 돈으로 헨 가출헤 불엇주게. 서울, 서울 갓주게. 서울 명동에. 밤엔 껌 팔고 담배 팔고. 나 혼 덜 헷수다, 혼 덜. 겡 우리 친구가 야 너 여기 뭐 허레 완나? 돈 벌레 완네. 너 여기서 돈 벌어지나 깡패나 뒈지. 겐 느네 저 고모아들 저 미아리, 그긴 첨 촌이라 미아리. 지금은 막 번창헷주만은. 도니까꾸(とにかく)양 거긴 보난 그냥 집도 흙으로 만든 집이고 논밧도 잇곡양. 겐 거기서 우리 형님이 이제 방직회사에서 그림을 잘 그리주게. 게난 그 방직회사에서 그림을 그리렌. 내일부터 취직을 갈 걸로 헤연 헷주게. 아이 경헨 우리 이모가 둘레 와서 여기서 무시거 허냐. 거긴 후동도 엇어 군대노(の) 네부꾸로(ねぶくろ). 아 그거 따뜻헙디다, 겐 낮인 영 보믄양 논밧디서 양 사름이양.

-야, 옛날말 허민 요즘 사름덜 모르메.

겐 학교 다니멍 잇어난 일들?

경허난 우리 학교 뎅길 때 경헨 가출헹 우리 어멍은 이거 졸업장헐 때 돈 허영 우리 사촌형님이양 나 담임 선생 담임 선생노 농업학교 동창이주게. 겡 알안에 거기서 헹 졸업장은 타고. 글로 헹 이제 일본 나왓주게.

-우리는 중학교 이학년, 삼학년 올라올 때주만은.

게난 삼춘도 43년생마씸?

-으.

게난 여기 나오면 심심하진 않으쿠다예?

심심하진 않아. 건디 사람이 많이 죽어불엇어. 옛날엔 더 많이 잇어낫는데.

그 동네에 삼양 분들이 많이 왓잖아예?

어, 삼양분들 많이, 저 삼양이라도 우리 삼양이동이 많이 왓주.

그믄 여기와도 아 학교 다닐 때 동창들이영 선배들이영 많이 봐집니까?

어려워 어려워. 웨냐면은 독신 때는 자주 만났는데 이젠 결혼도 헤가지고 이젠 손지들도 보고 허니까 다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참 어렵지.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저 국민학교 동창생은양 뭐 반은 더 죽어불엇수다. 엇수다, 엇어.

벌써들?

아노 우리 친구덜 많이 죽었데. 술로 술로 아메도 술 술 술. 지금은 문딱 안주가 좋아낫주만은. 우리 친구들 다 사십대 때 다 죽어불언. 한 다섯 죽어실 거라.

삼춘은 술 잘 드시는 편입니까?

아니 아니, 난 술 안 먹지

경 고향에 이실 때 주넹이 잡으레도 다니고?

주넹이? 주넹이가 뭐여?

-저 뭐게, 독주넹이여 뭐여.

그거 주넹이렌 안합니까? 그런 거 잡으러 안 다년?

아, 저 뭐. 우린 그거 잡으러 뎅기지 안 허연. 여름엔 그냥 바당에 강, 그 집에 시믄 반찬이 엇곡게 밥도 엇이난 그거 도니까꾸(とにかく) 보말 잡앙 거기서 깅이 쪼끌락헌 거 잡으믄. 또 그건양 보끄민 저 무신 거고 저 또 바당에서 그거 보끄믄 더 맛이 있네 그거.

경 여기 오난 여기 와가지고 막 뭐했고 처음 한국 들어가난 등록 받아가지고 처음 들어갔을 때 제주도 막 바뀌어십디까?

에, 그때에 발전됀엇데. 그때도 많이 발전이 됀엇주만은 그때에 발전 됀엇주만은 한 삼십 년 전부터 뎅김 시작허난 가는 해마다 틀려, 틀려. 또 우리 삼양이 그렇게 발전될 줄은 우린 생각도 못했거든.

경 고향사람들한테 뭐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없고?

어, 그런 건 없고. 우린 또 돈 하영 있는 사람이나 뭐 헌 사람이나 불러운 건 없어. 아 저 사름 뭐 옷 좋은 옷 입었다 헹 그런 건. 뭐 헌 옷이라도 깨끗허게 입으면 됀지. 마음 편허게. 그 뭐 돈 엇인 돈 꾸어가면서 허당 보면은 새끼 고생들만 시키는 거지.

게난 애들 키우멍, 아이들 키우멍, 애들 넷을 키웟수게. 뭐 말썽부령 막 걱정허고?

그런 건 없다 지금. 웨냐면은 나가 우리 아이덜 학교 뎅길 때, 국민학교부터 쭉 나가 집에서만 일헷거든. 게난 아이덜이 다 알거든. 게난 우린 밤인 뭐 아홉 시까지 일헷지. 아홉 시까지 일 허믄 또 목욕 헤가지고 맥주 먹고 뭐 허니까 지금 우리 아이덜이 일본선 그런 농담 있잖아. 부모의 등을 보면서 새끼들을 키운다고. 그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담배 피는 아이덜 하나도 없어.

아이고 완전 착하구나. 게난 어머니 아버지가 막 고생하멍 일허는 거 봐나난?

소우소우(そうそう). 경허난 아이덜이. 경허고 이 돈도 무다나, 게난 빠찡꼬 게이바 그런 거 안 헤.

이젠 걱정 엇이쿠다게.

걱정 엇언 큰아들만 이제 어떵 아방 죽으믄. 밥을 해줄 사람 하나 봉강와야 됀는디.

무사 장가를 못간 거과?

못 간. 저거 스물다섯부터 장게 보내젠 고향에서 온 아이 결혼시키젠 허연 흔 번 미아임(みあい) 시켠 차 태완 벵허게 돌앙 집이 둘아다 줘.

그걸로 끝?

끝. 저거 스물다섯에 장게 보내젠 집 사줫주게. 지금 거 그냥.

혼자만 살암서?

혼자 안 살앙 우리영 사난 이번 족은 아덜 거기서 살단 이제 장게가니까 이제 족은 아덜 이제 집 짓엄주게. 이제 칠월달에 완성하니까 거기 가게 되믄 이제 나도

지금 방도 쫍고 이제 그레 큰아들허고 어머니허고 나허고 그레 가야주. 이층에 방 세 개, 아래도 방 세 개 있으니까 집이 지금 텅텅 비어있네. 그니까 것도 다 한국서 재산 풀아가지고 나가 집 다 사줫거든. 그니깐 나는 부모의 헐 도리는 다 헷거든. 게난 집 사주면은 그 아이덜이 그걸 크겔 만드느냐 족게 만드느냐 망하느냐 그거 그뿐. 나 뭐 헐 도린 다 헨.

그민 촌에, 저기 고향에 이신 재산는 다 정리헌 거라?

다 다 정리했어. 게난 외환은행에서 나신더레 이제 삼춘은 외환은행에서 일본 돈 바꾸지 못 헙니다. 무사 허난, 이거 돈이 얼마나 가졍 갓수과? 거난 가질 못 허는 거라. 나가 흔 한국 재산 도니까꾸(とにかく) 거길로 뭐 도니까꾸(とにかく) 칠억 아니믄 팔억쯤은 거기서 돈을 갓고. 게난 삼춘은 아니 뭽니덴. 게난 아들은? 아들도 아니 뒌덴. 완전히 거 끝날 때 그렇게 거 직원이 말허데.

마지막으로 다 가졍 올 때?

그니까 기록이 다 남아 잇수게게 이거, 이거 아니 뭽니덴.

그지 이거 얼마나 가졍 와난 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제주은행으로 쪼끔쪼끔 허고 야미(やめ), 야메(やめ)대로 내가 헤 왓지. 게니까 젊은 때 고생하면서도 돈 모아가지고 재산 사논 거, 부동산 사논 건 성공한 거. 나가 그게 성공헌 거지.

만약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여기 모실 거과?

여기 산에 다. 산 다 있어.

게믄, 삼춘 돌아가셔도 다 여기서 묻을 거고?

다 여기서 나가 저거 한 지금, 헤이세이 요넨(へいせい４年に) 한 천만 원 일본돈 천만 원 헹 나가 산을 갖고 잇주게. 아버지 산에 옛날 그 마누라도 다 헤주고. 거기 다 허니까 이제 우리 아이덜도 다 그레 갈 거. 게난 이젠 작년부턴 제사도 산에서도 허고 이제. 집에서는. 허고 또 일본 메느리도 그거 뭐 오보에떼(覚えて) 배와가지고 헌다고 헤도 아이고 치우렌. 뭐 지금 세상이 다 바꿨지. 달나라에 이제 사람이 하는 세상인디 그거 제사해 봤자 잘 안된다고.

그럼 고향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겠다예. 어떵 허우과 마음이?

마음이 이젠 없네이. 재산도 없고. 왜냐면 할머님 살 땐 나가 할머님 얼굴 보레 갔거든. 그니까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님 나가 외갓집에서 자라나고 뭐 허니까 이젠. 경헤도 할머니 소상 때 나가 상 헤가지고 나가 차림도 허고 비석도 다 세와 드리고 경허니까 뭐 이젠 뭐 할 도리는 뭐 없지 뭐. 경헤고 우리 선조한테도 나가 헐만이 헷고 허니까 이제 뭐. 한 번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이모네가 돌아가지 않고 잘 살면 이모나 만나레 제주 가가지고 게믄 이제 앞으론 인천공항을 한 번 봐야지. 인천공항을 구경을 못 했으니까.

삼춘 하나만 더 물어보쿠다. 삼춘 처음에 일본 나올 때 나 평생 일본 왕 살아질 거구나 생각을 헷수과?

난 그런 생각은 안 허고. 아부지, 아부지를 찾으러 왔지.

아, 아버지 찾으러 온 거과?

아버지 찾으러 왔지. 게난 우리 고모에게 아버지 어떻게 뒛냐 허난 왕 일본 여자허고 ᄀᆞ치 살아낫다고 허데.

고모가 여기 일본에 있었던거예?

응, 있언. 돌아갔주만은. 우리 고모 또 우리 고모 아노 메부하고 센다이서 빠찡꼬 회사를 같이 헤나난 모양이라 겐디 의견을 맞지 안 허고 그때 집 나온 후에 행방불명 뒌 거 같아.

아버지 제사 했었덴 했잖아.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 상태에서도 제사 하시는 거과?

그건 불교식으로 구월 구일. 음력으로 구월 구일날 하다가 이젠 것도 작년, 재작년부턴 안했지. 겡 산으로 가가지고 산에도 시체 없으니까 저 무신 거고 저 스님에게 말헤 가지고 무신 거 써 달렌 헹 산에 놘.

게민 아버지 없이 고향에서 크멍 막 아버지가 그리워낫수과? 삼춘 마음이?

그립진 안 허데. 웨냐허면 외가가 집 저끗디 있으니까 난 뭐 도니까꾸(とにかく) 외가 집에서만 살았지. 경허니까 우리 외삼춘도 지금 동경에 있어. 사월달에 누님 만나레 왔거든. 완 허난 우리 삼춘도 누님신디 말헤도 안 듣고 귀도 멀고 눈도 머니까 그냥 갓주마는 이제 죽으면 오지 못 헐 거고 나도 어머님 돌아 가믄 삼춘신디 전화도 안 헐 거고 우리 가족만 이제 어머님 장사 지내켄 헨. 경허난 이젠 일본도 다 경허난. 일본에서도 부주 안 받거든. 경허고 뭐 허니까. 고향에서도 아버지 뭐 생각도 없고 도니까꾸(とにかく) 일본 가라 헐 때 아버지 흔 번. 그 욕심은 나데, 아 일본가면 아버지 한 번 만날 수가 있겠다.

어쨌든 처음에 일본 가야지 하고 마음 먹을 때 자극은 어머니가 일본이라도 가라.

일본, 나가 그 나쁜 일 허니까 일본 강 사름 뒈라는 거지. 하하.

말 안들엉 집 가출 해나난 그게 계기가 된 거라예?

소우소우(そうそう).

뭐 그전에 학교 다니멍 왜 삼춘 학교 다닐 때 쯤은 고등학교 때 쯤은 어느 날 어느 아이가 안보이고 하면 일본 갓저 허는 말들을 많이 들엇잖아.

들었지. 게니까 나가 일본 와가지고 마누라 들여가지고 나가 오년 만에 저 삼양 그 밭을 샀거든. 웨냐면은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어가지고 다노모실(たのもし) 내려 가지고 돈을 보내거든. 현찰로 사지 안 허니까. 게난 우리 동네에 삼양이동 사람이 그때 나가 일본 가가지고 삼양에서 그때 일등 가는 밧이 천사백 평이 시까

꾸야(しかくや). 지금은 막 짤라지고 뭐 헷지만은.

평당 육백구십 원 줜예?

평당에 육백구십 원 줜. 그거 헤가지고 허니까. 청년들이 하이고 일본가면 돈 번다고. 일본 그때 한 번에 한 이십 멧 명 와가지고.

삼춘 경 돈 버는 거 봥?

난 그때 외상으로 돈을 꿩 밧 산디 그때 오니까 그렇게 뭐 허니까 그때 소문에 그레 나서 삼양이동에 사람 죽으민 영장헐 사름 엇다고 그런 소문까지 낫어. 겐 그런 사람덜도 왓단 막 돈은 벌엇지게. 돈 벌어가지고 문딱 고향에 다 들어간. 이제 저 세상에 간 사름덜 많이 잇어.

게난 일본에도 경기가 좋았던 건 언제까지과? 그게 경기 막 좋앗던 게?

그때 우리 올 땐 일이, 일이. 그자 일 허여도 일이 나와. 거니까 올림피꾸 끝나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좋았지. 경헌디 한 이거 바브루(バブル) 헌 디가 이십 멧 년.

90년대 뒝?

그때 바브르(バブル), 저 오일 쇼크, 오일 쇼크. 그때 막. 일본도 이거 한 십오 년 동안은. 요즘 많이 일이 많이 있잖아

이젠 많이 생기는 축이과?

으, 지금 대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이나 구십팔프로꺼지 취직이 있다고 허데. 게난 사람이 없잖아. 게난 지금 아르바이트 허는 사람이 한 시간에, 젊은 아이들이 팔백구십 원 팔백칠십 원 구백 원 동경은 한 시간에 천 원 준다고 하대.

게난 어쨌든 오일쇼크 있기 전까진 막 막 뭐 했던 거? 일들이?

우리 이실 땐 뭐 일 일. 도니까꾸(とにかく) 뭐 일이 막.

벌젠만 달려들면 벌 수 잇엇던 거라예?

으. 우리도 한 덜에 두 번. 난 노는 날이 없어. 마누란 공일날 놀주마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열두 시까지 일 헤가지고 점심 먹어가지고 이제 술 먹으러 뎅기믄 밤에 한 열두 시에 들어오나 한 시에 들어오나. 게난 그날 공일날 일허는 건 술을 다 먹어불어야.

여기 왕 제주도 음식 먹고 싶거나 그런 거 생각나는 건 엇수과?

얼마든지 있잖아 식당 가면.

다 잇어 여기?

뭐 뭐 뭐 몸국이여 무시거여. 삼겹살이여.

아, 예.

4. 조옥선

1929년생, 조천 출신, 1959년 밀항

이름이 어떵 됨수과?

여깃 일름으로 미나미 하라.

한국 이름으로?

한국 일름은 조옥선이.

몇 년생이시과? 나이가 어떵 됨수과?

뭐 난 막 핫주게. ひゃく 다 뒈 감주. はちじゅうきゅう.

팔십구 세나 뒈엇수과?

예, 백이주 이제 백 나감주.

아직 멀엇수다게.

ほんまな. いまのとしなったら 오몽できへん.

뱀띠마씨?

はい、4年うまれ. 昭和4年.

게민 일본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됨수과?

30に来たから今ごじゅうね.

오십 년 더 된 건게?

さんじゅうにここに来たから. 서른, 서른에 오난. ᄉᆞ삼사건 낭 十年あとだからな. 우리 집이 아덜이 ちょうど[じょうど] ᄉᆞ삼사건 とちゅうで 난 아이난. あの子今七十や. ちょうど[じょうど] 七十年なってるわ今.

고향이 어디마씨?

난 조천. 조천은 우리가 친정이고 나 시집 간디 신촌이고.

시집은 언제 간 것과?

시집은 열여덥에 간 거난. 열여덥에 가난, 열아홉, 열여덥에 간 저 아덜 나난, 저 아이가 나 열아홉에 난 아이야. 우리 집이 큰아덜. その時は ᄉᆞ삼사건かなにか, 난 뎅기지 안 허고, うちら 勉強も 첨 난 공부도 안 허고 허난 그런 거 저런 건 몰랏주게. 시집 간, 시집 간 헨 두상두상 우린 동서 간도 흔엇이 엇고 젊은 사름덜 경 헌 디 뎅기는 사름도 몰르고 허영 살단 시집을 왕 허난 두상두상 어디 가 노렌도 안 허영 나강 おそいね. 밤도 아니 들어오고 낮이도 아니 들어오고 영 헌 디. なんでやろ、なにがあるのかな. 영 헌디.

누게가 안 들어오는 거?

だんなさんが. 게난 이녁 생각으로 なにが、この人なにが内緒あるの違うか. はじめは.

경 집에 안 들어온 건 결혼헌 지 얼마 만에?

결혼허영 ちょうど[じょうど] 9月 결혼허연 저 아덜 낳기 전인 1年は、あの子が1年あと子供ができたんや. あの子は小さかったその時. 게난 난 아기 낭 저 아기 둘앙 ちょうど[じょうど]誕生日. 誕生日で、쳇 誕生日であの子のお父さんがなくなったんや. 게난 난 조천이난. 이녁집이 가민, 시집이 가민, 시집을 아니 가젠 난 헌디 중진을 오란 허난 좋은 집이엔 새각시도 어리난 아니 가켄 헴젠 허난 그 だんなさん 뭴 사름이 ここ 兄弟がおったんや. 兄さんもおる、姉さんもおるし. 쯔루하시엔 허민 첨 有名な人らがおったんや. 金持ちでな. 게난 누이 이신 디 오랑 1年ぐらい姉さんのとこいてちょっとバイトもするし 뭇음 놩 흐꼼 강 뎅경 오켄 허난 재기 오지 안 허난 시어멍이 아덜 재기 안 오민 이제 새각시칩이서 이제 もんく 뭐, ちゃんと日にち決っていてるのに、아니 오민 怒られたらどうしよう言って 할망이 막 그냥 바당에도 돌아상 흔적 오렌 빌엉젠 무시거 험젠 허난 うちのお父さんはそんな 게건 잘 걸아불렌. そんな慌ててすることはない엔. 새각시도 늙어 年とる、三十 넘은 새각시믄 헤도 まだ 안직은 가도 좋고 말아도 좋고. そんな 새각시のしんぱい랑 허지 말렌. そこで結婚してもべつに 안 헤도 좋덴. 경허멍 헹 걸앙 놔두난 흔 잔친 흔 一週間 안에 잔친 든디 새서방 안 오람젠 막 하르방이 오란게. 아이구 재기 안 오랑, 곧 오켄은 펜지 왓수다만은 言ったら 경 즈들지 맙센. 경허멍 헌디 잔치 사흘 안에 들엉 새시방이 완. 하하. 뭐 재기 온 거주게. 배로 오젠 허난 뭐. 게난 오난 헐 수 엇덴. 경 우리 아부지, 오난 헐 수 엇이 좀도(좋음도) 허다만은 なにやいろいろ 즈드는 거 보멍 아니 와도 좋주게. 스무남은 낭 가도 뒈주게 경허멍 お父さんは言ってるの.結婚して、9月結婚して9月から友だち덜 다망다망 왕 소근소근 なにがあって出て行くで. 난 なにやろ、なにやろ. 시누이가 3人おったんや. 우리 うえの 시누이と真ん中と3人ᄀᆞ라 なに言ってる 저 사름덜 なにか言ってるで. 우리 셋시누이, 知らん、友だちらなにかもの言ってるやろ. 게난 みたらあちから行ったりこちから行ったり. 山行ったりなにしてる. 겐 だんだん だんだん子供できてうちは家へおって 간 보난 시어머님은 병중에 누웡 だんだん 할망은 더 아파 가관데 할망ᄎᆞ레 허고 애기 보고 헤 가난 自分もしんどいしな. 시누이덜토 うえ, 三人이나 잇엉 上の 시누이 一番上の 큰시누이가 お母さんと一緒に済んとたんや. 허고 나 아래 시누이 二人が おって. 나 시나 엇이나 いいわと思って 아기 둘아지민 난 조천 가불주게, 친정에 가불고. 간 잇어도 무사 강 오래 살암딘도 안 허고 무사 경 재기 오지 안 헴시니엔도 안 허고. 이녁이 가고프민 가고 오고프민 와도 なにもいうへんね. 何やこの家は変な家や自分で思って. あの 시어멍이 점점 더 아파가. 낫질 안 허영 점점 더 아파가. ま、いろんな 굿도したりなに

しながらその間になに、なにしたんや. したのに 우리가 分かるのは 애기 낭 だんだん 허난 가이가 흔 はんとしぐらいなってきたら家に来るのが一日、二日 어디 강 아니 오고 するから、ごはんはどうしてるの言ったら、今はそのまましたけどごはんは持っていかなあかんわ言って、あのごはんして弁当してやったら持って行くね. 겨민 밤 허민 아시날 가민 뒷날도 오고 なに 허난 だんだん 近所の叔母さんだちらがみんな来てあやこうや、영영 산에 올라시또가. うちのちょうど近くに今 이덕구と言って 소문난 사름이 잇어낫주게. 겨난 그 어른네광 흔 동네야. となり 흔 동네, 멀지 안 헌 디난. 할망이 굴체 들르고 헹 첨 얼굴도 좋은 할망이고 지독헌 할망인디 흔들흔들 나가당, うちら ちょうど 올레왓 신 집이난 나가당 허민 入り口に こんなみたいに 세면헤영 그 우이서 아이덜 놀고 나가민 물덜 지영 가당 그디서 부령 앚앙 놀곡 허는 디가 あるね. 그디 나강 나 아기 둘앙 사시민 날ᄀᆞ라 "애기 봠댜?" "예." "멩심덜 허라이, 멩심덜 허라이" 허멍 할망이 나가주게. 겐디 그 할망은 また 부인네とか、とかで 훼장허는 할망이야. 조천면에서도. 면에도 나가고 いろいろ 그 어른 ᄒᆞ꼼 난 집안이야, 집안도. 그 어른 손지 각시가 우리 시고모님 메누리 흔 동네에서 허난 사둔 사둔헤영 첨 날 보민 아이고 아무 각시로구나. 애기 낭 ᄋᆞᆨ아시냐 넘어가당. 아이고 게메 이놈의 애기덜 어떵헹 졸 거고, 어떵헹 졸 거고 헹 할망이 しんぱい 허여. 난 아이고 저 할망 무사 정 しんぱい 헴시니 허난 우리 시누이가 저 할망 아덜이 이덕구엔 헌 이 아니겐. 겐 경 허우겐. 그땐 경 넘어가민 할망 영 굴체 들렁 흔들흔들 나오당 아으덜 시민 "멩심허라이, 멩심허라." 영 영 단도리 헤 둬 할망은 가곡. 뭐 심어 간다 何 헌디 절로 간다 절로 온다 헤가난 사름이 와작착허게 미여드난 그 응원대엔 헨 一番 きついどこが来たんや 그때. そのちょうどうちの子供ができて誕生ぐらいや、誕生ぐらい.

일 년예?

일 년, ちょう一年９がつ、9月と10月ごろなっているや.9月と10月ごろ 나난 あの 그 어른 일름이 누게고. 양 무시거다ᄅᆞ탄ᄂᆞ. 일름도 잊어불엇어. 그 하르방이 막 가 죽くつ 이만이 헌 거 신고 헹 막 밤도 질팍질팍 뎅기당 사름 봐지민 앗앙 매 두드려불고 말 아니 들엉 어드레 나감젠 허고 막 소드리するね 하르방이. 경허멍 하르방이 양기완이 言って. 양기완이. 아이고 저 사름 무사 정 헴수과? 난 아이 봐난 사름이난 무사 정 헴수과? 허난 저 사름이 책임인 셍이엔. 경허멍 첨 なに 헹 헨 게 문 젊은 사름덜 이제 어디 나감저, 어디가 반동이여, 어디가 뭐 なにそ 허멍 헤여도 우린 그런 것도 몰르고 그자 쫌쫌헤영 애기덜 둘고 집이서 잇당 いらんこと言ったらあかんで言って. 경헌디 ちょうど 9月ごろなって来たら 뭐 出て行ったら帰ってきへんね. 흔 사흘, 나흘. 겐 たまに来たらどこに行くの言ったら、こうこうして. 어디 강 막 머리광 그냥 막 やま 간 사름 仕方ないやんか. 얼굴도 뭐 싯지 안 허

고 경허믄 헐 수 엇이 오믄 이제 밥 헹 내놓고 헤도 시어멍もなにも言うへんし、시누이らも何も言うへんけど. となり友だちが来て 오널을 어디 갈 거여, 오널은 어디 갈 거여 헹 나강. 이제 밥은 헹 줘사주게. 겐 이디서 닮지 안 허영 옛날은 우리 한국은 차롱에 밥 거령 줘するやんか.

예.

도시락을 싸믄 이제 차롱에 밥 헹 쌍 무시거, 반찬도 そんなないやんか. 짐치나 무시거 영 메왕 내놓민 아졍강 오민, 아졍가도 흔 사흘만이 들어오민 お腹空いた、お腹空いた言って. 9月ごろなってきたら 심어가는 사름도 싯고 いろんななにで 뭐 나오라, 뭐 우린 원으로 나오라 무시거 허고, 무시거 막도 짓어놩 직허렌 허영 어드레 사름도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보라. 뭐 첨 군인덜이 그냥 질레 영상 보민 질레 영 넘어간다, 넘어온다. 차로 간다 온다 허는 걸 みえるし. みんな怖がって. うちのお父さんは子供がおれへんから、わたしひとりだから. 우리 집인 だれも 안 온다. 내불라. 뎅기당 난 오믄, 밥을 헹 애기영 둘앙 강 흔 메칠 살당 오믄 강 나가 열흘 더 살아가믄 시누이가 来るね. 족은시누이가. なんでやゆったら 오빠 애기 보고정 허난 성 강 둘아오렌 헹 왓수덴. おかしいな、そんななにがなにして 경 子供みたいぐらいに何日も住んでやろう. 우리 아버지가 허는 말이 시국이 영영 뒈난 영 영허난 아기 둘앙 가라. 우리집인 느 하나베낀 엇이난.

웨똘이과?

난 웨똘. その時は、そのときはな 할마님허고 나허고 아버지허고 3人だけや、親子3人. 어머님 엇어부난. 경허는디게 9月 흔 1週間 아니 왓다 들어왕 좀 누워시난 동네 김봉효엔 헌 어른이 おったんや. 왕 문을 독독 두드령, 누게과 허난 나여 문 을라. 겐 문 을앙 들어오난 사실은 영 영 헹 영 헤영 낼 이제 흑교 집이 오랑 문 느네덜 하나씩 なにするけど, 문 어디덜 가켄 헴저만은 가지 말앙 우리 죽어도 가름 안이서 죽게. 言って. そんなこと言って、あの 듣는 사름도 예, 알앗수다. 대답허고. 알앗수다 헨 대답허고. 난 なにも分からんから 이제 그 하르방 가부난 となりの友だちが二人が来て 영 영 헹 봉효さん 왕 영 굴앗수다. 허난 가겐 허관데, 날 フ라 이젠 밥 허렌 헹, 밥 헤영 차롱에 밥 쌍, 두끼 쌍 주난 아졍 나간. 뒷날은 家おっても何だし 난 조천 가불엇주. 가난 ちょうど 9月난에 9月 넘어간 날 흔 보름이 넘어가난에 우리 할마님이 허는 말이 흔해 농시 죽어도 넘은해 농시 살아도 넘기민 아이 뭘 거난 죽어도 농신헹 죽어산다 言って. 농설 헤사헌덴. 보릴 갈게 허는 의미야. 어디 나가지도 못허고 군인덜 왕 막 그냥. 난 먹지 못 헐 거 허지 맙주게. 경허난. 하하. 두렷주게. その時は. あの 사름은 죽어도 흔 해 농시 헤영 놔 두민 산 사름 봉가 먹으민 えいから 씬 들이쳥 놔 둬산 허멍. 나 가시난에 우리 족은어멍이영 오랏단에 나 강 그디 아덜이 강 밧 갈민 골보리로 허믄 씨 들

이고 불치영 걸름 앗당 놔시메 강 허끄라 허난 애긴 놔 둬 난 강 도웨 허껏주. 허끄노렌 허난 큰차 도라크で 그냥 자꾸 멧 대 넘는 거라. 군인 시껑, 군인 시껑 넘는디 게도 난 그레 ᄇᆞ레도 안 허고. 그레 ᄇᆞ레지 말라, 그레 ᄇᆞ레민 말 대답허지 못허민 내부쪄분다. 경허멍. そのまま 허노렌 허난 애긴 영 안앚당 ここ座ときあな. 응. 座って. 座って 콕허게 아이가 박아젼. 쓰러지난 우리 할마님이 애기 돌앙 가라, 애기 돌앙 가라, 가라 가라 우리만 헤 둬 가켜. 경헌디 누게가 왕 날ᄀᆞ라 누게 시누이 일름이 옥란이난, 옥란이 언니やろう. 言うから、何でや 허난, 야이, 아기네 아방 봅데가. 허난 どこで見るの. どこで見れるの. 허난 今 차에 いたやんか. 허난, あんた どこで見たんやな. 나 함덕서 왐수다. 함덕서 봐수다. 함덕 가름에 들어가는 거 봣수다. 게난 우리 아버지가 허는 말이 으, 으 안 뒛저. 사름은 영 헤도 재수가 궂으민 いろんな なにがあるけど、死ぬか生きるかのもんやから、どうなるか分からん. 애기 돌앙 흔디 강 보라, 강 보라. 간 보난 시어멍は 아프난 そのまま寝てるし 난 そのまま 간 헤도 시누이, 시누이가 おれへんから 어디 갓수과 ねえさん은 허난 영 영 헹 함덕 갓저. 영 영 헹 영 기별이 와시난 함덕 황구장이엔 허민 황칩이 그디 권당덜이 多いね. 허난 영 영 헹 가시난 그디 군이덜, 아는 군이덜이 더러 와시난 어떵헹 なに 헤보켄 오렌 헨 성 갓저 헨. 경허영 자노렌 허난 밤인 어둑어 가난 오란. 오란 가노궈렌 영 영 춪으레 가신디 춪지 못헷수다 헹 그냥 오난. 겐 둣날 아측은 또시 ねえさん이 가는 거라. 그딜 가권데 이제 ねえさん 가는디 나도 이제 집이 시민 어떵 허리 나도 이젠 애기 돌앙 난 이제 할머님네 집이 가불엇주. 간 우리 아버지 어떵 헴서니 영 영 허고 정 허고 헷수다 허난 재수가 좋민 춪앙 나와지주만은 춪앙 나오지 못 헐 거 아니가. 게나제나 이거 큰일낫저 허멍 아버진 しんぱい 허멍 헨 그냥 이젠 시누이가 오란. 간 보난 시누이 오란 영 영 허난 아이고, 영 영 헹 죽엇어. 영 영 헨에 엉물 아래 구루마 시껑 강 그디 강 흔, 흔 백 명이상 강 세와 놩 흔뻔이 죽어부난.

함덕에서?

으, 함덕, 함덕우에 엉물이엔 헌 とこがあるね. 그디 영 영 조쿠루, 조 헤난.

남편 일름이 어떵 됌수과?

황학래. 게난 간 보난 엉물 간 보난 죽언, 죽으난에 게난 춪안 얼굴이나 봔 옵디가. 경허난 얼굴은 뭐 이거 가멩이 하나 아졍 강 이디 강 춪아도 아니고 저디도 춪아도 아니고 닮은 사름은 문 일르멍 보난에 잇어렌. 잇언 가멩이 더꺼둬 왓주. 완 앚앙 울고 게난 뒷날부터 寒くなってな、9月、10月ものすごくその時は寒かった,寒かって.

돌아가신 게 9월덜이라서?

9월, 10月. 9월 그물엉 10월 초싱 나난. 막 얼엉 그냥 눈이 폭 묻언. 눈 폭 묻으난 사름도 죽엉 그디 앚앙 헤도 강 ᄇᆞ레지도 못허고 앚앙 아져 오지도 못 허고. 사람

뎅기민 あかん이엔 ゆって 직허염젠. 게난 9月何日死んだ人がその 눈 온 때 그냥 내부난 뒷날, 뒷해 3月なって探したんや.그거 아멩 아멩 헌 디 사름 죽은 것 강 다 춪아오렌 허난. 춪아오렌 헨 이젠 ᄆᆞ을에서 何 허난 みんな 구루마덜 아졍. 그때사 무슨 구루마가 잇어 무시거가 잇어게. 물구루마덜 아졍 강 뭐 ᄒᆞ나, ᄒᆞᆫ 구루마에 두 개썩, 세 개썩 놩 문 시껑덜. 그때 열 멧이 그때도 왓어. 완 그때 죽어불어.

그럼 그 백 멧 사름이 다 산에 사름이라?

산에 가난 みんな 그 토벌したんや、それ. 토벌로 강 今みたいに 그때 영 영 사진으로 영 영 춪으는 何があったんやその時も. 게민 어디 사름 이신 거 영 놩 그 천리통 놩 봐근에 어디 덤벌 ᄀᆞ튼 디 어디 굴덜 파근에 어디 なに 헌 밧 소곱에. 어디 곱을 디가 そんなあるか 山行っても게. 게난 그 영 헌 디 문 토벌헹 강 막 군인으로 응원뒌 막 きつい 헌 사름은 막 헹펜이 엇이 그때 막 첨 きつい허여서. 게난 문 사름덜 죽여 뒁 웃드르 올라강 문 불 부쪄불고이, 문딱 불부쪄불고 이 살렴살단 어디 무시거 집도 문 불 부쪄불고 문 먹을 것도 문 헤쌍 들러 데껴불고 허민 문 것도 곱지젠 땅덜 파멍 묻으멍 헤도 거 문 춪아내영 문 헤싸불고 아졍 오는 사름덜은 더러 아졍 오고. 그 사름덜은 해변 ᄂᆞ리렌 허난 みんな 조천, 신촌, 함덕, 신흥 みんな ᄂᆞ려したやんか あの 웃드르 사름덜. みんな ᄂᆞ리난 사름だらけだし あの 조천 **청이엔 헨 배 들어오고 허는 디 잇주게. 그디도 첨 크게 あのなに 허는 빈 디가 多い. 그디 みんな 수양소 멘들앙 그디 이신 사름 문 심어당 그디 갇현. 애기덜 둘멍 문 저 웃드르 사름덜 갇혀したやんか. 갇형 그디서 저실 넘엉 뒷해 여름 나민 아무 사름 문名前なにしながら 애기덜 강 산에 올라강 멧 개가 가고 헌 사름은 문 내놓멍 문 죽여불고. 우리집이 우리 이모님네 아덜 하나 산에 갓젠 허난 메누리영 아기영 おや영 4人 문 죽여불고. 우리 시고모님도 셋아덜 하나 첨 그 이덕구 그디 손지 서방이야ᄒᆞᆫ. 게난 그 어른 심어가난 우리 시고모네도 夫婦とあの메누리と애기, 느, 서으새끼에 아덜네 서으새끼에 일곱을 ᄒᆞᆫ 번에 죽여불언.

아이고게.

경헨 큰메누리만 조천 사름이난 이제 たんなさん은 아판 병원에 입원헷젠 허연 우리 동세만 어멍칩이 강 애기덜 두 개 둘앙 간 그 어른만 助かったんや. 겐 경헨 살앙 문 죽어부난 이젠 갈 티도 올 티도 ないやんか. 갈 티도 올 티도 엇고 이제 시집이 첨 삼년상도 허는 추룩 허고 ᄒᆞᆫ 삼년 헹 경 정 젓어가난.

게난 그 たんなさん 상을 삼년상을 헷어?

그땐 우리가 이시난 헷주. おやもおるし. 게난 이제 우리 시어멍이 病気 난디, 옛날은 영 내려오민 갯것이야ᄒᆞᆫ. 갯것이 가믄, 눵 자당 아척도 일어나믄, 줌 안 들엉 일어나믄 할망 강, 갯것이 강 무시거 허고. 게난 그 전이도 경헨 아픈, 그걸 아픈 걸

할망이 그냥 아니 아픈 척 헹 경 뎅기단.

갯것이 강 보말 잡으레 뎅긴 거?

갯것이 강 보말을 잡지 안 허고 무신 배 부서진 걸 낭을 봉가온 셍이라.

아, 땔감 쓰젠?

으, 경헌디 할망이 그냥 병이 난. 그걸로 이젠 막 의원 돌아당 なに 허고 허여도 굿도 헌다 막 푸다시 헌다 허여도 할망이 말짜엔 막 만선 뒈난 영 헹 앚앙이, 영 헹 앚앙, 이어싸 이어싸 이어싸 이어싸 허멍 할망이 막 춤을 춰 するんだ 삼방에서. 바다 강 무시거 봉가 오란.

붙어 왓구나게 진짜.

경허난 할망은 아덜이 죽고 무시거 곧도 안 허고 경 앚앙. 게난 그 할망 경허난 시누이가 허는 말이 할망은 구신 부텅 졍 헴젠. 의원도 돌앙 막 첨 멧 둘 침도 준다 뭐 何が 헌다 헤도 あかん. 건 영 신 때 판찍허여. 판찍허영 아이구 느네덜 밥 먹으라. 밥 허라 영 헤도 의원 가불믄 이어싸 とか 나가 무사 영 헴시니. 누게가 누게가 날 영 허렌 헴시니 허멍 막 영 아의덜ᄀᆞ라 욕허고 경허멍. 할망은 영 허는 할망이난 仕方ない. 이젠 ᄒᆞ단 ᄒᆞ단 버치난 이제 아덜도 죽어불고 ま、いろいろなにが、うちも 아의덜, 아덜 그거 돌아아지고 난 친정에 가불엇주. 친정에 가난 친정에서 살단 이젠 할망이 ᄒᆞ꼼 낫안. 하도 그냥 동네에도 들엉 못 살게 굴언게 그냥. 담 강 다 머려불고 그냥 우리 아덜 내놓렌.

할망이 왕 손지 내놓렌 허는 거라?

으, 아덜 내놓렌. 경헨 막 동네에 문.

아덜은 죽어분 아덜 내놓렌 허는 거?

경헨 막 헤가난 あの 지서에 강 누게가 곧으난에 그때 최주임이엔 헌 주임이 おったんや. その 人が 막 えい人だった 육지 사름이야けどな. 아 저 어른은 영 헤영 병으로 정 헴시난 저걸 어떵허민 좋느녠. 그 지서 사름덜이. 놈을 못 살게 정 굴엄시녠 허난 메누린 어디 가시녠 허난 메누린 조천 사름이나 조천, 어멍 집이 애기 둘앙 가 불엇젠. 게난 시누이가 나 시집 간 보난 질 아랫시누이가 ᄋᆞ덥 설이라 그때. 게난 어멍허고. 또 그 우인 열여섯가, 넷이나 나난 가이 허고 셋시누이 허고 너이가 살앗주게.

다 아래구나. 남편이 젤 우에고 다 여동생?

나 우이 시누인 일본 오란 이디 왕 잇고. 一番 큰아덜도 이디 왕 잇고. 겐디 一番 큰아덜은 할망 난 아덜이 아니엔. 큰어멍이 난, 오누이 놔 둰 할망 죽어부난 큰뚤은 시집 강 살고 그 아덜은 장개 가난 일본 나오난 메누리가 하도 착허고 첨 なに헌 할망이난, 메누리영 시어멍이영 合いへんね. 다심어멍이난 궂게 곧암저 무시거 헴저 허멍 막 싸완 허난 일본 나왕 첨 돈을 벌엉 잘 살앗주게. 경허고 이젠 시누이도 오

란 살고 허난.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떵허민 좋으코 헤근에. 난 시집이 가부난. 에이 가고 아이 가고 아이 가켄. 애기 둘앙 왕 조천 오란 혼 멧 달 살앗주. 경허난 아니 가믄 이제 초ᄒᆞ루 보름 뒈가민 안 오민 아니 감젠 허곡 허난 그때 애기 둘앙 가믄 이젠. 영 나만 속으로 옛날 사름도 영허난 영도 정도 못허는 거난 이 놈의 애기 아니민 아무 디라도 애기 엇인 때 둘아나불걸 경도 못 허고 이 노릇을 어떵 허민 좋으코. 이젠 가도 오도 못허고 이디 아기 하나 돌앙 헤도 이녁이 어멍 엇엉 헤난 거난 애기 죽으나 사나 이녁이 둘아사 헐 거로구나 생각을 헹 둘아 아졍 헤도 나가 시나 엇이나야. 아덜, 똘덜 성제 싯고 할망 시난 원 그디서 펜안이 할망은 허고 나 잇으민 ちょっと 心配 허는 거 みたいに 뭐 おらんでもいいのにおる言うのなにや. 겐 친정에 오란 어디 방 빌언에 아부지네 집 ᄌᆞ끗디 어디 혼 일 년 사난 할망이 경 헤가난 할망이 놈 못 살게. 그때 ᄋᆞ덥 설 난 시누이가 혼디 싯단 어멍 ᄌᆞ끗디 강 어멍 경 말앙 어여 와불어, 와불어 허난 총을 팡 허게 놔 불언. 본 사름덜 말이 경 헌 거라. 난 거기 엇이난. 총은 놩 아덜도 죽은디 어멍도 이제 이 총에 죽을텐. 겐 총을 방 방 허난 할망이 그때 겁나는 거 닮아렌. 건 봥 なまえ가 국선이주, 국선이 국선이, 아이고 국선아 어떵 허민 좋느니 허멍 파들락 헨게 그때 구신은 둘아나분 거 みたいや. いろんなほんまに 첨 장난거리가 あったんや. 영 말을 곧젠 허난 헤도. 경허난 이젠 그냥 간 글후젠 할망이 경도 안 허고 이젠 제정신이 돌아완. 허난 우리집이 나 사는 디 이젠 시누이가 완. 어멍 애기 둘앙 오렌 헨 왓수다 허권데 자 이젠 죽엉 묻어분 사름 놔 뒁 이녁 혼자만 사는 것도 그 애길 둘아시난 しやないやんか. 갓주 이제 가난, 아이고 이제랑 집이 왕 살라, 저 밧거리에 살고 난 이디, 이디서 혼디 살게 허여. 애기 둘아부난 말쿠덴도 못 허고 살쿠덴도 いわれへんし 게견데 아, 날ᄀᆞ라 오렌 허젠 할망은 헴구나. 나만 속으로 생각허연. 헤연 어무니 나 요디 어디 방 싯젠 헙디다. 방 하나 빌언 게민 나 이디 오쿠다 허난에. 이제 집이 오랑 밧거리에 살라 허권데 밧거리엔 ねえさん 살아するやんか. 혼디 살아도 좋다 느만 그디 살라. 경헤도 시누이도 싯고 마당 들어왕 ᄀᆞ찌 밧거리에 또 느네 왕 안네 살고 살아가민 どうするかおもって 이제 놈의 집 할망ᄀᆞ라 이제 そうだん을 헷주. 영 영 허고 영 영 헹 오렘 헴수다, 시누이 싯고 헌디 어떵허민 좁니까 허난 시누인 다른 디 강 살아도 좋주만은 혼디 살아부난 못 산다. 느 혼디 못 산다. 그 방을 빌언 오라 허난, 그 어른은 일본서 살단 간 똘 성제에 아덜 하나 서오누이 둘앙 그디 살안 완 보난 서방은 각시 얻엉 살아부난 혼자 사는 할망이라. 이디 오랑 살멍 우리 똘 탕건 베와주고 나영 우리 족은 구들에 왕 살라, 임시 살라 경허권데 게민 좋수덴 그디 강 살앗주, 혼 멧 해 살아가난 할망은 ᄒᆞ꼼 낫이난 장서헤 보멍 부지런히 살아난 할망이난 ちょうど 그해 정월이 돌아완. 정월이 돌아완 멩질을 헹 먹젠 헌디 할망이 난 콩ᄂᆞ물도 씻고 저 **이영 셋년이영 영 영 헴시라 난 성내 강 오켜. 무시거

허레 가쿠과 허난, 야 제숙도 족고 강 무시거, 술 아져단, 그땐 술장시덜 허멍 그디 술 지어당덜 푤아낫주 성내서 허난. 간 푼 거 시난 그거 돈 춪아근에 あの 제숙도 ᄒᆞ꼼 더 사고 쏠도 사곡 헹 오라근에 헹 아으덜이영 헹 먹게 허연. 어머님 강 제기 옵서 허난, 기여 허여 헌게. 할망이 어둑어도 아니 완. 어둑어도 안 온디 그 동네에 あの 부름씨 허는 그디 아덜이 오란에 이디 어무니 성안 가지 안 헷수과 허권데, 응 성안 갓저게. 게난 고으나 ᄆᆞ을서 차 전복 뒈연에 자빠진디 なまえが 황なに 황칩이なに엔 허난에 이디 아니우과. 영 영 헹 강 봅서. 고우니 ᄆᆞ을서 막 난리가 낫수덴. 이젠 우리 셋시누이허고 나허고 우리 족은 시누이 시집 간 때난 족은 시누이 서방허고 이젠 갓주게. 가난, 간 보난 누게우과 헨에 なまえ 영 영 헌 어른, 도립병원에 시꺼갓수덴.

어떵헨 쓰러진 거?

그냥 차 가멍 ひっくりかえったもんだからみんな 차에 이신 사름이 ひっくりかえってしもって. 게난 어디 붓ᄇᆞ른디 あたる 헌 사름은 죽언게. 그때 닛가 다섯이 죽어불언. 그디 우리 시어멍이 들언.

아, 차 탄 가단 그 차가?

あの, あんまり 둘려부난게. 경헨 이젠 허난 성내도립병원에 간 보난 누겐디 날ᄀᆞ라 허난 난 메누리고 이딘 むすめ우덴 경허난 들어오렌. 들어왕 허난 할망이 なくなりましたよ. 그냥 이제 그디 헷단 뒷날 아측은.

그 돌아가신게 아덜 멧 살 때?

あのこちょうど誕生すぎって誕生9月20.

생일 지낭 헌 거 남편 돌아가실 때고?

으, 뒷해 ᄒᆞᆫ 삼년ぐらい 뒈실 거라. 게난 이젠 그딘 허난 그디선 이젠 낼은 멩질이난 오널은 이제, 오널허고 낼은 오몽을 못 헐 거난 그냥 이디 십서 허연. 그날 밤이 그냥 그디 잇엇주게. 그딘 잇언.

정월 멩질이었던 거예?

정월 멩질에 이젠 とにかく 오몽을 못 헐 거난 그디레 강 이시렌 이시민 낼 멩질 넘으민 낼모리 넘엉 みんな 가켄 헨. 우린 이제, 나 허고 우리 시누이덜, 시누이 하나 허고 시누이 서방허고 이제 서이 그디 강 앚앙 허노렌 허난 뒷날은 그디 우리 시어멍 권당이엔 헌 어른이 그 事故 낫젠 허난 알앙 오란에, 시어멍ᄀᆞ라 삼촌, 삼촌 허는 어른이주. ᄌᆞ들지 말앙 이디 시믄 이디 이런 처레랑 나가 허크메 ᄀᆞ만이 이디 앚앙 이십센. 겐 그디 시난 그 어른도 멩질 우리 헴시난 아직 멩질 헹 먹엉 이레 오쿠덴. 겐 그디 앚아시난 첨 멩질 헹 먹엉 그 어른도 오고 신촌서덜토 みんな 가고 허난 이제 할망은 신촌 데려왓주게. 신촌 데려단 이녁 밧디 할망은 묻고. 할망 묻어불민 이제 집만 남을 거주게. 게난 이제 할망도 이제 なに 헤불고 집은 누게가 맡을

거니 허궨데 우리 아바지도 오렌 헨 가고 허난, 그 애기 하나 싯주만은 그거 집 맡아놔근에 어떵 허렌 헴시녠. 게난 궨당 어른덜이 なに 헤도 저거 하나 이시난 だれ가 둘앙 살아도 えいから 저거 둘앙 사는 사름이 집이랑 살렌, 임시 살렌 허난 집은 또 큰시아주방 허고 우리 お父さんと二人が 성제가 分ける 헐 집이라. 겐 집을 우리 큰시아주방 가시아방이 정시やね. 정시난 이제.

큰시아주방은 어디 살고?

일본 살아.

일본 사난. 겐 시집은 아덜이 둘인 집이라?

으. 아덜 둘 이시난 이제 그디서 그 사름이 とにかく 살단 할망 3년이나 넘으믄 이 집을 풀앙 성제가 갈라사 헐 집이엔. 경허난 갈를 あいだ라도 살아사 헌덴 헤도. 아이구 살당 풀 집, 집도 엇고 집은 문 헐어가고 이제 한국엔 그땐 집 일엉 살 때주게 새 헤영. 그런 것도 헹 헤살 거고 그런 것도 못 허난 어떵 허민 좋으코. 경헤도 임시라도 이디 잇어사 허켄 헨 잇엇주 그디, 시누이 족은 시누이.

그디 들어간 거예?

게난 이녁만 살단 그디 임시라도 이디 왕 이시렌 헹 그디 이제 들어가난. 하이고. 일년 넘으난 이제 할망 이거여 저거여. 난 어떵 헌 지도 몰라도 똘이 영 어멍 헌 때 빚도 잇고, 빚도 얼마니나 잇고 이걸 어떵헹 물어사 헐 거고. 이제 하르방이, 우리 동세 아방이 똘, 똘 かわりに 나가 처레허켄. 궨당 어른덜은 이제 동세 성질도 알아지고 なに 허난 이제 잘못 헷당 지네 원 먹어진덴 하르방신더레 매껴불언, 사돈신더레. 게난 그때 우리 동세네가 일본 오란 살멍 그 짐 허영 혼, 광목이여 무시거여 그 한국 가렌덜 허는 통에 한국을 가젠 막 荷物가 하영 가난 셍이라. 게난 문을 줌강, 족은방 닮은 디 문을 줌강 놓난 저디 무시거 놩 문 줌갓수과 허난에 우리 시어멍이 허는 말이, 그거 큰메누리 짐 온 거 그디 문 데며시녜. 허권데, 그디 데명 내불민 썩지 안 헙니까게 경허난. たまに 문 읋앙 なに 헴저만은 이거 씨민 다 먹어불엇젠 헐 거난 이거 더껑 내불엉.

전쟁 나난 오젠 짐만 먼저 보내낫구나?

으, 해방 뒈난 오젠 헌디 오지 못 허난 짐만 보내난 짐은 그냥 족은 구들에 담앙 놔 두난 짐은 내놩 보난 막 썩어불어선게. 게난 이제 난 집을 맡앙 살렌 허믄 허켄 허믄 닮은 일 년이라도 살믄 이 짐은 어떵헙니께 허난 그건 우리 짐이엔 그 하르방이. 그건 잘 도왕 직허여사 허주 허권데. 이디 놩 동생덜도 하곡 아는 사름덜도 하곡 짐 무시거 헷젠 산에서도 왕 이제 들러가 불민 어떵 헙니껜. 사돈님네 집이 앗아갑센. 경허난 게건 우리 집이 시꺼 가렌. 겐 그디 시꺼 갓주 문.

그 사돈님네 집은 어디라?

섯가름에, 신촌 섯가름에. 우린 동카름이고. 겐 시꺼 가근에 그디 살단.

게민 그 사돈님이라는 건 큰시아주방예?

큰시아주방, 큰동세の 아방. 겐디 하르방이 ちょっと 걱센 하르방이야. 게난 아방신 더레만 매껑, 아방신디 문 매껑 똘은 그디서 가멍 오멍 なに 허난. 오렌 헤도 지넨 가지도 못 헐고 뭐 죽어분 사름 しやないから 뭐 처리허렌. 겐 일 년 넘으난 이제 집을 풀켄 するやんか 하르방이. 집을 픗난 이젠 할망 죽엉 삼년 넘젠 허난 돈도 엇주게. 엇엉 허난 그것도 빚졍 허고 무시거 허고 똘덜이영 헤 놓난 그것도 헤사주 어떵 허느녠. 하르방 이제 그걸 어디 사름신디 픗는 거라. 집을 픗난 그땐 이제 돈이 올랏단 막 ᄂᆞ린 때야. ᄂᆞ린 때난에 우리 오백 멧 만 원인가 오천 멧 만 원인가 받으난 그 어른네가 이백오십만 원을 아져가고 하르방이. 그때 하르방이 이백오십만 원 아져 가고 이백십만 원이엔 헌 돈은 날 주난 그 돈을 날 주난 이젠 셋시누이ᄀᆞ란 이 돈을 어떵허민 좋을 거궨 허난 이제 아져오렌 헹 빚 신 거, 지네 어멍 빚 헤난 거 더러 물어불고 남은 건 ねえさん신디 놧당, 이제 소상은 넘으난 대상ᄁᆞ장 헤 먹어사 헐 거난 거랑 ねえさん신디 놔 둡센. 경허난 경허렌 헨. 이십멧만 원이난 시누이를 매꼇주, 매껸 내부난 소상은 넘고 대상은 헤 먹젠 허난 돈은 엇고 어떵헐 거라게. 돈은 돈 줍센 허난 아니 줘. 아니 주켄 허난 이제 우리 시고모님이 완 어디 그 사름 돈 셔근에 대상 헤 먹느니, 아이 준덴 헌 말이 무신 말이니 허난 막 부에 나멍 헤도 아져 오난 しやない 그걸로 헤 먹어사주 어떵 헙니껜. 겐 대상 넘언. ᄐᆞ로 이젠 난 집 빌언 난 나갓주. 아기 둘아 아졍 집 빌언 놈의 집이 강 사난, 이녁 밧이 그 동산 밧이엔 헨 밧이 시난 ᄇᆞ딘 밧이 시난 그디서 그거 헹 먹엉 에새끼가.

밧은 물린 거?

시어멍, 시집이 밧이주 게난. 족은시누이허고 나허고 시삼춘 조케가 살앗주. 살단 시누이가 이디 시누이가 허는 말이 집은 짓고 사름이 いるから 아실 보내렌. 어멍도 엇고 그디 내불민 苦労するから 아실 보내렌. 게난 아신 겐 가이가 열멧 설에 나난 나가 보냇주. 이디 사는 것보담 그디 가는 것이 まし 헐 거여. 성신디 강 사는 것이 心配 엇엉 まし 헐 거엔 허난. 가쿠덴 헨 보내엇주게 보내난. 겐 이딘 오난 성네 집이 강 톡허게 사난 ちょうど 그디서 みせ 허난 みせ 보난 성은 助かるやんか. 게난 겐 강 살멍 성은 영 영, 이제 오라방 각신 아기 하나 둘앙 그거 이제 이디 저디 놈의 집이 なに 헹 빌엉 뎅기멍 집도 엇인디 사난, 이디 불르민 그거 하나 놩 勉強시키곡 이디 못 삽니겐. 겐 성덜ᄀᆞ라 굴은 거 아니. 경허난 이제 성이, 가이네 성이나 우에 성이, 시누이가 애기 둘앙 와지건 오렌. 게난.

아기 멧 살 때쯤?

아이가 열혼 설이라. 열혼 설, 4年生だか、5年生だか.

그럼 그런 연락은 어떵?

펜, 펜지도 허고 가고 오는 사름이 그땐 하난. 이젠 오렌 헨 돈은 엇이난 돈은 오민

우리 셋시누이가 허는 말이 あの 에새끼 온 거 지네가 물켄. 경허연, 돌아오민 물켄 헨 헤시난 이 어른 ᄆᆞ녀 돌아가렌.

이 어른이엔 허민?

날ᄀᆞ라 돌아 도는 사름이 이 어른 ᄆᆞ녀 돌아가렌. 겐헨 에새끼가 와도 날ᄀᆞ라 오멍 우리집이 저. 대마도 오난에 그냥 대마도 ᄂᆞ련 가지 못허영 やま 흔 一週間ぐらい.

게민 아이랑 ᄀᆞ치 온 게 아니고 흔자 ᄆᆞ녀 온 거?

いや. 흔디 왓주, 흔디 돌앙 왓주. 돌앙, 애기 돌아아졍 난 오고, 시누인 문저 오고 허난 나 와불민 아무도 엇주게. 시누이도 그디 나가난 집 빌언 지만 살아불민. 이젠 이디 오난 날ᄀᆞ라 허는 말이 이디서덜은 시누이도 잘 살고 동서도 잘 사난 는 가믄 게 なに 헤영 어디 방이라도 빌어 줄 거엔. 완 보난 시누이덜 막 아니 불러시민 한국에서 소분도 시키고 이제 하간 거 문 헐 일이 한디 동세 불러부난 이제 그건 누게가 헐 것고. 날ᄀᆞ라 무시거 허렌 완딘, 동세가.

아이고 어떵 헤.

하하. 느 채비도 우린 못 물 거난 느네가 물렌. 게난 이제 시누이 허는 말은 ねえさん네 물렌 헐 거 엇수덴, 나가 물켄 헨 오란 헌 거난 건 나가 물쿠덴.

시누이가?

시누이가 물어したんや. 시누이 물고 이젠 우린 시누이네 집이 잇단에, 시누이 집이 가믄 동세네 집이 가렌 허고, 동세네 집이 가민 시누이신디 가렌 허고. 이젠 시누이도 ま 장시허멍 잘만이 살앗주게. 허고 동세네 집인 부제주 허난, 그 돈 바람시녠 날ᄀᆞ라 옷도 엇건 옷도 도렌 헨 붝 붝 튿으멍 입으렌 날ᄀᆞ라. 무슨 나 그 사름 튿으레 왓수과. いい加減に 헙센. 경허멍 하도 口がなに 헌 어른이난 나도 대답도 안 허고 ま 무시거 부름씨 헐 거 이시민 부름씨 허렌 헨 강 허믄 다 헤둬 그냥 오믄 낼도 오랑 남은 거 허고 이디 오랑 밥이라도 멕으렌 言うね, 시누이네 집이 강 먹어 허여.

일본 올 때 아덜은 열한 살이라신디 삼촌은 멧 살이랏수과?

나가 그때 三十や.

서른 살?

으, 서른에 이디 오난. 경허난 이제 나 시누이ᄀᆞ라 흔디 살민 영 영 헹 이제 부름씨 시켬저, 영 헴저 막 싸움만 헤가난 나 방을 빌어줍센 허난 ちょうど 영 헌 방이라. 영 헌 디 안네 똘 성제, 시성제 똘 하나, 아덜 하나 서오누이가 눅는 방이고 요만은 헌 방 요거 요만은 헌 방 にじょう 방 에새끼가 살렌 빌어 주난 눠 잠시민 왕 발도 불르멍 들어가고. 하하. 에새끼가 ま 뭐헤도 에새끼だけだから 언 땐 이불 하나, 이불도 엇이난 그때 시누이 더끄던 이불 줘 그걸 더껑 누웟단 허단, 추우난 여름 나민 좋켜, 여름 나민 좋켜 헨 여름 나가난 벳 발르고 南向きだから 밤인 그디 눅고 그

디 오민 그디서 살곡 낮인 에새끼가 울곡 경허멍 첨 그디 흔 삼 년 살앗어. 겡헨 삼 년 살안 그냥 이젠 놈의 집 빌엉 나냥으로 나왓주, 나냥으로 나오란 살안. 살아가난 이제 셋시누이가 한국에서 간 거라. 셋시누이가 완 나영 흔디 살켄 허권데 나도 영 헌 디서 사는디 어디 강 방 헙니까. 저 姉さんどこ行ったら 그디 방덜 하난 그디 강 방 빌언 삽센. 허난 경허켄 우린 시누인 그디 왕 방 빌언 그디 왕 바느질 허멍 살앗주. 우리 셋시누인. 하이고 겐 오란 살아가난 이젠 저 아읜 흑교에 놓난 건국흑교 놔 したやろう. 건국흑교 놓난 멀고 말 몰르고 질 몰르고 쳇번은 둘아가난 난 뭐 일 허젠 허믄 つれて行かれへんな. 아읜 강 오란 돌아왕 앚앙 울곡 난 이제 애기 오믄 무사 웬 감시니 허멍 울곡. 이젠 허단 허단 버쳔 이젠 이 노릇을 어떵허민 좋으코 헨. 이젠 다른 디 강 일 허난 그디.

무슨 일 헷수과?

하리꼬 허연. あの 아는 아이 이디 저 복숙이엔 헌 아이가 姉さん, 무사 허난, 경 울멍 뎅기지 말앙 그 조선이찌방에 총련흑교라도 총련흑교에 놉서. 이디 놩 이시민 이레 두어 해만 헹 中学校, 小学校난 中学校 なったら 다른 学校でも 말 알아가고 질도 알아가민 じゅうぶん 갈 수도 이시난.

그냥 가까운 데 가렌 헌 거로구나?

으, 가까운 디 姉さん 일허당 나오랑 아이가 밥을 먹엄신가 아이 먹엄신가, 와신가 아이와신가 나상 보곡 경허멍 허단 헤가건 읔아가믄 이녁냥으로도 어디 가고 헤도 좋수궤. 겐 그 말도 들언 보난 존 말아라. 아이고 기영게. 경 허고 みんな 우리 한국에서 온 어른덜 총련흑교 놈시난 그디 놔도 좋덴. 그때 우리 시누이덜은 민단이고 이디 총련이난 첨 なにができへんだったわ. 총련 学校 허난 이젠 총련 学校 놧젠 이제 누게, 누게 용으로 놔신녠 또 이제. 헤도 나가 영 영 허고 영 영 헨 놧수덴. 임시 영 いちねん이라도 놩 なに 허쿠덴. 살아보난 이 노릇도 아니 뒈고 저 노릇도 아니 뒈고. 경 정 어떵헤영 흔 멧 해 살안 아의덜 살곡 허난. 동세가 강 밧도 다 풀아 오고, 残ったの 강 다 풀아와불고 덕택에 삶이라 말앙 더 그냥 그딘 가난 죽을 딜 왓주 살 디 온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여기 오난?

오난 이디도 질도 모르고 일도, 일도게 배왕 허젠 허믄 게 경 흔 뻔에 헤지지 못허고 なに 허난 이디 강 헹 그 일을 허지 말앙 이 일을 허렌 둘아 강 헤민 말쿠덴도 못 헹 강 허민 시원 안 허고 경허멍 흔 일 년 뒹굴뒹굴 허단 일을 배완 이녁냥으로 일은 헷주게. 일은 허멍 아은 그냥 총련흑교 그냥 놩. あの子中学校、高校.

총련학교 들어갈 때 열한 살이라신디 몇 학년으로 넣엇수과?

그때 이디 오란 3年生로 들어가나 4年生로 들어가실 거여.

게민 야이 한국에서 학교 뎅기단 온 거 아니?

뎅기단 왓주.

멧 학년꺼지 뎅겻수과?

ᄉᆞᄒᆞᆨ년.

아, 4학년까지. 게민 신촌국민학교, 조천국민학교?

신촌.

신촌국민학교 뎅기단 데령 와분 거?

경헨 오난 아이도 그냥 반 벵신, 어멍도 반 벵신 허난 정신 출리지 못 헹 헌디 이디 가민 저리 가라, 저디 가민 이리 가라 허난 아기도 울곡 어멍도 울곡.

아이고.

ᄀᆞ치 허멍 일허는 어른들은, 아는 어른들은 이디도 오랑 ᄀᆞ치 허렌 헹 강 그디 강 일허믄 이젠 이녁만 살 때 그땐 親子가 よう泣いたんや. 경 정 살멍 이 노릇을 어떵헹 좋으코 헹 시누이덜 시누이 셋시누이 오랑 いもうとネ 오난 방 빌고 허난 경 정 살아가난 경 정 가이도 이제 年がとる 헨, 스무남은 나するやんか. 겐 살아가고 나도 일허멍 살아가난 그땐 아의도 이젠 지냥으로 허단 高校 가켄, 高校를 보내난. あの だしま、だしま엔 헌 디 高校가 잇주게 허난 그딜 보내난.

무슨 고등학교?

あの 총련 고등학교. 그디 가난 이제 이디서 일허는 아이덜, 한국서 오고 말도 잘 몰르고 헌 거엔 아 옷을 입젼, 빌언 입젼, 첨 사단 입젼 새옷 사단 입젼 ᄒᆞᆨ교 갈 걸로 헹 간 저냑인 온 건 보난 옷이 ぼろぼろ라. 무사 경헤시니 허난. ま、ばかに 허연 총련서 말도 못 허고 한국서 온 거엔 허멍 문 옷 찢어부난 나 일허크라. 学校 아이 가켄.

아, 학교 안 가켄.

아이 가켄. 무사 이젠 어떵 헐티 しやないやんか. 경헨 이제 일을 허는디 우리 일허는 디 주인 일허는 방에서 방 이디 시난 이디서 일허멍 이디서 삽센, 우리 동네 어른이 주인 어른이 빌려 줜. 그디 에새끼가 살멍 허는디. 그디도 총련에 어멍 아방덜 みんな 한국 가부난, 첨 한국 가부난, 저 북선 가부난 날 닮은 사름이 잇언. 男の人やね. 배고팡 막 그냥 그디 오랑 일허멍 밥은 못 먹으민 배 고팡 술이나 술이나 ᄒᆞᆫ 잔 먹곡 어디 강 허멍 막 なに 허멍 헌디 사름이 막 죽게 뒈연. 아이 배 고판 죽어전. 이디서게 밥이라도 なにや 일허는 어른덜 오민 벤또 남으민 주곡. 이거 벤또 쌍 놔 둬시메 좋은 사름은 좋은 사름이여만은. 그 사름이영 그디서 어떵 어떵 헹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집이 아덜도 둘앙 강 불쌍헌 거여 저거 사 주고 なに 헤 가난 그 사름이 이제 나 느네 아방 헤시민 좋켄. 게난 으, 헤도 좋텐 우리집이 아덜이.

하하.

可愛がってくれるから. 겐에 이제 この人が 이젠 그디서 밥도 얻어 먹고 なに 헤지

난 어디레 가질 안 허여. 갈 디도 엇곡 가질 못 허연. 어멍 아방도 다 북선 가불언 아무도 엇고 兄弟も 엇고. 경허난 이제 그 사름은 병이 난 막 죽게 뒈연. 아이고 이젠 이 노릇을 어떵허민 좋코. 경허난 내불어 できへんか. 겐 그디 일허레 온 어른이영 とにかく 그 사름도 혼자고 느도 혼자녜. 아멩헤도 혼잔 못 산다, 혼잔 못 산다 허난 이제 그 사름 얻엇주게, 얻엉 살아불엇주게. 사난 그 사름 흔디 사난 이젠 아의도 일을 헨 가의가. 그 ᄌᆞ끗디 タカヤマ엔 헨 鉄工所あるから 일허컨 우리집이 왕 허렌 게난 일을 가난 지 ᄆᆞ음대로 헤지난 그디 강 일을 헤불언. あの高校行ってないね. 경허멍 그새 이제 그디서 펜안히 허난 난 또 이제 그 사름과 살아가난 애길 베엿주게. 애길 베난 애길 낳주.

몇 살 때?

이제 멧 설 뒈신고 그때. 이제 あの、あのこが今 이제 쉰 낫어.

아. 그때 가진 아이가?

쉰 나난.

게민 큰아덜이영 스물살 차이 나큰게.

큰아덜은 としがとった 허난 이젠 시누이영 시아지방이 걸 이젠 풀렌 するやんか 흔적 장게 보내렌, とにかく 새각실 구헹 장갤 보냅센. 겐 새각시 구헹, 우리 셋시누이가 友だちなにエン 헹 새각실 헹 장갤 보내난 아이구 이젠 그것덜은 지네만 헹 살아 するね. 이젠 그 애기 둘고 애기 두 개 둘고 저거 둘고 헹 이제껏 살아노난 시누이덜은 시누덜마다 조케가 영 영 헹 살아부난 아주망이 잘 아니 살아부난 이제 서방 얻엉 살아부난 이젠 애기 낭 헴젠.

겐 그 시누이렌 허는 거는 전남편 시누이덜예?

으, 으. 경허멍 흔 동네 그냥 살앗주게. 살안 헌디 이젠 또 한국선 우리 아바지가 としがとってるけど 나베낀 こどもがおれへんね. 일본더레 나 나올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나영 큰년아 어디 걸라. どこへ行くの. 어디 흔디 가도라 허권데. 무시거 허레 갑니까. 간 보민 알아진다 걸라 걸라 허영 가난, 첨 어느 말이랑 ᄆᆞ녀 곧고 곧지 말고 헐지, 골으민 이거 はずかしいことだけどひとつ言う. 이젠 간 보난 애기 ᄒᆞ나 둘고 선 젊은 사름이라도 경 しっかり도 아니, ᄇᆞ림이 경 しっかり도 안 험직 헌 어른이라도 사름은 순헹 어진 어른이라 나 영 간 앚으난 애기가 풀풀 절로 기영 오란에 오똑 오똑 사는 애기だった. 女の子. 나신더레 왕 톡허게 앚안 나신더레 영 ᄇᆞ레멍 영 둘아젼 나가질 안 허난 우리 권당 어른은 중진헤주는 어른은, 에 앗따 소망 이뤔직 허다. 무시거 말이과 허난. 저 애기 보라 느신디 왕 톡허게 앚앙 가도 안 허고 오도 안 허고 헴시녜. 이젠 그디서 우리 삼촌이 밥 헹, 우리 할마니, 우리 아바지 ᄉᆞ춘 누이네 집이라. 이젠 밥 헹 먹고 그디 앚안 허난 생각을 헹 보난 ちょうど 느슴う 헴직허영 나 불럿저. 영 허멍 우리 아바지ᄀᆞ라 골으난 아바진 고맙수다 허멍

앚앙 말을 허난, 이젠 오게 뒈난 밥 헹 먹고 오게 뒈난 아기 막 떨어지지 안 허영. 나영 훈디 갈탸 허난 가켄. 게난 우리 삼촌이 지집아의ᄀᆞ라도, 예펜ᄀᆞ라도 영 영 아기 둘랑 가켄 헴시난 느네 훈디 가렌. 가근에 훈디 살렌 허난. 우리집인 나 서이새끼뿐, 나 할마님 おるね. 할마님을 내불어뒁 나가 일본 오젠 허난 첨 나가 기가 멕현. 어떵허민 좋으코.

겐 그때 그 분은 족은어멍 뒌 거라?

으, 족은어멍을 나가 헤단 집이 헤단 놔 뒁 나가 일본 나왓주게. 나오난 나 입는 옷이여 무시거 문딱 주워당 어멍 주긴 준디 나왕 이녁이 ᄒᆞ꼼 일허멍 살아젼 돈을 봐가난 아바지도 からだも 첨. 우리 체얌 아바진 저 조천면 **엔 헌 디 살단에 각실 얻으민 해변 사름만 얻어근에 물질허는 사름허곡 허난, 물질허는 사름을 얻으난 조천 강 살켄 허난 이디 조천을 오랏주게. 오난 이젠 어멍이 이젠 아기 낭 똘 하나 낳고 헹 살단 그 똘이 죽어불언. 게난 우리 아바진 뭐 그 애기 엇고 갈련 가도 좋덴. 갈려단 할마님허고 아버지만 잇엇주게. 게난 이젠 할마니도 としが とってるし 할마님은 나 키와준 할마님이난 할마님은 なんとか, 이디 오랑 일허멍 그때 얼마짜리산디 다노모실 들언, 누게 허는 거 다노모시 허렌 허권데 난 그런 거 몰른덴 허난. 나 들어주크메 허렌. 다노모시를 허는 게 멧 사름이 헤신가 앗다 주는 걸 보난 삼십오만 원을 앗아 오라서. 나 생각은 아이고 할마님은 일도 못 허고 아바지도 몸아팡 일 못 헤영 어려왕 살암실 거난 이거 어떵헹 보내살 헐 건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아는 ねえさん, 중진헤 준 어른 똘이 이디 오랑 이시난 가가건데 우리 아바지 앗당 안넵서 헨 그걸 아져가난. 첨 아바지 助かったわけや、それで 그때. 이디 돈 만 원이 그디 さんぼかよんぼ 헐 때야. 겐 가난 그걸로 돈이 엇이난 みんな 권당 어른덜도 아이고 이젠 살게 뒛저 살게 뒛저 우리 아바지. 경허난 그때 집도 싼 때주 허난. 집도 엇어 なに 헹 어떵 허코 허단 어디 막사라도 멘들고 헨 살암저 헌 소문은 들어도. 경헤도 할마님 잇어부난 자꾸 왕, 友だち도 와가민 훈 이만 원도 보내고 만 원도 보내고 허멍 살단 헤신디. 그 어멍이 오난 すぐ 애기가 선 똘 난 그 다음 아덜 성제 난 이젠 다섯 오누일 난.

한 명은 똘 데령 왓고?

훈 명 데령 오난 그 아이꺼장 아이가 ᄋᆞ섯이라. 게난 애기 수정은 하 놓고 먹을 것도 엇고 どうするの. 이제 허난 애기덜은 ᄎᆞᄎᆞ 커 가고 ま、親戚덜이 이시난 애긴 컹.

게미 그 동생뻘 뒈는 애기덜은 삼촌 아이보담 더 어릴 거 아니?

어리주게. 게도 あの 저 저 우리 집 셋아덜과 그디 곧 오랑 난 아덜이 우리집 셋아덜과 동갑, 이제 쉰이라, 이제. 辰年. 겐 가이가 오란 ᄋᆞᆨ앙 그 우잇 아인 첨 얼굴도 좋고 ᄉᆞ나이. 아덜을 나난 우리 아바지가 하도 지뻔 그것만 영 영 헤부난 ᄋᆞᆨ아가난 술 먹언 부량허연 어디 간 구루마 탄 뎅기단 막 ᄆᆞ아 놘. ちょっときづかないわね.

경헨 살단 이제 나가 뎅김 시작허난 일본 멧 번 불런 게도 あかん. 그냥 한국 강 죽어불고 이제 그 오래비 하나 신 것가 장개 간 애기 낳고. 가이 장개 갈 때 おやも 엇이난 누님이 와사주 와사주 허권데 가긴 가켄헨 그때 오란 장개 가는 거 보고. 글후제 똘, 똘 성제 난 때 가온냥 이거. 二十五年、ちょうど二十一年이야 今年で. 게난 흔 번 강 봐살 걸 봐살 걸 헤도 한국을 いま 못 가 しているね. 겐 나만 이디 첨 살아오는 거.

등록은 어떵 완 쉽게 헷수과?

心配ないでできた. 오란 흔 十年、十一年、二十年ぐらいはしてない. 경 살앙 요즘 어디 강 부름씨도 못 허쿠다 뒹굴엉.

처음 이디 왕 일본말 몰라부난 힘들지 안 헷수과?

うちらは韓国おる時日本のカナ 배우렌 헐 때야ね. 게난 곧 와도 글을 배와 してないけど言葉には、こんにはは、こんばんは、その挨拶とか、어디레 가는 거 오는 거 어디 감수과, 왐수과 허는 거 みんなわかとったんやうちらは.

아, 일본어 잘 하셨구나?

겐 일본 완 野菜でもなにか買いに出で、경허민 우리 姉さん은 일본말로 ニラ는 새우리やろう. 새우리 상 오렌 헨, ニラ 알아지젠, ニラ 골아지젠 허민, 예 골으쿠다게. 허민 느 제법이여 어떵헨 알아젼. ニラ 영 ᄀᆞ르치난 알앗수게게. 하하.

게난 일본 오기 전에 일본 말은 어느 정도 알아졌구나?

으, 그런 말, 가고 오는 말은 알앗주게. 지픈 첨 なに 헌 말은 몰라도 이디 오랑 뭐 흔 경 정 일덜 허멍 흔 삼 년 살아가믄 自然と 배와지주게. 이디 20年 산 사름도 몰른 사름 おるね. 이디 となりの奥さんが20、25年か、なんぼ 살아도 いらっしゃい、あの 寝なさい. それしか分からへんね. 병원에 가믄 말 못헹 누게 見舞い 가도 베롱이 산 ᄇᆞ렘만 헌덴. 게 조센ごでも言うやん. それも言うへんね. 하하. たまに 경 헌 사름 おるね.

게난 말씀을 좋아하시니까 말을 빨리 배운 거 같애, 삼촌은.

ま、そんな. 聞くのはなんとかな.

게난 와 가지고 일본말 몰라가지고 어려움은 엇어낫다예?

으. そんなはなかったんや. はじめは 첨 영 가고 오는 말 みんな あの 일본 사름이 영 통헐 일 엇이난. 한국 사름네 집이서 일을 허난 일본 집이라도 みんな 韓国の人やんか. 韓国から 온 女の人が 흔 女だけ8人ぐらいおって、男の子らも 한국서 곧 아이덜이영 무시거영 열, 흔 스무남은이 일이 헷주게. 그 가운데 일본 아이덜이 더러 するやろう. 허민 말 몰르민 할망 年より덜 저 사람 조선말 몰르난에 조선말 무시거엔 골아 そこ 강 아져 오느니 허민 할망덜 ***** 경 골으렌.

장난말로 경.

경허민 아이구 ねえさん게 なに 헌 말이랑 곧지 맙서게.

ソュ가 뭐과?

신 멘드는, 신발 멘드는 거난 ソュや. 창.

게난 일본 아이안테 그거 강 받앙 오렌 헌 거?

으, ソュ는 みんな 앗다 놔도 그거 すり 헤사 풀 불르민 잘 부뜨주게. 겡 안 허민 아이 부떠 するね. 게민 그거 すり 허는 사름도 싯고 그거 テープまき[でぷまき] 헤 주는 사름도 싯고 いろいろ おるね. 게민 거기 거 헹 춪앙, 도렌 헨 아져 오젠 허민 경덜 헹. 서방 얻엉 거기서 結婚して 살단 한국서 온 男の子がここで 죽어 불언.

밀항 올 때 말을 들어보쿠다. 어디서 배 탓수과?

부산서. 부산 오란.

제주도서 부산까지는 어떵헨 완?

제주도서 부산꺼진 부산 연락으로 오란. あのちょうど 우리 知ってる人 우리 おなじ 묘제のおばさんが 그디 식당을 헤낫주. 부산서 허난 그디 큰 식당이난 그디덜 오란 그디 흔 사흘가 나흘 밥 먹엉 잔. 그디서 자멍 밥 헤 줘 먹고 일본 가민 영 헌다 정 헌다 하간 거 시켜주고 허멍 그디 시난 그디서 둘레 오랑, 이제 배 오라시메 나오렌 헹 나완 배 탄 오난 대마도 완 ᄂᆞ련. 대마도 왕 ᄂᆞ려도 대마도 ᄂᆞ리미 이디 일본을 와사 헐 거주. 대마도난. 그디서 흔 사흘 밤 자난 배 오랏젠 헨 배 요만이 헌 ちぃちゃい 똑딴선 あるやんか. 그것에 탄디 사름은 멧 사름사 타신디 배가 옴막 옴막 옴막옴막 물 알레 들어갓다 나왓다 헤 가건데, 난 속으로 아이구 애기 업어 난 걸레베라도 아졍 와시민 애기허고 나허곡 속궤 존등이에 무꺼당 죽어도 이디서 おやこ가 흔디 죽엇젠 춪을 걸 안 아졍 와졌구나. 이녁 속으로만 경허멍 이제 애기 안앙 앚안. 겐디 しばらく 가난 어떤 섬, 섬 옆으로 불이 빈찍빈찍 허여. 아, 우리 심으레 온 배 아인가 나 속으로. 놈ᄀᆞ란 곧지도 못 허고. 게난 배가 おおきな 배가 出てくるわ. 아, やっぱり 우리 시꺼갈 밴가나. 경허난 ᄌᆞ꼿디 신 아이 저거 우리 시껑 갈 배셍이우다예, 영 허권데 그땐 あのちぃちゃい女の子ら 어멍 죽어불언 엇이난 오라방덜 춪앙 오는 아이덜 두 개가 잇엇어.

배엔 전부헤서 멧 사름 정도 탓수과?

21人ぐらい.

여자 멧 명, 남자 멧 명?

大人は何人ぐらいやか. 그때 온 어른이. 大人 멧 개 안 왓주. 할망 세 개산디 허고 아의덜이 흔 열 멧 명 탓주게. 젊은 아의덜.

제주도 사람들?

제주. 우리 신촌 아이덜토 흔 댓개 타고. 경헌디 이젠 그디 오난 그디 배레 올르렌 헨 수고 헷젠 허멍 그 배레 올란 대마도 오난 톡허게 부련. 날은 붉고 허난 대마도

이디 올랑 이디서 ᄒᆞ쏠 ᄒᆞᆫ 메칠 잇어사 헐 거우덴.

그 큰 배는 바다 중간에서 만난 거?

으, 바당에서. 섬 에염으로 나와 したわ.

삼촌네 배는 족은 거?

으, 똑딱선에 배 타난 사름은 하영 타난 옴막 들어가고 옴막 들어가고. 똑딱선 우에 직깍이라이. 이거 어디 이걸로 일본꺼장 갈 거우과 허난 아니 이제 저디 배 올 거우다, 배 올 거우다. 겐 그 배 탄 대마도 왕 ᄂᆞ리난 그때 ᄂᆞ시 きびしい 헌 때난 막 누게네 오랑 심어간, 심어갓젠 헴수다. 문 연락은 그디 오난게. 영 영 헴젠, 어디로 오느렌 문 연락은 허난게 ᄒᆞ쏠 셔사쿠덴. 낮인 行くどこないやんか. 게민 대마도 안에 山だからな 낭 우이덜 올랑 하하. 낭 우이 올랑 앚앙. 그때 ちょうど 一週間ぐらいや. 경 1月だったけど温かった. 今考えたら.

1월인디 안 추워?

으, 1月ちょうど旧で30日うちが出たから. 이디 오난에 양력을 2월 十日ぐらい うちらがこち来たわ.

제주도 나온 게 언제라고?

제주は三十日 제주서 나오란.

12월 30일?

으, 으. 게난 음력 정월 ちょうど 초ᄒᆞ루 날인가 그뭄날 타실 거라. 탄 나온디 부산 오란 사흘밤 자고 대마도 오란 올락 ᄂᆞ리락 허멍 ᄒᆞᆫ 사흘 나흘ぐらい. 그냥 선 끈어져부난 밥도 못 먹고 배고판덜 아의덜 なに 허노렌 허난 밤인 낭이, 낮인 낭우에 올랑 놀고 밤인 어둑어 가민 숫막에서, 숫막에서 어디 가지 말앙 울지도 말앙 큰소리도 허지 말앙 이디 눵 잡서. 그디 불 살롸주멍.

숫막이 뭐?

그디, 그디 숫 굽는. 山엔 숫 굽는 사름덜 막거치 짓은 디 하 するね. あの 받안 이디 이 사름덜 영 영 마무리 헤 도렌 헹 まかし 헌 거주게. 이디 왕 어디 나가지 맙센 헹 그디 살안에. 겐 일뤠차 시난, 일뤠, ᄒᆞᆫ 잇새ぐらい 배 고판 막 허노렌 허난 주먹밥 헹 젼 완, 막 선은 끈어젼 중간에서 きびしい 허연 나오지 못 허연. 배고파 수덴 허멍 주먹밥 헹 왕 하나썩 줜 첨 그디서 먹고. 어떵헨 ᄒᆞᆫ 사흘만 しんぼう 헴십센 영 허멍. 겐 그거 먹고 또 ᄒᆞᆫ 차례 헤다 줭 먹엉 허난 ᄒᆞᆫ 一週間、十日ぐらい住んだかも分からん. 경허난 배가 와시메 일로 영 영 헨 나옵센 헨 나가난 이제 그디서 배 탕 あの 하관 오란에, 시모노세끼 오란 들어오난 ᄒᆞᆫ 11時ぐらいや、昼.

대마도에서 배 탄 건 언제 타신디?

겐디 그디 오난 어느제 타신고 허민 ᄒᆞᆫ 一週間ぐらいからうちがここ来たのが2月の十日、ちょうど12日ぐらい.

대마도서 배 탄 거는 낮에 탄 거, 밤이 탄 거?

밤이. 밤이 탄 시모노세끼 낮이 들어완. 게난 사름덜은 영 멀리, 우터레 올라왕 ᄇᆞ레 보난 사람덜 みんな 이신디 これはどんなしておりるの、こんな 사름덜 みんな見てるのに. 낮이 오랑 탕탕 어디 なにが 궤기나 나깡 온 거 みたいに 탕탕 문 문 배 메고 헤 뒁. 문 톡허게 더껑 가멍 밤 7時まで なにも 거적허지 말아근에 이 안에서 しんぼう 헴십센. 사름덜 하난 이제 おりられへんから. 허멍 뱃사름은 문 ᄂᆞ려불언게.

고깃배라신디 낮에 그냥 들어강 밤이꺼지 잇어난 거?

そうそう. 겐 사름은 하난 아이덜은 막 울어간다 허멍 그디 오난 밤이영 경 낭에 오르멍 살아나난 어린 아이덜은 감기, かぜひいて 그냥. 막 지침 캉 캉 캉 캉. 그 아이 이디 오랑 죽어 불언. 신촌 아인디 질, 서오누이, 서오누이가 온디, 가이네가 서오누가 와시냐. 성허고 아시하고 서이 온디 즉은 아신 이디 오랑 죽어불언게. 아판. 아이가 ᄒᆞ꼼 병이 이신 아인디 막 지침 헤가난, 이 놈이 새끼가 지침허민 우리 다 죽이젠 헴나, 죽여 불켜 허멍 주먹으로 허난 경 두드리민 어떵 허느니게. 난 입 막으멍 이디 ᄌᆞ꼿디 앚앙 이거 무시거 먹엉 ᄂᆞ령 허멍.

그 아이는 멧 살이나 난 아이?

가이가 ᄒᆞᆫ 열 두설. 우리 아덜보단 ちょっと、おなじぐらいの子だったわ. 경허영 오랑 그디 성이영, 성이영 오라방인가, 가네 ᄉᆞ춘덜, ᄉᆞ춘덜 서오누이허고 가이허고 우리 집. 신촌서가 ᄒᆞᆫ ᄋᆞ섯가 ᄋᆞ덥가 탓어. 겐 가이도 오곡 오난 시모노세키 왕 ᄂᆞ리난 밤 7時ぐらい ᄂᆞ리난 이디 오렌 헨 졸졸 ᄃᆞᆯ앙, あの 여관에 ᄃᆞᆯ앙 간. 이젠 이디서 무시거 먹으렌. 간 보난 아니 신촌서 본 사름덜이 みんな そこにおるね. 하하하. 할망덜이영 하르방덜이영.

여관에?

으, 그 밥 먹는 디 그 식당 닮은 디가.

시모노세키서?

으, 시모노세키 완. 신촌서 셔난 사름덜이, 아이고 날ᄀᆞ라, 아이고 아주망도 이디 와 납디가. 아이고 잘 오랏수다게. 경허멍 그디 간 보난 경허권데. 그냥 그디덜 앚앙 허난 떡국 헹 주더라. 떡국 헹 주고 옷은 막 젖으난 젖은 거고 무시거고 문 데껴붑서 허난 지갑도 다 뎅겨 불고. 나 뚜럼 닮은 사름이, 人間がな ᄆᆞ음이 널르질 못 허난 아 이거 아졍 가민 あかん인가 허연 그냥 문 데껴불언. 지갑도 문 데껴불엉 그냥 왕 그디 허난 떡국 헹 주고 게나제나 고생헷젠. 경허멍 허난 우리 집이 아덜은 어머니, 무사, 곤밥 먹으레 일본 오지 말앙 좁썰에 보리썰 놩 밥 헹 조팝 먹엉 한국 살 걸 못 헤졋수다. 경허난 みんな 와 허게 笑うやんか.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허멍. 게난 일본 오랑, 우리영 ᄒᆞᆫ디 온 어른 우리 시누이ᄀᆞ라, 아이고 느네 오라방 아덜 어멍ᄀᆞ라 무사 곤밥 먹으레 일본 왐수과. 저 한국서 보리밥 조팝도 えいのに 경

허멍 골아라 허멍이. 이제도 골아 するね게. 경허멍 완 보난에 이제 ちょうど 아첨 그디 강 누난에 이젠 아, 죽어도 구둘 안에 다다미の 우에서 흔줌 장 줌을 자민 막 숱져지주게 막 그냥 なにや. 이 지냑은 이디서 누민 흔줌 자지켜. 아이고 えいな 思ったらうちの名前를 불러. 무사 불럼수겐 나가난, あなたらは服は持ってきたからあち行って風呂허영 着替허영 あの 그 때가 열 멧 시 차가 이시난에 열흔 시 차 타렌. 타민 あしたの朝ちょうど8時に鶴橋着くわゆって. 경허난 그땐 つるはしが 어디고 나가는 게 언제고 なんの話か 곧는 냥 들엇주게 이젠. 옷 아졍 보낸 사름이 잇엉, 우리 아는 어른 みせ 보젠 허난 사름 엇엉 못 아졍 오난 옷 보낸 아졍 왓젠. 이거 갈으입으센. 그거 입어아지고 이젠 옷은 문 벗어 데껴불고. 게난에 오난에 아칙인 또 중간에서 등록 잇노렌 헨에 이젠 ふうふが 오는디 대마도, 어멍 아방은 대마도로 오켄 헨 대마도에 よって、이제 애기만 ᄃ레 간 사름신디 부쪈 애길 둘안 시모노세키서 애긴 오난. 애긴 감기 걸령 열 ねつが 와랑와랑 허멍 막 엄마, 엄마 허멍. 한국말로 엄마, 엄마 허멍 울고. 아이고 이제 노릇을 어떵헹 좋코. 이제 게난 날 춪아온 아이광 가이광 삼촌 조케라. 헹 보난. 사둔님 이 애기 어떵허코양. 게메 에라 나가 안으마. 나 안앗たり 가이 안앗たり 경허멍 애긴 なにが冷たい 헌 거만 먹젠 허민 그디 ミカン 풀암시민, ミカンが 영 무끈 거 20円だったか、10円だったかそれが忘れてるね. 그거 상 이제 입더레 놓민 산도록 헌 맛에 쪽쪽 뿔아먹엉 또시 경 울곡 허멍 흔 목 허단 자난에 이젠 뒷날은 붉안. 8時ごろちょうどつるはい에 着いとったわ.

그 애기는 기차 안에서 경 헌 거?

기차 안에서 어멍이영 아방이영 등록 싯젠 헨 다른 딜로 오고 애기만 우리신더레 부쪄불언게 우리 둘레 간 사름이.

그럼 그 애기도 ᄀ찌 배 탕 온 애기?

배 탈 땐 그 아인 엇엇어. 경헌디 하관에서 만난. 경헌디 그 애기 둘아아졍.

그럼 하관에서 만날 때 ᄀ튼 배 안 탄 사름덜도 그디서 만난 거?

そうそう. ᄆ녀 온 사름덜토 잇고 완 가젠 なに 헌 사름덜도 잇고 いろいろ あったわそこ. いっぱいおったわ 게난. みんな 보난 조천 어른 신촌 어른 みんな 보난 아는 어른덜이라. 겐에 그 사름 애기 たのみ도 허켄 안 헤근에 그 사름 숱짝허게 빠져불언. 겐 이젠 그냥 그 아이 둘아아졍 그냥 오란. 오란 보난 시누이넨 みせ 봠선게. 시누이, 시누이 ᄉ춘 웨시아주방네 집이 들어오랏주. 그디 오란 허난 그디 어른도 아는 어른이난 날ᄀ라 아이구 잘 오랏구나만은 고생허주 살젠 허민이 허권데. 뭐 고생이사 허던 고생이난 흔 엇이 なに 헙니까만은 어떵사 헹 살아질 건가 오긴 왓수다. 잘왓저, 잘왓저 허멍 이제 밥을 먹으라 허권데. 오란 허는 걸 보난 가슴이 소빡헨 밥 먹을 생각도 엇은 거라. 게난 영 앚으난에 우리 시누이가 오란, 아니 봐낫주 시누이.

처음이주 시집온 후제. 시집올 때 엇어나난. 영 자질자질 허멍 선헌 사름이 오난. 영 ᄇᆞ레단 아이고 애기 ᄃᆞ령 앚으 거 보난 이디 앚은 것가 우리 오라방 각시 닮다.

그 시모노세키에서 소개해 준 사름이 츠루하시까지 다 데려다 준 거?

으, 그 어른덜은 ᄒᆞᆫ 배에 타진 안 헤도 ᄆᆞᆫ저 그디 완 앚안.

게민 인솔허는 사름이 이디 왕 시누이 만날 때까지 같이 와 준 거?

そうそう. 駅에 완 ᄂᆞ리난 겐 집이 오난 또 ᄎᆞᆺ아 왓어. 허난 돈은 엇이난 천천히 물크다. いいよ 허멍 그 어른덜은 그냥 가불언. 글후제덜 헹 물엇주만은.

돈 얼마나 물엇수과?

그때 돈 우리 親子が 七万썩 십ᄉᆞ만 원.

한국에서는 돈 안 주고?

으, 아니 줜. 七万썩, ᄒᆞᆫ 사름이 七万썩.

게니까 한국에서는 돈 안 허고?

으, 아니 물언.

기차탈 땐 멧 사름이나 타졋수과?

기차탈 땐 멧 사름 올라신디사. 우리 ᄃᆞᆯ레간 사름만 さき来たからそれからは 멧 사름산디 分からん. 겡헌디 그 ᄃᆞᆯ레간 아이영 ᄀᆞ치 배 탄, 첨 차 탄 오란 つるはしせ ᄂᆞ련 あさ8時だった. 겐 시누이가 오란 우리집이 걸렌 헨 가난 시누이 보는 みせ엔 게난 이딜, 나가 성님 이딜 ᄆᆞ녀 ᄃᆞ령 오지 말앙 시아주방네 집이 ᄃᆞ려다 줍서. 허난 시아주방네 집이 가도 이제 차 탄 みんな みせ 보레 가부난 집이 아무도 성도 엇일 거라. 엇어도 강 보주 허영 그디 간 보난 그디 사는 아이. 또 사는 아인 아는 아인 신촌 아이, 우리 동네 아이라. 그디 오란 부름씨 허는 아이. 우리 첨 아방네영 ᄒᆞᆫ디 간 가네 아방이 죽어부난 것도 이제 이디 なに 살레 완 우리 동서네 집을 온 셍이라. おばちゃん, 성님 나 누게 아니과. 허권데 느 무사 완디 허난 나 이디서 ᄃᆞᆯ레 가난 나 살레 왓수궤게. 나 이디서 부름씨 헴수다 허여. 가이영 그디 앚앙 말 ᄀᆞᆫ고 허노렌 허난 동세가 완. 시누이더레 막 なにがあるか 막 올레레 들어오멍 울르멍 들어와. 겐 가난 ᄂᆞᆷ덜이 みんな 날ᄀᆞ라 아이구 저거 말도 ᄀᆞᆯ을 충 몰른 거. 쫌쫌헹 강 그디 강 울러가민 저거 겁낭 어디 강 죽나. 날ᄀᆞ라 경허권데. 죽음이랑 말앙 아무충도 안 헙니다 경허멍.

동세 얼굴은 봐 난?

으? 동세도 시누이도 아이 봐낫주게. 처음으로, 처음으로 보는디 동세가 들어오멍, 아이고 그냥 勝手に덜 불러놔근에 自分, 뭐 채빌 물엇던지 말앗던지 自分 나 모른 덴. 경허멍 들어오는 거라. 아이구 영 영 헹 나 오랏수다 헨 인사허엿주. 집이 겐 집을 어떵헤시녠. 집은 영 영 헹 사돈님네 영 헷수다. わたしは任し 헹 영 나오난 모르쿠덴. 난 경허연, 경허난 완 보난 하르방은, 우리 동세 아방은 그디 오란 앚앗

어. 겐 하르방이 날 보난 아 사돈 잘 오라졋구나게. 곱게 오난 よかったわ. 게난 이디 살아 경허멍 글아둰. 게난 그 하르방은 이디 오랏단 한국 간 죽어분 셍이라. 아이고, それからや. 苦労するのは. 동서네 집이 가민 시누이네 집이 가근에 밥이랑도 잇건 조근조근 먹으렌 날ᄀᆞ라. 나만 속으로 밥이사 먹젠 허민 씹엉도 먹고 아멩이라도 헹 먹주, 경 조근조근 씹으렌ᄁᆞ장 글으멍 날 먹으렌 헵구나. 나만 속으로 세멍 허당 이디 오고. 암만 살아도 아니 뒘직헨 집을 빌엉 간디 일로 요만헌 디 애새끼가 눕곡 헨 그디 ᄒᆞᆫ 삼 년은 살아져실 거라 그디서. 게난 이제 동서네 집이 강 부름씨 헤 봣たり, 시누이네 집이 강 부름씨 헤 봣たり. 이젠 어디 방을 빌어주고. 이젠 어디 일을 ᄎᆞᆺ아사쿠덴. 어디 비니루, レインコート 허는 디. レインコート 허는 디가 우리 親戚 어른이 영 영 헌 디서 헴시난 그디 강 들어보카, 그디 강 헤 보젠 허권. 아무 일이라도 이거나 저거나 허여 보멍 어떵 일을 ᄎᆞᆺ으나 어떵 헙주게. 경허난 경허렌 헨. 요디 はり 허는 딘 간 보난 또 우리 신촌 아는 어른네 집이라. 다 みんな 아는 집이라. 아이고 오랏구나. 이디서 이거 헤지쿠과. 체얌은 나도양 이거 냄새에 막 머리 아팡 나 倒れる 허멍 제우 제우 베완 이제사 이거 ᄒᆞᆫ, ᄒᆞᆫ 낮전썩 이거 헤 봠수다. 허멍 허궨데. 아, 경 허우궨. 궂으나 좋으나 헤 봐사 헐 거주 어떵 헙니겐. 겐 보아 아젼. 내움새가 그냥, のり 냄새 원 숨도 못 쉉 영 돌아서불언. 아, 이거 영 냄새 나난 일을 헤질 건가. 경 안헤나 위장が よわいね. なにが気持悪いだけで 우왁 허게 올라오는 성질이난. や、これどうしよかな. 게난 이제 ビニル 허는 딜 가렌. ビニル 허는 딜 가난 아래ᄁᆞ장 오는 막 ながいやつ 허난 영 불르멍, 개는 것도 불르멍 영 영 개여사 허고 허난 것도 ᄒᆞᆫ 메칠 허난 지치고 그냥 이 발로 맨발에 허영, ᄋᆞ름이난 2월 낭 헤가난 ᄃᆞᆺ안. ᄒᆞᆫ 덜 넘어가난. 발 벗엉 발로 영 불르멍 헤 가난 이 발창이 다 벗어져불언. あのビニル난 きついね. 손도 그냥 문작문작 가죽이 벗고 あし도 문작문작 가죽이 벗엉. 아이고 이거 영.

비니루 어떵 허는 일?

비니루 미싱에서 헨, あの 우비. 우비 みたいに 멘드는 거. 우비 멘드는 거.

삼촌은 거기서 어떤 일을 헌 거라?

그거, 그거 미싱에서 ᄂᆞ려우민 그거 실밥 맞추왕 그레 톡톡 개영 노민 미싱에서가 누르뜨는 미싱에서 なに 헐 거주게.

아, 잘라 내려온 거를?

경 したぱり 헹 올리민.

맞춰 올리는 거?

으, 맞춰. あの 이 등으로 맞춰 허민 코찡허게 허영 허민 앞섭이영 톡 톡 헹 허민 ᄒᆞᆫ 발썩 영 영 헹 허민 꼭 꼭 누르뜨민 뒐 거주. 미싱에서가.

앞에 사름이 본 떵 보낸 걸?

そうそう. 흔 실밥 줭 ᄂ려우고, 두 실밥 줭 ᄂ려우고 허민 그거 이제 あわし 허멍 톡 톡 허게 올려 놓민 그거 이제 미싱에 앚은 사름은 ᄒ나썩 동기멍 그디서 헷주게. 경허멍 헹 흔 덜 허난 돈도, 그땐 돈도 얼마 뒈진 안 헷주만은.

얼마 받아진 거 같우과?

얼말 받아신디 그때 뭐 이제 잊어불어서 건. 돈도 얼마 뒈도 안 허연 흔 덜 バイト ᄒ꼼 시켜줍센 노는 거 なにやから 헤 보쿠덴 헨. 게난 그땐 아덜이 잇어부난 아덜이디서 공부허던 거 그냥 둘앙 가난 그걸 어떵 공부시키던지 어떵 헐거궨 허난 시누이 서방이 건국을 둘아간.

여기 오자마자. 2월 10일 경에 여기 오난 학교 데려간 거 언제쯤?

게난 학굔 가난 직접 그 둘도 안 놀앙 그냥 一週間 ᄒ꼼 쉬렌 헹 쉬영 건국ᄒᆨ골 둘아가난. 그땐 한국서 온 아이덜이 하난 그디 가믄 받아줜게. 허난 가난 허렌은 헌디. 아인 이제 이디선 우리 글로 허단 저디 가난 이제 글이 ᄠ나 するやろう. 영 영 허렌 허믄 허기사 허주만은 가고 오는 것이 とおいし 차 탄 덴노지로, 덴노지 넘엉 막 멀어부난 가는 것도 なにやし みんな 몰른 아이야시. 이젠 아이가 죽을 지경이라. 나도 그때 흔 번 가왓주. 흔 번 ᄀ찌 가완 아는 어른 선생이 잇언, 조천 어른이 잇언. 영 영 허난 나 영 헌 아덜이우덴 간 허난. 아, 경헨 옵디겐. 인사 허영 온디.

선생 중에 아는 사람?

그 선생은 아는 사름이난 우리 집이 아덜을 아덜이엔 허영 영 허라 정 허라 헨 헌디 어떵헨 이쪽광 저쪽이 맞서지 안 헌 딜 아니. 한국서 경헌 어른덜이 총련 なにで みんな 오는 사름덜은. 이디 오민 みんな 심어 저디 보내불어したやんか. 가젠 막덜 와당와당 헐 때라. 겐디 아덜이 학굘 아니 간게. ᄂ시 아니 강 막 경 울곡. 가멍 울곡 오멍 울곡. 벤또 쌍 가민 그냥 아졍 오곡 허멍 이젠 헐 수 엇이 앚앙, 애새끼가 앚앙 울엄시난 이디 저.

건국 몇 학년으로 들어가게 헷수과?

건국, 이디 오란 허난 가이가 ᄉᆞᄒᆨ년, 오ᄒᆨ년ᄁᆞ장 들어가나난 삼ᄒᆨ년으로 들어가져실 거라. 들어간 뭐 허는 아덜은 모르는 아이난. 느 어디서 왓나. 나 한국서 왓나, 이것도 모르나, 경허멍 なに 헨 허고 허난. 어무니 야 야 여 허고 야 야 여 허고. 게믄 야 야 여 허믄 어떵 허느니게. 그디しか 갈 디가 ないし게. 갈 디가 엇이녜게. 경허멍 허노렌 허난 첨 그 저 ○○○ 조케가 이디 오난 성님 허건. 무사 게게 영 영 성님 울멍 쓸멍 경허지 말앙 총련 がっこう엔 말앙 조선이찌바에 がっこう 잇수게. ᄇᆞ딘 디 놉서. 겐 들어보난 것도 맞다이. 어떵허코. 시아주방네 뭣덜 헐 거여만은. 시아주방이여 시누이라도 みんな 민단 やたんや. 게난 아이구 어떵허코이 아덜 ᄀ라 굴으난. 으, ちかくだったらいいわゆって. 겐 이제 그디 강 놩 영 영 허고 영

영 허연 허단 허단 버쳔 놧수다 허난. 勝手に 이제 끗어단 놧젠. 이딜 아니 노민 어딜 놉니겐게. 이디 놩 中学校ぐらい 낭 自分で ᄒᆞ꼼 알앙 글도 알아가고 질도 알앙 말도 알아가고 허건 다른 디 가게 허쿠덴. 게난 勝手に 허렌. それからや 뭐 헤 가는 게. 겐 아인 그디 노미 그 ᄌᆞᄁᆞ디서 일은 허난 그디서 일 허단 なに 허민 나왕 봄도 허고. あ、これで 임신 えいわとおもって 그냥 その子そこで 소ᄒᆞ교 ᄆᆞ쳣주. 소ᄒᆞ교 ᄆᆞ꽝 中学校も あの 다시마 간. 高校 가젠 허난 말도 잘 못 허고 なに 헌 거엔 헨 싸완에 옷도 다 찢어불고 허난, 나 あんながっこう行きへんわゆって 아니 간게. 아니 간 일허켄. 경허난 이제 아니 간. 아이고 게민 이제 어떵헐 것고 허난. 가젠 허민 高校 가젠 허믄 이디 이것도 어디, 조선学校 가젠 허나 어디 가도 건국에 가나 또 그딜 가나 어떵 헤살 건디 어떵헐것고게 경허멍 허난. 원 とにかく 일허쿠덴. 일헤사주 돈 엇이민 あかん이난 일을 허쿠다헨. 게민 일허렌 허연 그 ちかく서 일허연. 이제 おちつく 헨 일도 허고 경 정 허는디 난 첨 나 혼자만 이레 저레 허영 일도 허고 베끗디서 허단 이제 ᄋᆞᆨ아부난, ᄋᆞᆨ앙 自分で 허난 뭐. 그땐 첨 友だち도 つくし 온 아이덜도 하난 서로 なに 허고. 나도 나만 이젠 어디 방 빌언 가이 허고 나허고 밥은 ᄒᆞᆫ디 먹곡 허단. 글로 그레 죽 살아오는 게 とし, 이젠 とし 경헤 가난 だんだん 스물이 넘어가지, 넘어가난 우리 샛시누이가 한국서 오란 어디 지 아는 사름 어디 싯젠 헨 새각신 구헤영 허난 새각신 톡허게 둘라부트난 이젠 잔친 헷주. 잔치 허난, 잔치 허젠 헌디 저건 완 경 정 속 상허멍 일허고 무시거 헌 게 아이가 그냥 병이 난. 아덜이. 병이 난 그냥 막 어머니 아판 난 일 못 허크라. 어떵헤 좋코. 어딜 경 아프니 허난. 우리가 온 후제 아방이영 할망이영 우리 ちかく 밧디 묻어 뒁 왓주게. 묻은디, 겐 어디 강 들으민 할망이영 하르방이영, 저 아방이영 ** 헴실 거우다. 글로 헹 빌어줍서. 빌어 봣たり 굿 헤 봣たり いろいろしたわ. 겨난 글후제, 우리가 온 후제 우리 동세네영 시아주방이영 한국 오랑 어멍이영 아시영 어디 강 밧을, 산터 봥 그 어른 아방이 정시やね. 정시난 산터 봥 강.

그 어른 아방이엔 허민 누굴 말허는 거?

동세, 동세 아방. 겨난 이젠 간 산, 산은 헤 뒁 오고렌 헌디 오난 시누이, 족은시누이 신 디서 전화 옴을 비 오라난 간 보난 어멍이영 오라방이영 묻은 딘, 놈덜이 아이고 이 ○○어멍 묻은 딘 곡뒤꺼장 물이 いっぱい여, いっぱい 허연 まさか思って 行ってみたら 뭐 어멍이영 묻은 디 물이 봉봉허게 영 ᄒᆞ꼼 영 ᄌᆞᄁᆞ디 묻은 디 봉봉허게, 물이 봉봉헷어. 겐 이딜 전활허민 어떵허느니게. 이디서게 어떵 허느니? 견디 아인 아판 그냥 ᄉᆞ못 죽어가. 어디가 아프닌 허민 머리 아판, 머리 아판. 이디 아파, 이디 아파. 헨 이디 강 첨 점 헤 본다, 무시거 헌다 헤도 헐 수 엇고. 어디 강 침 맞으젠 허난 막 やせてしもったから 침 주는 사름이 느 침 들어갈 なにが 엇덴. 하도 やせる 헤부난. 게견 어떵헐 것과? 경허멍 헨 ᄒᆞᆫ 삼 년 경 정 뒹굴단 보난 아인

もう二十五すぎてしもったんや. 경헨 이제 자인 허난 어디 강 저 **렌 헌디 강 누게가 영영 헌 디 강 들어보렌. 그디 강 들어보민 그 점쟁인 맞넨. 그 점쟁인 맞건 그대로 헹 강 또시 천리를 허나 なんとか 허렌. 경허영 또 게믄 어떵허리 헨 춪앙 가난 그 할망이 ᄀᆞ만이 앚안 나 얼굴더레 ᄇᆞ리단 아이고 かわいそうに. 누게가 간 천리 헤 왓수과? 허관데. 영 영 허고 영 영 헹 시아주방이 간 헤 왓수다 허난. 이 어른은 터 보는 사름은 어떵헌 정시 빌어낫수과 허권데, 난 건 모르쿠다만은 이디 영 영 헌 어른이 정실 거우다. 나 경 ᄀᆞᆯ으난, 아이고, 아기 그거 ᄒᆞ나라도 엇어와 불젠 막 ᄆᆞ음을 먹엉 이 천리를 헤시난 그냥 내불민 이제 헤도 늦엇수다. 야이 아방은 머리가 ᄒᆞᆫ착 막 내 끗엉 ᄃᆞᆯ아나불어시난 なに 안 허민, 경 안 허민 신체가 엇이민 끗어불 거난. 제기 강 천리헙서. 겐 아이고 이놈을 것을 어떵헨 좋을 거고. 이젠 첨 동서도 ᄆᆞ섭고 시아주방도 ᄆᆞ서왕 억울헌 거라. 시누이도 가난 난 아니 가크라. 아시 가, 아시 가. 지 가, 지 가 헨. 겐 しやないから 나가 갓주게.

한국에?

いや, 여기서. 우린 가진 못 허주게. 시아주방신디 강 ᄉᆞ실이 영 영 헨 아인 죽게 뒈고 안 허민 아인 죽으켄 ᄀᆞᆫ고 헴수덴 허난 천리 강 따시 강 허쿠덴 허난. 동세 그냥 もしか 천리 헹 わるいなにでもあったらな 우린 아금니로 씹어 먹어불켄 막 욕을 허는 거라. 걸랑 씹어 먹으나 구월 먹으나 아멩이나 헙센. ᄀᆞᆯ은 대로 ᄒᆞᆫ 번 헤 봉 살디 말디 모르크덴 난 경 ᄀᆞᆯ앙 경 그냥 와 불엇주. 게난 이제 시누이가 족은시누이가, 샛시누이도 아직 등록 엇은 때난 족은시누이가 지가 강 오켄 헨 어멍 아방신디, 이디 왕 바느질 허난 호상옷 헤 놓고 이젠 성제가 돈, 그땐 돈으로 이십오만 원인가 얼마니 내 놔근에 이제 성제가 나완. 게난 족은시누이가 오란 ᄒᆞᆫ 一週間 살안 가실 거라.

제주도에?

으, 제주 간 보난 그디 샛시누이 아덜이 일본 오랑 가 가건데, 그 하르방신디 강 ᄀᆞᆫ지 말앙 조천 강 우리 아바지ᄀᆞ라 ᄀᆞᆯ앙 정실 ᄃᆞ령강 그딜 보렌 허난. 이젠 문 보냇주 게난 가이가 곧 전화가 그 뒷날가 오란. 어떵헷어니 허난 나가 강 사돈님신디 강 ᄀᆞᆯ앙 이것사 무신 말고 허연 ᄃᆞᆯ앙 강, 정시 ᄃᆞᆯ앙, 정시 두 개 ᄃᆞᆯ앙 간 보난 뭐 제기 갈레죽 가져 오렌 이거 제기 파지 안 허민 이디 산 이거 다 비 오민 물려나불엇젠. 경허멍 허난.

게난 그 산이 시어멍 산, 시아방 산?

시어멍とうちたんなさん이야. 시아방은 뭐 옛날 죽어부난 다른 디 묻고 겨난 이젠 그냥 그디서 판 보난 삼촌은 みぎがわのあたま도 ᄒᆞᆫ착 엇입디덴 헙디다 경헨게. 경헤시녠. 경허난 영 あだま가 아프다, 아프다 영 헤나실 거엔. 그냥 이젠 경허난 시누이가 간 판 봔 정실 ᄃᆞ랑 가난, 점쟁이가 날ᄀᆞ라 허는 말이, 이 안에 산턴 보안 놔 뒀수덴. 이 하르방이 이 안터레 산터 좋은 디로 봉 놔 둬도, 이딜 안 헹, 막 비

오민 비 온냥 ᄂᆞ려강 아무도 손지덜 하도 하난, 똘에 하난 당신 똘만 생각허연 이딘 죽어불 걸로 헨 이디 산을 썻수덴. 게난 나가 왕 경 ᄀᆞᆯ앗주게. 야, 영 영 허고 영 영 허덴 ᄀᆞᆯ읍디덴 허난 막 그냥 아가리덜 허멍. 겐 시누이가 간 허난 어떵헙디겐 허난. ちょうど 아졍 강 궹이로 판, 신체 판에 토롱 헤 뒁 그 안에서 산털 본 셍이라. 게난 그 안에서 그 안에 ᄌᆞᆺ디 산터를 봥 어머이영 오라방이영 ᄒᆞᆫ디 강 묻엇젠. 견디 이번 산턴 권찮을 거우덴. 쓰는 정시가 허는 말이.

그냥 그 밧 안에서?

으, 그 밧 안에서な. 큰 그 내분 밧 닮은 디 엇나, 소낭밧 닮은 디 헤도 건 곶 닮은 디 그냥 밧은 임제가 잇은 밧이주만은 너른 디난게 그 안에서 턴 봔 놔 뒀젠 허난 그 ᄌᆞᆺ디서 턴 본 셍이라. 이디보다 더 존 디 가난 제기 안 허믄 들어가지 못 헐 디렌 ゆったわ. 제기 허믄 이 밧을 あたるかしらんけど 이 밧을 제기 안 허믄 터도 あたる 안 헐 거우덴. 게난 제기 헙센. 경허고 아이도 바쁘우덴. 제기 안 허민 이 아이 어디 빙신이 뒈난 なにが 헙니다양. 허난 그냥 시누이 ᄃᆞᆯ아강 첨 산터 보난 영 허고 정 허고 헷젠. 경헌 시누이가 오란 날ᄀᆞ라 ᄀᆞᆯ안. 게난 빌고 무시거 허단, 시누이 간 오난 그거 저것에 지치고, 돈도 지치고 사름도 지치고 그냥 내 불엇주. 내부단 ᄎᆞᄎᆞ 좋아불언게. 경헌디 자이가 ᄒᆞ꼼 허믄 어무니 나 머리가 아판, 나 이 착 머리가 그 때에 아파난 후로 たまに しんどくなったら いたいね、いたいね 허민 경허녠. 경허멍 이제 약도 헤 봣타 무시거 헌 디 ことし、ことしじゃないわ. 去年、おととし、4年目になってるわ. 아이가 きゅうにたおれる 허연.

몇 살인디?

우리집 큰 아덜이 저디 あの 집 터 산 짓으멍 무시거 허멍 しんどい 허고 무시거 허난 나신더렌 곧지 안 허고 하이고. たおれる 허연 병원에 갓주. 나 간 ᄒᆞᆫ 번 보도 안 허고 우리 메누리ᄀᆞ라 영 영 허영 아이고 나 병원에 ᄃᆞ라가 도라. 어멍 가도 ᄎᆞᆺ지 못 허여, 오지 말아. 강 막 なに するし 어멍 아니 가도 좋아. たいじょうぶや、元気やわ 허멍 ᄂᆞ시 아니 ᄀᆞᆯ아줜. 아니 ᄀᆞᆯ아주민 말라, 죽어도 しやない 헨 내불엇주, 내부난. 허난 ᄒᆞ쏠 낫으난 가난 앚으난 말을 못 ᄀᆞᆯ으난 족은똘이영 ᄌᆞᆺ디 앚으난 영 영 허난 なんでおとうさん、なんで 허난 말 곧지 못 허켄. 뇌졸중 救急車 불렁 そのまま 시껑 가난 早かったからよかったな言って先生が. だいじょうぶや, あんたな 멩질엉 제기 죽어져도 죽어져도 죽어지지 안 헌덴. あんた一番 동생덜보단. 나가 責任 허켄. だいじょうぶ엔. 견디게 ᄒᆞᆫ 번 허영 ᄒᆞ꼼 낫으난 또시 집이 오랑허난 또 たおれる 헨 또 시꺼간. 뭐 세 번 たおれたね. 이번은 あかん아주. 나 생각으로만. 아이구, 이제이 이제 애기덜토 서너개 싯고 손지, 아덜에 손진 못 봔. 아덜 하나 신 거 まだ 풀지 안 헷주게. 아이 풀앗주만은 아덜, 메누리가 알앙 허주. 나 메누리ᄀᆞ라 무시거 ᄀᆞᆯ을 なにも ないし. 돈이라도 시민 이걸로 허렌 헨 주주만은 돈도 엇고 헐 수

엇주게 ぇ헨 첨 なに 허난. 전화 오란, 어머니 だいじょうぶや. 전화가 왓건데, 아, 경허녠. 나 가지 안 허켜. 어무니 아니 와도 えいね. 왕 봥 이거 저거 헤가민 속상허고 아니 와도 좋수다 허연. 이젠 또시 또 たおれる 허연. 아, 이번은 あかん이주 헨 나냥으로 첮앙 그딜 걸언 간. 一日 걸언 간. 전화 허멍, 전화 허멍 헨 첮앙 가도 어디 병원에서 어디 가불언 엇언. 만나지 못 헹 그냥 왓주. 만나지 못 헹 그냥 이거. 경허영 허난 이거 우리 족은 아덜이 전화 헤영 죽을 때 죽어도 어멍 얼굴 베와불렌게. 어멍은, 어멍이 ᄆᆞ녀 죽을 거엔. 죽으민 뭐 죽엉 흠치 살지 안 헤영 죽어부는 건 좋주만은 어멍이 죽, 죽, 죽도록 어멍이 그냥 苦労 헴시메 강 전활, 조케ᄀᆞ라 아바지 눅지 안 헹 일어낭 차 타질 정도민 차 탕 오랑 어멍, 할마니 뵈왕 가렌. 게난 その 밤이 시꺼 왓당 시꺼 가. 손지가 차에 시껑. 할마님 아버지 ᄃᆞ랑 가쿠다. 겐 오렌. 온 거 보난 막 やせて 무시거 먹으렌 허난 아무 것도 못 먹엄수다. ユーヒー 헤 줍센. 이제 ユーヒー 헨 ユーヒー 이제 서너직 먹어아장 가멍 어머님 걱정 말민 ま 죽어도 なにやから 어머님 걱정 맙센. 그냥 4年目やね. 4年目디 올린 おしょがつ에 오란 허난 어머님 와시메 걱정 맙센. 이젠 だいじょうぶ우뎬. 경헤도 걷지도 못 허고, 앚아도 じっと 앚으민 あかん이난 걸으나 なにが 영 문직아도 무시거 헐 것도 ないし. 게난 걷고 그자 일어나고 이제 이레 저레 강 걸엉 놈광 말 곧고. 게난 じっと したらあかんって. 게도 ことしはましみたいや. 흔덜에 흔 번 전화 와するね.

어디 살암수과?

저 단바엔 헌 디 살앙 막 멀언게. 요번이도 아, 아니 왐구나. 나가 전화허난 나오지 안 허연. 아, 어디 갓구나 헤신디 すぐ 전화 완. 어머니 전화 した. 응, 전화헷저 어떵헴사. いましんどいから寝てしもって電話 소리 들엉 깨낫수뎬. 경허멍 전화와선게. だいじょぶか 이젠 何でも食べるし、あんまり 벳 난 디도, 벳도 맞앙 걷지도 말라, 그냥 앚앙 なにも 허지 말앙 걸엉, 누워도 오래 눕지 말라. なにしてるから 이제 먹을 것도 何でもたべるから おかあちゃん 걱정 맙센. 경허녠 이거 아덜 봐난디, 전화로만 말 골앙 이거 흔 댓 둘 뒈연.

아이구 게난 보고 싶엄구나.

보고 싶엉 たまに 전화 허믄, 나 전화 안 헤도 어무니 전화헴수다. 전화헤 보난 엇언게 허멍 전화 와するね. 경허멍 헨 게 이거 今まで 살안에 영 살아젼게.

그 아덜에 손지는?

아덜 하나 똘 두 개, 서오누이. 똘은 성제라도 우에난 (손손지가) 아덜만 네 개. 큰똘도 두 개, 족은똘도 두 개 헤도 족은똘은 어디, 족은 사윈 총련계みたいな 헤도, 아이가 이 말 골아도 줌줌 저 말 골아도 줌줌. 그냥 대답이나 허고. 궂은 말이고 존 말이고 원 곧질 안 헴주게. 느 어디 강 일헴디? 허난 나 銀行에 잇수다. 銀行에서 무시거 헴디? 총련 銀行우다. 할마님 어디 강 곧지 맙서양. 게게 아니 골으켜게. 게도

銀行덜은 なに 허난 통과가 뒌 셍이라. 게도 지집빠이가 우리 손지가 문첨 저 아이가 착헌 아이난 애기 두 개 둘아도 ようちえん 강 선생 허고 小学校 강 배와 주고.

아덜 손지는 맨 밑에?

밑에라도 이제 서른댓 넘어실 거라 이제. 장갈 보내젠 헤도 なかなか 새각시 ならんで. 女の子があんまり発達してるからな. 겐 そのまま 잇고. 나도 이제 영 영 오랑이거, 오라방 각시 헤다 둰 오랑 어멍, 아방, 할마님 다 죽어불엉 그것베낀 엇인디 장게 가난, 어멍도 아방도 엇인디 언니 와, 와 아시덜 경 하도 헤권데 이제 경 아니 곧아도 가켜게. 무사 경 헴신헨 그때 간 오란 글후제 애기 낳수다 헨 간 보난 똘 나선게 똘 성제 난 줄은 나가 알 주게. 아는 디 이거 오란 二十五年目や. 글후제 한 국 훈 번도 못 가완.

여기 왕 한 번도 못 가완?

いや, 글후제 오래비 장게 갈 때도 가오고 멧 번 가오긴 헷주만은 등록헨な. 글후제 애기 날 때 간 오고, 오래비 간 풀안 오란 それから 못 간 二十五年. 이제 그때 난 아이가 いま 二十一と思うね.

아니, 여기서 고향방문단 모집헙니게?

경허영 가는 사름도 잇주게. 넘은해도 경헌 사름 잇엉 가컨 가렌 헤도 아휴. 돈이나 시민 여러날 살앙 なに 허주만은 얼른 강 오는 건. 아는 姉さん이 간 오란. 간 오란 아이고 돈 아니 들언 아무것도 아니 들어라. 느 가라, 가라, 날ᄀᆞ라 경허멍 허연게. 경 허쿠다만은 그냥이사 가집니까. 영 허멍 정 허멍 ふたりが 앚앙 곧으멍 헤신디 그 어른은 오난 호 허게 아판 老人홈에 들어갓주게. 이디 기숙이 姉さん 아이고 영 영 허고 영 영 헹 갓수궤게, 姉さん ᄒᆞ꼼 싯단, 그 사름이 완 허난 今は ちょっと止まってるけど 가젠 허민 6月ごろ なにか話があるはずですわとゆったから 그때랑 갑서 허권데. 아이구 게메양 돈도 엇수다만은 강 얼굴이라도 봥 이젠 따시 안 오켄 헨 오랑 죽으나 헤사주. 겐 이제 아시덜토, 첨 나 똘みたいな 아시덜이야. 시집 간 이제 이녁 살만이 사난, 언니 옛날ᄀᆞ추룩 못 젼디게 허지 안 헐 거난 옵서게 옵서 허권데. 느네덜 무사 경 곧암시게 나가 무시걸 헤단 줘졈시냐, 가도 뭐 주도 못 허고 경 정. 七十までは仕事したけど 이젠 七十 넘엉가난 ちょっと、ここがちょっと弱いね. 弱いから 이젠 일도 못 허고 허난 난 첨 くに 아니믄 살질 못 허주게. くにのもらってるから住んでるの. それもらってからそれ 의지で 헴주, 누게 단돈 천 원 줄 사름도 엇고 경허영 허난. ま, 채비만 허민 なんとか 강 옵니다, 강 옵니다 허난 경허켄 헨 약속은 헨 잇주게. 약속은 헨 잇주만은 가질티 말티. 경허단 허난 이젠, 이젠 전화도 아니 와. 아시덜이영.

어디 사는지는 알아지고?

조천, 조천.

게도 전화번호는 아는 거 아니예?

전화번호도 그때 간 때 썬 온 전화번호な, 전화 허난 그 전화번호 안 썸젠.

우리 어머니, 아바지허고 할마님, 하르바님だけやから 산은 ちょっと 멀어するね. 우리 옛날 할마님이 눈미, 눈미엔 헌 딘 あのあんたが住んでいるどこ 동쪽이야ね, 동남쪽 なるね. 경헤도 산을 찾앙 가젠 허민 멀주게. 멀어 허난 이젠 조천 오라부난 그디 가젠 허민 막 멀주게. 허난 가지 못 허믄, うちら 이디 왕 살멍 절간 믿어부난 절간도 한국 절간と一緒や 부처님だから. 간 ᄒᆞ룻밤 장 그디 싯단 그냥 와불주. 어디 이디 저디. 우리 아바지네가 ᄉᆞ춘덜이 넷, 다섯, ᄋᆞ섯 성제에 나가 一番多い女の子のくせに.

게민 아버지가 큰아덜이랏수과?

아니, 우리 아버진 젤 족은아덜에 손지고 우리 아버진 애기가 엇엉 나뿐이고 우리 아버지 ᄉᆞ춘덜은 아덜이 싯도 잇고, 넷도 잇고, 다섯도 잇고 허난 今 삼촌덜, 오춘덜ものすごくおおいね. 게난 어느 사름이랑 보곡 어느 사름이랑 안 보고. 게난 나 전이 가도 영 영 헹 나 와시메 우리 오래비ᄀᆞ라 아의덜 보고정도 헤고, 손 바래고 주지도 못 허믄 나도 속상허고 어떵허니 허난. 누님 걱정 맙서 헨. 성내 돌아강 영 영 저녁덜 먹엉 가게 허권데. 옵서 영 영 헨 밥 먹으레 감수다 허난 ᄆᆞᆫ 오라 するね. 경헨 강 돈도 ᄒᆞᆫ 푼 못 주고 나 영 헹 감수다. 아, 누님보단 우리가 잘 살암수게. 걱정 맙서. 하하. 경헨 그때 ᄒᆞᆫ 번 가나난 글후젠 가도 두 번차에 간 애기 난 후젠 봐지고 헨 와도 그냥 오난 이번도 가도 만나지도 안 헐 거. 만나젠 헤도 나 自信がない. 게난 ま、ᄉᆞ춘덜도 とし난 ᄆᆞᆫ 죽어불언. 아이덜 손지덜이영 なに 허민 눈 베롱베롱헌 그것덜 닮은 천 원썩이라도 줘사주 못 주민 나 かおがないから 아이 봉 그냥 와 불주. 아이고 경헤도 일본서 갓젠 허믄. 아이구, 일본 강 살앙 무시거 헹 왓어 안 허느냐. 겨난 경 생각헹 이제 잇이난 今まで 이거, 옛날말 ᄀᆞᆯ을 말도 하고 들을 말도 핫주만은 ᄀᆞᆯ아가난 속엣말 다 ᄀᆞᆯ아졈저. 아이고.

게민 밀항 올 때 부산서 배 탕 시간은 얼마나 걸련?

부산서 배 타난 멧 시간 안 걸렷주. 밤 ᄒᆞᆫ 열 신가 아홉 시ぐらい 타난에 ᄒᆞᆫ 두어시간 탄 대마도 완게. ちかい. 겐 대마도 왕 ᄒᆞᆫ 一週間以上 살앗주게. 겨난 첨 밥, 보리쏠에 たくわん, 밥 헤당 주먹밥 헤 주민 그거 얻어 먹으멍 ᄒᆞᆫ 一週間 더 살안 이제.

게민 쏠덜은 챙경 가난 거?

아니, 그디 연락허는 사름덜이 일본 사름덜이 ᄆᆞᆫ 헹 지게짐으로 지여 왓어라게. 게난 영 영 헹 사름이 어느 숫막에 어떵 헌 사름덜이 멧 사름 시난 그디 ᄆᆞᆫ 밥을 헤가렌 헹 대마도서 ᄆᆞᆫ 시킨 거 아니. 겡헹 그디서 허멍 ᄆᆞᆫ 보낸 거 아니. 게난 그디 완, 첨 오란 그디 대마도로 헹 이디 오란, 기차 탄 つるはし 완 ᄂᆞ려 이디 온 게 이거 멧 해라. 하하. 五十何年.

예, 육십 년 다 뒛수다. 육십 년 다 뒈 감수다.

겨난な. 게난 아이고 체얌 올 땐 아이고 とし라고 하여 가민 제기 늙어라도 불주만 무사 영 헴신고 したね. とし라도 셔시민 とし라도 하영 가불언 としだから何허주만은 어떵 헹 이 세상을 살 건고. 경허단 보난 중간에 やっぱりな なに 헨 살아가난 아, 이젠 이디서 살아사 헐 거로구나 헨. 한국을 가주 허믄 한국은 이제 타관이 뒈영 가도 무시거 헹 가지도 못 허고 동기간이 셩 무시거 헤덴 헤도 오라방 각신 알아먹엉 姉さん何もせへんでもえいよ. 걱정 말앙양, 걱정 말앙 영 오고, 헤도 やっぱり 놈이 동싱やろう. 왕 성도 죽어 불고 왕 식게 멩질 헤 주고 경헌 사름 시누이노렌 헤영 강 첨, 술ᄇᆞ롯이 말도 흔 번 골아보지 못 허고 이녁 동생은 나보단 아래라. 나가이 이 팔자가 더러운 사름으로な 우리 어멍이 날보단 아래やね. 그 우리 동생덜 나 준 어멍이. 겐 그 어멍을 둘아단, 아바지도 아무 것도 엇인디 우리 아바지 한국에 살 땐 밧도 잇고 헌디, 일본 오멍 일본 첨 나와불기 전에 조천 やとがい 헨 각시 엇이난, 첨 애기 엇이난 애기 날 각시 얻어켄 허멍 오멍 문 쉐물이고 무시거 풀아먹엉 なにも 엇주. 경헌디 그 어멍은 ᄃᆞ라오난 애기가 싯젠 헤연, 나가 일본더레 나오젠 허난 무신 아방, 어멍은 젊으난 살고 안 살고 べつにかまへんけど 할마님 놔 둰 오는 게 경 죄가 짚언. 아이구 할마님을 어떵허민 좋고. 이젠 나 살아뎅기단 이불이영 나 입던 거영 다 주멍 이거 입으멍 살암십센. 나 강 すぐ 펜지허쿠덴 헨 나오난 펜지 헤짐이랑 말앙. 이녁 살젠 허난な. 그 동생덜 다 컹 나가 돈 ᄒᆞ꼼 허영, 그때 돈으로 이디 돈 그거 아졍 간 허난 돈 백만 원ぐらい 뒈신가 말아신가. 그 허난 궨당덜은 아이고 저 사름 똘따문에 막 잘 살암젠 허멍 그때 헷젠덜 헨게 만은. 그걸로 어떵 어떵 헹 아기덜 부쩐 살아가는 게 할마님도 죽엉 묻어불고 아바지도 죽어불고. 아이고, 할마님 죽엉, 우리 할마님이なに 헌 어른인 셍이라. 할마님이 죽어부난 그 다음에 어멍도 죽어 불고 아바지도 죽어 불고. 흔 삼 년에 다 죽어불언, 할망이영 서이새끼가.

삼촌보다 젊은 어멍도 죽언?

게메 어멍이 아바지보단 ᄆᆞ녀 죽언. 견디 그때 난 흔 돌베끼 안 뒌 똘이 이제 서른 멧 나실 거라.

아니지 더 낫지. 육십 뒛지.

아, 경 뒈실 거라. 나 간 때 二十何さいやゆったわ、まえ. 게난 そんななってるわ. 견디 그것가 풀풀 기연 허난 어멍 죽어불고 아방도 엇고 아무도 엇이난 우리 큰아버지똘 족은년이엔 헌 게 신디, 그디 똘 엇이난 나 둘아가켄 허난 やっぱり 이녁 동생, 이녁 어멍이 허주. 놈의 동생은 あかんね. 가난 그것도 ᄒᆞ꼼 성질이 베설이 페락페락 헌 거주. 허난 말 안 들엉 무시거엔 골으난 울멍 무시거 허난 우리 큰오래비가 간 우리 동생덜 막 굶으나 먹으나 다 흔디 살단 죽어도 좋으쿠덴 헨 둘아와불엇

젠. 경허난 나 착허덴 헷주, 잘 헷젠. やっぱり 놈의 집은 살젠 허믄 옥앙 눈치가 알아사주, 눈치 몰르민 놈의 집은 못 산다. 놈의 집도, 동생도 놈의 집 다름 없덴 나 경 골으난 우리 아시, 아구야 저거 어멍이영 헹 지 ᄆᆞ음냥으로 헤난 거난 안 뒈큽디다. 뒈고 안 뒈고 느도 애기 아이 키와 봔댜? 애기 다 경허는 거여게. 난 경 골으멍 헤신디. 이제 그것가 제일 먼저 시집을 간. 아덜 성제 낭 둘앙 왓어 나 간 때에. 하하. 잔치 먹으레 간 때.

누구 잔치 먹으레 갈 때?

오래비 풀 때 나가 갓주게. 간 보난 나신디 오랑, 나신디 야개기 톡 둘아지멍. 언니 난 시집 갓어.

겐 삼촌이 밀항 올 때 그 배멀미 허거나 하지는 않아?

そのときは 멀미ᄉᆞᆫ헤ᄂᆞᆫ가ᄀᆞᆺ따. ま, 정신이 그레만 강 정신이, 신경이 쓰난 멀미허고 무시거 허고 なかった.

게난 부산에서 배 탄 올 때는 쪼금만 배 갑판 위에.

으, 게도 그때 長いことやってない. ᄒᆞᆫ 二十分ぐらいか、三十分ぐらいから 멀미 헐 여유가 엇엇주게.

경 헹 큰배 갈아탓을 때?

큰배 밑에 배창에 들어강 하도 아이덜이 동무럽에 먼 앚고 어깨에 둘아지고 헤 놓난 멀미사 헤신디 어떵사 헤신디 わからん. 겐디 ᄒᆞᆫ 아이, 욜로 요만인 헌 배창에게 二十一人 담앙 그 아이덜 준준헌 거난 동무럽에덜 앚지멍 어떵 어떵덜 헷주만은. 겐 허난 멀미 안 헌디. 멀미は ようするね. 동경도 이제 おまいり 가젠 허민 아는 동생 ねえさんよいくすり用意しましたよ 골으멍.

일본 처음 왕 제주도랑 일본이랑 뭐가 틀립디까?

それは 틀리주게. 살아가는 것이 みんな 틀리주게. 경허도 そのときは 한국서 온 사름이 하도 하난 말 골아도, 질레서 만낭 말 골아보민 먼 한국사름이난な. それがわからんかったわ. あ、こちは 이 ᄉᆞ방 넘어사민 ま, 일본 사름이 おおいけど 일본 사름도 먼 조선 사름 뒈영 나 조선말 골으민 알아들어するね, 그 사름도. あ、あ、こちの. 우리 시누이영 동세네영 그디 아무집이 兄弟や、ゆったらみんなちゃんと 그 ᄉᆞ방에서 みんな 아난 あ、ツルのとこの姉ちゃんや. 멀리 아니 가난 조선이찌방 ᄉᆞ방에선 일도 아무 디라도 이녁냥으로 ᄎᆞ앙 가곡な. 경허난 そんななにはなかった. 게난 게도 いま なに 헹 살아보난 苦労 허멍 아무도 엇어도 이녁 고향ᄀᆞ트민 영 ᄆᆞ음대로 허주만은 이디선 ᄆᆞ음대로 못 헐로구나 그런 건 엇어. 그땐 오난 한국 사름덜 たのもしが 널어져시야ろう. 경 안 허민 うちら どうやって金かりるの.金かりるどこがありへんや. 난, 우리 등록 엇인 사름이 하난 난 등록 엇어불고 들여주지도 안 허고. 경허난 아는 어른이 걱정 말라. 영 영 헤 たのもし 나허고

순배엔 헌 어른 둘이 경헌 사름이 잇어낫어. 경허민 그 어른허고 나허고 헨 たのもし 들엉 나 흔 번 놧저. 이디 흔 번 놓난 두 번차 놀 거여. 느 놩, 놧당 어디 강 씨라. 느 놓민 나 ᄂᆞ려와 주마. 흔 멧 번 놩 허당 그거 ᄂᆞ려와 주민, 이제 따시 하나 들곡. 그걸로 씨곡. 일을 허영 보충해 가단 그거 ᄂᆞ류왕 물곡 따시 들곡 허난 돈에 걱정을 엇엇주 그때에. 경허난 그때 돈 헹 강 아이덜 굿도 헤준다. 할마님네 죽어부난 이제, 아니 허민 あかん이엔 헨 아이덜이영 굿 헌다 허멍 경 정 헹 돈도 쓰고.

굿은 어디, 여기서 굿을 헌 거? 한국 강 헌 거?

한국도 강 허고 이디서도 헷주게.

어디 용왕궁 강 헷수과, 집이서 헷수과?

그땐 집이선 못 허주만은 굿 헐 디가 하するね. *****な 문 경 굿 헐 場所があるね. 경 집덜 짓엉 문 돈 벌젠 みんな するね. 경헨 헷주만은 이젠 엇어. 이젠 문딱 그 집도 다 틀어불고 みんな きれいにして.

사꾸라노미야에?

사꾸라노미야 ない. いま きれいになってる.

게난 삼촌도 거기 강 굿 헤낫수과?

****렌 헌 디 그보단 더 멀리 더 간 디 좋게 집 짓어 놩 그디서덜 문 헤낫주게. 겐디 이젠 그런 디 ない. 헤난 디 집은 틀어불어도 ちいちゃい 막이 신 셍이라. 그디 갯거시 가는 사름덜 간, いま行ってるわ. 게고 난 경 헤가단 난 절에 간에, 절에 간에 むすばれてそこで 뭐 なんでも. おやも 식게도 못 허곡ᄂᆞᆫ 그날 돌아오민. 흔 덜에 흔 번, おひがんとかぼんとかお正月とか法事でも 돌아왕 못 허민 おさかげでそこ行って 허난 그런 거 뭐 心配일 안 헹 헷주게. 겨난 글후젠 원, 자네들 따문에 굿 허고 글후젠 헤 보도 안 허고 난 なんでもそこ行って 이녁냥으로 썽ᄂᆞᆫ. 영 영 헹 なに 헴수덴 허연. 허난 그런 거 헤 보지 안 헷주게. 경헹 허난 겐 ᄎᆞ ᄎᆞ ᄎᆞ ᄎᆞ 허연 이녁냥으로 살기도 좋곡. 가 갸 거도 わからへんや 한국선 아무 것도 안 허난. 이디 오란 야간 学校 가라, 가라 헨 야간 学校 간 히라가나 ᄒᆞ꼼 배와난 거뿐. なにも漢字は分からんけどひらがなは書くやんか.

얼마나 야간 학교를 다녓수과?

야간 학교 감은, 일허당 가믄 졸라왕 못 허곡 지쳥 못 허곡. 경허멍 헹 못 가곡. 何헌 뎅기는 건 흔 二年ぐらい 뎅겨したけど, 배우는 건 흔 석 덜ぐらい도 안 뎅견. 강 오민 밤 오래영 오민 강 時間ないから行かれへんしな. 경허멍 ᄒᆞ꼼. 일 노는 날은 것도 ᄒᆞ꼼 틀어보젠 베령 허믄 ひらかなはちょっと 알아져. 난 ひらかな베낀 모르난 가난 漢字分からん 헤불민 그것도 좋수다. 그거 보믄 읽읍서, 横に書いてます. 경허멍 허난 今のところは 첨 しあわせや. 나 곧주, 아, このごろ 돈 엇엉 허단

보민 末 뒈민 金, 돈 주곡 ま 이녁냥으로 なに 허난 배고프진 안 허영 なんとか 좋은 건 못 먹어도な.

게난 신촌 이실 때는 낭 짇엉 밥 허고 헤나신디 여기 오난 어떵 밥 헹 먹엇어?

이디 오민게 電気かまあるやん.

그때부터 이십디가?

電気釜 잇주게. 글후제. 우리 온 후제 테레비도 엇어난디 글후제 낫주.

게난 처음 왔을 때부터 電気釜에 밥 헹 먹어젼?

あった、釜はあった. 체얌은 집 빌엉 살 땐 あの 가스で、가스で 영헤영 정지에서 밥, 냄비에 밥 헹 먹엇주게. 겟주만은 それからは.

간데기 안 쓰고?

간데기 안 쓰고.

게민 이미 간데기 안 쓸 때 온 거구나.

경헨 간데기, 간데기 쓰는 건 불 살롱 무시거 궝이나 먹젠 허믄 허주. 영 솟으로 그냥 허당 글후제덜 みんな 電気釜 헤 간다, 뭐 정지도 문 튿어 고친다 헨 いまそんなないんちがう.

겐 여기 오난 곤밥 먹어집디가?

사름덜 다 먹으난 곤밥은 먹엇주게. 하하하.

제주에선 곤밥 못 먹은 거 아니?

게도 제줏밥이 맛잇어. 좁쏠에 보리쏠에 서껑 밥 허민. 우리집이 아덜 말 아니라도 うちら 할마님 산 때, 아바님이영 서이 새끼 살앗주. 경헤도 못 살암젠 헤도 밥도 굶어보지 안 허고 놈의 집의 쏠 얻으레 가 본 도래 엇고 농서허영 이녁 먹을 만인 헹 사난な.

게난 여기 오난 처음 つるはし 도착허난 그때서부턴 시누이 집이서 메칠 산 거?

そうそう, 시누이 집이 살고. 눔은 시누이네 집이 눕고 동세네 집이서 일허고.

며칠이나?

흔 둘포. 둘포 더 살아실 거라 시누이네 집이. 우린 어디 강 일을 어떵 헤사헐 걸 헤영 일을 봉그레 뎅견. 일을 봉가사 첨 なに 헐 거 아니라게. 게난 일 허는 디 강 영 허는 것도 보고. 집 빌언 영 방 たたみ 두 에새끼 눌 디 비난 시누이가 헤주는 거 보난 더끄던 이불 하나 허고 장물 흔 펭 くれたわ. 쏠 푸는 집인 느냥으로 쏠랑 그디서 상 먹으렌. 경허난 그 장물로 쏠 이녁냥으로 그디서 돈 얼마 주멍 밥 헹 먹읍센 허난, 사발 두 개에 숟가락 두 개에 냄비 하나 くらた. 게난 그걸로 어떵 어떵 헹 살멍 이녁 일허멍 하나썩 사 놘 살앗주게.

게민 맨 처음 헌 일은 뭐라?

처음 그거 レインコート 허는 일 허단 설러뒨.

레인코트가 제일 먼저 헌 일?

으, 그거 허단 이젠 그건 발 믄 문작문작 가죽이 다 벗어지고 なに 헤 가난 あ、これ危ないな 헨 일을 츶앗주게. 일을 츶안.

그 레인코트 일은 얼마나 헌 거?

그 일은 흔 덜도 안 헷주. 게난 이제 はり허는 딜 츶안な. 하린 ならい 헤 가민 헤집니다 허난 또 강 헤봅서, 헤봅서 헤도 체얌은 그 냄샐 맡아가믄 막 あだま가 히여뜩 헹 막 めまい가. 겐 何回 허단도 그거 なれる 헤가난 そうでもないね. 이젠 なれたから 넘어가믄 어디로, 아, 이디 어디 하리 허는 디 잇구나 のり 내 나민 알아져するね. 게난 거 なれたら ひるもパンもそれしたやんか. 견디 あの 저 조선이찌방에 미야모또엔 헌 어른네 집이 그디서 첨 仕事 마지막まで. 이디서 저디서 일본 사름네 집이서 허단 그딘 しんどいし 일도 허젠 허난な 일 안 헤영은 못 살고 어떵 헙니까 허난 에이구 줌줌허영 우리집이 옵서. 신촌 어른이야 그 미야모토도. 우리 집이 옵서, 옵서 헨 그디 강 허난.

일본 사름 집이선 얼마나 일 헷어?

게난 흔 밧디서만 안 허난게. 이디 저디 뎅기멍 허곡. 경헨 헤가난 ひまなってくるね. ひまなって 일이 엇이난, 아이고 일 엇언 놀암수다게 허난. 아이고 놀지 말앙 이디 오랑 しあげ라도 헙서, 이디 옵서, 옵서 헨 그딘 가난 그 집서 十五年間 일 헷어.

미야모토렌 헌 집이서?

으, 그디서 허단 하르방 죽어부난 일 못 헨 똘이 일허게 뒈난 수정이 읏라 개난 흔 사람이라고 덜어산덴. 경헤야 일허는 사름도 받아 먹을 거 아니가 헨, 문 허믄 어떵 허느냐 헨 やめたんや. やめたら 또 흔 아이 やめ헤부난. おばさんやめ 헤불민 어떵 헙니까 왕 또시 헤줍서. 헨 또시 그디 강 헨 十五年ぐらい 헨 어멍도 죽어불고 가이도 일 설러부난 우리도 일 설러불엇주.

게민 그 집이서만 한 삼십 년 헌 거?

으 으, 十五年間 그디서 허고 그 전인 이디 저디 헷주게. あの 일본 칩이 일본 사름네 허는 会社에서도 흔, 그 집이서도 흔 삼 년 허단 그 사름네 먼 디, 저 다시마 넘어간 디 가부난 とおいからそこは行けへんゆって、近くで 어디 일 헷주. 흔 밧디서만 아니 헨. 경허고 十五年 헌 건 미야모토のとこ 그디서 奥さん 죽어불고 嫁さん 죽어부난. 그때도 아져 오켄, 허켄만 허믄 아져 오켄 헤도 어멍도 엇고 가이도 어멍신 때 밥도 헤주고 무시거 허주만은 어멍 엇어부난 이제 나도 못 허쿠덴 헨 가이도 설러불고. 경헤도 글후제도 아져 오랑 흐꼼썩은 헴수다. 왕 헙서 허권데, 에에, 이젠 일 안 허켜. 나가 그때 아판 못 헨에. 아판 못 헨.

어디, 어디 아판? 무릅 아판?

하간 디, 아판 앚지 못 허영. 무럽은 아프는 거 이제사 아판. 이제사 아팜주만은 그

땐 몸이 よわい 허연게. 첨, 일 못 헤영 헤가난 教会で 일본 사름이 おばあさん、いくつですか.何ですの? 年とったらえいことあります、なにがそんなえいことありますのゆったら、あの六十すぎた人はこうこうして金もらうようになってるから、おばあさん仕事するのみたらかわいそうだから.としでしょう?ゆったら、年ですね、いま七十近くなってますね. ゆったら. 年、六十八でもらった.

뭐를? 민생을?

으, 国でくれる 민생もらった. 그때는 뭐 신청 안 헤도 となりで 누게 としよりや、しんどい 헹 못 허는 사름, 병 としよりで 헌 사름은 やる、ゆったから. 신청헹 놔 둡서, 헹 놔 두믄 뒐 거우다 허난, たのみますわ 헨 なまえ 헤 간 게 서넉덜 후에 이시난. 경 정 헤영 일 안 헤영 그것에 어떵 어떵 살앙 왓주게.

게난 일은 비니루랑 하리꼬밖에 안 헷다예?

하리꼬베낀 안 헷주. 비니룬 그건 ᄒᆞ꼼. 다른 일은 엇주. 일은 점점 ひま 낭 엇어부엇고.

하리꼬는 다 놈의 집 강 헌 거예?

경허단 しばらくマトメ허연. 양복 マトメ. 이젠 ぜんぜんないね.

그건 언제 헌 거라?

그건 중간에서 しんどい 헤 가난 그것도 허민 부지런히 것도 허민な 이녁 먹을 건 じゅうぶんなるね. 경허멍 그거 허멍 まとめ ᄒᆞᆫ 삼 년 헤시카.

하리꼬 허단 중간에?

으, 놀아도 그거 ᄒᆞ꼼썩, ᄒᆞ꼼썩 허멍 なれる 헤영 허난 그거 허영. 하~ まとめ도 하영 헤져실 거라.

돈 젤 하영 뒌 거는 하리꼬엿구나?

으, 하리꼬, 하리꼬.

게민 처음에 헐 때는 많이 못 벌엇주만은 잘 벌어질 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엇수과?

야, 것도 ひとによるや. 하영 허는 사름 족영 허는 사름, 저 予算はできへんから, 잘 허믄 ᄒᆞᆫ 이백 배, 이백 배ぐらい. 하영 헤사 ᄒᆞᆫ 五十ぐらい 더 허고 허난 そんな ᄒᆞᆫ 엇이 하지 안 허여.

게민 삼촌은 많이 허는 편이랏수과, 아니면 얼마 못 허는 편이랏수과?

많이 못 허고 그자 ᄒᆞᆫ 십만 원 あまり. ᄒᆞ는 사름덜은 막 밤낮 아니 헹 허믄 三十万、三十万、二十万 허는 사름도. 하여 헤사 十五万ぐらい はじめは 헤가단. 뭐 아무걸 헤도 십만원 우엔 헷주게. 십만원ぐらい 허민 그걸로 우린 집이 엇이난 家賃払うし, 그때 점점 家賃が高いから家賃払うし 아의덜 오고 가는 거여, 무시거여 헹 헤도. やっぱり 이딘 살아가믄 돈도 엇이믄 なにやから. 쏠값이라도, 반찬도 엇이믄

곤밥은 반찬 엇이믄 밥 맛 엇어.
아까 다노모시를 헤나신디 다노모시는 어떵 허는 것과?
다노모시는 오야 허영 なんにんか 集まって 十人이민 十人、二十人이민 二十人 一番上が三十人이야.
젤 많은 게 삼십 명?
으.
더 많으면 안 뒈여?
으, 많은 게 삼십 명. 二十五人がままや. 경허영 그것에 오만 원짜리민 오만 원짜리 あろう. 삼만 원짜리 허는 사름 이만 원짜리 허는 사름.
으.
その時は 만 원짜리はなかった.
아.
겐 이만 원짜리민 じゅうにん이민 이십만 원 なるやろう.
으.
게난 二十人したら 마지막 타는 사름은 하주게. 게민 마지막まで 허민 그것에 벤리 부뜨곡 허민 흔 二十五万ぐらい なるわな. 경허민 それで 헤 가멍 또시 놔 가멍 허영 おや 먹는 건 べつに 엇주게. 그 다노모시も 이마 ないね.
지금 안 헙니까?
문 먹은 사름덜, 먹은 사름은 자빠져불고. 탕 북북 그때 씨영.
게민 다노모시가 지금은 엇어져신디 언제 정도까지 헤낫수과?
음, 뭐 이거 멧 해 뒛고 덜 먹엉 자빠졍덜 그냥 自殺 허는 사름.
에, 자살?
돈 하믄게. 돈이 오만 원 헤가민 다노모시가 おおきいやんか. 三十人で 오만 원 헤가민 흔.
백오십만 원.
백오십만 원 どころじゃないわ.
한 번 돈 다 내면 백오십만 원. 한달에.
게민 삼촌이 여기 왕 등록을 만든 게 언제과?
등록은 흔 二十年 あと 멘들아した. 来て.
그럼 서른 살에 와시난 오십 뒈사 만든 거?
いや、三十에 ここ 来て 四十なんぼぐらいもらってると思うわ.
이십 년까진 안 뒈신 게 그럼예?
이십 년くらい 뒈서. 뒌 もらい 헤서.
그럼 여기 왕 쓰카께, 하리꼬 일 허멍 몇 년만에 결혼을 헌 것과?

결혼은 友だちみたいに仕事しながらなんとかかんとか 어떵허민 졸(좋을) 거고 헐 때에 흑생덜 みんな 가는 거 あったやんか. あの北朝鮮. 来てみたら朝鮮 가젠 막 출린 사름. 집도 비엉 짐 싸고이.

아, 그니까 조선 가자고 하는 게 북송 얘기허는 거?

북선.

그 시기에?

うちが来た時や.

그니까 육십 년도에 와시난 그때 막 그디 가젠 허는 사름이 많안?

한. 막 천지란게. うちも子供つれて行ったら 그디 가민 집도 주고 아으도 공부도 시켜주곡 일도 그디서 나왕 허곡 허난 みんな 가렌 허는 사름이 多かったわ. そうだけどうちら、うちのお父さんはうち一人だけだし、うち 북선 いったらみんな殺してしまうからうちは行けへん言って. 우리 시누이덜토 みんな 민단やから行くの反対やし.

으.

경헨 아니간. 우리 시집 사름도 ᄉᆞ춘 시아주방, 큰시아방 아들네 너으 새끼가 갓어. 헤 뒁 편지도 아니 오고 죽어신디 살아신디 わからん.

게난 그 시기에 삼촌 오자마자 옆에서덜 막 북송 가렌 부추겼구나?

막 헹 그때덜 하영 갓어.

삼촌이 아는 사름 아까 사춘 시아주방에 말고 누게네 잇어낫수과?

近所の人いっぱいいた. 우리집이 아덜 ᄒᆞᆫ디 공부허던 아의덜토 문 가부난 우리 집이 아덜 一番好きな子あったのにその子行ってしもった言うから、そうか.

음.

멧 년 나시니 이제? それから 이거 ᄒᆞᆫ 二十年 넘어나난 年가 간 사름은 죽어 불언 엇어게. 그때 간 사름덜 엇어.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김 보 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학연구 44

재일제주인 1세 구술 생애사 연구

발행인 ‖ 강 기 춘
발행일 ‖ 2017년 10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47-6138 팩스: (064)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경신인쇄사

ISBN : 978-89-6010-554-6 9309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